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3 권

제 1 장　호접곡의 비화(秘話)

기인기사(奇人奇事)라는 말이 있듯이 괴팍한 사람만이 괴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모양이다.

호청우도 괴팍한 사람임에 분명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장무기에게 허리를 깊숙이 꺾어 읍을 했다.

"장형제,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부득이 자네에게 무례를 저질렀으니 제발 너그러운 아량으로 용서해 주게."

장무기는 조롱을 당하는 듯한 기분에 분연히 말했다.

"난 도깨비한테 홀린 기분입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호청우는 난데없이 자신의 뺨을 철썩철썩 갈겼다.

"장형제, 자네는 나의 생명을 구해 준 은인이네. 난 아내의 안위가 염려되어 조금 전에 자네에게 몹쓸 짓을 한 걸세."

장무기는 절로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럼..... 이 여인이 호 선생님의 부인이란 말입니까?"

호청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 만약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으면 다시 내 뺨을 때리게. 아니면 내가 자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겠네. 자네가 날 구해 준 것은 별게 아니지만 집사람의 생명까지 자네가 구해 준 걸세."

호청우는평상시 매우 근엄했다. 그가 스스로 뺨을 때린다는 것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장무기는 그가 진정으로 자기에게 사과를 하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이 여인이 그의 아내

라는 것을 알자 끓어올랐던 분노가 봄눈 녹듯 사라졌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뭣을 숨기겠는가? 집사람의 성을 왕(王)이며 이름은 난고(難姑)라고 하네. 우린 같은 스승 밑에서 무공을 배운 동문이라네. 나는 스승님으로부터 무공 이외에 의술을 배웠지만, 집사람은 독술을 배웠지. 그녀의 말을 빌리면, 무공을 배운다는 것은 살인을 하기 위함이므로 독술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네. 오히려 독술을 상당한 경지로 터득하면 그 용도가 무공을 능가한다고 했네. 의술은 병을 치료해 사람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 만치 무공에는 위배된다는 걸세. 난 집사람의 심오한 이론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지. 그녀의 생각이 나보다 열 배는 더 깊다는 걸 솔직히 시인하네. 하지만 난 워낙 의술에 대해 깊은 흥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네.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녀의 진심어린 충고를 거역한 게 후회스럽기만 하네....."

호청우의 말은 계속이어졌다.

"우리 두 사람은 비록 제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서로 깊이 사랑했네. 스승님께서도 우리가 결합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린 순조롭게 부부가 될 수 있었네. 나중에 우린 강호로 나와 각자 명성을 얻게 되었지. 나를 의선이라 일컫는 사람이 있듯이 집사람을 독선(毒仙)이라 칭했네. 그녀의 독술이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했네. 그녀는 자신의 독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만성적인 독약을 복용시켰네. 중독된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 치료를 의뢰했지. 그런데 난 어리석게도 그들의 독을 치료해 주었네. 그것이 아내에 대한 불충이라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득의양양했으니, 나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 세상 천지에 또 있겠는가?"

기효부와 장무기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내심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호청우는 자신의 괴론을 다시 펴나갔다.

"그녀는 늘 나에게 온순했으며 정감이 두터웠네. 이 세상에 그녀보다 더 좋은 여잔 또 없을 걸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거듭하여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네 그녀에게 중독된 사람을 계속 치료해 주었으니 말일세. 나중에 난 내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독을 당한 사람이라면 절대 치료해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네. 세월이 흐르자 난 자연히 <견사불구>라는 외호가 생기게 되었지....."

호청우의 괴론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다.

"아내는 내가 과오를 뉘우치자 그 동안 속상했던 일을 잊고 날 용서해 주었네. 그런데 개과천선한 지 몇 해가 되지 않아 아주 해괴한 독을 당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네. 그 증상으로 미루어 아내의 짓이라는 걸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네. 치료를거부하기로 작심했네. 그러나 증상이 워낙 특출하여 손을 써보고 싶은 짜릿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네. 결국 며칠 동안 이를 악물고 참은 보람도 없이 그만 자제력을 잃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그 자를 완치시켜 주었네....."

여기까지 들은 장무기는 혀를 내둘렀다.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기였다.

호청우는 표정마저 울적하게 변해 말을 계속했다.

"그 일로 인해 아내는 심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훌쩍 호접곡을 떠나고 말았네. 나는 그녀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백배사죄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네. 그러나 병을 치료하는 게 유일한 취미인지라 그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괴질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손을 써야만 했네. 내가 치료해 준 사람들 중에는 아내의 작품도 섞여 있었네. 단지 그녀의 수법이 갈수록 절묘해져 난 쉽게 알아내지

못한 채 치료를 해 준걸세. 그러니 갈수록 우리 부부의 정이 멀어질 수 밖에....."

여기까지 말한 호청우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내를 마음 상하게 하여 끝내 집을 떠나도록 만들었으니, 나보다 더 나쁜 남편이 또 어디 있겠는가? 강호는 험악한 곳인데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혹시나 누구한테 해를 입지나 않을까, 그 동안 얼마나 염려를 했는지 하늘만이 내 마음을 알 걸세."

기효부는 침상에 누워 있는 왕난고를 힐끗 쳐다보고 나서 내심 중얼거렸다.

'이 호 부인이 독선이라 일컬어질 만큼 독술이 뛰어났는데, 누가 감히 그녀를 해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그녀가 남을 해치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녀 역시 장무기와 마찬가지로 어처구니가 없었고, 우습기까지 했다.

호청우는 줄기차게 말을 이어갔다.

"결국 난 명교의 사람이 아니면 치료를 해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기에 이른 걸세. 아내가 심혈을 기울여 창출한 걸작품을 파괴하는 따위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굳은 신념에서 비롯된 맹세였지. 우리 부부는 모두 명교의 제자이므로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명교 제자를 시험물로 삼지 않기 때문일세."

기효부와 장무기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똑같은 생각을 했다.

'그래서 명교의 제자가 아니면 치료를 해 주지 않으려고 했군.'

호청우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아랑곳 않고 말을 계속했다.

"칠 년 전에 한 쌍의 노부부가 극독을 당해 나를 찾아왔네. 그들은 동해 영사도(靈蛇島)의 주인인 금화파파와 은엽선생(銀葉先生)이었네. 그들은 예의를 갖추어 나를 깎듯이 대했네. 그러면서도 금화파파는 은근히 한 가지 절세무공을 보여 주었네. 나는 그

녀의 무공에 질려 감히 치료를 거부할 수 없었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과거의 죄악을 씻고 개과천선한 몸이 어찌 재범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일단 그들의 맥을 짚어보고 나서, 노도주는 워낙 독이 심해 구제할 약이 없지만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이며, 노부인은독증이 깊지 않아 자신의 심후한 내력으로 스스로 독을 배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네."

장무기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들도 호 부인에게 독을 당한 겁니까?"

"아닐세. 서역의 한 벙어리 두타에게 당했다고 하더군. 물론 아내와는 상관없지만 명교의 제자가 아니니 내 어찌 자신의 맹세를 헌신짝처럼 저버릴 수가 있겠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난 그 맹세를 지켜야만 했네. 그들 부부는 나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전개하지 않고 암담한 표정으로 돌아갔네. 나는 그와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겪었네. 그 바람에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네.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가 금이 가서야 되겠나? 자네도 아마 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걸세."

기효부와 장무기는 모두 침묵을 지켰다. 호청우의 이런 견사불구의 주장을 찬성할 수 없었다.

호청우가 다시 말했다.

"최근 아내는 은엽선생이 드디어 독이 발작돼 죽고 금화파파가 화풀이를 하기 위해 날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를 돕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걸세. 이것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날 생각해 주는지 이해가 가고도 남을 걸세. 그녀는 집에 생소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암암리에 미약을 풀어 무기를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든 걸세."

장무기는 비로소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 이튿날 오후에서야 깨어난 이유를 알게 되었다.

호청우의 말은 계속되었다. 아내가 돌아오자 그는 하늘이라도 날을 듯이 기뻤다. 왕난고는 그에게 천연두에 감염된 것으로 위장하라고 했다. 함께 방에 틀어 박혀 강적을 상대할 궁리에 몰두하기 위함이었다.

그 며칠 후에 설공원과 기효부 등이 연이어 왔다. 호청우는 그들의 상세에서 금화파파가 자기를 시험해 보려 한다는 속셈을 이내 알아차렸다. 과연 맹세했던 대로 명교의 제자가 아니면 치료를 해 주지 않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호청우는 제각기 다른 열 다섯 가지 괴질에 대해 상당히 구미가 당겼으나, 감히 시술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장무기가 치료 방법을 물어오자, 그는 무당제자로서 자기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 연후에 비로소 치료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한데, 왕난고는 그의 치료법이 효과를 거두자 내심 못마땅하게 느껴져, 매일밤 각자의 음식에 독약을 풀었다. 호청우와 계속 시합을 해보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론 호청우에 대한 호의이기도 했다. 장무기가 만약 그들을 모두 완치시킨다면 금화파파가 그 책임을 호청우엑 돌릴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장무기가 기효부의 움막으로 가서 어깨를 흔들어야만 그녀가 깨어났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왕난고는 기효부의 병세가 갈수록 호전되는 것을 보자 처음엔 자신의 독술을 의심하게 되었지만, 곧 장무기의 소행임을 알아냈다. 그러자 왕난고는 장무기에게 독수를 전개하기로 작심했다. 호청우는 아예 상관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어젯밤 무기가 자기를 찾아와 멀리 피신하라고 권유하는 바람에 그의 갸륵한 마음에 감동되어 별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약방문을 말해준 것이다. 당시 왕난고가 바로 곁에 있어 직접적인 말을 할 수 업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난고는 영특한데다가 약성에 대해 전혀 모르지 않으므로, 그 약방문에 숨겨진 진의를 알아차렸다. 그

녀는 심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호청우를 밧줄로 묶고 스스로 몇 가지 독물을 복용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보, 당신과 나는 부부가 된지 이십 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아직까지도 나의 목숨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군요. 내가 무슨 독을 전개해도 늘 그 독을 풀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 스스로 극독을 복용했어요. 당신이 정말 내가 복용한 독까지 완치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독을 전개하지 않겠어요."

호청우는 이 말에 혼비백산하여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했다. 그러자 왕난고는 그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입에 자갈을 물린 것이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바로 장무기와 기효부가 직접 겪은 것들이었다.

기효부와 장무기는 호청우의 말을 듣고 나자, 부화가 치밀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했다. 호청우가 아내에 대해 병적으로 편파적인 사랑을 품고 있다는 건 그런 대로 이해가 가지만, 왕난고가 남편의 콧대를 꺾기 위해 자신을 시험물로 삼아 스스로 극독을 복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호청우가 다시 말했다.

"자네도 생각해 보게. 내 무슨 도리가 있겠나? 이번에도 내가 심혈을 기울여 그녀를 완치한다면 내 솜씨가 그녀를 능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 그녀가 평생을 두고 우울해 할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테고....."

그는 장탄식을 했다.

"난 단지 금화파파가 빨리 나타나 날 죽여 주길 바랄 뿐이네. 그러면 영원히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 말일세. 게다가 근래에 이르러 그녀의 독술은 눈부신 발전이 있어, 난 도저히 그 독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네."

"호 선생님의 의술은 신기라 일컬어지는데도 사모님께서 무슨

둑을 복용했는지 알아내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녀의 독술을 이제 나의 의술을 훨씬 능가하네. 난 머리가 깨진다 해도 이젠 그 치료 방법을 생각해 낼 재간이 없네. 내 추측으론 세 가지 독충과 세 가지 독초를 섞어서 복용한 것 같은데, 그 여섯 가지 독물을 어떻게 배합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네."

호청우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탁자에다 약방문을 적었다. 이어 손을 내두르며 힘주어 말했다.

"이젠 나가 주게. 만약 아내가 죽으면 나도 혼자 살아남진 않을 걸세."

기효부와 장무기는 입을 모아 진지하게 말했다.

"부디 경솔한 생각 마시고, 사모님이 생각을 달리 하게끔 잘 설득해 보십시오."

"이젠 소용없을 걸세.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걸세."

여기까지 말한 호청우는 그만 목이 메이는 듯 울음을 터뜨렸다. 기효부와 장무기는 곧 물러났다.

호청우는 우선 아내의 등과 허리 부위의 혈도를 찍었다.

"여보, 내가 무능해 도저히 당신의 독을 치료할 수 없으니, 저승에서나마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함께 이승을 떠나겠소."

그는 곧 왕난고의 품속을 뒤져 몇 봉지의 가루약을 꺼냈다. 과연 그가 예측했던 대로 세 가지 독충과 세 가지 독초를 배합해 만든 독약이 있었다.

왕난고는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말은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여보! 독을 복용하면 안 돼요!"

호청우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오색찬란한 독가루를 모조리 입안에 털어넣었다.

왕난고는 대경실색했다.

"그렇게 많이 복용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분량이면 세 사람을 독살하고도 남는단 말예요!"

호청우는 담담하게 웃으며 의자를 끌어당겨 침상밑에 앉았다. 삽시간에 예리한 비수로 오장육부를 난도질하듯 극심한 통증이 엄습해 왔다. 이것은 여섯 가지 독물 중에 단장초(斷腸草)가 가장 먼저 발작한 것임을 호청우는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곧 나머지 다섯 가지 독물도 연달아 발작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었다.

왕난고는 안타깝게 소리쳤다.

"여보! 그 여섯 가지 독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호청우는 사시나무 떨 듯 떨었다.

"나.....난 믿을 수 없소. 이제 곧..... 죽게 될 것이오."

"여보! 어서 우황혈갈단(牛黃血竭丹)과 옥룡소합산(玉龍蘇合散)을 복용하고, 침술로서 독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세요!"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제가 복용한 독은 소량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당신은 너무 많이 복용해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죽게 될 거예요."

"난 성심 성의껏 당신을 위해 살아왔는데, 당신은 한사코 호승심을 앞세워 나하고 우열을 겨루려 하니 이젠 사는 게 무의미해졌소. 차라리 죽는 게..... 아이구..... 악!"

그는 신음에 이어 비명을 내질렀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흡사 수백 마리의 독충이 오장육부를 갉아먹는 것 같아 정신이 차츰 흐릿해지더니 끝내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다.

왕난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은 절대 죽으면 안돼요! 다시는..... 다시는 당신과 겨루지 않겠어요!"

그들 부부는 비록 이십 년 동안 암투를 벌여 왔지만 정감만은 어느 부부 못지 않게 두터웠다. 왕난고는 남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를 살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오히려 남편의 죽음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혈도가 찍혀 꼼짝할 수 없는 그녀로선 당황하여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장무기는 왕난고의 울음소리를 듣고 얼른 방 안으로 뛰쳐 들어왔다.

"사모님, 사부님을 구할 방도가 있겠습니까?"

왕난고는 그를 보자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기뻐했다.

"어서 우황혈갈단과 옥룡소합산을 복용시키고, 금침으로 용천혈과 구미혈을....."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갑자기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한 야밤에 난데없이 들려온 기침소리는 으시시한 느낌마저 들었다. 순간 기효부가 뛰쳐들어와 백지장처럼 창백한 안색으로 말했다.

"금화파파가.....!"

순간, 한 줄기의 미풍이 이는 듯 싶더니 등이 구부정한 노파가 열 두세 살 가량의 소녀를 데리고 방 안에 나타났다. 그 노파가 바로 금화파파였다. 금화파파는 호청우가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안색이 거무스름하게 변색된 것을 보자 그가 곧 죽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절로 멍해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호청우는 사지가 축 늘어지며 눈을 허옇게 까뒤집었다.

왕난고는 통곡을 했다.

"여보! 이렇게 죽으면 저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금화파파가 이번에 영사도에서 중원으로 들어온 것은, 남편을 죽게 한 원흉을 수소문하는 일 외에 호청우를 찾아와 화풀이를

하기 위함이었다. 한데 호청우가 극독을 복용할 줄이야! 금화파파도 독에 관한 일가견을 갖고 있는지라 호청우와 왕난고의 안색에서 독성이 이미 깊어져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걸 단숨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호청우가 자기를 두려워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독을 복용한 것이라 간주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수단을 전개할 수 없어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자업자득이군! 자업자득이야.....!"

그녀는 소녀의 손을 잡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방문을 나서자마자 그녀의 기침소리가 십여 장 밖에서 들려왔다. 그 빠른 신법은 정말 불가사의했다.

장무기는 황급히 호청우의 심장에 손을 얹었다. 미약하게나마 심장이 아직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우황혈갈단과 옥룡소합산을 복용시키고 용천혈과 구미혈에 금침을 놓았다. 이어 왕난고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해 나갔다.

반 시간 가량이 지나자 호청우는 간신히 깨어났다. 왕난고는 기쁨으로 인해 다시 눈물을 흘렸다.

"장형제, 자네 덕분에 우리 두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네."

이어 장무기는 약방문을 적어 약동으로 하여금 탕약을 달여 두 사람에게 복용시켰다. 왕난고의 해독 방법은 신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방법에만 의존했다면 독을 말끔하게 제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장무기는 오늘 일이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 금화파파는 호 선생이 이미 독을 복용해 죽은 걸로 알고 있으니, 한 가지 큰 우환을 덜게 된 셈이군요."

금화파파의 유령 같은 신법을 생각하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왕난고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금화파파는 오늘 순순히 떠났지만 나중에 틀림없이 진상을 알게 될 걸세. 우리 부부는 즉시 떠날 테니, 수고스럽지만 무덤을 두 개 세워 묘비에 우리 부부의 이름을 새겨 주게."

장무기는 그녀의 청을 승락했다. 왕난고는 곧 짐을 챙겼다. 약동 두 명에게는 제각기 은자를 나누어 주어 고향으로 돌려보내고는, 나귀가 끄는 수레에 휘장을 두르고 부부는 야밤을 틈타 호접곡을빠져 나갔다. 장무기는 그들을 골짜기 밖까지 전송해 주었다. 그들은 이 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막상 헤어지게 되자 아쉬움이 앞섰다. 호청우는 자기가 직접 지은 의서를 꺼내 장무기에게 내주었다.

"무기, 내가 평생 동안 심혈을 기울인 의학이 여기에 수록돼 있네. 예전엔 이 책만큼은 자네에게 보여 주지 않았네. 이젠 자네에게 주겠네. 자네가 당한 현명패천장의 음독을 제거해 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네. 자네가 이 의서를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그 음독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길 바라네. 그럼 우린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을 걸세."

장무기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의서를 받았다. 이번에는 왕난고가 입을 열었다.

"자네는 우리 부부의 생명을 구해 주었고 또한 화해를 시켜줬으니, 뭘로 보답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독공을 전수해 주고도 싶지만, 자네가 배워도 쓸모없는 것들이니 아무튼 하루 속히 완쾌되길 바랄 뿐이네."

장무기는 그들을 태운 수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돌아왔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 초옥 앞에는 두 개의 무덤이 새워졌다. 장무기는 골짜기 밖으로나가 비석 두 개를 만들어 왔다.

----- 접곡의선호선생지묘

----- 호부인왕씨지묘

설공원 등은 내막을 몰라, 호청우 부부가 죽음을 같이한 걸로 알고 모두 탄식을 했다.
왕난고가 떠나가자 더 이상 암암리에 독을 전개하는 자가 없었다. 각자의 병세는 장무기의 치료로 날이 갈수록 호전되어 열흘도 채 못 되어 모두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떠나갔다. 기효부 모녀는 뚜렷이 갈 곳이 없어 골짜기에 남아 장무기를 도와주었다.
장무기는 틈 나는 대로 호청우가 중 의서를 탐독했다. 그 내용은 과연 방대하고 심오해의선의 걸작다왔다. 불과 열흘정도 읽었는데도 의술에 커다란 진전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체내에 응결돼 있는 음독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눈꼽만치의 단서도 찾아 낼 수 없었다. 그는 거듭하여 정독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치료 방법이 있었다면 호 선생이 왜 나를 치료해 주지 않았겠는가? 그도 치료 방법을 모르는데 그가 지은 의서에 그 방법이 있을 리 만무하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마지막 한가닥 희망은 물거품으로 변했다. 그는 의서를 덮어놓고 밖으로 나가 두 개의 가묘를 우두커니 쳐다보며 장탄식과 함께 울적한 심정에 빠졌다.
'나도 머지않아 땅 속에 묻히게 되겠지. 내 묘비에는 어떠한 글을 새겨야 할는지.....'
바로 이때 등 뒤에서 홀연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장무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금화파파가 그 예쁘장한 계집애를 데리고 곧 쓰러질 듯 위태스러운 모습으로 몇 장 밖에 서 있었다.
금화파파가 대뜸 그에게 물었다.
"꼬마야, 넌 호청우와 어떤 관계나? 무엇 때문에 그곳에서 한숨을 쉬고 있느냐?"
장무기는 구태여 숨길 필요가 없었다.
"저는 현명패천장에 당해 그 음독이....."

여기까지 말했을 때, 금화파파는 바람처럼 다가와 그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 보았다.

"현명패천장이라고? 세상에 정말 그런 장력이 있단 말이냐? 누구에게 당했느냐?"

"몽고 병사로 변장한 사람인데 정체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호 선생에게 병을 치료받으러 왔지만 명교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앞으로 저의 증세는 더욱 치료받을 길이 없어져 우울함에 젖어 있는 겁니다."

금화파파는 그가 영준하고 똑똑하게 생긴 것을 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애통한 일이군. 아까와....."

장무기는 남에게 동정받는 것은 원치 않아 앙연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땅속에 묻힐 것이며 그것이 이르고 늦는 차이뿐이죠!"

금화파파 앞에 서 있는 소녀는 죽음의 의미를 잘 모르는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장무기와 금화파파를 번갈아 쳐다 보았다.

금화파파는 남편의 죽음이 되살아나는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네 말이 맞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서 태어나 다시 죽음으로 귀속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살아 있는 것이 죽음보다는 아름답지 않겠느냐?"

장무기는 금화파파가 흉악하고 잔인한 인물로만 생각했었다. 전에는 언뜻 보아 얼굴이 온통 주름살로 얼룩지고 무표정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 그녀의 눈동자만은 소녀처럼 맑고 부드러움마저 담겨져 있었다.

"애야, 너의 아버님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시느냐?"

"저의 아버님은 성이 장이며 이름은 취자 산자로서, 무당파의 제자입니다."

그는 아버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네가 무당 장오협의 아들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그 악인이 현명패천장을 전개한 것도 너에게서 금모사왕과 도룡보도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함이었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는 온갖 혹형을 가했지만 저는 목숨을 걸고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구나?"

"네. 금모사왕은 저의 의부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방을 누설하지 않을 겁니다."

금화파파는 갑자기 그의 두 손을 움켜쥐었다. 그 즉시 장무기는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한 갈래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한기가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다. 이 한기는 현명패천장의 음독과 성질이 다르지만 역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금화파파의 음성이 유난히 부드럽게 변했다.

"애야, 너는 착한 애니까 나한테 사손의 행방을 솔직히 말해 주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음독을 제거해 줄 뿐 아니라 천하 무적의 무공도 전수해 주마."

장무기는 고통으로 인해 눈물과 콧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참았다.

"나의 부모님은 의부의 행방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 목숨까지 끊으셨는데, 내가 부모님의 그 귀중한 뜻을 저버릴 사람처럼 보입니까?"

금화파파는 빙긋이 웃었다.

"좋아! 네가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

그녀는 손에 힘을 주었다. 장무기는 비명대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차라리 내 귀에 수은을 붓고 독침, 독충 따위를 삼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사 년 전 내가 어린애였을 때도 온갖 악형에

굴복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겁장이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금화파파는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은 어린애가 아니고 어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냐? 하핫..... 하핫.....!"

그녀는 광소를 터뜨리며 장무기의 손목을 풀어 주었다. 장무기의 손은 이미 검붉게 변색돼 있었다.

예쁘장한 소녀가 얼른 장무기에게 눈짓을 하며 한 마디 던졌다.

"어서 파파에게 구명지은을 감사드려라."

장무기는 냉소를 날렸다.

"뭘 감사드리라는 거냐? 차라리 날 죽였다면 저승에 가서 고맙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소녀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토라진 음성으로 쏘아붙였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거들 떠 보지도 않을 거야!"

소녀는 정말 몸을 획 돌려 버렸다. 그러나 곁눈질로 다시 장무기의 표정을 살폈다.

금화파파는 입가에 담담한 미소를 띄우고 말했다.

"아리(阿離)야, 혼자서 섬에 있기가 심심하지? 이 꼬마 녀석을 잡아가 너의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단지 고집이 황소 같아서 걱정이구나."

소녀는 이내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좋아요.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파파께서 말을 듣게끔 혼을 내주면 되잖아요?"

장무기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다급해졌다. 금화파파가 당장 자기를 죽인다면 별문제지만, 만약 영사도로 잡혀 간다면 도저히 그 모욕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금화파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넌 날 따라와라! 우린 우선 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 일을

마무리짓는 즉시 영사도로 돌아가도록 하자꾸나."

장무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당신네들은 모두 나쁜 사람이오! 난 절대 따라가지 않겠소!"

금화파파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영사도에는 모든 것이 다 구비 돼 있다. 네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해줄 테니, 아무 생각 말고 순순히 날 따라오도록 해라."

장무기는 즉시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한 걸음을 내딛자 마자 금화파파가 이미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가 어느 방향으로 달아나도 번번이 앞이 막히는 건 마찬가지였다.

"얘야, 고집부리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자."

장무기는 이를 악물고 그녀를 향해 힘껏 일장을 뻗어냈다. 금화파파는 살짝 옆으로 피하며 그의 손을 향해 후! 하고 입김을 불어냈다. 그렇지 않아도 장무기는 손이 검붉게 변색돼 통증이 심했는데, 입김을 쐬자 손 전체가 산산 조각으로 갈라져 나가는 것 같아 펄쩍펄쩍 뛰었다.

양불회의 음성이 들려온 것은 바로 이때였다.

"무기 오빠,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효부가 그녀를 데리고 수풀 뒤에서 걸어나왔다. 그들은 산보를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다. 기효부는 금화파파를보자 질겁을 하며 이내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파파, 그 애를 괴롭히면 안 돼요!"

금화파파는 기효부를 한 차례 노려보더니 냉소를 쳤다.

"넌 아직도 죽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할 생각 말아라. 왜 오늘까지 죽지 않았는지 자세히 보고 싶으니 좀 더 가까이 오너라!"

기효부는 무림제자 출신으로 담력이 컸다. 그러나 어린 딸의 안위가 염려되어 경거망동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딸애의 손을 잡

고 도리어 뒤로 한 걸음 물러나 나직하게 외쳤다.
"무기야, 어서 이쪽으로 와라!"
장무기는 달아나려 했으나 아리라는 소녀가 잽싸게 그의 팔뚝 부위 삼양락(三陽絡)을 나꿔잡았다.
"달아나지 못할 거야. 너는 성은 장이고 이름은 무기라 하지?"
삼양락이 잡히자 장무기는 이내 반신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놀람과 함께 화가 치밀어 악을 쓰듯 소리쳤다.
"어서 이 손을 놓지 못하겠느냐?"
이때, 홀연 맑은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효부야, 왜 그렇게 겁이 많아졌느냐? 좀더 가까이 가 주려무나!"
기효부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어 경악과 기쁨이 엇갈려 몸을 돌리며 소리쳤다.
"스승님!"
그러나 등 뒤엔 아무도 없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유심히 살피니 비로소 회색 장포를 입은 여승이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바로 아미파의 장문인 멸절사태였다. 그녀 뒤에는 정민군과 패금의 두 제자가 따르고 있었다.
금화파파는 그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용모를 똑똑히 볼 수 없었지만 지척에서 들리는 듯한 음성으로 미루어 내력이 얼마나 심후한지 짐작이 갔다. 멸절사태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그녀를 모르는 자가 없었다. 하지만 좀처럼 하산을 하지 않으므로 그녀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녀가 가까이 걸어옴에 따라 용모가 확연히 드러났다. 나이는 사십 중반으로서 빼어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단지 눈썹끝이 비스듬히 아래로 처져, 염라부의 사자처럼 으시시한 느낌을 주었다.
기효부는 얼른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스승님, 그 동안 별고 없으셨습니까?"

멸절사태의 음성은 표정만큼이나 차가왔다.

"너 때문에 울화통이 터져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기효부는 무릎을 꿇은 채 감히 일어나지를 못했다. 정민군의 입가에 번진 냉소에서 스승님께 자기에 대해 얼마나 많은 비방을 했는지 짐작이 가므로, 절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멸절사태가 다시 냉랭하게 입을 열었다.

"저 노파가 네가 왜 아직도 죽지 않았는지 가까이서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니, 가까이 가보도록 해라."

"네."

기효부는 감히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몸을 일으켜 성큼성큼 금화파파 앞으로 걸어가 낭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금화파파, 나의 스승님께서 오셨으니 이젠 그 광태를 보리지 않는게 좋을 거예요!"

금화파파는 기침을 두어 번하고 나서 멸절사태를 노려보며 턱을 끄덕였다.

"음..... 당신이 바로 아미파의 장문인이군. 내가 당신의 제자를 때렸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오?"

멸절사태는 칼날처럼 잘라 말했다.

"그것 잘 됐군. 때리고 싶으면 더 때려도 좋소. 그를 죽인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오."

기효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스승님!"

하고 소리치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스승님이 평상시 제자에게만은 얼마나 편파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설령 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억지를 써서라도 옹호해 주곤 했다. 한데,스승님의 입에서 이렇게 매정한 말이 나올 줄이야! 자기를 제자로 생각하지 않는 게 분명했다.

금화파파는 고개를 내둘렀다.

"나는 아미파와 원한이 없으니 그녀를 한 번 때린 것으로 충분하오. 아리야, 이제 우리는 떠나자꾸나."

그녀는 곧 몸을 돌려 떠나려고 했다.

한편, 정민군은 금화파파의 내력을 모르고 있었다. 단지 병색이 완연한 할망구가 사부님께 무례한 언동을 하자, 혼을 내줄 심산으로 즉시 몸을 번뜩여 앞을 가로막았다.

"나의 사부님께 사죄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날 생각인가요?"

그녀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려는 듯 검을 절반 가량 뽑았다.

다음 순간, 금화파파는 질풍처럼 손을 뻗어 두 손가락으로 검집을 살짝 집더니 이내 놓으며 입가에 비웃음을 띠었다.

"그런 썩은 쇠붙이로 누굴 겁 줄 생각이냐?"

정민군은 화가 치밀어 즉시 검을 뽑으려 했다. 한데 그녀가 아무리 힘을 주어도 검이 뽑혀지지 않았다. 아리가 까르르 웃으며 한 마디 내뱉었다.

"썩은 쇠붙이가 아예 녹슬을 모양이군요."

금화파파가 검집을 살짝 집는 순간, 그 웅후한 내력으로 검과 검집이 서로 달라붙게 만든 것이다. 정민군은 검을 뽑을 수 없게 되자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매우 낭패스러워했다.

멸절사태가 보다못해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 세 개로 검집을 집자, 검집이 수박 쪼개지듯 두 쪽으로 갈라지며 검날이 완연하게 드러났다.

"이 검은 보검이라 할 수 없지만 쇠붙이는 아니지. 금화파파, 당신은 영사도에서 호강이니 하지 않고 무엇하러 중원으로 들어왔소?"

금화파파는 그녀가 손가락 세 개로 검집을 쪼개는 것을 보고 내심 흠칫했다.

"소문대로 실력이 만만치 않군!"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늙은 짝이 죽어 혼자 섬에 머물러 있자니 하도 적적하여, 혹시 마음에 드는 떠돌이 화상이나 도사가 있으면 데려가기 위해 중원으로 들어온 것이오."

그녀는 일부러 화상과 도사라는 말을 강조했다. 그것은 상대방이 여승이면서 멋대로 쏘다닌다는 것을 비꼰 것이다.

멸절사태의 눈에 한 가닥의 살기가 번뜩였다. 그녀는 장검을 비스듬히 들어올려 나직하게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무기를 뽑으시지!"

정민군과 기효부 등은 스승님이 누구와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특히 기효부는 금화파파의 무공이 고심막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염려가 되었다.

아리는 여전히 장무기의 팔을 잡고 있었다. 장무기는 갈수록 상반신이 더욱 마비되었다.

"어서 놓지 못하겠느냐! 날 붙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아리는 기효부가 옆에서 아무래도 출수할 것 같아 마지못해 그의 팔을 풀어 주었다.

"달아나진 못할 거야!"

한편, 멸절사태의 눈을 응시하는 금화파파의 입가에 엷은 웃음이 번졌다.

"왕년에 아미파의 조사이신 곽양 여협의 검법이 천하를 진동시켰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대(二代) 제자 때에 이르러 그 검법이 얼마 정도 보존됐는지 모르겠군."

멸절사태의 음성은 음침했다.

"설령, 일성(一成)이 남았다 해도 소탕군마 하기엔 충분할 것이요."

금화파파의 시선은 그녀의 눈에서 손에 쥔 장검의 검 끝으로 옮겨졌다. 돌연 그녀는 수중의 괴장을 들어올려 질풍처럼 찍어갔다. 멸절사태의 장검이 파르르 떨리는 듯 싶더니, 그녀의 어깨를

향해 찔러갔다. 금화파파의 기침이 터진 것은 바로 이때이며 괴장을 가로 쓸었다. 멸절사태의 몸이 검과 혼연 일치가 되어 전광석화같이 상대방의 등 뒤로 미끄러져 갔다. 자연히 검 끝이 금화파파의 등심을 노렸다. 금화파파는 몸을 회전시키지 않고 괴장을 뒤로꺾어 검날을 향해 맞부딪쳐 갔다. 두 사람이 서로 몇 초식을 주고받는 순간, 날카로운 금속성이 들리며 멸절사태의 장검이 두 동강이로 부러졌다. 장검과 괴장이 정면으로 맞부딪치자 장검이 절단된 것이다.

관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리를 제외한 모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검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괴장은 영사도 연안 해저의 특산인 산호금(珊瑚金)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특이한 금속으로 혼합된 산호로서 바다 깊숙한 곳에서 천만 년의 세월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무쇠를 두부 베듯이 하니 제아무리 예리한 병기라 해도 일단 맞부딪치면 절단되는 게 당연했다. 금화파파는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고 괴장에 몸을 의지한 채 기침을 연발했다. 기효부, 정민군, 패금의는 행여나 스승님이 부상을 입었을까 봐 황급히 멸절사태의 주위를 에워쌌다.

아리는 선뜻 손목을 뻗쳐 다시 장무기의 손목을 나꿔잡았다.

"이젠 달아날 생각을 못하겠지?"

그녀의 뜻하지 않은 출수에 장무기는 다시 맥문이 잡혀 상반신이 마비되었다.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냅다 발을 날려 아리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아리가 손에 힘을 가하자 장무기는 도중에서 맥없이 발을 내려야만 했다.

"어서 손을 놓지 못하겠느냐!"

아리는 얄미울 정도로 생긋이 웃었다.

"놓지 않겠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지?"

장무기는 망연히 고개를 숙여 다짜고짜 그녀의 손등을 깨물었다. 그의 거침없는 행동은 완전히 발악이었다. 아리는 극심한 통

중에 비명을 질렀다.
"아앗!"
그녀는 오른손을 푸는 즉시 왼손으로 장무기의 얼굴을 할키며 덤벼들었다. 장무기도 황급히 뒤로 물러났으나 한 발 늦어 오른쪽 빰에 한 줄기의 핏자국이 그어졌다. 아리의 손등은 삽시간에 온통 피로 물들었다. 그녀는 고통으로 인해 눈물을 찔끔 흘렸다.
두 어린애가 한쪽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도 금화파파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멸절사태는 반 토막난 검을 버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것은 내 제자의 검이니 고수의 일격을 감당해 내기가 어렵겠지.'
그녀는 등에 짊어지고 있는 길쭉한 봇짐을 풀어 넉 자 남짓한 한 자루의 고검을 꺼냈다. 그 순간, 금화파파는 검집에 한줄기 푸르스름한 기운이 뻗쳐 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 한 가지만 보아도 평범한 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데, 검집에 새겨진 금색창연한 두 글자를 보자 금화파파의 입에서 놀란 외침이 터져 나왔다.
"앗! 의천검(倚天劍)!"
멸절사태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의천검이오!"
금화파파는 안색이 변했다. 그의 뇌리에 즉시 무림에 나돌고 있는 여섯 마디가 떠올랐다.
----- 무림지존 도룡보도, 호령천하 막감불종, 의천불출 수여쟁봉! -----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제 보니 의천검이 아미파의 수중에 들어갔군."
멸절사태는 입가에 묘한 웃음을 흘리며 짤막하게 외쳤다.
"각오를 하시오!"

그녀는 검을 비스듬히 들어올렸다. 그러나 검집에서 검을 뽑지는 않았다. 그녀는 검집채로 금화파파의 가슴팍을 향해 뻗어왔다. 금화파파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괴장으로 맞이했다.

찍!

쌍방의 무기가 허공에서 맞부딪치자 흡사 종이가 찢어지는 듯한 미미한 음향이 들리며 금화파파의 신병기인 산호금의 괴장이 두 토막으로 잘라져 나갔다. 실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의천검이 검집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위력이 이 정도이나, 과연 명불허전이군.'

그녀는 의천검을 잠시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멸절사태, 그 검날을 한 번 보여 줄 수 있겠소?"

멸절사태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냉랭하게 말했다.

"이 검이 검집을 벗어나면 필히 피를 보아야만 하오."

두 사람은 말뚝처럼 굳어진 채 한참 동안 서로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금화파파는 상대방의 공력이 자기에 못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초식의 오묘함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지만, 멸절사태가 아미파의 장문인이란 점을 감안하여 범상치 않다는 것만큼은 짐작할 수 있었다. 게다가 천하의 보검으로 알려진 의천검까지 갖고 있으니, 어느 모로 보나 자기에게 유리할 것이 없었다. 금화파파는 곧 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몸을 돌려 아리의 손을 잡고 표연히 떠나갔다.

아리는 떠나가면서 고개를 돌려 외쳤다.

"장무기! 장무기!"

그녀의 외침은 차츰 멀어졌다.

정민군 등은 스승이 강적을 쫓아 버린 것을 보자 크게 기뻐했다. 정민군이 얼른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스승님, 그 할망구는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더니 결국 꼬리를 감추고 달아났군요."

멸절사태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앞으로 강호에서 그 노파의 기침소리만 들어도 멀찌감치 피하도록 하라."

그녀는 조금 전에 보검으로서 상대방의 괴장을 절단시켰지만, 출검과 동시에 전개했던 아미구양공(峨嵋九陽功)이 마치 망망대해에 빠진 바늘인 양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삼십 년 동안 온갖 심혈을 기울여 쌓아올린 아미구양공으로도 그녀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서늘했다. 그 웅후한 내력과 엄청난 팔힘이 할망구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점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멸절사태는 하늘을 우러러 잠시 넋빠진 사람처럼 깊을 생각에 잠겼다. 홀연 기효부에게 시선을 던졌다.

"효부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 한 마디를 던지고 나서 초옥 안으로 들어갔다. 기효부 등 세 사람은 곧 그녀의 뒤를 따랐다. 양불회도 엄마를 부르며 쫄랑쫄랑 따라 들어가려 했다.

기효부는 사부님이 자기에게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딸애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얘야, 넌 밖에서 혼자 놀고 있어라."

한편, 장무기는 눈살을 찌푸리며 내심 생각을 굴렸다.

'정민군이란 여인은 심보가 좋지 않아, 틀림없이 자기 스승님에게 기 아주머니에게 불리한 나쁜 말만 과장해서 늘어 놓았을 거야. 그날 밤의 일은 모두 저 독수야초의 잘못이었다. 그녀가 다시 터무니없는 말로 기 아주머니를 모함한다면 내가 나서서 변명해 주어야지!'

그는 살며시 초옥 뒷쪽으로 돌아가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방안은 조용할 뿐 한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 식경이

경과되었다. 멸절사태의 차가운 음성이 침묵을 깼다.

"기효부야, 네 자신의 일이니 네가 먼저 변명을 해 보아라."

기효부는목매인 음성으로,

"스승님... 저는..... 저는.....!"

하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민군아, 네가 직접 물어보아라!"

정민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대답을 했다.

"네. 기사매, 우리 문중에 세 번째 금기가 무엇이지?"

기효부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음사방탕(淫邪放蕩)입니다."

"맞았어. 그럼 여섯 번째 금기는 무엇이지?"

"사문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 계율을 어기는 자는 어떤 벌을 받아야 하지?"

기효부는 그녀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멸절사태를 향해 말했다.

"스승님, 제자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정사저께서 스승님께 말씀드린 것과는 다릅니다."

멸절사태의 음성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좋다. 여기엔 외부 사람이 없으니 자세히 말해 보아라."

기효부는 오늘 일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리 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스승님, 그 해 천응교가 왕반산도에서 도룡도의 위력을 과시하다가 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스승님께선 제자를 열 여섯 사람을 하산시켜 금모사왕 사손의 행방을 알아 보라고 분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제자는 서쪽으로 방향을 택해 천서(川西) 대수보(大樹堡)로 가는 도중에 흰 옷을 입은 중년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자는 제자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제자가 객점에 머물면 그도 객점에 유숙하고, 제자가 일부러 걸음을 늦추면 그도 따라서 걸음을 늦추곤 했습니다. 제자는 처

음에 그를 외면했지만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질책을 했습니다. 그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청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제자는 검을 뽑았습니다. 그 자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무공이 고절하여 세 초식만에 제자의 장검을 빼앗아 갔습니다....."

기효부의 말이 계속되었다.

저는 당황하여 달아났습니다. 그 자는 뒤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깨어나 보니, 장검이 바로 저의 베갯머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객점을 떠났습니다. 뜻밖에도 그가 다시 저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애원을 했습니다. 서로 생면부지인 처지이고 게다가 엄연히 남녀유별이거늘 자꾸만 뒤쫓아 오는 속셈이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무공으로 적수가 되진 못하지만,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아미파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생사결단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멸절사태는 턱을 끄덕이며 수긍을 하는 듯 했다.

기효부는 시선을 떨구었다.

"제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피하려 했으나,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붙잡혀......"

그녀의 음성은 갈수록 기어들어갔다. 멸절사태가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기효부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직하게 대답했다.

"제자는 도저히 그의 힘을 당해 낼 수 없어 몸을잃었습니다. 제자는 죽고 싶었으나 그의 감시가 워낙 심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와 원한이 있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그 기회를 틈타 도망쳐 나왔는데, 얼마 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자는 감히 스승님께 알릴 수 없어 몰래 어린 것을 낳았습니다."

"여지껏 말한 게 모두 사실이냐?"

"제자가 천만 번 죽는다 해도 어찌 감히 스승님을 기만 하겠습니까?"

멸절사태는 잠시 생각을 굴리는 듯 하더니,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불쌍한 것, 이게 어디 너의 잘못이겠느냐?"

정민군은 스승님이 오히려 사매의 입장을 딱하게 여기는 것 같자, 독기가 서린 눈으로 기효부를 노려보았다.

멸절사태는 다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적정이냐?"

기효부는 눈물을 흘렸다.

"제자는 본디 아버님의 뜻에 따라 무당 은육협과 혼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변을 당했으니 삭발을 하여 불문에 귀의하고 싶습니다. 부디 윤허해 주십시오."

멸절사태는 고개를 내둘렀다.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음.....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고약한 남자는 누구냐?"

기효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그는..... 성이 양(楊)이며, 이름은 외자로서 소(소)라고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마자 멸절사태는 펄쩍 뛰었다. 동시에 소맷자락을 떨치자 우지끈 하며 앞에 놓여 있던 탁자가 박살이 났다. 밖에 숨어서 엿듣고 있던 장무기는 물론이거니와, 기효부 등 세 사람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멸절사태가 싸늘하게 소리쳤다.

"양소라고 했느냐? 바로 그 마교의 대마두이며 일명 광명좌사자(光明左使者)라는 양소란 말이냐?"

기효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 그는 명교의 인물로서 신분이 좀..... 높은 것 같았습니다."

멸절사태는 노기만면하여 호통을 쳤다.

"명교는 무슨 얼어 죽을 명교냐?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잔인무도한 악마의 집단이다. ......그는 어디에 숨어 있느냐? 곤륜산(崑崙山) 광명정(光明頂)에 숨어 있느냐?"

기효부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명교는....."

"닥쳐라! 명교가 아니라 마교다!"

"네. 그의 말에 의하면 마교의 총단은 원래 광명정이었는데, 몇 년 전에 교내에 불화가 생겨 그는 광명정을 떠나 곤륜산 좌망봉(坐忘峯)에 은거한다고 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은..... 본문의 원수입니까?"

멸절사태는 이를 부드득 갈았다.

"피맺힌 원한이 있다! 너의 대사백되시는 고홍자(孤鴻子)가 바로 그 대마두 양소로 인해 울화통이 터져 생죽음을 당했다."

기효부는 내심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론 딸애의 생부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대사백이신 고홍자는 왕년에 천하에 명성을 날린 고수였는데, 그로 인해 생죽음을 당했다니..... 기효부는 자세한 것을 묻고 싶었으나 감히 입밖에 내지 못했다.

멸절사태는 허공에 시선을 던진 채 다시 한 번 이를 부드득 갈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양소, 양소.....!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하더니, 결국 나의 수중에 걸려들게 되다니....."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기효부에게 말했다.

"좋다. 네가 몸을 더럽히고, 팽화상을 감싸기 위해 정사저를 궁지에 몰아넣은 일, 스승을 기만하고 사생아를 키운 죄..... 내 모두 용서하마! 그 대신 한 가지 일을 해 줘야겠다. 그 일을 무

사히 성공시키고 돌아온다면, 의천검을 너에게 주는 동시에 본파의 장문 계승인으로 내세우겠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정민군의 눈에선 질투의 빛이 이글거렸다.

기효부는 정중하게 말했다.

"스승님의 분부라면 제자는 있는 힘을 다해 거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의발진전을 이어받기엔 제자의 덕행과 무공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감히 그런 망상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멸절사태는 더 이상 여러 말 하지 않았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녀는 기효부의 손을 잡아 다짜고짜 초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 우측에 펼쳐진 언덕 위로 달려갔다. 장무기는 황급히 잡초가 무성한 곳에 몸을 숨기고 바라보았다.

멸절사태는 언덕에 서서 주위를 두리번 살피더니 기효부를 가까이 불러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를 속삭였다. 누구도 들어서는 절대 안 될 기밀임이 분명했다. 기효부는 스승님의 귀속말을 듣고 나서 잠시 고개를 숙인 채 굳어 있다가 끝내 단호하게 고개를 좌우로 내둘렀다. 스승님의 명을 거역하는 듯 싶었다. 멸절사태는 발끈하여 손을 번쩍 들어올려 내리치려다가 도중에서 거두었다. 기효부가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것 같았다.

장무기는 가슴이 마구 뛰었다. 만약 멸절사태가 일장을 내리친다면 기효부는 영락없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눈을 똑바로 뜨고 안타깝게 기효부를 응시했다. 기효부는 갑자기 스승 앞에 무릎을 꿇며 다시 단호하게 고개를 내둘렀다. 그러자 멸절사태의 손이 그녀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쳐졌다. 기효부는 그 자리에 쓰러져 몸을 몇 번 꿈틀거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경악과 비통으로 인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

다. 그는 잡초더미 속에 몸을 도사린 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바로 이때 양불회가 살금살금 그의 등 뒤로 덮쳐왔다.

"잡았다! 잡았어!"

그녀는 초옥 밖에서 뛰놀다가 장무기가 잡초더미 속에 몸을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자기와 숨바꼭질하는 걸로 생각하고 살금살금 다가와 갑자기 등 뒤로 덮친 것이다. 장무기는 황급히 그녀를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귀에 대고 나직하게 말했다.

"쉿! 조용히 해. 나쁜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큰일난다."

양불회는 창백한 그의 안색과 잔뜩 겁먹고 있는 얼굴을 보자 역시 깜짝 놀랐다.

멸절사태는 서둘러 언덕배기에서 내려와 정민군에게 말했다.

"가서 그녀의 씨앗을 없애 화근을 남기지 말아라!"

정민군은 스승님이 잔인한 수법으로 기효부를 죽인 것을 보자 내심 기뻐했지만 겁이 나기도 했다. 지금 스승님의 명을 받자 얼른 사매의 장검을 빌려 초옥 주위를 뒤졌다.

장무기는 양불회를 끌어안고 감히 숨조차 내쉬지 못했다. 정민군은 초옥을 한 바퀴 돌았으나 양불회를 찾아 내지 못했다. 그녀가 다시 찾으려는데 멸절사태의 꾸지람이 들려왔다.

"이 쓸모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계집애 하나를 찾아내지 못하고 쩔쩔 매느냐!"

패금의는 평소 기효부와 친분이 두터웠다. 지금 스승님이 기효부를 죽이고 다시 어린 딸까지 죽이려 하자 차마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얼른 입을 열었다.

"그 애가 골짜기 밖으로 달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스승님의 불 같은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 일단 골짜기 밖으로 나가 찾아 내지 못한다면, 다시 골짜기 안으로 되돌아오진 않을 것이다. 물론, 의지할 곳이 없는 어린애가 혼자 살아간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정민군의 검을 맞고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되었다.
멸절사태는 눈을 부라렸다.
"왜 진작 예기하지 않았느냐!"
그는 곧 앞장서 골짜기 밖으로 달려갔다. 정민군과 패금의도 뒤따랐다.
양불회는 어머니가 큰 변을 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저 동그란 눈을 깜빡거리며 어리둥절해 했다. 장무기는 잡초더미에 엎드려 세 사람이 멀리 떠난 것을 확인한 연후에 황급히 양불회의 손을 잡고 언덕 위로 달려갔다.
양불회는 천진무구하게 생긋이 웃었다.
"무기 오빠, 나쁜 사람들이 전부 떠났어요? 이젠 우리 산에 올라가 놀아도 되는 거죠?"
무기는 대답없이 그녀를 기효부에게 데려갔다. 양불회는 비로소 어머니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엄마! 엄마!"
그가 기효부의 맥을 짚어 보니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맥박은 이어지고 있었으나, 두개골이 쪼개져 설령 호청우가 온다 해도 목숨을 구하기는 불가능했다. 기효부는 힘없이 눈을 떠 장무기와 딸애를 보자 입술을 움직이며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단지 구슬 같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뿐이었다.
장무기는 얼른 품속에서 금침을 꺼내 그녀의 신정, 인당 등 혈도에 꽂았다. 기효부는 겨우 입을 열 수 있었다.
"애를..... 아버지에게..... 데려가..... 부탁..... 그 사람을..... 해칠 수..... 없어....."
그녀는 왼손을 가슴으로 들어올려 무엇을 꺼내려다 갑자기 목이 꺾이며 숨을 거두었다.

양불회는 어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부짖었다.

"엄마! 엄마! 어디가 아픈지 말해 봐요!

기효부의 몸은 차츰 식어가는데, 그녀는 계속 울부짖으며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왜 움직이지 않으며, 왜 자기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지 몰랐다.

장무기도 큰 비통에 잠겨 있었다. 게다가 부모님이 참사를 당한 일이 되살아나 역시 시신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울고 또 울어도 가슴 밑바닥에 응어리진 한이 풀리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장무기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내심 생각했다.

'기 아주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나더러 불회를 그녀의 아버지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불회의 아버지는 이름이 양소고, 명교의 광명좌사자이며 곤륜산 좌망봉에 산다고 했으니, 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회를 그곳으로 데려가 줘야한다.'

그는 곤륜산이 수만 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기효부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가슴을 더듬던 일이 생각나 만져 보니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그 목걸이에 연결된 시커먼 철패(鐵牌)에는 금색으로 불길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장무기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조심스럽게 풀어 양불회의 목에 걸어 주었다. 그는 곧 초옥 안에서 쇠삽을 갖고 와 구덩이를 판 후 기효부의 시신을 묻어 주었다.

이 무렵 양불회는 울다가 지쳐 풀밭에 쓰러져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가 깨어난 후 장무기는 그녀에게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갔으니 오래오래 있다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를 만나러 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꾸미느라 진땀을 뺐다. 장무기는 밥을 지어 양불회와 요기를 하고 나서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작은 괴나리봇짐을 두 개 챙겨 호청우가 남겨 준 은자를 갖고 양불회와 함께 기효부의 무덤 앞에 재를 올리고, 그들은 서서히 호접곡을 떠났다.

장무기는 양불회의 고사리 손을 꼭 쥐었다. 그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기효부의 유언에 따라 불회를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리라 굳게 마음을 다졌다. 그러나 강호는 험악한 곳, 강호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두 어린 것의 모습은 광풍노도가 휘몰아치는 망망대해의 일엽편주처럼 안스럽기만 했다.

----- 제 3 권 1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3 권

제 2 장　장무기와 양불회의 고난(苦難)

두 사람은 반나절이 걸려 겨우 호접곡을 벗어났다. 양불회는 걸음이 늦은데다가 자꾸만 쉬겠다고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이날 어두워질 때까지 황산이령을 헤매야만 했다. 밤이 으슥해져 사방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양불회는 계속 울며 보챘다. 장무기는 겁이 났다. 그는 산길 옆에 작은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불회와 함께 들어갔다. 그는 양불회를 품에 안은 채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 주었다.

장무기에게 이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밤새도록 두 어린것은 배고픔과 무서움에 시달려야만 했다. 간신히 날이 새기를 기다려 산에서 야생하는 열매를 따 허기를 채우고는 산길을 따라 계속 걸었다. 정오가 되었을 무렵, 양불회가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길 옆 느티나무를 가리켰다. 그 순간 장무기도 나뭇 가지에 두 구의 시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겁을 하며 냅다 양불회의 손을 잡고 뒤쪽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얼마 달아나지도 못해 돌뿌리에 채여 함께 넘어졌다. 장무기는 용기를

내어 뒤돌아 보았다. 순간, 더욱 소스라치게 놀라 날카로운 일성을 토했다.

"호 선생!"

나뭇 가지에 매달려 있는 앙상한 시체는 호청우였다. 다른 한 구의 시체는 머리카락을 풀어 해친 차림새로 보아 호청우의 아내인 왕난고가 분명했다. 산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녀의 옷자락과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나부껴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장무기는 정신을 가다듬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무서워하지 말자. 무서울 것 없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갔다. 과연 호청우 부부의 시체였다. 두 사람의 양미간에 제각기 한 송이의 작은 금화가 꽂혀 있었다. 장무기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호청우 부부는 결국 금화파파의 독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나귀가 끌던 수레는 한쪽 개울에 박살이 난 채 버려져 있었다. 나귀의 시체도 그 옆에 있었다.

장무기는 눈물을 흘리며 밧줄을 풀어 호청우 부부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렸다. 그 때 왕난고의 몸에서 책자 한 권이 떨어졌다. 그것을 주워 보니 겉장에 <왕난고 독경>이란 다섯 글자가 적혀 있었다. 겉장을 넘기자 깨알 같은 글씨로 모든 독물의 독성과 사용법, 화해법이 수록돼 있었다. 독약과 독초 이외도 각종 독사, 지네, 전갈, 독거미 그리고 희귀한 어패류, 날짐승, 화목토석(花木土石)이 총망라돼 있었다.

장무기는 그 책자를 품속에 갈무리하고 호청우 부부의 시신을 나란히 눕혀 돌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 무덤 앞에 배를 올리고 나서 양불회의 손을 잡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몇 리쯤 걷자 관로가 나왔다. 얼마 뒤에 그들은 작은 고을로 들어설 수 있었다. 장무기는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고을 안 모든 집이 텅텅 비어 있었다. 물론 사람의 그림자

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길을 재촉해야만 했다. 논밭은 모두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잡초가 무성했다. 눈에 뜨이는 것은 황폐뿐이었다. 장무기는 당황해졌다. 양불회가 배고프다고 보채지 않고 자기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고을을 벗어나자 길 옆에 몇 구의 시체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뼈만 앙상한 것이 굶어 죽은 것임을 첫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길을 갈수록 그러한 시체가 눈에 많이 띄었다. 장무기는 더욱 당황해지고 겁이 났다.

'우리는 이대로 굶어 죽는 게 아닐까?'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어느 숲 속에 이르렀다. 숲 속에서 마침 희뿌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장무기는 뛸 듯이 기뻤다. 호접곡을 떠나 처음 대하는 인적이었다. 그는 곧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가까이 가보니, 남루한 차림의 두 사나이가 장작불에 가마솥을 걸어 놓고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그들은 장무기와 양불회를 발견하자 이내 구세주를 만난 듯 희색 만면하여 손짓을 했다.

"얘들아, 마침 잘 왔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어른들과 함께 오지 않았느냐?"

장무기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우리 두 사람뿐이에요. 어른은 없어요."

두 사나이는 서로 마주 보며 외심의 미소를 교환하더니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정말 운이 좋군."

장무기는 뱃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것 같아 무엇을 끓이는가 하고 솥 안을 살펴보니 칡과 풀잎만이 둥둥 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한 사나이가 냅다 양불회를 나꿔채며 징그럽게 웃었다.

"이 어린 양은 토실토실하고 연하니, 오늘 밤 진수성찬을 맛보겠구나!"

다른 사나이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남자애는 남겨 두었다가 내일 잡아 먹어야겠네."

장무기는 질겁을 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오? 얼른 내 누이동생을 놓아주시오!"

사나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양불회의 옷을 찢더니 허리춤에서 예리한 비소를 뽑아 입맛을 다셨다.

"이렇게 연하고 야들야들한 고기를 정말 오랜만에 맛보게 됐군."

그는 양불회를 한쪽으로 끌고 가 각을 뜰 기세였다. 다른 한 사나이는 사발을 들고 뒤를 따르며 퉁명스레 말했다.

"피를 버리기 아까우니, 선지탕을 끓여 먹어야겠네."

장무기는 놀란 나머지 혼비백산했다. 그들의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다. 정말 양불회를 잡아먹을 심산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먹다니,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사발을 들고 있는 사내가 히죽 웃었다.

"이놈아, 이 어른신네는 석 달 동안 쌀 한 톨도 구경하지 못했다. 그러니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선 사람이라도 잡아먹어야 할 게 아니겠느냐?"

그는 장무기가 달아날까 봐 대뜸 뒷덜미를 나꿔잡으려 했다. 장무기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오른손을 뻗어서 그의 등허리 급소를 내리쳤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의술에 전념하느라 무공을 연마하지 못했지만, 사손으로부터 전수받은 무공 비결과 부친이 가르쳐 준 무당권법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상승 무학이었다. 그가 있는 힘을 다해 일격을 전개했으니 웬만한 무인이라 할지라도 감당해 내기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일개 촌부(村夫)인지라 쓰러져 꼼짝도 하지 못했다.

장무기는 즉시 양불회 곁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남은 사나이가 우악스럽게 호통을 쳤다.

"우선 네놈부터 죽여 주마!"

그는 장무기의 가슴을 향해 비수를 내리꽂았다. 장무기는 무당 권법 중에 안시식(雁翅式)을 전개해 왼발로 사나이의 손목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사나이의 손에서 비수가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장무기는 다시 원앙연환퇴법으로 아래 턱을 걷어찼다. 사나이는 비명을 내지르며 울컥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하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해 버렸다. 장무기는 얼른 양불회를 부축해 일으켰다.

바로 이때 발걸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다시 몇 사람이 숲 속으로 들어왔다. 양불회는 화들짝 놀라 장무기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상대방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간대협, 설대협!'

숲 속으로 들어오는 자는 모두 다섯 명인데, 한 사람은 공동파의 간첩이고, 화산파의 설공원과 그의 두동문도 보였다. 이 넷을 모두 장무기로부터 치료를 받아 완치된 사람들이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스무 살 가량의 젊은이로서 이마가 유난히 넓고 건장하게 생겼는데, 장무기로선 초면이었다.

간첩은 예리한 눈빛으로 주위를 훑어보고 나서 입을 열었다.

"장형제! 자네가 이곳에 웬일인가? 그리고 이 두사람은 어떻게 됐나?"

장무기는 분연히 그간 경위를 얘기해 주고 나서 한 마디 덧붙였다.

"사람까지 잡아먹다니, 아무리 말세라 해도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간첩이 묘한 시선으로 양불회를 쳐다보며, 갑자기 군침을 삼키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빌어먹을! 꼬박 닷새를 굶었더니 하늘이 노랗군. 음..... 야들야들한 살결..... 토실토실하니....."

장무기는 그의 눈에서 탐욕의 불길이 이글거리며 굶주린 이리처럼 이빨을 드러내는 것을 보자, 본능적으로 양불회를 품안에 끌어안았다.

설공원이 불쑥 물었다.

"그 계집애의 엄마는 어찌 보이지 않느냐?"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리며 둘러댔다.

"기여협은 쌀을 사러 갔으니 곧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철없는 양불회가 고개를 내두르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간첩과 설공원은 두 사람의 엇갈리는 말을 듣자 기효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설공원은 냉소를 날렸다.

"쌀을 사려 갔다고? 이 주위 오백 리 이내에선 쌀 한 줌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간첩은 잽싸게 설공원에게 눈짓을 하더니 일제히 몸을 솟구쳐 간첩은 장무기를, 설공원은 양불회를 나꿔챘다.

장무기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간첩이 징그럽게 웃었다.

"봉양부(鳳陽府) 일대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 계집애는 너와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우리가 삶아먹든 구워먹든 상관하지 말아라. 조금만 기다리면 너의 몫도 있을 것이다."

장무기는 욕설을 터뜨렸다.

"명문정파라고 자처하는 당신네들이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 있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앞으로 무슨 낯으로 무림동도를 대하겠소?"

간첩은 발끈하여 주먹으로 그의 머리통을 쥐어박으며 호통을 쳤다.

"소문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선 네놈마저 잡아 먹어야 겠다!"
조금 전에 장무기는 두 촌부를 간단하게 처치했지만, 성수가람 간첩 같은 고수에게는 도저히 반항할 여지조차 없었다. 설공원의 두 사제는 밧줄로 장무기와 양불회를 꽁꽁 묶었다. 장무기는 요행을 바라기 어렵다는 걸 알았다. 이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 줄이야! 애당초 이들의 목숨을 구해 준 일이 후회막심했다.
간첩은 양양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놈아, 당장 굶어 죽게 될 이 마당에 설령 내가 낳은 친자식이라 해도 잡아먹을 판이니, 저승에 가서라도 부디 우릴 원망하지 말아라. 애당초 내가 우리의 목숨을 구해 줬으니 끝까지 살길을 마련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어 설공원의 사제에게 소리쳤다.
"어서 불을 지피지 않고 뭘꾸물대느냐?"
두 사람은 불을 지피고 물을 퍼오느라 수선을 떨었다.
장무기는 애원을 했다.
"설대협, 저 두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그렇게 굶주림을 못 견디겠으면 저들을 먹으면 되잖겠습니까?"
설공원은 유들유들하게 웃었다.
"저 녀석들은 뼈가 앙상한데다가 고기도 질기고 냄새가 나니 우린 사양을 하겠다."
장무기는 본디 자존심이 강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구에게 애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양불회와 같이 남의 먹이가 될 것을 생각하니 당황해져 저절로 통사정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마가 넓은 젊은이는 한쪽에 서서 시종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간첩이 그에게 눈을 부라리며 한 마디 내뱉었다.
"자네도 연한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서 일을 거들어야 할 게 아니겠나?"
젊은이는 얼른 대답을 하며 허리춤에서 한 자루의 단도를 뽑았

다.

"돼지나 소를 도살해 각을 뜨는 일이라면 내가 전문이오."

그는 단도를 입에 물고 한 손에 장무기를, 한 손에 양불회를 번쩍 들어올려 성큼성큼 개울 쪽으로 걸어갔다. 장무기는 목이 터져라 욕을 하며 그의 손등을 깨물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젊은이가 열댓 걸음 걸어나갔을 때, 설공원이 그의 뒷통수에 대고 소리쳤다.

"이봐, 여기서 멱을 따라고!"

젊은이는 힐끗 고개를 돌리며 대꾸했다.

"개울에서 배를 갈라야 깨끗이 씻을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입에 칼을 물고 있어 말소리가 똑똑치 못했다. 그가 계속 개울을 향해 걸어가자 설공원이 신경질적으로 다시 소리쳤다.

"여기에서 멱을 따라니까 왜 말을 듣지 않나?"

그는 젊은이의 태도에서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다. 젊은이가 서두르는 것으로 보아 마치 두 어린 양을 데리고 도망쳐 독식할 것만 같았다.

이때 젊은이가 갑자기 나직하게 말했다.

"어서 달아나라!"

그는 두 사람을 내려놓더니 칼로 밧줄을 끊었다. 장무기는 고맙다는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양불회의 손을 잡고 다짜고짜 앞으로 달려갔다.

설공원과 간첩은 일제히 성난 고함을 지르며 쫓아왔다. 젊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비스듬히 올려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멈춰라!"

간첩과 설공원은 그의 위풍당당한 기세에 흠칫 굳어졌다. 간첩이 호통을 쳤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젊은이는 눈을 부라렸다.

"아무리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해도 천벌받을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설공원은 성난 음성으로 소리쳤다.

"이 판국에 에미인들 못 잡아 먹겠느냐!"

그는 사제 둘에게 손짓을 하며 외쳤다.

"어서 쫓아라!"

장무기는 양불회가 빨리 달릴 수 없자 번쩍 들어 안았다. 그래도 빨리 달릴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간첩과 설공원은 이미 무기를 뽑아 젊은이를 협공했다. 젊은이는 그들의 적수가 못 되는지 이내 허벅지에 검상을 입어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갑자기 단도를 설공원에게 던졌다. 설공원은 잽싸게 옆으로 피했다. 그 틈을 타서 젊은이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간첩과 설공원은 더 이상 그를 추격하지 않고 장무기와 양불회를 잡으러 갔다. 젊은이는 멀리 달아나며 소리쳤다.

"장형제, 당황하지 말고 기다리게! 내가 가서 동료들을 데려와 자네를 구해 주겠네."

간첩과 설공원은 신법을 전개해 어렵지 않게 장무기와 양불회를 다시 붙잡았다.

간첩은 눈에 쌍심지를 켜며 욕설을 터뜨렸다.

"그 서가 녀석이 감히 우릴 배신하다니! 어떻게 해서 그 녀석과 어울리게 되었소?"

설공원이 멋쩍게 대답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나 같이 어울리게 됐는데, 그렇게 나쁜 녀석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이름이 그 무슨 서달(徐達)이라고 하든가.....? 놈은 동료를 데리고 온다고 했지만 우리를 겁주려고 한 얘기일 거요. 이 야밤중에 어디에 가서 사람을 불러올 수 있겠소?"

그의 사제 한 명이 낄낄 웃으며 한 마디 거들었다.

"녀석의 말투를 들어보니 이곳 봉양부의 토박이 같은데, 설령 사람을 데려온다 해도 촌뜨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간첩은 일리가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봉양부의 사람은 모두 굶주려 기어다닐 힘도 없을 것이오.. 하핫.....! 어서 저 두 말의 양을 삶아 마음껏 배를 채웁시다."

잡힌 장무기는 코피가 터지도록 얻어맞고 옷까지 찢겨져, 품속에 갈무리해 두었던 은자마저 땅바닥에 흩어졌다.

'그 사람의 이르이 서달이군. 좋은 친구였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으니.....'

그는 고개를 떨구다가 책자 한 권이 발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왕난고 독경이었는데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 책장을 넘겼다. 순간, 장무기는 장작불의 불빛을 빌려 그곳에 독버섯에 관한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독버섯의 모양과 냄새, 빛깔, 독성, 화해법 등이 수록돼 있었다. 장무기는 마음이 어지러워 그 글이 뇌리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한데 시선을 돌리려다 우연히 자기에게서 서너 자 가량 떨어진 곳에 빛깔이 선명한 버섯이 열 댓 개쯤 자생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장무기는 순간적으로 뇌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저것이 무슨 버섯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극독을 지닌 독버섯이라면 불회는 살아날 가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생사에 대해선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 어차피 체내의 음독이 발작할 것이니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다가가 독버섯을 모두 뜯었다. 설공원 등은 물을 끓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장무기는 서달이 달아난 방향을 바라보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서대가! 이제야 왔군요. 어서 살려 주세요!"
설공원 등은 사실인 줄 알고 일제히 무기를 뽑아쥐며 몸을 일으켰다. 장무기는 그들의 시선이 동쪽에 집중돼 있는 틈을 타서 잽싸게 등을 돌려 독버섯을 가마솥에 집어넣었다.
설공원 등은 아무도 보이지 않자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개잡종 같은 녀석! 곧 죽게 되니까 정신마저 돈 모양이군."
설공원은 손을 툭툭 털며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멱을 따야지. 누가 솜씨를 보일 거지.....?"
간첩이 그의 말을 받았다.
"내가 계집애를 죽일 테니 당신은 저 녀석을 맡으시오."
그는 우악스럽게 양불회의 뒷덜미를 잡아 들어올렸다.
장무기는 황급히 입을 열었다.
"설대협,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으니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주십시오. 그러면 죽어 귀신이 되어도 당신을 못살게 굴지 않겠습니다."
설공원은 느긋한 여유를 보였다.
"좋다. 국물 한 그릇 정도야 인색할 내가 아니지."
그는 곧 국자로 뜨거운 국물을 한 그릇 떠서 건네주었다.
장무기는 국그릇을 입에 갖다 대기도 전에 크게 감격하듯 소리쳤다.
"야! 정말 향기롭군."
국물에다 버섯을 넣었으니 향기가 그윽한 건 사실이었다. 설공원은 허기가 찌들어 있다가 향긋한 냄새를 맡자 절로 군침이 돌아 냅다 장무기에게서 국그릇을 빼앗아 들이키더니 쩝쩝 입맛을 다셨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그는 다시 국자로 휘휘 저어 한 사발을 떠냈다. 그러자 간첩이

얼른 그에게서 국그릇을 빼앗아 뜨거운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꿀꺽꿀꺽 마시더니, 직성이 풀리지 않는지 다시 한 사발을 떠 마셨다. 설공원과 그의 두 사제도 역시 연거푸 두 사발씩 들이켰다. 오랜 허기끝에 뜨거운 국물을 마시자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다. 간첩은 아예 가마솥에서 버섯을 건져 오물오물 씹어 먹었다. 어느 누구도 버섯이 어디서 생겨 났는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간첩은 버섯을 씹어먹고 나서 배를 어루만지며 능글맞게 웃었다.

일단 바닥은 깔았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양고기를 먹어야지."

그는 양불회의 덜미를 들어올려 칼을 움켜쥐었다. 장무기는 그들이 버섯국을 마시고도 별탈이 없는 것을 보자 마지막 한 가닥 희망마저 무산되었다.

한데, 간첩은 두어 걸음 내딛다가 갑자기 비명을 내질렀다.

"어이구!"

그는 비틀거리더니 썩은 통나무처럼 쓰러졌다. 그 바람에양불회와 칼도 한쪽에 팽개쳐졌다.

설공원은 흠칫 놀랐다.

"간형, 어떻게 된 거요?"

그는 달려가 허리를 숙여 살피려다가 그대로 간첩의 몸위에 쓰러졌다. 그의 사제 둘도 잇따라 독이 발작해 비명횡사 했다.

장무기는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하늘이 우리를 도와줬구나!"

그는 칼 옆으로 굴러가 뒤로 해서 칼을 집은 뒤, 양불회의 손을 묶은 밧줄을 끊었다. 양불회는 손이 떨려 장무기의 손에 상처를 두군데 내고서야 겨우 밧줄을 끊어 주었다. 두 사람은 죽음 일보 직전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서로 부둥

켜 안았다.
 잠시 후 장무기가 설공원 등을 살펴보니 모두 얼굴이 숯처럼 시꺼멓게 변해 그 모습이 심히 가공스러웠다. 장무기는 내심 감개무량했다.
 '독물이 나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군.'
 그는 곧 왕난고 독경을 소중하게 품속에 갈무리해 나중에 시간을 내어 열심히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주위에는 두 구의 시체에서 이제 여섯 구로 늘어났다. 양불회는 너무나 놀란 탓인지 울지도 않았다. 장무기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장무기는 양불회의손을 잡고 숲을 빠져 나왔다. 이때 동쪽으로부터 횃불이 환하게 밝아오더니 대여섯 명이 손에 병기를 쥔 채 달려오는 게 보였다. 장무기와 양불회는 얼른 숲 속으로 몸을 숨겼다. 상대방은 곧 가까이 달려왔다. 앞장 서 있는 자는 다름아닌 서달이었다. 그는 왼손에 횃불을 높이 받쳐들고 오른손엔 장창을 쥐고 있었다. 그는 형형한 눈빛으로 숲 속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다.
 "천벌을 받을 식인귀야! 냉큼 목숨을 내놓지 못하겠느냐?"
 그들은 즉시 숲 속으로 뛰쳐들어와 간첩 등 네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자 모두 아연실색했다. 서달은 주위를 두리번 거리며 소리쳤다.
 "장형제, 별고 없나? 우리가 자네를 구하러 왔네!"
 장무기도 소리쳐 대답했다.
 "서대가,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즉시 앞으로 뛰쳐 나갔다. 서달은 몹시 기뻐하며 그를 덥석 끌어안았다.
 "장형제, 자네처럼 협의심이 강한 사람은 아이들에겐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 중에서도 많지 않다네. 나는 자네가 악적의 손에 죽은 줄 알고 무척 걱정했는데, 이렇게 살아 있다니 정말 다행이네."

이어 간첩, 설공원 등이 중독된 상황을 묻자, 장무기는 그간에 있었던 일을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 주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나의 절친한 친구들이네. 그들은 황소를 한 마리 잡아 지금 황각사에서 삶고 있는 중이네."

서달은 여기까지 말하고 일행을 장무기에게 소개했다. 그들 중 네모 얼굴에 키가 유난히 큰 사람은 탕화(湯和)라 불렀으며, 만면에 영기가 충만한 장한은 등유(鄧兪)라 불렀다. 검은 피부에 키가 장대처럼 큰 사람은 화운(花雲)이며, 얼굴이 희고 예쁘장하게 생긴 두 형제는 오량(吳良)과 오정(吳禎)이라 했다. 마지막 한 명은 화상인데, 용모가 도저히 사람이라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못 생긴데다 아래턱이 넓적하게 휘어져 마치 주걱처럼 생겼으며, 얼굴 전체는 온통 곰보투성인데다가 십 리 가량이나 움푹 들어간 눈에선 신광이 번뜩였다.

서달이 그 화상을 가리켰다.

"이분 주(朱) 형님의 이름은 원장(元璋)이라 부르며, 황각사에서 중노릇을 하고 있다네."

화운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는 놀기 좋아하는 풍류 화상인자라 독경 염불은 하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술과 고기만 먹고 마시지."

양불회는 주원장의 못 생긴 얼굴이 무서워 장무기의 등 뒤로 숨었다. 그러자 주원장이 호탕하게 웃었다.

"나는 비록 고기를 먹지만 사람은 잡아먹지 않으니 조금도 무서워할 것 없다."

탕화가 화제를 바꾸어 말했다.

"지금쯤 쇠고기가 다 익었을 거야."

화운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촉했다.

"빨리 가봅시다. 소매(小妹), 내가 너를 업고 가마."

하고 양불회를 등에 업더니 앞장서서 걸었다. 장무기는 이들의 호탕한 성격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약 사,오 리 가량 걸어 조그만 절의 대웅전에 들어서자, 쇠고기 향기가 코를 진동시켰다.

서달이 장무기를 돌아보았다.

"장형제, 우리가 쇠고기를 가져 올 테니 그 동안 자네는 여기서 쉬고 있게."

장무기와 양불회는 방석을 깔고 나란히 앉았다. 잠시 후 주원장, 서달, 탕화, 등유 등이 큰 대야에 익힌 쇠고기를 가득 담아 들고 왔으며, 오량과 오정 형제는 어디서 구했는지 백주(白酒)를 한 독 들고 뒤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부처 앞에 빙 둘러앉아 술과 고기를 마시고 먹기 시작했다. 장무기와 양불회는 며칠간 굶었던 터라 마치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어댔다.

화운이 고기를 한 점 입에 넣으며 불만 섞인 어조로 말했다.

"서대가, 우리들의 교칙(校則)이 좋긴 하지만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규칙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순간, 장무기는 내심 크게 놀랐다.

'이제보니 그들은 명교 사람들이구나. 명교는 채식을 하고 마왕을 숭배한다던데, 그들은 여기서 쇠고기를 뜯고 있으니.....'

서달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우리 교칙이 제 일 조는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치는 것인, 고기를 먹는 것이 나쁘긴 하지만 맨 마지막 조항이야. 지금 이곳엔 쌀도 채소도 없으니 익은 쇠고기를 두고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한창 신나게 먹고 마시고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탕화가 자리에서 벌떡 일

어서며 나직이 말했다.

"정선달 집에서 소를 찾으러 온 설양입니다."

이어 절문이 발길에 차여 열리더니, 체격이 건장한 두 명의 하인이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잘들 놀고 있군. 장선달 집안의 황소를 감히 훔쳐 먹다니."

하며 그 중 한 명이 주원장의 멱살을 움켜쥐었으며 다른 한 명은 계속 고함을 질렀다.

"이 땡땡이 중놈아, 오늘은 장물까지 여기 있으니 딴소리 하지 못할 게다. 내일 네놈을 관가로 잡아가 죽을 때까지 곤장맛을 보여 주겠다."

주원장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마구 웃어 댔다.

"정말 당치도 않은 소리를 지껄이는 구나. 우리들이 장선달네 황소를 훔치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출가인은 채식만 하는데 고기를 먹었다고 억지를 쓰다니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 하인은 대야에 담긴 쇠고기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이건 쇠고기가 아니고 무엇이냐?"

주원장이 눈짓을 하며 빙글빙글 웃었다.

"이게 어째서 쇠고기냐?"

이때 오량과 오정 형제가 두 명의 하인 뒤로 돌아가 함성을 지르며 그들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주원장은 허리춤에서 비수를 뽑아들며 히죽히죽 웃었다.

"두 분 형씨, 솔직히 말하겠는데 우리가 먹은 것은 쇠고기가 아니라 사람고기야. 그 광경을 너희들에게 들켰으니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죽여야겠군."

말을 끝내기 무섭게 한 하인의 가슴을 그었다. 그러자 옷이 갈라지며 살갗에 혈선(血線)이 길게 그려졌다. 그 하인은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사..... 살려 주십시오!"

주원장은 쇠고기를 집어 두 하인의 입에 쳐 넣었다.
"삼켜!"
두 하인은 감히 씹지도 못하고 꿀꺽 삼켰다. 주원장은 주방에서 소털을 한줌 집어와 또 두 하인의 입 속에 쳐 넣었다.
"빨리 삼켜!"
두 사람은 울상을 하며 시키는 대로 소털을 삼켰다. 주원장은 또 히죽히죽 웃었다.
"너희들이 선달에게 우리가 그의 황소를 훔쳤다고 고자질하면, 나는 네놈들의 배를 갈라 누가 쇠고기를 먹었는지 선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하고 칼등으로 그들의 배를 그어 보였다. 그들은 차가운 칼이 배를 스치고 지나가자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오씨 형제가 대소를 터뜨리며 두 사람의 엉덩이를 발길로 내질러 쫓아버렸다. 두 하인은 평소 장선달의 세력을 믿고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다 이번에 혼이 나도록 봉변을 당하자 엉금엉금 기며 도주했다.
장무기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내심 탄복을 금치 못했다.
'이 화상은 얼굴은 무섭게 생겼지만 일은 빈틈없이 처리하는구나.'
주원장은 서달을 통해 장무기가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양불회를 구해 냈다는 말을 들었는지라, 장무기의 협의정신이 마음에 들어 연신 술과 쇠고기를 권하며 매우 호의적으로 대했다.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 즈음 등유가 가볍게 탄식했다.
"우리 한인(漢人)들은 오랑캐놈들의 압박을 받아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우리 한인은 모두 죽게 될 겁니다."
화운도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봉황부에만도 백성이 절반 가량 죽었는데, 이런 일은 봉황부뿐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뜬 채 굶어 죽느니 몽고놈

들과 사생결단을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달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즈음은 인명이 개나 되지 목숨보다 못합니다. 이 두 소형제와 소매도 하마터면 잡혀먹힐 뻔했으니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소, 돼지 신세가 되었겠소?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만 있는다면 살아 있을 가치가 없지요."

이 말에 탕화도 동의했다.

"옳은 말이오. 우리가 오늘은 운이 좋아 황소를 훔쳐 잡아 먹었지만 내일 또 훔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지요."

그들은 이 원인이 모두 몽고족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주원장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여기서 아무리 떠들고 욕을 한들 무슨 소용 있겠소? 사내 대장부라면 당장 몽고놈들을 죽이러 갑시다."

탕화, 등유, 화운, 오씨 형제들은 일제히 동조했다.

"좋소, 갑시다."

서달이 주원장을 돌아보았다.

"주대가, 당신도 이제 땡땡이 중노릇 그만 하시오. 그리고 당신의 나이가 제일 많으니 앞으로 우리는 당신의 지시에 따르겠소."

주원장은 사양하지 않았다.

"좋소.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생과 사를 같이 하며 즐거움과 고생도 함께 누립시다."

그들은 일제히 축배를 들고 칼을 뽑아 탁자를 내리쳐 서로의 약속을 다짐했다.

양불회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그러나 장무기의 생각은 달랐다.

'태사부님께선 내게 마교 사람들과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상우춘 형님과 이분 서 형님은 마교 사람이면서도 간첩이나 설공원 같은 명문정파의 제자들보다 몇 배나 훌륭하구나.'

그는 장삼봉을 더없이 존경하고 있지만 마교 사람들에 대해선 편견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장삼봉의 분부를 어기고 싶지는 않았다.

주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사내 대장부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하오. 듣자니 장선달이 오늘 몽고 관병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인다고 하니, 그 놈들부터 먼저 절단내어 버립시다."

화운이 뒤따라 칼을 집어들었다.

"잠깐!"

이때 서달이 주방으로 나가 바구니를 가지고 오더니 삶은 쇠고기를 이십 근 가량 바구니에 담아 장무기에게 건네주었다.

"장형제, 자네는 나이가 아직 어려 우리와 함께 관리를 죽이는 일을 할 수 없네. 우리는 빈털터리라 주머니에 은자 한 푼 없으니 쇠고기를 대신 주겠네. 요행히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후일 다시 만나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세."

장무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구니를 받았다.

"여러분이 몽고놈을 깡그리 죽여 천하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주원장, 서달, 탕화, 등유 등은 다투어 장무기의 손을 잡으며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장형제의 말이 옳네. 그럼 인연이 있으면 다음에 또 만나세."

하고 제각기 병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장무기는 내심 생각을 굴렸다.

'불회만 없었다면 나도 저들과 함께 오랑캐를 죽이러 갔을텐데, 저들은 고작 일곱 명이니 만약 상황이 불리해지면 장선달 집에 모인 오랑캐 병졸들과 장정들이 이곳까지 뒤쫓아 올 게 분명하다.....'

장무기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가 없었다. 그는 쇠고기가 담

겨 있는 바구니를 들고 양불회와 함께 길을 떠났다. 어둠을 뚫고 약 사, 오 리 쯤 가자 북쪽 하늘을 붉게 물들일 정도로 거센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게 보였다. 필시 주원장, 서달 등이 장선달의 집을 불태운 것이라 생각하며 내심 쾌재를 불렀다.

이날 밤 두 사람은 산속에서 새우잠을 자고 날이 밝자마자 다시 서쪽으로 향했다. 두 어린 것은 기아와 추위에 시달리며 온갖 고생을 겪었다. 다행하게도 양불회는 부모가 모두 무학의 명인이기 때문인지 선천적으로 강인한 체질을 타고나 병을 앓지 않았다. 두 사람은 보름이 지나서야 겨우 하남(河南) 경내로 들어설 수 있었다.

하남 경내도 다른 지방과 별 차이가 없었다. 가는 곳마다 기아에 허덕이고 굶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장무기는 나뭇 가지를 꺾어 활을 만들어 짐승을 포획해 하루는 포식하고, 하루는 굶는 식으로 양불회와 천천히 서쪽으로 향했다. 다행하게도 도중에서 몽고 병졸, 혹은 강호 인물과 맞부딪치지 않았다. 몇몇 예사로운 불량배들이 그들에게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지만 장무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이날 장무기는 도중에서 눈먼 노인과 만나게 되어 한담을 나누다가, 곤륜산 좌망봉으로 간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눈 먼 노인은 그의 말에 놀라 입이 딱 벌어졌다.

"곤륜산은 이곳에서 십만 팔천 리도 더 떨어졌을 텐데, 그 곳으로 가려 한다니 혹시 미치지 않았나? 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장무기는 풀이 죽었다. 곤륜산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우선 무당산으로 돌아가 태사부님을 만나 뵐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내 생각을 달리 했다.

'남의 부탁을 받았는데 길이 멀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할 수야

없지 않은가? 게다가 난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 몸이니, 죽기 전에 불회를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지 못한다면 저승에 가서라도 기 아주머니를 뵐 면목이 없을 거야.'

그는 노인과 헤어져 다시 길을 재촉했다. 그로부터 스무 날이 경과되자 두 어린 것은 모두 옷이 남루해지고 얼굴도 초췌해 졌다. 장무기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양불회가 보채는 일이었다. 그녀는 엄마가 왜 아직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느냐면서 질질 눈물을 짜곤했다. 그럴 때마다 장무기는 지금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둘러대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들려 주며, 때로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 그녀가 눈물을 그치게 만들었다.

주마점(駐馬店)을 지나자 바람이 차가와졌다. 어느덧 가을이 막바지에 이르러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두 어린 것은 아직도 얇은 옷을 입고 있으므로 몸을 덜덜 떨었다. 장무기는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양불회에게 입혔다. 양불회는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무기 오빠는 춥지 않아?"

장무기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난 춥지 않아. 몸에서 열이 화끈거리는데."

그는 제자리에서 깡총깡총 뛰어 보였다.

양불회는 고개를 떨구고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시무룩하게 말했다.

"오빠는 나에게 너무 잘해 누는 것 같아. 자기도 추우면서 옷을 나한테 주니....."

어린 계집애의 입에서 어른스러운 말이 나오자 장무기는 오히려 멍해졌다. 이때 산비탈길 뒤쪽에서 병기가 서로 부딪치는 음향에 이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인의 앙칼진 음성이 뒤따랐다.

"악적! 넌 독이 묻은 상문침(喪門針)에 맞았으니 빨리 달릴수록 빨리 발작될 것이다!"

장무기와 양불회는 얼른 잡초더미 속에 몸을 숨겼다. 곧이어 서른 살 가량의 건장한 사나이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뒤에는 몇 장의 간격을 두고 한 여인이 손에 쌍도를 쥔채 쫓아오고 있었다. 사나이는 갑자기 자세가 흐트러지더니 비틀거리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여인은 이내 가까이 달려왔다. 순간, 사나이가 펄쩍 몸을 솟구쳐 잽싸게 오른손을 힘껏 뻗어내 여인의 가슴팍을 적중시켰다. 여인은 심한 충격을 받아 벌렁 뒤로 나자빠지면서 손에 쥐고 있던 쌍도도 떨어뜨리고 말았다.

사나이는 손을 젖혀 등에 꽂혀 있는 독침을 뽑더니 싸늘하게 말했다.

"어서 해약을 내놔라!"

여인은 냉소를 날렸다.

"이번에 스승님이 너를 잡기 위해 우리를 강호로 내보내면서, 단지 독이 묻은 암기만 주었을 뿐 해약은 주지 않았다. 그러니 죽이려면 어서 죽여라. 그 대신 너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사나이는 왼손에 쥔 칼끝으로 그녀의 목을 겨냥하며, 오늘 손으로는 주머니를 뒤져 보았으나 해약을 찾아 내지 못했다. 그러자 사나이는 극도로 화가 치밀어 그 독이 묻어 있는 상문침을 냅다 여인의 어깨에 꽂았다.

"자, 너도 이 독침의 맛이 어떤지 음미해 보아라! 너희 곤륜파는....."

그는 말을 끝까지 잇지도 못하고 독성이 발작했는지 나직한 신음을 토하며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여인은 몸을 일으키려다가 울컥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하며 다시 스러졌다. 그녀는 간신히 독침을 뽑아 땅에 팽개쳤다. 그들은 길옆 풀밭에 쓰러진 채 한결같이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장무기는 설공원, 간첩 등에게 당한 후로부터 무림인에 대해 상당히 경계했다. 그래서 한쪽에 몸을 도사린 채 변화만 지켜볼 뿐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

잠시 후 사나이가 장탄식을 하며 입을 열었다.

"나 소습지(蘇習之)는 오늘 이곳에서 목숨을 잃게 되면서도 아직 당신네들이 곤륜파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소. 대관절 날 끝끝내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이오? 그것을 알아야지만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게 아니겠소?"

여인의 이름은 첨춘(詹春)이며 곤륜파의 제자였다. 그녀도 곧 상대방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될 생각을 하니 모든 게 부질 없이 느껴져 울적하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이 나의 사부님께서 검법을 연마하는 것을 훔쳐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양의검법(兩儀劍法)은 본문의 진산지학으로서, 설사 문중제자라 할지라도 스승님께 직접 전수를 받지 않고 훔쳐 배우는 경우가 있으면 눈을을 후벼내는 중형을 받게 돼요. 더군다나 당신은 외부 사람이잖아요."

소습지는 어처구니없는 표정을 지었다.

"이런 빌어먹을! 정말 죽어야 할 놈은 따로 있군!"

첨춘은 이내 성난 음성으로 소리쳤다.

"당신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나의 사부님을 모독할 생각인가요?"

"그에게 더 지독한 욕을 한들 날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난 백우산(白于山)을 지나다가 낭자의 사부가 연검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것뿐이오. 언뜻 스쳐 본 것으로 그 검법을 배울 수 있는 실력이라면, 오늘 이 꼴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오. 첨 낭자, 분명히 말하겠는데 낭자의 스승인 철금선생은 너무나 옹졸하오. 내가 양의검법을 눈꼽만치 배우지도 않은 건 사실이지만, 설령 한두 초식 우연히 배웠다 해도 그게 죽을 죄는 아닐 것이오."

첨춘은 침묵을 지켰다. 솔직히 말해 그녀도 역시 스승님의 처사가 너무 지나쳤다는 느낌이 들었다. 소습지가 우연히 연검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해서 여섯 명의 제자를 시켜 추살케 한 것이

다. 죽음을 눈앞에 둔 소습지의 말이니 거짓이 아닐 것이다.
소습지가 다시 입을 열어 투덜거렸다.
"그는 제자들에게 독이 묻은 암기를 내주면서 해약을 주지 않았다니, 무림에 이런 법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오? 빌어먹을.....!"
첨춘은 부드럽게 말했다.
"소대협, 모두 제 잘못이에요. 지금은 그저 후회스럽기만 해요. 그 죄값으로 소대협과 죽음을 함께 하게 됐으니 다소나마 위안이 되긴 하지만, 소대협의 집안 식구들을 생각하면....."
소습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내는 이미 이 년 전에 세상을 떠났소. 슬하에 여섯 살 짜리 남자애와 네 살된 계집애가 있는데, 내일이면 그들도 고아가 될 것이오."
"집에 다른 사람은 없나요? 누가 어린애들을 돌보죠?"
"지금은 형수께서 보살펴 주고 있지만, 워낙 성깔이 거친데다가 손찌검이 심해 그 동안은 내 눈치를 보느라 어린 것들을 학대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는 말을 데대로 잇지 못하며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다.
첨춘은 죄스러운 표정으로 나직이 말했다.
"모두 제가 지은 죄예요."
소습지는 고개를 내둘렀다.
"낭자를 탓하지는 않소. 낭자가 나와 무슨 원한이 있겠소? 단지 스승님의 분부에 따라 일을 행한 것이 아니오! 사실 나만 죽으면 그뿐인데 낭자에게까지 독침을 전개한 것이 후회스럽소.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간청을 했다면 낭자같이 마음씨 착한 사람이 내 불쌍한 애들을 돌봐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첨춘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당신을 해친 흉수인데, 어떻게 마음이 착할 수가 있어

요?"

"난 낭자를 탓하지 않소. 정말 낭자를 원망하지 않소."

지금의 상황은 조금 전에 목숨을 걸고 악투를 벌였을 때와 판이하게 달랐다. 그들은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알고 진심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위로했다.

장무기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내심 생각을 굴렸다.

'이들은 천성이 착한 것 같아. 더군다나 저 남자에게는 어린애가 둘이나 있는.....'

그는 양불회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되새기며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 잡초더미에서 천천히 걸어나왔다.

"첨 낭자, 그 상문침에 어떤 독이 묻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소습지와 첨춘은 잡초더미에서 남자애와 계집애가 불쑥 나타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됐는데, 장무기의 엉뚱한 질문을 듣자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장무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의술을 약간 배운 바가 있어, 어쩌면 두 분의 독상을 치료해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첨춘이 그의 말을 받았다.

"무슨 독인지는 나도 모르겠다.단지 상처 부위가 견디기 어려울 지경으로 가렵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린 네 시진을 버티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제가 상세를 살펴봐도 될까요?"

소습지와 첨춘은 그가 나이도 어린데다가 거렁뱅이처럼 생겨 독상을 치료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소습지는 마치 조롱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 거칠게 소리쳤다.

"우린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니, 귀찮게 굴지 말고 멀찌감치 물러나라!"

장무기는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상문침을 집어 냄새를 맡아 보

았다. 은은한 난화의 향기가 풍겼다. 근래에 그는틈이 생길 때마다 왕난고가 남긴 독경을 읽어 천하의 온갖 해괴한 독물에 대해 확연히 알고 있었다. 지금 이 향기를 맡자 상문침에 청타라화(靑陀羅花)의 독액이 묻어 있다는 것을 이내 알아차렸다. 독경에 서술한 바에 의하면, 이 꽃즙 자체는 독성이 없어 한 사발을 들이켜도 중독이 되지 않지만 일단 피와 혼합되면 극독으로 변하는 동시 비릿한 냄새가 향기로 변한다 했다.

"이것은 청타라화의 독이 분명합니다."

첨춘은 상문침에 묻어 있는 독이 무슨 독인지는 몰라도 스승님의 화원에 여려 종류의 기화이초(奇花異草)가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장무기의 말을 신통하게 생각하며 얼른 물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았지?"

청타라화는 그 원산지가 서역이므로 중원에선 좀처럼 보기가 어려웠다.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수가 있어요."

그는 곧 양불회의 손을 잡았다.

"우린 이만 가자."

첨춘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소형제, 만약 치료 방법을 안다면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게."

장무기는 본디 그들을 구해 줄 작정이었으나, 돌연 설공원 등의 배은망덕한 일이 떠올라 망설여졌다. 이번에는 소습지가 간청을 했다.

"소상공, 내가 고인을 몰라보고 무례한 언동을 한 것을 용서하게."

장무기는 결심을 내린 듯 아랫 입술을 깨물었다.

"좋습니다. 한 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는 금침을 꺼내 첨춘의 가슴 단중혈과 어깨 양쪽 결분혈을 몇

번 찔렀다. 일단 장상을 입을 통증을 없애 주기 위해서였다.

"이 청타라화는 피를 봐야지만 독으로 변하니 삼켜도 상관 없습니다. 우선 두 분이 서로 상대방의 상처 부위를 빨아 엉켜 있는 피를 제거해야 합니다."

소습지와 첨춘은 모두 쑥스러워했다. 그러나 목숨이 중요하므로 서로 번갈아가며 상대방의 상처 부위를 빨았다. 장무기는 산기슭에서 세 가지 약초를 구해와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 두 사람의 상구에 붙여 주었다.

"이 세 가지 약초는 독성이 더 만연되지 않게 할 뿐 독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데는 별 효험이 없습니다. 일단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 약방을 찾아 다시 독을 치료하는 약을 조재해 드리겠습니다."

소습지와 첨춘은 원래 상처 부위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근질근질했다. 그런데 약을 바르자 거짓말처럼 시원하고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도 사라졌다. 그들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은 나뭇 가지를 꺾어 지팡이로 삼아 천천히 걸어갔다. 첨춘은 장무기의 사문 내력에 대해 물었지만 장무기는 적당히 얼버무리며 그저 어렸을 대부터 의술을 배울 기회가 있었다고만 했다.

한 시진 후에 이들은 사하진(沙河鎭)으로 들어서 객점에 투숙했다. 장무기가 약방문을 지어 주자 소습지가 점원을 시켜 약을 지어 오게 했다. 예서(豫西)일대는 다행하게도 가뭄의 피해가 심하지 않아 비록 넉넉지는 못해도 모두 나름대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다. 점원이 약을 지어 오자 장무기는 탕약을 달여 소습지와 첨춘에게 복용시켰다.

이들은 객점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장무기는 매일 약방문을 바꿔가며 환부에 발라 주기도 하고 탕약을 복용시키기도 했다. 나흘째 되는 날 두 사람이 당한 극독은 말끔히 제거되었다. 그들은 크게 감격해 장무기와 양불회가 어디로 가는 길인지 물었다. 장

무기는 곤륜산 좌망봉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첨춘은 내심 생각을 굴리는 듯 하더니 아랫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말했다.

"저..... 소대협, 이 소형제가 우리의 목숨을 구해 주었지만 저의 사형들은 계속 소대협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저와 함께 곤륜산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곤륜산으로.....?"

"네. 저의 스승님을 만나뵙고 사실대로 양의검법을 훔쳐 배우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세요. 그 어르신네가 생각을 달리 하시지 않는 한 언젠가는 후환이 닥칠 거예요."

소습지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난 단지 우연한 기회에 한 번 보았을 뿐인데, 끝끝내 죽음의 궁지로 몰려고 하니 세상에 이런 무경우가 또 어디 있겠소?!"

첨춘은 부드럽게 말했다.

"소대협, 소매는 곰곰이 생각한 연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의 스승님이 믿어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피해 다니시다가 저의 사형들에게 불행을 당하게 된다면 소매도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을 거예요."

이들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며칠간 생활을 같이 해오는 동안 서로 정이 들었다. 소습지는 그녀의 염려어린 말을 듣자 이내 분노가 사라졌다. 곤륜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쫓기다 보면 언젠가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

첨춘은 그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자 다시 입을 열었다.

"아무 생각 말고 우선 저와 곤륜산으로 가세요.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시다면 곤륜산에 다녀온 후 소매도 함께 돕겠어요."

"좋소, 그렇게 합시다. 한데 영사가 내 말을 믿어 줄지....."

"스승님은 늘 저를 아껴 주셨으니 통사정을 하면 소대협을 난처

하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이번 일을 매듭지은 뒤에 소매는 소대협의 아드님과 따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들이 당신의 형수님께 학대를 받는 것이 안타까와요."

소습지는 그녀의 말투에서 자기에게 일생을 맡기겠다는 뜻을 간파하고 내심 크게 기뻐했다. 그는 곧 장무기에게 말했다.

"소형제, 우리도 곤륜산으로 가야 하니 길벗이 되어 함께 가도록 하세."

다음날, 소습지는 마차 한 대를 빌려 양불회와 장무기를 마차에 태우고 자기와 첨춘은 말을 타고 앞장섰다. 정오 무렵, 큰 마을에 이르자 첨춘은 장무기와 양불회에게 새 옷을 사 주었다. 말쑥한 모습으로 탈바꿈한 장무기와 양불회의 영준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자 갈채를 보냈다.

서쪽으로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추워졌다. 소습지와 첨춘의 보살핌을 받아 아무런 변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서역에 당도하자, 곤륜파 세력 안으로 들어온 셈이니 더욱 말썽이 생길리가 만무했다. 단지 뼈를 에일 듯한 한풍과 황사가 기승을 부려 견디기가 어려웠다.

서역으로 들어선 지 이틀 후에 이들 일행은 곤륜산 삼성요(三聖拗)에 다다랐다. 이곳은 별천지였다. 융단을 깐 듯한 초원이 펼쳐져 있고 곳곳에 기화이초가 만발했다. 이곳 삼성요 주위는 온통 하늘을 찌를 듯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이상난류가 형성돼 있었다. 곤륜파는 곤륜삼성 별건가 이래 혁대 장문인들 모두가, 이 삼성요를 별지로 가꾸겠다는 노력하에 제자들을 강남 천축(天竺)가지 보내 기화이초를 옮겨와 뿌리를 내리게 했던 것이다.

첨춘은 세 사람을 데리고 철금선생이 사는 철금거(鐵金居)로 갔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대청 밖에 몇몇 제자들이 서성거리며 모두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첨춘은 무슨 일인가 궁금해 하면

서 사매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

"스승님은 안에 계시냐?"

그 여제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철금선생 하태충의 벼락 같은 호통소리가 후당 쪽에서 들려왔다.

"이런 밥통들, 무슨 일을 시키면 제대로 해내는 게 없구나! 너희들 같은 제자를 키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어 탁자를 내리치며 야단법석이었다.

첨춘이 나직하게 물었다.

"스승님의 역정이 대단하신 것 같으니, 아무래도 내일 만나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태충의 외침이 들려왔다.

"첨춘이냐? 뭘 소곤거리느냐? 그 소가 녀석의 목을 갖고 왔느냐?"

첨춘은 안색이 약간 변하며 얼른 대청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너에게 시킨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소가 녀석을 없앴느냐?"

"지금 밖에서 스승님께 사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의 규칙을 몰라 우연히 스승님께서 검술을 연마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단지 천하무쌍의 고명한 검술이라는 것만 느꼈을 뿐, 워낙 오묘하여 그 초식에 대해서는 조금도 깨우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스승님을 모신 지 오래 되므로 스승님이 무공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소습지가 본문의 무학을 극구 칭찬한다는 투로 말씀드린 것이다. 그래야지만 스승님의 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평상시 같았다면 하태충이 우쭐대는 기분에 첨춘이 바라는 대로 일을 가볍게 처리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은 상황이 달랐다. 하태충

은 냉소를 날리며 말했다.

"어쨌든 녀석을 잡아온 것은 잘했다. 그 녀석을 우선 뒷산 석실에 가두어라. 나중에 천천히 처리를 하겠다."

첨춘은 그의 기분이 언짢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간청을 할 수 없었다.

"네."

하고 대답하며 다시 물었다.

"사모님들께선 모두 편안하시죠? 제가 내당으로 가서 그 분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하태충은 처와 소실을 모두 다섯 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 다섯째 첩을 제일 좋아했다. 첨춘은 소습지의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우선 다섯째 사모님의 환심을 사 둘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하태충은 갑자기 울적한 표정이 되어 장탄식을 했다.

"가서 오부인(五夫人)을 만나뵙도록 해라. 그녀는 중병에 걸려 마지막 상면이 될지도 모른다."

첨춘은 깜짝 놀랐다.

"갑자기 무슨 병을 앓게 되셨죠?"

하태충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병명이라도 알면 오죽 좋겠느냐? 이미 칠, 팔 명의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왔지만 병명조차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다. 지금 온몸이 퉁퉁 부어 그렇게 아름답던 모습이..... 정말 딱해서 못 보겠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연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그렇게 많은 제자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도 쓸모가 없으니..... 장백산으로 가서 천 년 삼을 구해 오라고 보낸지도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소식이 없지를 않나, 설련과 하

수오 같은 영초를 구해 오라고 시키면 번번히 빈손으로 돌아오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구나."

첨춘은 내심 어이가 없었다. 장백산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 오가는데만 꼬박 두 달이 걸릴 텐데, 당도하자마자 천년 삼을 찾아 낼 리도 만무할 것이다. 게다가 설련, 하수오 같은 기사회생의 영초를 지닌 이물(異物)은 평생을 두고도 찾기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구해 올 수 있단 말인가? 스승님은 이 소첩을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태충이 다시 분연히 말했다.

"흥! 만약 그녀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모든 돌팔이 의원을 죽여 없애겠다."

첨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자가 직접 가 뵙고 싶습니다."

"좋다. 나도 함께 가마."

그들은 오 부인의 침실로 갔다. 문 안을 들어서자 마자 약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아니나 다를까, 하태충이 말한 대로 오 부인은 온몸이 퉁퉁 부어 목불인견이었다. 그렇게 빼어났던 용모가 이렇게 추악하게 변하리라곤 첨춘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태충은 시중을 들고 있는 아줌마에게 짜증스럽게 분부했다.

"가서 그 돌팔이 의원들을 다시 불러와라."

얼마 후 쇠사슬이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리며 일곱 명의 의원이 들어왔다. 그들은 발목에 모두 사슬이 묶여 서로 연결돼 있었다. 그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안색이 초췌했다. 이들은 모두 사천, 운남, 강숙 일대에서 용하다고 소문이 난 의원들로서, 하태충이 제자를 시켜 간청 반, 위협 반으로 붙잡아 온 것이다. 한데 그들의 견해는 서로 엇갈렸다. 오 부인의 증세가 수종(水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귀(寃鬼)가 뒤집어 씌운 거라고 부

득불 우기는 사람도 있었다. 자연히 그들이 내린 약방문도 각양각색이었다. 그들에게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오 부인의 병을 조금도 호전시키지 못했다는 것뿐이었다.

하태충은 노발충천하여 그들을 모조리 사슬로 묶어 버리고, 만약 오 부인을 완치시키지 못할 시에는 함께 매장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치 않아도 의견이 엇갈리는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자 매번 회진을 할 때마다 더욱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우며 심한 논쟁을 벌였다. 서로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 위해서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 진맥을 한 후 곧장 논쟁으로 돌입했다. 하태충은 울화통이 터져 냅다 욕설을 퍼부어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첨춘은 문득 뇌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스승님, 제자가 하남에서 명의 한 사람을 모시고 왔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누구보다도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하태충은 이내 얼굴이 환해지며 소리쳤다.

"왜 진작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어서 모셔오도록 해라!"

첨춘은 곧 장무기를 데리고 왔다. 장무기는 하태충을 보는 순간 왕년에 무당산에서 부모님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은 사람들 중에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 상기되어 내심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장무기는 그 동안 많이 성장하여 하태충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열 다섯 살 가량의 소년이 냉랭한 표정으로 첨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첨춘에게 물었다.

"네가 말한 명의는 어디에 있느냐?"

첨춘은 장무기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바로 이 소형제예요. 그의 의술은 아주 뛰어나 웬만한 증상이라면 문제없이 완치시킬 거예요."

하태충은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판국에 농담을 할 작정이냐?"

첨춘은 진지하게 말했다.

"제자가 청타라화의 독을 당했는데, 바로 이 소형제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태충은 깜짝 놀라며 내심 생각을 굴렸다.

'청타라화의 독이라면 본문의 독특한 해약 없이는 필시 죽기 마련인데, 이 꼬마 녀석이 치료를 했다니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그는 장무기의 아래위를 훑어보며 물었다.

"네가 정말 병을 치료할 줄 아느냐?"

장무기는 부모님의 참변으로 인해 본디 하태충을 원망스럽게 생각했으나, 천성이 순박하여 원한을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지는 못했다. 설공원 등의 병을 치료해 준 것도 그런 순박한 마음에서였다. 장무기는 그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한 갈래의 이상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잠시 머물려 있는 동안 그 냄새가 짙어졌다가 다시 엷어지는 것을 느끼고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는 하태충의 허락도 얻지 않고 오 부인의 침상 앞으로 다가가 양쪽 손의 맥을 짚어보고 나서 금침을 꺼내 갑자기 그 통통 부은 얼굴을 찔렀다.

하태충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뭐하는 짓이냐?"

그는 장무기의 손을 나꿔채려 했으나, 장무기는 이미 금침을 뽑았다. 그 즉시 오 부인의 얼굴에서 피가 섞이지않은 고름이 나왔다. 장무기는 금침을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아 보더니 턱을 끄덕였다.

하태충은 그의 느긋한 행동에서 한가닥의 희망이 생겨 다소 누그러진 말투로 물었다.

"소..... 소형제, 이 병이 완치될 수 있을까?"

그는 한 문파의 지존이면서도 스스로 신분을 낮추어 장무기에게 소형제라 칭했다.

장무기는 대답을 하지 않고 갑자기 오 부인의 침 상 밑을 유심히 살피더니, 다시 창문을 열어 화원을 살폈다. 이어 침상 밖으로 뛰쳐나가 뒷짐을 진 채 울긋불긋한 기화이초를 감상했다. 하태충은 오 부인을 총애하므로 창 밖에다 온갖 화초를 가꾸어 놓았다. 그는 즉시 신통한 처방을 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뜻밖에도 장무기가 창 밖으로 뛰쳐나가 여유작작하게 꽃을 감상하자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한 가닥의 서광을 발견한 터라 억지로 울화를 눌러 참았다. 그러자니 안색이 푸르락누르락해졌다.

장무기는 화초를 잠시 살펴보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방 안으로 돌아왔다.

"병을 치료할 수는 있지만 치료하고 싶지 않습니다. 첨 낭자, 저는 이만 떠나야겠습니다."

첨춘이 얼른 그를 만류했다.

"장형제, 만약 자네가 오 부인의 병을 치료해 준다면, 우리 곤륜파의 모든 사람이 자네의 은혜를 잊지 않을 걸세."

장무기는 하태충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의 부모님을 죽게 한 가람들 중에 이 분 철금선생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의 부인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까?"

하태충은 흠칫 놀라 물었다.

"소형제, 자네의 성함은 무엇이며 영중영당이 누구인가?"

장무기는 힘주어 말했다.

"저의 성은 장이며 선친은 무당파의 제 오 제자입니다."

하태충은 이내 안색이 굳어졌다.

'이제보니 장취산의 아들이군. 무당파의 학문은 뿌리가 깊으니 내가 상상 못할 의술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는 곧 처연하게 장탄식을 토하며 입을 열었다.

"장형제, 영존이 생존해 계실 때 나하고는 친분이 매우 두터웠네. 그가 뜻하지 않게 목숨을 끊자 내가 얼마나 비통해 했는지 그 땐 자네의 나이가 어렸으니 잘 모를 걸세."

그는 애첩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거짓을 꾸며 냈다.

첨춘도 스승님을 돕기 위해 거짓을 꾸며 냈다.

"영존과 영당의 죽음으로 인해 스승님께서는 문중으로 돌아와 통곡까지 하셨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늘 장오협과는 평생의 지기라고 말씀하시곤 했네. 장형제, 왜 진작 신분을 밝히지 않았나? 자네가 장오협의 혈육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더욱 대접을 잘 해 주었을 걸세."

장무기는 반신반의했다. 어쨌든 첨춘이 자기에게 잘 대해 준 것만은 사실이므로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이분 오 부인께서는 괴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라 금은혈사(金銀血蛇)의 독을 당한 겁니다."

하태충과 첨춘은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

"금은설사?"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독사를 본 적은 없지만 부인의 증상으로 미루어 틀림없는 겁니다. 철금선생, 부인의 발을 살펴보십시오. 발가락 끝에 생소한 이빨자국이 있을 겁니다."

하태충은 즉시 이불을 젖혀 오 부인의 발가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과연 발가락 끝부분마다 거무잡잡한 이빨자국이 나 있었다. 하지만 워낙 미세하여 코를 가까이 대고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가 없었다.

하태충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장무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졌다.

"과연 발가락마다 이빨자국이 있네. 소형제, 정말 대단하네. 이제 병의 근원을 알아냈으니 치료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 소첩

이 완쾌만 되면 내 후한 보상을 하겠네."
 이어 한쪽에 멀건히 서 있는 일곱 의원들에게 호통을 했다.
 "이런 돌팔이 같은 놈들! 발가락에 치흔이 있는 것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냐?"
 그는 욕설을 하면서도 희색만면하였다.
 장무기가 넌지시 말했다.
 "부인의 증상은 워낙 특이하여 저들이 병의 근원을 찾아내지 못한 것을 나무랄 수 없으니, 모두 돌려보내도록 하십시오."
 하태충은 껄껄 웃었다.
 "알았네, 알았어. 소형제가 왕림을 하셨는데 저런 돌팔이 의원들을 무엇하러 이곳에 붙잡아 두겠나? 춘아야, 저들에게 각자 은자 백 냥씩을 주어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해라."
 일곱 명의 의원은 죽음의 수렁에서 목숨을 건진 거나 진배 없으므로 날 듯이 기뻐하며 서둘러 떠나갔다. 행여나 장무기의 의술마저 신통치 않다는 게 판명돼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할까 봐 삼십육계 줄행랑을 친 것이다.
 장무기는 다시 엉뚱한 말을 했다.
 "가람을 시켜 부인의 침상을 옮기라고 하십시오. 침상 밑에 작은 구멍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바로 금은혈사가 들락거리던 구멍입니다."
 하태충은 누구를 시킬 생각도 않고 스스로침상을 번쩍 들어올려 한쪽으로 옮겼다. 과연 그 밑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즉시 소리쳤다.
 "어서 유황을 갖고 와라! 당장 이 고약한 독사를 태워 죽여야겠다."
 장무기가 얼른 손을 흔들며 제지했다.
 "아니 됩니다. 부인의 독을 제거하려면 그 두 마리의 독사가 필요합니다."

하태충은 멍해졌다.

"그거 참 납득이 가지 않는군.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주겠나?"

장무기는 창 밖 화원을 가리키며 말했다.

"철금선생, 오 부인의 기병은 저 화원에 심어져 있는 여덟그루의 영지란(靈脂蘭)에서 비롯한것입니다."

"저것이 영지란이란 말인가? 사실 나도 이름을 몰랐네. 내가 화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한 친구가 서역에서 갖고 와 삼은 걸세. 꽃도 예쁘거니와 향기도 좋아 애지중지했는데, 그게 화근일 줄이야....."

"책에 적힌 대로라면, 저 영지란의 뿌리는 둥근 구형(球形)으로서 색깔이 핏빛처럼 붉으며 극독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캐서 확인해 봅시다."

하태충은 곧 제자들을 시켜 영지란의 뿌리를 캐게 했다. 과연 장무기가 말한 그대로 였다. 장무기는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고스럽지만, 여덟 그루의 뿌리를 모두 캐서 질그릇에 넣고 계란 여덟 개와 닭피 한 사발을 섞어 질펵하게 찧어 놓도록 하시오. 그리고 찧을 때 살갗에 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첨춘은 대답을 하고 사매 둘과 함께 물러갔다.

장무기는 다시 한 자 남짓한 죽통 두 개와 죽봉(竹棒) 하나를 요구해 한쪽에 놓아두었다. 한참 기다려서야 영지란의 뿌리가 질펵하게 찧어졌다. 장무기는 그것을 바닥에 빙 둘러 원을 만들고는 두 치 가량의 틈새를 터놓았다.

"잠시 후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모두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독사가 놀라 달아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솜과 감초로 코를 틀어막으십시오."

일을 거들고 있는 여제자들은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장무기도

코를 틀어막고 나서 불을 붙여 영지란의 잎을 뱀구멍앞에서 태웠다. 얼마쯤 시간이 경과되자, 작은 구멍 속에서 조그만한 뱀대가리가 빠끔히 드러났다. 뱀의 몸은 핏빛이며 머리에 금빛 볏이 달려 있었다. 그 뱀이 느릿느릿하게 기어 나왔다. 뜻밖에도 다리가 네 개 달려 있으며 몸의 길이는 여덟 치 정도였다. 잇따라 구멍 속에서 다시 똑같이 생긴 뱀이 기어나왔다. 단지 머리 위에 달려 있는 볏이 은색이라는 게 다를 뿐이었다.

하태충 등은 이 두 마리의 괴사를 보자 모두 숨을 죽였다. 두 마리의 괴사는 혀를 날름거리며 다정하게 서로의 등을 핥아 주더니 천천히 그 영지란의 뿌리를 찧어 만든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갔다. 장무기는 얼른 죽통의 주둥이를 동그라미의 유일한 틈새에다 내려놓고 죽봉으로 살짝 은관혈사(銀冠血蛇)의 꼬리를 건드렸다. 그러자 은관혈사는 전광석화와도 같은 동작으로 그 죽통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금관혈사도 따라서 들어가려 했지만 죽통의 길이가 넉넉치 못해 두 마리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금관혈사는 괴상한 소리를 내며 다급해 했다. 장무기는 또 하나의 죽통으로 금관혈사를 몰아 넣고는 마개를 막아 버렸다. 그제서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길게 숨을 불어냈다.

장무기의 말에 따라 곧 여섯 명의 여제자가 뜨거운 물로 바닥을 깨끗이 청소했다. 장무기는 다시 창문과 출입문을 굳게 닫게 하고는 웅황(雄黃), 대황(大黃), 감초 등 몇 가지 약제를 가루로 빻아 은관혈사의 죽통 속에 주입하자 이내 요란한 소리를 냈다. 거기에 따라 금관혈사도 마치 맞장구를 치듯 기성을 질렀다. 장무기는 잠시 기다렸다가 금사의 죽통 마개를 뽑았다. 금사는 곧 죽통 속에서 나와 은사가 들어 있는 죽통을 중심으로 하여 몇 바퀴 맴돌더니, 갑자기 침상 위로 뛰어올라 부인의 이불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하태충은 소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장무기는 그 더러 조용히 있으라는 손짓을 하며 살며시 이불을 젖혔다. 그러자 금관혈사가 혀를 날름거리며 오 부인의 발가락을 핥다가 잘근잘근 깨무는 게 똑똑히 보였다.
장무기의 얼굴에희색이 띠어지며 나직하게 말했다.
"부인이 당한 금은혈사의 독을 지금 이 금은혈사를 이용해 다시 빨아내는 겁니다."
향이 반 자루가 타는 시간이 경과되자 발가락을 빨고 있던 금관혈사의 몸이 거의 두 배 가량 불어났다. 그리고 금빛 볏이 더욱 선명해졌다. 장무기는 그제서야 은관혈사가 들어 있는 죽통의 마개를 뽑았다. 금관혈사는 그 즉시 침상에서 뛰어내려 죽통 가까이 기어와 입으로 독혈을 뱉어내 은사에게 먹였다.
장무기는 매우 만족해 했다.
"됐습니다. 매일 이렇게 두 번씩만 독혈을 빨아내게 하면 열흘 이내에 완치될 수 있습니다."
하태충은 크게 기뻐하여 장무기를 자기 서재로 데려갔다.
"소형제의 신기에 정말 감탄했네. 어떻게 해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냈는지 가르침을 주겠나?"
장무기는 아는 대로 대답해 주었다.
"책에 기록돼 있는 바에 의하면, 이 한 쌍의 금관, 은관혈사는 천하 독물 중에 마흔 일곱 번째에 나열돼 있습니다. 그다지 무서운 독물은 아니지만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독을 흡취하는 것으로 비상, 학정홍(鶴頂紅), 공작담(孔雀膽) 따위의 극독을 가장 즐겨 먹습니다. 오 부인 침실 밖에 심어 놓은 영지란의 독성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 한 쌍의 금은혈사를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태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었군."
하고 장무기의 독에 관한 지식에 탄복해 마지 않았다.

장무기가 설명을 계속했다.

"금은혈사는 필히 수컷과 암컷이 함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웅황 등의 약재로 암놈을 탈진 상태로 만들자 수컷인 금관혈사가 짝을 구하기 위해 부인의 발가락을 빨아 그 독을 암놈에게 먹인 겁니다. 다음엔 약재로 수컷을 적당히 다스리면 암놈이 독혈을 흡취해 짝에게 먹일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부인의 체내에 있는 독혈이 말끔히 제거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뇌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 한 쌍의 혈사가 애당초 왜 오 부인의 발가락을 깨물었을까? 거기엔 까닭이 있을 텐데.....'

그는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날 하태충은 연회를 마련해 장무기와 양불회를 깍듯이 대접했다.

며칠이 지나자 오 부인의 퉁퉁 부었던 몸이 차츰 가라앉았다. 이제는 정신도 맑아졌고 음식을 섭취할 수도 있었다. 장무기는 작별의 뜻을 비쳤다. 그러나 하태충이 한사코 만류하는 바람에 눌러 앉았다. 열흘째 되는 날 오 부인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날, 오 부인은 특별히 정성드려 주연을 마련해 친히 장무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 첨춘도 배석했다. 오 부인은 비록 아직은 안색이 초췌하지만 타고난 미모가 다시 되살아났다. 하태충은 그저 좋아서 싱글벙글했다. 첨춘은 스승님의 마음이 흡족한 틈을 타서 소습지를 문하로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다.

하태충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춘아야, 너의 빈틈없는 계략에 두 손 들었다. 내가 그 녀석을 제자로 삼으면 나중에 자연히 양의검법을 전수해 줄 테니, 예전에 한 번 훔쳐본 것쯤이야 뭐가 문제될 게 있느냐?"

"스승님, 만약 그 사람이 스승님이 연검하시는 것을 엿보지 않

았다면 제가 그를 잡으러 갈 리도 없었고, 그러면 장형제를 만나게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승님과 오 부인의 홍복(洪福)이며 하늘의 보살핌입니다. 물론 장형제의 고명한 의술 덕분이지만, 소습지도 약간의 공로가 있는 셈입니다."

오 부인도 옆에서 한 마디 거들었다.

"당신은 많은 제자를 거두었지만, 결국 도움을 준 것은 첨낭자밖에 없잖아요? 첨 낭자가 그 소습지라는 사람을 잘 본 모양인데 제자로 거두도록 하세요. 나중에 당신의 의발제자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하태충은 애첩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 주었다.

"알았소. 제자로 삼으리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게 무엇이죠?"

오 부인이 묻자 하태충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내 문하에 투신한 후 열심히 배워야 하며, 춘아에게 엉뚱한 마음을 품어 아내로 맞이하려 한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첨춘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떨구었다. 오 부인은 까르르 웃었다.

"맙소사! 스승이 솔선수범해야죠. 자기는 첩을 주렁주렁 거느리고 있으면서 제자의 혼례를 금지시킬 수 있나요?"

하태충은 일부러 첨춘을 골려 주기 위해 한 말이었다.

그는 껄껄 웃었다.

"자, 술이나 마시지!"

어린 하녀가 나무 쟁반에 술주전자를 받쳐들고 가까이 다가와 각자의 술잔에 술을 따라 주었다. 끈적끈적한 술이 빛깔도 고울 뿐 아니라 향기 또한 농후했다.

하태충은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장형제, 이 술은 곤륜산의 명산으로 호박밀리주(琥珀密梨酒)라고 하네. 다른 곳에선 마실 수 없는 술이니 몇 잔 마셔두게."

사실 그는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모사왕의 행방을 캐내야 하는데, 일이 중요한 만큼 서둘러선 안 되겠지.....'

장무기는 본디 술을 마실 줄 몰랐다. 그러나 이 호박밀리주의 그윽한 향기에 구미가 당겨 술잔을 들어올려 입술을 갖다 대었다. 그 순간 품속 죽통 안에 있는 금은혈사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냈다.

장무기는 이내 느끼는 바가 있어 소리쳤다.

"이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멍해져 술잔을 내려놓았다.

장무기는 품속에서 죽통을 꺼내 금관혈사를 풀어놓았다. 그 금사는 술잔 가까이 기어가더니 술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셔버렸다. 장무기는 금사를 죽통 속에 몰아넣고 이번에는 은관혈사를 풀었다. 은관혈사도 마찬가지로 술 한 잔을 깨끗이 비워 버렸다. 이 한 쌍의 혈사는 짝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한 쪽만 풀어주면 절대 달아나지 않았다.

오 부인은 영문을 몰라 그저 재미있다고만 생각했다.

"소형제, 이 한 쌍의 독사가 술을 마시니 정말 재미있는 일이군."

장무기는 하녀에게 말했다.

"가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잡아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녀는 공손히 대답을 하고 물러가려는데 장무기가 만류했다.

"낭자는 이곳에 남아 있고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잠시 후 한인 한 명이 누런 개를 잡아 왔다.

장무기는 하태충 앞에 놓여 있는 술잔을 집어 개의 입 속에 부어넣었다. 개는 비명을 지르더니 곧 피를 흘리며 죽었다.

오 부인은 놀란 나머지 오돌오돌 떨었다.

"술에 독이..... 누가 우리를 독살하려던 모양인데, 장형제는

어떻게 알았지?"
 장무기는 간단하게 설명했다.
 "금은혈사는 독물을 즐겨 먹기 때문에 술 속의 독약 냄새를 맡자 기뻐서 괴성을 지른 것입니다."
 하태충은 안색이 새파랗게 변해 대뜸 하녀의 손목을 나꿔잡아 다그쳤다.
 "누가 이 술을 갖다 주라고 했느냐?"
 하녀는 놀란 나머지 혼비백산하여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저는..... 독이 있는지 몰랐어요. 큰 주방에서 들고 왔는데....."
 "큰 주방에서 이곳까지 오는 도중에 혹시 누굴 만나지 않았느냐?"
 "복도에서 행방(杏芳)을 만났어요. 그녀는 저를 붙잡고 얘기하면서 주전자 뚜껑을 열어 술냄새를 맡아 보았어요."
 하태충, 오 부인, 첨춘은 서로 마주 보며 모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다. 행방은 바로 하태충 정실부인의 몸종이었다.
 장무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철금선생, 한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있어 줄곧 주의를 기울여 왔는데, 애당초 금은혈사가 오 부인의 발가락을 물어 사독을 체내에 전달하게 된 것은 오 부인이 그 독약에 중독돼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오 부인에게 독을 전개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술에다 독을 풀어 넣을 자 일겁니다."
 하태충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며 한 줄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가 싶더니, 장무기는 멍치 부위에 따끔한 느낌이 들며 이미 누구에 의해 혈도가 찍히고 말았다. 앙칼진 여인의 음성이 들린 것도 바로 그 때였다.
 "맞았다. 내가 독을 전개한 것이다!"
 난데없이 나타난 자는 몸집이 우람한 반백의 여인으로서 머리카

락이 희끗하며 양미간에 살기가 서려 있었다.
 이 여인은 대뜸 하태충에게 턱을 치켜들며 시비조로 말했다.
 "내가 술에다 지네의 극독을 풀어 넣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오 부인은 겁먹은 표정으로 몸을 일으켜 공손히 인사를 했다.
 "그 동안 별고 없으셨어요?"
 이 몸집이 우람한 여인은 하태충의 정실부인이신 반숙한이었다. 또한 그의 동문 사제이기도 했다. 반숙한은 오 부인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다시 하태충에게 다그쳤다.
 "내가 독을 풀었으니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는데, 왜 대답이 없죠?!"
 하태충은 양미간을 접으며 투덜거리듯 말했다.
 "이 소년 의원이 못마땅하게 여겨져 술에 독을 푼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만약 나까지 중독되었다면....."
 "닥쳐요! 이곳에 있는 사람을 모조리 죽여도 내 속이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술주전자를 집어 흔들어 술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더니, 하태충앞에 내려놓고 냉랭하게 말했다.
 "난 원래 다섯 명을 모두 죽일 작정이었는데, 이 귀신 같은 녀석에게 발각됐으니 네 사람의 목숨은 살려두겠어요. 어서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 그 독주를 한 잔 마시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며 검을 뽑아 쥐었다.
 반숙한은 곤륜파의 걸출한 인물로서 하태충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더 많았다. 입문도 일찍 한데다가 무공도 하태충에 못지 않았다. 하태충이 젊었을 때 영준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저의 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들의 스승인 백녹자(白鹿子)는 명교의 한 고수와 싸우다 죽음을 당하는 바람에 미처 유언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장문인 자리를 쟁탈하기 위해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서 반숙한이 적극적으로 하태충을 도왔다. 그들이 힘을 합치자 막강한 세력이 형성되어 다른 사형제들이 감히사심을 품을 수 없었다. 결국 하태충이 장문인의 자리를 계승하게 된 것이다. 하태충은 그녀의 은덕에 감격하여 곧 아내로 맞아들였다. 서로 젊었을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나이가 많아지자 반숙한은 하태충보다 훨씬 늙어보였다. 하태충은 자식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첩을 얻기 시작했다.

반숙한은 수십 년 동안 그를 도와온 막강한 존재였다. 게다가 적당한 구실을 내세웠을 망정 첩을 얻은 것이 마음에 걸려 더욱 아내를 경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내를 두려워하면서도 첩을 늘려가는 일에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첩이 많아질수록 엄처시하가 되어 갔다. 지금 아내가 독술을 자기 앞에 내려놓자 감히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난 물론 독술을 마실 수 없다. 오 부인과 춘아도 마실 수 없고..... 장무기는 날 구해 준 은인이니 저 계집애를 내세우는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여기에 미친 하태충은 자리에서 일어나 잔에 독술을 따라 양불회에게 건네주었다.

"얘야, 네가 이 술을 마시도록 해라."

양불회는 질겁을 했다. 조금 전에 누런 개 한 마리가 술을 마시고 즉사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감히 술잔을 받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싫어요! 난 마시지 않을래요!"

하태충은 대뜸 그녀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마시게 하려 했다. 장무기는 지켜만 볼 수 없었다. 그는 냉랭하게 말했다.

"내가 마시겠어요."

하태충은 아내를 의식해 만류할 수가 없었다.

한편, 반숙한은 남편이 오 부인만 총애하는 것에 대해 짙은 질

투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독살을 계획했는데, 장무기로 인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증오심에 불탔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저 녀석은 해괴한 짓거리를 많이 하니, 독을 제거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 만약 그가 대신 마시겠다면 한 잔으로선 부족하니 독술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장무기는 하태충에게 구원의 눈길을 던졌다. 그러나 하태충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첨춘과 오 부인도 겁을 잔뜩 집어 먹고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장무기를 위해 입을 열기만 하면 당장 반숙한으로 부터 날벼락이 떨어질 것만 같았다.

장무기의 가슴 밑바닥에서 찬바람이 일었다.

'저 사람들의 생명은 내가 구해 준 것인데, 내가 위기에 처하니 모두 수수방관만 하는구나.....'

그는 죽음에 대해 별다른 두려움은 없었다. 이미 오래 전에 죽음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나 양불회가 걱정되었다.

"첨낭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누이를 곤륜산 좌망봉에 있는 그녀의 아버님께 데려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첨춘은 자신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스승님을 쳐다보았다.

하태충이 고개를 끄덕이자 비로소 장무기에게 대답했다.

"좋아. 내가 그녀의 아버님께 데려가 줄께."

그러나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곤륜산의 범위가 천 리나 되는데, 좌망봉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아야지.....'

그녀의 생각은 자연히 표정으로 표출되었다. 장무기는 그녀가 건성으로 대답하는 느낌을 받자 심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냉소를 날렸다.

"명문정파라 자처하는 곤륜파가, 알고 보니 형편없었군. 좋소, 어서 술을 나에게 주시오."

하태충은 그의 모욕적인 말에 발끈했으나,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생각하니 노골적으로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그는 사손의 행방을 추궁할 생각도 잊은 채 술주전자를 건네주었다. 장무기는 이미 죽을 결심을 한 터였으므로 주저없이 술을 모두 꿀꺽꿀꺽 마셔 버렸다. 양불회는 장무기를 끌어안고 방성통곡을 했다.

반숙한은 코웃음을 날렸다.

"너의 의술이 제아무리 뛰어났다 해도 움직일 수 없으면 자신을 구할 재간이 없겠지!"

그녀는 장무기의 어깨, 허리 등 여러 부위에 혈도를 찍었다. 이어 하태충, 첨춘, 오 부인, 양불회에게도 혈도를 찍었다.

"두 시진 후에 너희들의 혈도를 풀어 주러 오겠다."

그녀가 혈도를 찍을 때 하태충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반숙한은 한쪽에서 떨고 있는 하녀에게 호통을 쳤다.

"모두 밖으로 나가라!"

그녀는 맨 마지막으로 방을 나와 밖에서 문을 잠그어 버렸다. 독술을 마신 장무기는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이 엄습해 왔다. 그러나 고통을 참는데 익숙해진 그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암암리에 진기를 끌어올려 사손으로부터 배운 방법으로 우선 몸에 찍힌 혈도를 차례차례 풀어나갔다. 그리고 나서 머리카락을 몇 올 뽑아 입 안에 넣어 후두를 살살 건드리자 즉시 울컥울컥 뱃속의 독술을 거의 다 토해냈다. 하태충과 첨춘 등은 혈도가 찍힌 그가 움직이자 모두 의아해 했다. 하태충은 그가 술을 토하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혈도가 찍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장무기는 이제 더 이상 토해 낼 것이 없었다. 그저 헛구역질만 할 뿐이었다. 우선 양불회의 혈도부터 풀어 주려 했다. 한데 반

숙한의 점혈수법이 독특하여 좀처럼 풀 수가 없었다. 장무기는 해혈수법으로 거듭 시험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처지가 못 되었다. 그는 곧 양불회를 안아 창문을 열고는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창문 밖에 내려놓았다.

하태충도 반 시진 후면 자신의 진기로서 찍힌 혈도를 풀 수 있었다. 지금 장무기가 달아나려는 것을 보자 당황해졌다. 아내에게 나중에 문책당할 것도 문제겠지만, 장무기가 달아나 자기네들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퍼뜨린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장무기를 죽여야만 했다. 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소리를 지르려 했다. 장무기는 그것을 이미 예측하고 품속에서 검은 알약을 꺼내 오 부인의 입 속에 쑤셔넣었다.

"이것은 구비환(鳩批丸)이오. 열 두 시진 후엔 오 부인의 오장이 파열돼 죽게 될 것이오. 내가 해약을 삼십 리 밖 나무 위에 올려놓고 표시를 해 놓을 테니 사람을 시켜 갖고 오도록 하시오. 그러나 내가 붙잡혀 죽는다면 부인도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소형제, 내가 사는 이곳 삼성당은 비록 용담호혈은 아니지만, 너의 실력으로선 빠져 나가지 못할 것이다."

장무기도 그의 말이 결코 근거없는 위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냉랭하게 말했다.

"그러나 오 부인이 복용한 이 구비환의 독성은 나를 제외하고 아무도 해독할 수 없을 것이오."

"좋다. 나의 혈도를 풀어 주면 내가 직접 널 데리고 나가겠다."

장무기는 그의 말을 믿기로 했다. 지금 상황으로선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하태충에 찍힌 혈도를 풀기 위해 노력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물론 그의 해혈수법도 독특했다.

그는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곤륜파의 점혈수법은 과연 무섭군. 의부는 나에게 일곱가지 해

혈수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아무런 효용이 없으니.....'

하태충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 녀석의 해혈수법은 괴이하면서도 정묘하군. 마누라가 분명 녀석의 일곱 군데 혈도를 찍었는데 스스로 간단하게 풀다니..... 무당파가 최근에 강호에서 명성을 크게 떨치고 있는 게 결코 우연한 일만은 아니군. 그날 무당산에서 싸움을 벌이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다. 이 꼬마 녀석의 실력이 이 정도이니 장삼봉과 그의 제자들은 오죽하겠는가?'

하태충은 장무기가 사손으로부터 스스로 혈도를 푸는 비법을 가르침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물론 무당파는 나름대로 무림에 위명을 떨칠 만한 비학을 지니고 있었지만, 장무기의 이 두 가지 비법은 무당파와 무관했다.

하태충은 그의 해혈수법이 효용을 거두지 못하자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다.

"향차를 한 잔만 마시게 해줬으면 좋겠다."

장무기는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왜 갑자기 차를 마시려 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그러나 애첩의 생명을 생각해 감히 자기에게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차를 한 잔 마시게 해주었다.

하태충은 차를 삼키지 않고 입 안에서 한 번 굴리더니, 갑자기 자기의 팔꿈치 안쪽 청냉연(淸冷淵)을 겨냥해 힘차게 뿜어냈다. 한 줄기의 물살이 쏟아지자 팔에 찍힌 혈도가 이내 풀렸다. 장무기는 곤륜산 삼성당에 온 후로부터 줄곧 하태충의 연약한 면만 보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가 신공을 전개하는 것을 보자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곤륜파의 장문인답게 심후한 무공을 지니고 있군. 보아하니 그의 무공은 나의 이사백님과 금화파파, 멸절사태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것 같다. 만약 그가 물화살을 내 얼굴에 뿜었다면 이

미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하태충은 곧이어 스스로 자신의 다리 부위 혈도를 풀었다.
 "우선 해약을 내놓아라. 그러면 무사히 이곳을 벗어나게 해주마."
 장무기는 고개를 내둘렀다.
 하태충은 다급해졌다.
 "나는 곤륜파의 장문이다. 너 같은 어린애에게 약속을 어길 것 같느냐? 만약 그 동안 독성이 발작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장무기는 단호하게 말했다.
 "독성이 절대발작하지 않을 것이오. 더구나 해약에다 한 가지 약초를 더 첨가해야 하므로 지금은 내줄 수가 없소."
 하태충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다. 일단 몰래 이곳을 빠져 나가자."
 두 사람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그는 양불회의 등에다 소매를 살짝 떨치자 이내 혈도가 풀어졌다. 실로 경쾌하고 절묘한 수법이었다. 장무기는 다시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태충은 그의 눈빛에서 마음을 꿰뚫어 보는지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띄더니, 두 사람을 데리고 삼성당 뒤쪽 화원을 끼고 돌아 옆문으로 빠져 나갔다.
 삼성당은 모두 아홉 칸으로 되어 있었다. 후화원의 옆문을 나와 꾸불꾸불한 꽃길을 지나 다시 여러 군데의 대청을 뚫고 나갔다. 그는 곳마다 처마와 처마가 줄줄이 이어진데다가 문이 워낙 많아 하태충이 앞장서지 않았다면 장무기는 영락없이 길을 잃었을 것이다. 설령 곤륜파 제자들의 저지를 받지 않는다 해도 이곳을 빠져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삼성당을 벗어나자 하태충은 양불회를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으로는 장무기를 잡더니 경공술을 전개해 서북쪽으로 질주했다. 장

무기는 달리는 도중에 품속에서 해독환을 두 알 꺼내 삼켰다. 한데, 그들이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의 앙칼진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하태충..... 하태충! 멈추지 못하겠소?"

바람결에 실려온 이 외침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지척지간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숙한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었다.

하태충은 엉거주춤하더니 걸음을 멈추었다.

"아내가 뒤쫓아온 모양이니 더 이상 너희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달아나도록 해라."

장무기는 내심 생각했다.

'철금선생은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군.....'

그의 순진함은 너무나 쉽게 감동하게 했다.

"철금선생, 이젠 돌아가세요. 내가 오 부인에게 복용시킨 것은 독약이 아니니 아마 염려 마세요."

하태충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 독약이 아니란 말이냐?"

장무기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손으로 오 부인을 구했는데 어떻게 내 손으로 다시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반숙한의 외침이 다시 들려왔다.

"하태충..... 달아날 수 있을 것 같소?"

그녀의 음성이 훨씬 가까이 들렸다.

하태충이 장무기와 양불회를 데리고 달아난 것은 순전히 애첩의 안위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속임수 였음을 알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그는 다짜고짜 장무기의 빰을 철썩철썩 후려쳤다. 장무기는 이내 얼굴이 붉게 부어올라 입가에서 선혈이 흘러내렸다.

장무기는 비로소 후회가 됐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젠 진심을 알았으니 나는 물론 이거니와 불회 누이까지 목숨을 잃게 됐군.....'

하태충이 다시 빰을 때리려 하자 장무기는 발악을 하듯 무당 권법 중의 한 초식인 도기룡(倒騎龍)을 전개해 주먹을 쭉 뻗어냈다. 만약 유연주 등이 이 초식을 전개했다면 위력이 상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무기의 보잘것없는 실력으로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꼴이었다. 하태충은 살짝 옆으로 피하며 그의 오른쪽 눈을 적중시켰다. 그 즉시 눈두덩이 부어 올랐다. 장무기는 도저히 상대방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예 반항을 포기했다.

장무기는 눈에서 별들이 보일 정도로 호되게 얻어맞았다. 한참 정신없이 맞고 있는데 반숙한이 여제자 둘을 거느리고 달려왔다. 그녀는 장무기가 전혀 반항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재미가 없다고 느꼈는지 하태충에게 소리쳤다.

"이번엔 저 계집애를 때려 보시지!"

그녀의 몸에 잔인한 피가 흐르는 게 분명했다. 하태충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이내 몸을 돌려 양불회의 빰을 후려쳤다. 양불회는 아픔을 견디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장무기는 참을 수 없었다.

"이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거냐? 차라리 날 죽여라!"

그는 하태충이 다시 양불회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것을 보고 다짜고짜 그의 가슴에 머리를 처 박으며 덤벼들었다.

반숙한이 냉소를 날렸다.

"저 어린 녀석도 의리를 아는데 당신같이 의리가 없고 박정한 사람은 느끼는 게 없나요?"

하태충은 얼굴이 붉어지며 장무기의 뒷덜미를 잡아 냅다 한쪽으로 집어던지며 호통했다.

"이 잡종 같은 놈! 저승으로 가서 네 애비, 에미나 만나거라!"

이번만큼은 진력을 사용해 장무기를 집어던진 것이다.

장무기는 무서운 속도로 허공을 가로질러 멀리 떨어져 있는 바윗돌을 향해 머리부터 부딪쳐 갔다. 영락없이 뇌가 파열되어 목숨을 잃게 될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 갈래의 힘줄기가 뻗쳐와 장무기를 옆으로 밀어낸 것도 바로 이 순간이었다.

장무기는 별다른 충격 없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혼비백산하여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퉁퉁 부은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흰색 장포를 입은 중년 서생이었다. 반숙한, 하태충 부부는 서로 마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서생이 언제 이곳에 당도했으며,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설령 그가 벌써부터 바위 뒤에 숨어 있었다 해도 자기네들의 예민한 감각으로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었다. 하태충이 방금 장무기를 집어던진 힘은 최소한 오, 육백 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서생은 소매를 살짝 떨쳐 그 힘을 와해 시키지 않았던가!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그의 무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었다.

중년 서생은 냉랭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호수처럼 깊은 그의 눈에는 왠지 우수가 담겨져 있는것 같았다.

하태충은 헛기침을 하고 나서 물었다.

"귀하는 누군지.....? 무엇 때문에 우리 곤륜파가 하는 일에 참견을 하는 거요?"

중년 서생은 담담하게 말했다.

"두 분이 바로 철금선생과 하 부인이오? 나는 양소라고 하오."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하태충, 반숙한, 장무기는 동시에 놀란 외침을 토했다.

그러나 장무기의 외침 속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고, 하태충 부부

의 외침 속에는 분노가 깔려 있었다.

곤륜파의 두 여제자는 분부가 떨어지기도 전에 검을 뽑아 사부와 사모님께 건네주었다.하태충은 즉시 장검을 가슴 앞에 세워 설포교(雪抱僑)의 자세를 취했고, 반숙한은 검끝으로 비스듬히 땅을 가리키며 소목엽(掃木葉)의 자세를 전개했다. 그들은 상대방이 만만찮은 강적임을 알고 곤륜파 검법 중에 가장 심오한 초식을 펼친 것이다.

양소는 그들을 무시하듯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다만 장무기의 외침 속에 기쁨이 담겨 있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져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이때 장무기는 눈두덩이가 붓고 코가 시퍼렇게 멍들어 얼굴이 온통 피로 뒤범벅돼 있었지만,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장무기는 마른침을 꿀꺽 삼키며 소리쳤다.

"다...당신이 정말 명교의 광명좌사자 양소 양백부님이신가요?"

양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날 어떻게 알고 있지?"

장무기는 양불회를 가리키며 다시 흥분에 들뜬 음성으로 소리쳤다.

"얘가 바로 당신의 딸이에요."

그는 양불회를 끌고 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불회야, 어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어서! 우린 드디어 찾아 냈어!"

양불회는 커다란 눈을 깜박이며 양소를 쳐다보았다. 장무기의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양소가 아버지든 아니든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다.

"엄마는 어디에 있지? 엄마는 왜 아직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

는 거야?"

양소는 전신에 한 차례 진동이 일며 냅다 장무기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애야, 방금 뭐라고 했느냐? 이..... 여자애가 누구의 딸이라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그가 힘주어 움켜쥐는 바람에 장무기는 어깨쭉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좀처럼 비명을 지르지 않는 그도 앗! 하고 소리치며 일그러진 얼굴로 말했다.

"그녀는 당신의 딸이에요. 그녀의 어머니가 바로 아미파의 여협 기효부예요."

본디 창백한 양소의 안색이 더욱 창백하게 변했고, 음성마저 떨려 나왔다.

"그녀에게 딸이..... 있었단 말이냐?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는 얼른 양불회를 안았다. 하태충에게 맞아 뺨이 부어 있지만 기효부와 닮은 데가 많았다. 그가 직접 양불회에게 물으려는데 홀연 목에 걸려 있는 검은색의 쇠줄을 발견했다. 그 가느다란 쇠줄 끝에 철패가 매달려 있는데, 한복판에 금색으로 불길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바로 자기가 기효부에게 준 명교의 철염령(鐵炎令)이었다. 이제는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불회를 품안에 꼭 끌어안으며 다급히 물었다.

"너의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

양불회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나도 엄마를 찾고 있는데 저희 엄마를 보지 못했나요?"

양소는 그녀의 나이가 어려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자 장무기에게 시선을 던졌다.

장무기는 한숨을 내쉬었다.

"양백부님, 제 말을 듣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기 아주머니는 자기의 스승님 손에 목숨을 잃었어요. 죽기 전에 저더러....."

양소가 갑자기악을 쓰듯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엄청난 충격에 이성을 잃었다. 장무기는 그에게 팔이 잡혀 있었는데 양소가 악을 쓰는 순간 그만 팔뼈가 부러졌다. 그와 동시에 양소와 함께 한쪽에 쓰러졌다. 양소는 여전히 오른손으로 딸을 안고 있었지만 눈을 희끄무레 까뒤집은 채 기절해 있었다. 엄청난 충격을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하태충과 반숙한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장검을 뽑어내 양소의 목과 미간을 겨냥했다.

양소는 명교의 대고수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반숙한과 하태충은 스승님이 명교 고수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만 알 뿐 흉수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곤륜파의 동문들은 모두 양소의 소행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었다. 하태충 부부는 이곳에서 갑자기 양소를 만나게 되자, 이심전심 이미 살의(殺意)를 품고 있었다. 그런데 출수를 하기도 전에 양소가 스스로 까무라쳤으니,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라 생각해 즉각 급소를 겨냥하게 된 것이다.

반숙한이 잔인하게 말했다.

"우선 놈의 사지부터 자르세요!"

하태충은 여부가 있겠느냐는 듯 신이 나서 대답했다.

"알았소!"

양소는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는 사실도 모르고 여전히 정신을 잃고 있었다. 다급해진 것은 그가 아니라 장무기였다. 그는 팔이 부러진 고통으로 인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기각을 잃지 않고, 황급히 발끝으로 양소의 정수리 백회혈(百會穴)을 살짝 걷어찼다.

백회혈은 뇌의 중추혈도로서 가벼운 충격을 받자 양소는 이내 깨어나 눈을 떴다. 그 순간 음산한 한기가 미간을 엄습해 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몸이 마치 용수철에 의해 튕겨지듯 곧장 뒤로 날아간 것도 바로 이 순간이었다. 오랜 경험에 의해 몸에 밴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뒤로 날아가는 그의 몸은, 빳빳한 것이 흡사 죽은 송장의 목에 밧줄을 걸어 뒤에서 힘껏 끌어당겨진 것처럼 보였다. 그가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 허공에 포물선을 그리며 피빛 무지개가 수놓아졌다. 뒤로 일 장 남짓 날아가 떨어져 내린 그의 가슴에 길다란 혈흔(血痕)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것은 미간을 겨냥했던 반숙한의 검끝이 아슬아슬하게 코끝은 스치고 가슴에 가벼운 상처를 낸 것이다. 그리고 사지를 자르기 위해 떨쳐졌던 하태충의 검도 빗나가 단지 팔뚝에상처를 냈을 뿐이었다. 실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만약 반숙한의 검끝이 반 치가량만 더 깊이 파고 들었다면, 양소는 가슴이 찢어져 오장육부를 쏟아내며 참사를 당했을 것이다.

양소가 전개한 신법은 실로 불가사의한 것이었다. 놀란 것은 오히려 하태충 부부였다. 그들은 분명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다. 입을 멍하니 벌린 채 그들은 넋을 잃었다. 그 순간 양소의 몸이 다시 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튕겨왔다.

뚝! 뚝!

하태충 부부의 장검이 부러졌다. 양소가 전광석화같이 발로 걷어차 부러뜨린 것이다. 하태충 부부의 무공으로 미루어 볼 때, 양소의 무학이 제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동시에 두 자루의 장검을 걷어차 부러뜨릴 수는 없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초식이 워낙 괴이한데다가 하태충 부부는 그가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반격을 해오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흠칫 놀라 미처 검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모든 변화는 한 순간에 일어난 것에 불과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양소의 괴초가 그것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가 잇따라 두 발을 날리자 부러진 장검의 앞토막이 격출되어 제각기 하태충 부부를 행해 뻗쳐갔다. 하태충 부부는 반 토막의 장검으로 막아야만 했다. 순간, 맑은 금속성이 들리며 하태충 부부는 반 토막의 검끝으로 맞섰으나 손목이 얼얼했다.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뒤로 물러나 서북 방향과 동남쪽으로 서로 갈라섰다. 그들 손에 쥐어져 있는 장검은 비록 반 토막밖에 남아 있지 않았으나, 한 사람은 가슴앞으로 들어올려 하늘을 가리키고, 한 사람은 허리 아래로 내려 땅을 겨냥했다. 그것은 음양합벽(陰陽合壁)으로서 바로 곤륜파의 진산비학인 양의검법의 기수식이었다. 그들은 내심 다소 당황했지만 기세만큼은 태산을 압도하듯 위압감을 주었다.

곤륜파의 양의검법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명성을 얻은 천하명검법중의 하나였다. 하태충 부부는 동문 사형매로서 어려서부터 무공을 함께 연마해 왔기 때문에, 특히 이 양의검법에 대해서는 자신만만 했다.

양소는 곤륜파의 고수들과 겨루어 본 적이 있어 이 양의검법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두렵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격패하려면 최소한 백여 초식 이상을 맞부딪쳐야 하 것이다. 한데, 지금은 기효부의 비보로 인해 정신 집중이 어려운 데다가 부상까지 입어 시간을 오래 끌면 유리할 게 없었다. 하여, 냉랭하게 말했다.

"곤륜파는 갈수록 검법이 퇴보하는군. 오늘은 이대로 돌아가겠지만 나중에 필시 이 빚을 갚으리라!"

그는 왼손으로 양불회를 안고 오른손으로 장무기를 잡아 아무런 자세도 취한 것 같지 않았는데 홀연 일 장 밖으로 물러났다. 그리고 눈깜짝할 사이에 이미 십여 장 밖으로 벗어났다.

하태충 부부는 그의 귀신 같은 신법에 다시 넋을 잃었다. 그들은 이 대마두가 스스로 물러간 것을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였으니 감히 추적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양소는 단숨에 몇 리 밖으로 달려나가 별안간 걸음을 멈추고는 장무기에게 물었다.

"기효부 낭자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당했느냐?"

장무기는 독술을 토해 내고 해독환을 복용했지만, 아직 체내의 독이 말끔히 제거되지 않아 다시 복통이 일어났다. 그는 금관혈사를 꺼내 자기의 왼손 식지를 깨물어 독을 빨아내게 하며 기효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병을 치료해 주었으며, 어떻게 해서 멸절사태와 만났고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 소상히 얘기해 주었다. 이 무렵 금관혈사는 그의 체내의 독소를 모두 뽑아냈다.

양소는 기효부가 임종을 앞두고 한 말을 다시 자세하게 듣고 나서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멸절, 그 잔인한 계집중의 요구에 따라서 날 죽였다면, 아미파를 위해 큰 공을 세워 장문까지 계승할 수 있었을 텐데..... 효부! 왜 죽음을 무릅쓰고 거절을 했소? 거짓이라도 좋으니 일단 승락만 했다면 우린 다시 만나게 됐을 것이고 당신도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게 아니오!?"

장무기가 그의 말을 받았다.

"기 아주머니는 인품이 곧아 당신에게 독수를 전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승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양소는 처연하게 웃었다.

"너야말로 효부의 지기구나. 그녀의 스승이 그런 잔인한 수단을 전개할 줄이야....."

장무기는 그의 품안에 안겨 있는 불회를 쳐다보고 나서 말했다.

"저는 기 아주머니의 유명에 따라 불회누이를 당신에게....."

양소의 몸에 한 차례 진동이 일었다.

"불회라고?"

그는 직접 양불회에게 물었다.

"얘야, 내 착한 보배야, 너의 성은 무엇이며, 이름은 무엇이냐?"

양불회는 이내 대답했다.

"성은 양이고, 이름은 불회예요."

양소는 앙천장소를 했다. 그의 장소(長簫)에 주위에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한참 후에야 그는 장소를 거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과연 성이 양이군. 불회라..... 볼회..... 효부! 당신은 비록 억지로 나에게 몸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았구료....."

장무기는 기효부에게서 두 사람 사이에 얽힌 얘기를 들었다. 지금 양소를 보니 비록 그녀에 비해 나이가 많은 것이 흠이지만 영준비범하여 멋진 미남자임에 분명했다. 순진해 보이기만 한 은이정 숙부에 비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여건을모두 갖추고 있는 것 같았다. 기효부는 비록 강압에 못 이겨 순결을 상실했지만 결국은 진심으로 그를 흠모하게 된 것이다. 장무기는 아직 어려 남녀지간의 복잡 미묘한 감정 변화를 알랴마는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었다.

장무기는 부러진 팔에 다시 통증을 느껴 나뭇 가지 두 개를 꺾어 양쪽에 받치고 나무 껍질로 동여맸다. 양소는 가가 어린 나이에 익숙한 솜씨로 접골을 하는 것을 보자 다소 의아해 했다.

장무기는 곧 작별을 고했다.

"양 백부님, 이제 기 아주머니의 분부대로 불회에게 아버님을 찾아 주었으니 이만 작별을 고할까 합니다."

양소는 진지하게 말했다.

"네가 불원천리 내 딸을 데려다 주었는데, 내 어찌 보답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말해 보아라.

이 양소가 해내지 못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장무기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양 백부님, 기 아주머니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군요. 혹시 그녀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양소는 안색이 크게 변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장무기는 힘주어 말했다.

"기아주머니는 저를 과소평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따님을 당신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만약 제가 무엇을 바라는 놈이라면 애당초 부탁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내심 투덜거렸다.

'불화와 이것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어야만 했던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 만약 내가 이득을 바라는 소인배라면, 오늘 당신네 부녀는 상봉하지 못했을 것이오.'

그는 공치사가 싫어 그간의 고생을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몸을 숙여 정중히 읍을 하더니 곧 떠나가려 했다.

양소가 그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 너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나 양소는 은원이 분명한 사람이다. 자 나와 함께 가자, 일년 이내에 너를 절세고수로 만들어 주겠다."

장무기는 이번 기회에 강호가 얼마나 험악한 곳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강한 무공을 배울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절대 마교의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태사부의 말씀이 떠올랐다. 더군다나 자기는 수명이 반 년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설령 천하무적의 무공을 연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양 백부님의 뜻은 고맙지만, 저는 무당제자로서 다른 문파의 무공을 배울 수 없습니다."

양소의 낯빛이 약간 굳어졌다.

"네가 무당파의 제자라고? 그럼 은이정 은육협과도....."

"그분은 저의 사숙님입니다. 선친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은육숙은 친숙부님 못지 않게 저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 아주머니의 부탁을 받아 불회를 이곳까지 데려왔지만, 은육숙에게는 미안한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양소는 그의 눈과 마주치자 내심 죄의식을 느껴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했다.

"너의 은혜는 나중에 보답하겠다. 그럼 너의 앞날에 하늘의 가호가 있길 바라겠다."

그는 몸을 번뜩이더니 이미 몇 장 밖으로 물러났다.

양불회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무기 오빠! 무기 오빠!"

그러나 양소는 신법을 전개해 이내 멀어져 갔다. 따라서 불회의 외침소리도 차츰 멀어져 갔다.

----- 제 3 권 2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3 권

제 3 장 주장령의 음모(陰謀)

장무기와 양불회는 만 리나 되는 먼 길을 지나 서쪽으로 올 때까지는 서로 그림자처럼 의지하며 지내왔다. 그런데 갑자기 헤어지게 되자 몹시 섭섭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기효부가 부탁한 그녀의 여식을 실수없이 양소에게 보냈다는 생각을 하자 그런대로 마음의 위안이 됐다. 잠깐 서 있는 동안 혹시 하태충, 반숙한

등 곤륜파 사람들과 다시 마주치게 될까 봐 즉시 산 속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십여 일을 걸어가자 팔에 입은 상처는 점차 완쾌되었다. 그러나 곤륜산에서 아무리 왔다갔다 헤매어도 산을 벗어날 길을 찾지 못했다. 이날은 계속 반나절이나 걸어 몹시 피곤하여 돌더미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북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무려 십여 마리가 되는 것 같았다. 개 짖는 소리가 재차 가까이 들리면서 마치 사나운 야수를 쫓는 것 같았다.

개 짖는 소리에 따라 한 마리의 작은 원숭이가 급히 달려오고 있었는데, 꽁무니에 화살 하나가 박혀 있었다. 그 원숭이는 수장 밖으로 달려가더니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치듯 뒹굴었다. 꽁무니에 박힌 화살 때문에 높은 나무 위로 기어오르지 못했다. 게다가 너무 지쳐버려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장무기가 얼른 다가가 살펴보니, 원숭이의 눈에서 애절과 공포의 빛이 서려 있었다. 순간 장무기는 묘한 생각에 잠겼다.

'내가 곤륜파 사람들에게 쫓겨 다닐 때 아직 저 원숭이와 같았을 거야.'

그는 즉시 원숭이를 안아 조심스레 화살을 뽑아 주고 품에서 환약을 꺼내 잘근잘근 씹어 상처 부위에 발라 주었다.

바로 이때 개 짖는 소리가 가볍게 들려왔다. 장무기는 얼른 옷깃을 풀어서 원숭이를 품속에 숨겼다. 삽시간에 크고 사나온 사냥개가 달려와 그를 꼼짝 못하게 포위했다. 사냥개들은 원숭이 냄새를 맡자 송곳니를 드러내 으르렁 거렸으나 금방 덮쳐오지는 않았다.

장무기는 이 사나운 개떼가 톱니 같은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당장 덮쳐올 자세이자 속으로 몹시 겁을 먹고 있었다. 몰론 품안에 있는 원숭이를 던져 버리면 개떼가 원숭이에게만 덮쳐갈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부친에게서 받은 교훈은, 매사

에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비록 야수 한 마리일망정 서운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몸을 날려 개떼들의 머리위를 지나서 급히 달려갔다. 순간 개떼들도 짖어대며 뒤쫓아왔다.

사냥개가 뛰는 속도는 굉장했다. 장무기가 십여 장 밖으로 달려갔는데 바로 뒤따라왔다. 순간 다리에 통증이 오면서 장무기는 한 마리 맹견에게 물렸다. 맹견은 죽어라 하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급히 몸을 돌려 그 사냥개의 머리통에 일장을 후려쳤다. 이 일 장은 전력을 다해서 격출한 것이라 사냥개는 비명과 함께 몇 번 뒹굴더니 기절해 버렸다. 그러자 나머지 사냥개들은 피냄새를 맡은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

장무기는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가며 사력을 다해 대항했다. 그러나 그의 팔에 입은 상처가 아직 완쾌되지 않아 제대로 팔을 움직일 수 없었다. 얼마 후, 움직일 수 있는 왼손마저 사나운 개에게 물려 무방비 상태가 되자 사방에서 개떼들이 덮쳐와 마구 물어도 속수무책이었다. 머리, 얼굴, 어깨 등 온몸이 개떼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 경황이 없는 찰나, 어렴풋이 가냘프면서도 앙칼진 여인의 호통소리가 차츰 가까이 들려오는 것을 의식하며 앞이 캄캄해지더니 기절하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흘렀을까. 몽롱한 의식 속에서 마치 수십 마리의 늑대, 여우 등 사나운 야수들이 몸을 마구 물어 뜯는듯한 환상에 짓눌려 그는 입을 벌려 크게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전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때 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열이 내려서 죽지는 않을 거다."

장무기가 얼른 눈을 떠보니, 희미한 등불 아래 먼저 확인한 것은 자기가 작은 방 안에 누워 있는 것과 중년 남자 한 사람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 아저씨..... 제가 어떻게.....!"

겨우 이 몇 마디를 내뱉는 사이에 갑자기 온몸이 불에 덴 것처럼 아픔이 몰아쳐 왔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제서야 자기가 사나운 개떼들에게 포위당해 마구 물린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남자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이 녀석아, 넌 명이 길어서 죽지 않을 거다. 왜 그러느냐? 배가 고프냐?"

그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다시 기절하고 말았다.

잠시 후 다시 깨어나 보니 그 중년 남자는 이미 방 안에 없었다. 장무기는 생각했다.

'난 아무리 해도 오래 살 수 없는 몸, 구태여 이렇게 시련을 겪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머리를 숙여 살펴보니 가슴, 목덜미, 손, 발, 허벅지 등 상처 부위에는 약을 마르고 헝겊으로 감아놓은 걸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약초의 냄새를 맡아보니 자기에게 약을 발라 준 사람은 상처 치료에 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 같았다. 약물에는 형인, 마전자, 방풍, 남성 같은 약재가 들어 있는데, 이런 약재는 광견병에 걸렸을 때 쓰는 약제들이라서 자기의 상처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아픔만 더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힘이 없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딱한 형편인지라 하는 수 없이 날이 샐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잠시 후에 그 중년 남자가 다시 그를 보러 왔다.

"아저씨, 저를 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남자는 싸늘하게 말했다.

"여기는 홍매산장이다. 우리의 소저께서 너를 구해 준 것이다. 배고프지 않느냐?"

말을 미친 그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을 갖고 들어왔다. 장무기는 몇 모금 마셨으나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더 이상 먹지 못했다. 계속 여드레나 침상에 누워 있다가 그제서야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다. 그러나 발밑이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기력이 하나도 없었다. 이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매일 그에게 밥을 갖다 주고 약을 바꿔 주었지만 몹시 귀찮아 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몹시 고맙게 생각했다. 이날도 그가 방풍과 남성 같은 약재를 갖고 와서 절구에 찧고 있는 걸 보자 장무기는 참다 못해 한마디 했다.

"아저씨, 그 약재들은 상처에 맞는 약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몇 가지를 바꿔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남자는 눈을 흘기면서 그를 한참 노려보더니 그제서야 말했다.

"주인 나리께서 직접 처방하신 건데 틀릴 수가 있겠느냐? 이 약이 만약 너의 상처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금과 같이 너를 사릴 수가 있었겠느냐? 정말이지 어린 것이 엉뚱한 소리도 잘 하는구나. 우리 마님께서 들으시면 설사 나무라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서운하시게 생각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약을 그의 상처에 발라 주었다. 장무기는 하는 수 없이 쓴웃음을 지었다. 사나이는 훈계하듯 한 마디 했다.

"내가 보기에 네 몸에 입은 상처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응당 마님과 소저에게 가서 절을 올리고 생명을 구해 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건 당연합니다. 아저씨 길을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사나이는 그를 데리고 작은 방을 벗어나 긴 복도를 거쳐 다시 대청 두 곳을 지나서야 아담한 누각 앞에 도달했다. 이 때는 초겨울로 접어들어 곤륜 일대는 벌써부터 날씨가 몹시 추웠다. 하지만 누각 안에는 봄날처럼 따뜻했다. 어디서 군불을 지피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누각 안은 무척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고, 침대, 의자 위에는 모두 비단으로 된 부드러운 보료와 방석이 놓여

있었다. 장무기는 평생 이처럼 부유하고 화려하며 안락한 거실을 본 적이 없었다. 자기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 이 호화스런 누각 안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창피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누각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남자는 몹시 공손한 표정으로 몸을 굽혀 아뢰었다.

"그 개에게 물린 녀석이 많이 좋아져서, 마님과 소저께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말이 끝나자 다시 몸을 꼿꼿하게 하고 서서 숨도 크게 쉬지 않았다.

한참 후 병풍 뒤에서 십 오,육 세 정도 되는 소녀가 나오면서 장무기를 곁눈짓으로 한 번 훑어 보더니 말했다.

"교복(嬌福), 당신도 참 어쩌자고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죠? 그의 몸에 있는 빈대와 이 같은 게 뛰어나오면 어떻게 하려는 거죠?"

그러자 교복은 크게 당황하여 굽신거렸다.

장무기는 그렇지 않아도 거북스러워하고 있는 터에 소녀의 말을 듣자 창피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됐다. 그는 몸에 걸친 누더기 외에는 갈아입을 옷이 없어 확실히 빈대와 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니 소녀의 말에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소녀의 얼굴은 거위알처럼 갸름하게 생겼고, 명주실 같은 검은 머리카락이 치렁치렁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다. 몸에 입은 옷은 무슨 비단인지는 몰라도 반짝반짝 빛이 났다. 손목에는 금팔찌를 끼고 있었다. 이런 호화스런 차림을 한 소녀를 장무기는 여지껏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내심 생각했다.

'내가 개떼에게 공격당할 때 어렴풋이 여자의 호통소리를 들었다. 저 교복 아저씨도 자기네 소저가 날 구해 주었다고 말했으

니, 난 당연히 소녀에게 절을 해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된다.'

그는 곧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말했다.

"소저께서 저를 구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더니 곧이어 까르르 웃으며 호들갑을 떨듯 말했다.

"교복, 당신이 저 미련한 녀석을 놀리셨군요? 그렇죠?"

교복은 헤벌쭉 웃으며 말했다.

"소봉(小鳳)낭자, 이 미련한 녀석이 낭자에게 절을 몇 번 한 것이 뭐가 대수롭습니까? 이 미련한 녀석은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낭자를 보자 소저인 줄 알았던 것이오. 그것은 우리집에 있는 아가씨의 몸종도 사실은 남의 집의 금지옥엽보다 더 존귀하게 보이기 때문이 아니겠소?"

장무기는 깜짝 놀라 얼른 일어섰다.

'아차, 그녀는 몸종이었구나. 그녀를 소저인줄 착각했으니....'

순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몹시 난감해 했다.

소봉은 킥킥 웃음을 참아가며 장무기의 아래위를 새삼스레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과 몸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 피와 먼지는 고사하고, 땟국물이 자르르 흐르는 누더기 하며 영락없는 거렁뱅이었다. 게다가 상처 부위에는 헝겊으로 칭칭 감아져 있으니 장무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몰골이 사나왔다.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소봉은 소매를 들어 올려 코를 막고 말했다.

"나리와 부인께서는 마침 볼 일이 있어 아니 계시니 절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소저나 뵈러 가라."

말을 하면서 장무기를 멀찌감치 돌아가더니 앞에서 길을 인도했다. 행여나 그의 몸에 있는 빈대와 이들이 자기의 몸에 옮아올까봐 겁을 내는 것 같았다. 한참을 가니 또 다른 호화스러운 대청

이 보였다. 대청 문루 위에는 영교영(靈교營)이란 세 글자가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었다. 소봉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다시 나와 손짓하며 교복과 장무기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장무기는 대청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깜짝 놀랐다. 삼 십여 마리나 되는 사나운 개떼가 세 줄로 나눠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순백의 여우 털가죽을 입은 낭자가 호랑이 가죽으로 덮인 의자에 도도한 표정으로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가죽채찍을 한 차례 떨치며 앙칼지게 호통쳤다.

"전장군(前將軍), 목덜미!"

그러자 맹견 한 마리가 즉시 몸을 날려서 벽 쪽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소름이 오싹 끼치는 장면이었다.

장무기는 이처럼 잔인한 광경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짤막한 비명을 질렀다. 그 개는 입에 고기덩어리를 하나 물고 땅에 쭈그린 채 맛있게 씹어 먹고 있었다. 장무기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자세히 보니 벽 쪽에 선 사람은 가죽으로 만든 가짜 사람이었고, 몸 군데군데 급소에는 고기덩어리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그 낭자는 다시 소리쳤다.

"차기장군(車騎將軍), 하복부!"

그러자 또 한 마리의 맹견이 쏜살같이 달려가 그 가짜 사람의 하복부를 물었다. 이 맹견들은 전부 고도의 훈련을 받아 그녀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공격을 하며 무는 부위가 한치의 착오도 없었다.

장무기는 순간 확연히 깨닫는 바가 있었다. 그날 산중에서 자기를 마구 물어 댄 것은 바로 이 사나운 개들이었고, 나중에 어렴풋이 들려온 그 여인의 호통소리도 바로 이 낭자였다. 그는 이 소저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 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보니 그 반대로 자기가 그토록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이 전부 그녀의 소행임을 알았다.그러자 화가 치밀어 내심 생각했다.

'당장 혼쭐을 내주고 싶지만 사나운 개가 그녀 곁에 버티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진작 야산에서 죽어 버렸지, 절대 그녀의 집에 와서 상처를 치료 받지는 않았을 걸.'

장무기는 즉시 상처를 동여맨 붕대를 풀어 발기발기 찢어 바닥에 팽개치더니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교복이 소리쳤다.

"이봐! 왜 그러느냐? 이 분이 바로 고귀하신 우리의 아가씨다. 냉큼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지 못하겠느냐?"

장무기는 성난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뭣 때문에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합니까? 나를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만든 것도 바로 그녀가 키운 개의 소행이 아닙니까?"

푹신한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줄곧 장무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소녀가 비로소 장무기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리고 그가 씩씩대며 흥분해 있는 것을 보자 재미있다는 듯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 생긋이 웃었다.

"꼴에 오기는 있는 모양이군. 이리 가까이 와 봐라!"

그녀는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마치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개를 부르듯 명령투였다. 장무기의 강한 자존심을 짓뭉개는 언동이었다. 한데,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는 순간 장무기는 그만 입이 딱 벌어지며 넋을 잃고 말았다. 동시에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가슴이 마구 뛰었다. 백옥 같은 살결과 햇볕처럼 빛나는 눈동자, 오똑한 콧날은 상아를 정성스레 다듬어 놓은 것 같고, 불타는 듯한 앵두빛 입술은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월궁의 선녀가 하범(下凡)한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장무기의 가슴에 걷잡을 수 없는 격랑이 일었다. 갑자기 등줄기에 식은땀이 배어나고 정신이 어찔어찔했다. 그는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크게 당황하여 얼른 고개를 숙였다. 한 순간이나마 실태(失態)를 보인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의 얼굴은 어느새 홍당무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소녀가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은쟁반에 옥구슬을 굴리듯 청아했다.

"이리 가까이 오라는데, 내 말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군."

장무기는 그녀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다시 보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방울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눈망울에 이끌려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빨려갔다.

소년은 여전히 입가에 매혹적인 미소를 띄우고 말했다.

"이봐, 나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군?"

졸지에 개떼한테 물려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했으니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장무기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향기로운 체취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백합보다 더진한 그 향기에 장무기는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속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 아닙니다."

소녀는 그를 주시하며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난 성이 주(朱)라고 하며 이름은 구진(九眞)인데,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지?"

장무기는 마른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다.

"장무기라 합니다."

"장무기라고.....? 이름은 제법 고상하군. 이름만 들으면 어느 명문의 자제분 같군. 자, 이리 앉아라."

이렇게 말하며 자기 앞쪽에 놓여 있는 의자를 발끝으로 가리켰다. 장무기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설래어 본 적이 없었다. 상대방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자아를 상실한 노예로 변하고 있었다. 지금 심정 같아선 주구진이 자기에게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라 해도 전혀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하물며 그녀가 자기에게 바로 옆에 앉으라고 하자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 즉시 공손하게 앉았다. 소봉과 교복은 아가씨가 이 더럽고 냄새나는 녀석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옆에 앉히자 너무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주구진은 다시 교성으로 개떼를 향해 호통쳤다.
 "절충장군(折衝將軍), 명치!"
 그러자 큰 개 한 마리가 몸을 날려 그 가짜 사람에게 덮쳐 갔다. 그러나 그 가짜 사람의 명치에 걸어두었던 고기덩어리는 이미 다른 개가 물어갔다. 그러자 그 개는 즉시 겨드랑이 밑에 있는 고기덩어리를 떼어내 먹기 시작했다. 주구진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런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네놈은 말을 듣지 않을 거냐?"
 그녀는 즉시 앞으로 다가가더니 채찍으로 맹견을 후려쳤다. 그녀의 채찍에는 작은 가시가 많이 돋아 있어 채찍이 가해진 곳은 이내 시뻘건 핏자국이 나타났다. 그래도 그 맹견은 입에 물고있는 고기덩어리를 놓지 않고 오히려 으르릉 대며 대들었다.
 주구진의 눈에 한광이 번뜩였다.
 "말을 듣지 않겠다 이거지!?"
 말을 내뱉기 무섭게 맹견을 향해 닥치는 대로 채찍질을 가하자 그 맹견은 바닥에서 데굴데굴 구르며 삽시간에 온몸이 핏투성이가 됐다. 그녀가 채찍질을 가하는 수법은 정확하고 신속해 그 맹견이 어느 방향으로 도망가든 시종일관 채찍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그 맹견은 고기덩어리를 토해 내고 바닥에 축 늘어져 움직이지 않고 단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으르릉 댔다. 그러나 주구진은 여전히 쉬지 않고 마구 후려쳤다. 그러는 그녀의 얼굴에는 짜릿한 흥분마저 감돌았다. 그 개가 숨이 깔닥거리게 되자 그녀

는 비로소 채찍을 거두었다.

"교복, 끌고 가서 약을 발라 줘라!"

"네, 소저."

하고 대답하고 나서 교복은 그 만신창이가 된 맹견을 안고 밖으로 나가 개를 키우는 사육사에게 넘겨줬다.

개들은 이같은 광경을 보자 모두 무서운 것을 아는지 납작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주구진은 다시 의자에 앉았다.

"평구장군(平寇將軍), 좌퇴! 위원장군(威遠將軍), 오른팔! 정동장군(征東將軍), 눈!"

그러자 맹견들은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한 마리씩 덮쳐갔는데, 전혀 한 치의 착오없이 주구진이 원하는 부위를 물었다. 그녀가 키우는 이 수십 마리나 되는 맹견들은 모두 장군의 봉호가 붙어져 있으며 그녀가 총지휘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녀 자신은 대원수(大元帥)가 되는 셈이다.

주구진은 고개를 돌려 장무기에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저 짐승들이 불쌍하게 보이겠지만, 채찍질을 심하게 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

장무기는 비록 개떼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그 개가 맞아 비참한 꼴을 보니 몹시 안쓰럽게 생각되었다. 주구진은 그가 말을 하지 않는 걸 보자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분명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찌 내가 묻는 말에 고분고분 대답을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서역(西域)까지 오게 됐으며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장무기는 이런 꼴로 사부와 부모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나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혼자 중원에 몸담고 있다가 어려워, 발길 가는대로 유랑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오."

주구진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화살을 맞힌 그 원숭이를 무엇 때문에 몰래 품속에 숨기려 했느냐? 너무 굶주려 원숭이 고기라도 먹으려 했느냐? 배를 채우기 위해 하마터면 나의 개한테 찢겨 죽을 뻔 한 줄은 모르는구나."

장무기는 얼굴을 붉히고 연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원숭이 고기를 먹으려 한 게 아닙니다."

주구진은 귀엽게 웃으며 말했다.

"감히 내 앞에서 사실을 부인하려 들지 마라!"

그녀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물었다.

"혹시 무슨 무공을 배웠느냐? 일 장으로 나의 <좌장군>의 머리통을 부셔 죽여 버렸으니 장력이 대단하더구나."

장무기는 자기가 그녀의 애견을 때려죽였다는 말을 듣자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 때 경황이 없어 출수가 너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려서 아버님에게 건성으로 이삼 년간 권법을 배웠을 뿐 아무 무공도 할 줄 모릅니다."

주구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소봉에게 말했다.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혀라!"

그러자 소봉은 입을 삐쭉거려 웃으며 대답하고 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장무기는 왠지 섭섭해 문앞에 이르자 고개를 뒤로 돌려 그녀를 다시 한 번 쳐다보았는데, 주구진도 마침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바람에 장무기는 마치 도둑질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크게 당황하여 몸둘 바를 모르다가 공교롭게도 문지방에 걸려 그만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인데다 이처럼 졸지에 넘어지게 되자 모든 상처 부위에서 한꺼번에 아픔이 무너져왔다. 그래도 감히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얼른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자 소봉이 킬킬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가씨를 보게 되면 누구나 넋을 잃고 멍청해진다. 그런데 넌 아직 어린 것이 벌써부터..... 호홋.....!"

장무기는 몹시 난처해져 얼른 걸음을 떼어놓아 앞장서 갔다. 잠시 후 소봉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을 작정이냐?"

장무기는 얼른 걸음을 멈추고 앞쪽을 보니 금실로 수놓은 문발이 걸려 있었고,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제서야 자기가 엉겁결에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장무기는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봉이 짓궂게 말했다.

"어서 나에게 "소봉 누나"라고 한 번 부르고 "제발 부탁합니다"라고 해야지만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겠다!"

당장 이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자면 무기로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

"소봉 누나....."

그러자 소봉은 오른손 식지로 자기의 턱을 받치고 의젓하게 말했다.

"오냐. 뭣 때문에 나를 부르느냐?"

"제발 부탁합니다. 절 데리고 나가 주십시오."

소봉은 득의양양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작 그래야지."

하며 그를 데리고 뜨락 밖으로 다시 나가며 교복에게 말했다.

"소저의 분부가 계시니, 그에게 목욕을 시켜 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혀요."

"네, 네."

교복은 매우 공손하게 대답했다. 소봉은 비록 하인이지만 다른 하인들보다 신분이 높은 것 같았다. 대여섯 명의 남자 하인들이 한꺼번에 다가와서 소봉을 떠받들어 모셨다. 그러나 소봉은 본

체 만 체하고 엉뚱하게도 갑자기 장무기에게 포권의 예를 취했다. 그녀의 별난 행동에 장무기는 어리둥절 했다.

"왜..... 이러십니까?"

소봉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아까 네가 나에게 절을 했으니 지금 그 답례를 하는 거다."

하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교복은 장무기가 소봉을 아가씨로 착각하고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 일을 살을 붙여 과장되게 늘어놓자, 하인들은 배꼽을 잡고 크게 웃었다. 장무기는 화를 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직 주구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화사한 웃음, 고고한자태, 그녀의 일거수 일투족이 주마등처럼 뇌리에 맴돌았다.

목욕을 서둘러 끝내고 나니 교복이 그가 갈아입을 옷을 갖고 들어왔다. 뜻밖에도 그건 하인들의 옷이었다. 어이가 없는 장무기는 눈살을 찌푸렸다.

"난 이 집의 하인도 아닌데, 어찌 나더러 이런 의상을 입으라 하는 거요?"

하며 자기가 원래 입던 헌 옷을 다시 입고 보니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어 속살이 다 보였다.

'잠시 후 아가씨가 다시 날 불러 내가 여전히 이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필시 기분이 언짢을 거야. 설령 내가 그녀의 하인이 된다 해도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막상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거침없이 하인의 옷으로 갈아 입었다.

그러나 그날은 주구진이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 후 계속해서 십여 일 동안 소봉마저도 한 번 만나 보지 못했으니 아가씨는 말할 것도 없었다. 장무기는 얼빠진 사람처럼 오직 아가씨의 음성과 웃는 모습만 생각하고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후원으로

달려가 멀리서나마 그녀를 한 번 보고 싶었다. 그러나 교복은 여러 번 당부하길,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중문(中門)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필시 맹견에게 다시 물릴 것이라 경고했다. 장무기는 비록 아가씨 생각이 간절했으나 개떼에게 물려 고생했던 생각을 하니 감히 후원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시 한 달쯤 지나자 그의 팔은 예전처럼 완쾌되고 개떼에게 물린 상처도 모두 아물었다. 하지만 팔과 다리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이빨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동안 그의 몸에 응결돼 있는 한독이 여전히 며칠마다 한 번씩 발작했다. 매번 발작할 때마다 고통이 전보다 더욱 심해졌다.

이날도 한독이 다시 발작되었다. 그는 침상에 누워 솜이불을 푹 덮고 있으면서도 온몸이 오돌오돌 떨렸다. 이때 교복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장무기의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아와서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잠시 후 오한이 좀 가라앉게 되면 랍팔죽(臘八粥)을 좀 먹어라. 이건 부인께서 너에게 설에 입으라고 주신 새 옷이다."

하고 말을 하며 보따리 하나를 상에 올려놓았다.

장무기는 밤새도록 오한에 시달리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한독의 침습이 천천히 감소되었다. 침상에서 일어나 봇짐을 풀어 보니, 새로 재봉한 가죽옷 한벌이 가지런히 접어진 채 들어 있었다. 그는 몹시 기뻤다. 그러나 그 가죽옷도 역시 하인의 옷처럼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자 시무룩해졌다. 이제 주가(朱家)의 하인으로 인정하는 것 같았다. 장무기는 성격이 온화하고 체념이 빨라 별로 후회하지는 않았다.

'벌써 여기에서 한 달도 넘게 머무르다 보니 어느새 한 해가 저물고 설날이 돌아왔구나, 호 선생님은 내가 일 년 밖에 살 수 없다고 했으니, 이번 설이 지나면 다시는 설날을 맞이하지 못할 것

이다.'

부유한 집일수록 세모가 다가오면 한층 더 즐거운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인들은 분주하게 벽과 대문에 칠을 새로 단장하고 돼지도 잡고 닭도 잡으면서 모두들 즐거워했다. 장무기는 교복을 도와 잡일을 거들며 오직 초하루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뿐이었다. 새해 첫날 필시 어르신네와 부인, 아가씨에게 세배를 드리게 될 것이니, 자연스럽게 소저를 만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오매불망해 온 아가씨를 한 번만 더 뵐 수 있다면 자기는 조용히 멀리 떠나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손수 죽을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었다.

드디어 폭죽소리가 요란하게 터지는 가운데 기대했던 설날이 되었다. 장무기는 교복을 따라 대청으로 가서 주인에게 세배를 드렸다. 대청 한가운데는 한 상의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으며 칠, 팔십 명이나 되는 하인들은 모두 바닥에 꿇어 앉아 있었다. 그들 부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소."

그러자 옆에 있던 청지기 두 명이 세배돈을 나누어 주었다. 장무기도 은자 두 냥을 받았다. 그는 아가씨가 보이지 않자 몹시 실망했다. 그는 은자를 쥐고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요염한 음성이 들려왔다.

"오빠, 올해는 꽤 일찍 오셨군요."

바로 장무기가 학수고대했던 주구진의 소리였다. 곧이어 남자의 굵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외삼촌, 외숙모에게 세배 드리려면 감히 늦게 올 수 있느냐?"

다시 한 여인이 까르르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형이 이렇게 일찍 달려온 건 두 분 존장께 세배를 드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사촌 여동생이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기 때문인지 모르겠군요."

곧이어 대청안으로 세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자 하인들은 급히 옆으로 비켜섰으나 장무기는 넋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교복이 황급히 그를잡아끌자 그제서야 옆으로 물러섰다.

대청안으로 들어온 세 사람 중 가운데 있는 자는 젊은 청년이었다. 주구진은 왼쪽에서 걸어 들어왔는데, 진한 붉은색 초피(돼지 가죽)옷을 입고 있어 더욱 화사하게 보였다. 그 청년이 다른 한 쪽도 낭자였다. 주구진이 대청에 들어설 때부터 장무기의 눈빛은 한순간도 그녀의 얼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두 젊은 남녀의 얼굴이 잘 생겼는지 못 생겼는지, 빨간 옷을 입었는지 노란 옷을 입었는지 알 턱이 없었다. 그 두 사람이 주인 부부에게 어떻게 세배드리고 주객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그는 전혀 보지도 듣지도 않고 오로지 주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주인 부부는 세 젊은이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부인이 자상하게 웃으며 딸애에게 말했다.

"진아, 무가(武家) 매자(妹子)를 잘 돌봐 주어라. 너희 세 사람은 정월 초하루부터 입씨름을 해서는 안 된다."

세 젊은 남녀는 담소를 나누면서 후원을 향해 갔다. 그러자 장무기는 자신도 모르게 멀리 떨어져 뒤를 따라갔다. 이날만은 하인이 저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다. 장무기는이제서야 그 남자의 용모가 준수하며 키도 훤칠하다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비록 혹독한 겨울 날씨였지만 황색 비단도포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면 내공이 심후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낭자는 검은 호피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 몸매가 몹시 날씬했으며, 말씨와 일거일동 또한 세련돼 보였다. 용모의 아름다움을 따진다면 주구진과 별차이는 없었지만 장무기의 눈으로 볼 때는 아가씨보다는 훨씬 못했다. 세 사람은 모두 십 칠, 팔세 정도의 나이였다.

세 사람은 재미있는 애기를 하며 후원으로 곧장 갔다.그 낭자가 말했다.

"진 언니, 지금쯤 일양지(一陽指)의 무공이 한층 더 심오한 단계로 연성했을 거예요. 그러니 한 수 보여 주시겠어요?"

"아이구, 날 놀리고 있는 거냐? 설사 내가 십 년을 더 연마한다해도, 그대 무가(武家)의 난화불혈수(蘭花拂血手)의 일부(一扶)도 따르지 못할 텐데."

그 청년이 웃으며 말했다.

"둘 다 너무 겸손하군. 이름도 거룩한 <설령쌍매(雪嶺雙妹)>가 서로 추켜세우며 겸손해 하니 어울리지가 않아."

주구진은 눈을 곱게 흘기며 말했다.

"난 혼자 집에서 죽어라 하고 연마해도 절대로두 분 사형, 사매가 서로 도와주며 연마하는 것에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 낭자는 주구진의 말 속에 은연히 시기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걸 느껴 입을 삐쭉거리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는 그녀 자신도 시인한다는 것이다.

그 청년은 주구진이 화를 낼까 봐 얼른 말했다.

"그렇지만도 않지. 진매는 외숙부님과 외숙모님, 훌륭한 두 사부님이 계시니 우리보다 유리할 텐데."

주구진이 이내 토라졌다.

"우리, 우리! 계속 우리라는 걸 강조하는군요! 사매니까 당연히 사촌동생보다 친하시겠죠. 난 청매에게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오빠는 자꾸만 그녀의 편만 들고 있군요."

하고 말을 하며 고개를 획 돌리면서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자 청년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촌동생과 친하면 사매하고도 친하기 마련이지. 손바닥이 살이면 손등도 살이잖소? 그러니 나로서는 절대 편견을 두지 않소. 날 구장(狗場)으로 안내해 수문대장군들을 보여 줄 수 없겠소?

여러 장군들이 그동안 더욱 사나워졌을 텐데."

그러자 주구진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들을 데리고 영교영으로 갔다.

장무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세 사람이 얘기하고 웃는 모습만 보았을 뿐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듣지 못하고, 즉시 뒤따라 구장으로 들어갔다.

주구진은 본시 주자유(朱子柳)의 후인이다. 그 무(武)가 소녀는 이름이 무청영(武靑瓔)이고, 무삼통(武三通)의 후인이며 무수문(武修文) 계파에 속한다. 무삼통과 주자유는 모두 일등대사(一등大師)의 제자이며 같은 무공을 지녔었다. 그러나 백여 년 동안 몇 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동안 두 집안의 무공이 점차 변화가 온 것이다. 무돈유(武敦儒), 무수문 형제는 대협 곽정(大俠郭靖)을 사부로 모셨고, 비록 <일양지>를 배웠으나 무공은 구지신개홍칠공(九指神改洪七公)의 강맹함에 접해 있었다. 그 청년 위벽(衛壁)은 주구진의 사촌오빠이며 용모가 준수하고 성격 또한 온순하여 주구진과 무청영은 가슴을 설레이며 은근히 그를 사모하고 있었다.

주,무 두낭자는 연령이 비슷하고 모두 미모를 갖춘데다가 가전무학 또한 막상막하라서, 이삼 년 전에 이미 곤륜 일대 무림 사람들로부터 <설령쌍매>라 일컬어져 왔다.

주구진은 개를 사육하는 하인에게 명하여 맹견을 모두 풀어 주라 했다. 개들은 모두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한 마리도 복종하지 않는 놈이 없었다. 위벽은 쉴새없이 칭찬을 하자 주구진은 몹시 기분이 좋았다. 무청영은 입을 삐죽거리고 웃으며 말했다.

"사형, 사형은 장래 <장군>이 될 건가요? <졸병>이 될 건가요?"

위벽은 영문을 몰라 멍해졌다. 그러자 무청영이 설명하였다.

"사형이 진 언니의 말을 그토록 잘 들으니, 진 언니는 틀림없이 사형에게 <대장군> 혹은 <선봉장군> 같은 봉호를 하사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채찍은 조심하야 해요."

위벽은 얼굴을 붉히며 미간에 화난 기생이 띄어졌다.

"그게 무슨 허튼소리야? 사매는 나를 개로 취급하는 건가?"

무청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 장군들이 미인을 가까이 모시고 꼬리를 흔들며 재롱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런데 뭐가 못마땅하죠?"

주구진이 눈을 흘겼다.

"오빠가 만약 개라면, 그의 사매는 뭔지 모르겠군."

장무기는 그 말을 듣자 참지 못해 픽 하며 웃어 버렸다. 순간 자신이 경솔했다는 걸 알고 급히 손으로 입을 막고 물러섰다.

무청영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러나 주구진에게 직접 화를 낼 수 없어 엉뚱한 사람에게 화살을 돌렸다.

"주 언니네 집안의 하인은 법도가 대단하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하인녀석이 몰래 엿듣고 킬킬거리며 웃으니 말이예요. 사형, 난 먼저 집에 가겠어요."

주구진은 무기가 자기의 좌장군을 일격에 때려 죽인 일을 생각해 내고 웃으며 말했다.

"무사매, 그렇게 화낼 건 없잖아. 물론 저 하인을 무시할 순 없지만 너희 무가의 무공이 아무리 고강하다 해도 삼 초식 이내에 저 천박한 녀석을 쓰러뜨릴 수는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무사매를 언니로 모시겠어."

"흥, 저런 녀석하고 겨루란 말이예요? 주 언니, 정말 그렇게 나를 무시할 건가요? 차라리 개를 상대하는 게 낫겠어요!"

장무기는 참다못해 소리쳤다.

"무 아가씨, 나도 부모가 있어 태어난 사람인데 개와 비교하다뇨?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선이나 보살이라도 된단 말이오?"

무청영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위벽에게 말했다.

"사형, 내가 저런 하인녀석한테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실 생각도 않는 거예요?"

위벽은 그녀의 애교어린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그는 이 설령쌍매 중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으나 무사매의 아버지로부터 무공을 배우려면 사매의 환심을 사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즉시 웃으며 주구진에게 말했다.

"동생, 이 하인의 무공이 상당하다는데 내가 한 번 시험해 봐도 괜찮겠나?"

주구진은 그가 사매를 도와주려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생각했다.

'이 장가라는 녀석이 어떤 내력을 지녔는지 알 수가 없으니, 오빠를 시켜 그의 내력을 알아내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

그녀는 대답했다.

"좋아요. 그에게 무가의 절학을 가르쳐 준다는데 나쁠 게 없죠. 그에 대해선 나도 어느 문파의 제자인지 모르고 있어요."

주구진이 무기에게 말했다.

"오빠한테 너의 사부가 누구고 어느 문파인지 말해라."

장무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희들이 이처럼 나를 경시하는데 내 어찌 부모의 문파를 말해 태사부와 부모들을 욕되게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나는 무당파의 무공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잖은가.'

무기가 말했다.

"나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강호를 유랑했소. 무공이라는 걸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저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조금 배운 것이 전부요."

주구진이 물었다.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지? 그리고 어떤 문파의 제자지?"

"그건 말할 수 없소."

위벽이 여유있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의 안목이면 그 정도는 알아낼 수 있지."
그는 천천히 걸어 나가며 말했다.
"꼬마야, 내 삼 초식을 받아 보아라!"
그는 말과 동시에 무청영을 향해 슬쩍 눈짓을 했다. 이 꼬마를 실컷 두들겨서 속시원하게 해주겠다는 뜻이었다. 사랑에 빠진 이 두 여자는 위벽의 말 한 마디와 행동 하나, 얼굴을 찌푸리는 것과 웃는 것에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었다. 위벽이 무청영에게 하는 눈짓의 뜻을 주구진이 놓칠 리가 없었다. 그녀는 은근히 오기가 생겨 무기를 손짓해 불렀다. 무기가 가까이 오자 그녀는 그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저 오빠의 무공은 아주 강하다. 이길 생각은 하지 말고 그의 공격을 세 번 받아 내기만 해. 그러면 내 체면을 세울 수 있어."
그녀는 무기의 어깨를 툭 쳤다.
무기는 자신이 위벽의 적수가 못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결하지 않고 물러선다면 그들을 기분좋게 해줄 것이다. 그는 주구진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황홀해서 멍청해질 지경이었는데, 그녀가 향긋한 체취를 풍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아가씨가 부탁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목숨을 걸고 해내야 한다. 몇 대 정도야 죽지 않겠지.'
그는 위벽의 앞으로 나아가 멍청히 섰다.
위벽이 웃으며 말했다.
"꼬마야, 나의 초식을 받아 봐라!"
그 즉시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무기는 따귀를 얻어 맞았다. 그의 공격은 극히 빨라 무기가 대항하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고 말았다. 퉁퉁 부어오른 그의 볼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났다. 위벽은 무기가 주가의 비전무공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자 사

정없이 공격을 했다. 무기가 주가의 무공을 배웠다면 위벽은 외삼촌과 외숙모의 체면을 생각해야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내력을 크게 쓰지는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기의 이빨은 모두 부러졌을 것이다.

주구진이 소리쳤다.

"어서 반격을 해!"

무기는 아가씨의 외침소리를 듣자 정신이 번쩍 났다. 그는 힘차게 일권을 쳐냈다. 위벽은 옆으로 슬쩍 피하며 놀려 댔다.

"꼬마가 제법이군!"

그는 무기의 등 뒤로 잽싸게 돌아갔다. 무기도 급히 몸을 돌렸으나 위벽의 출수가 번개같이 빨랐다. 그는 무기의 목덜미를 잡아 팔에 힘을 주어 들어올렸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무기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무기는 사손으로 부터 수년 동안 무공을 배웠으나, 그 때는 나이가 어렸고 주로 구결을 배웠으므로 실전 경험이 없었다. 그런 그가 명문제자인 위벽과 겨룬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격이었다. 무기는 손발을 허우적거리며 몸을 지탱하려 했으나 도무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머리와 코를 땅바닥에 부딪치며 곤두박질쳤다. 얼굴에서 이내 피가 흘러내렸다.

무청영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진 언니, 우리 무가의 무공이 어때요?"

주구진은 창피하고 분했다. 무가의 무공을 무시했다가는 위벽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 같았고 치켜올려 주자니 무청영의 콧대만 높여주는 결과가 될 것 같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기는 엉금엉금 기어 일어나 주구진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아가씨의 체면을 세워야지.'

무기가 속으로 마음을 다지는데 위벽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동생, 이 꼬마는 무공을 하나도 모르잖아? 그런데 무슨 놈의 문파가 있겠어?"

이 순간 무기는 매섭게 돌진하며 발을 날려 냅다 위벽의 아랫배를 걷어찼다.

"어림없다!"

위벽은 몸을 슬쩍 뒤로 젖히며 무기의 오른발을 왼손으로 끌어잡고 옆으로 팽개쳤다. 그 즉시 무기는 벽 쪽으로 날아가 등이 벽에 쾅! 하고 부딪쳤다. 다행히 머리가 부딪쳐 두개골이 부서지는 화는 가까스로 면했다. 그러나 부딪치는 순간에는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무기는 다시 엉금엉금 기어 일어났다. 그는 몸이 부서지는 듯이 아팠으나 그 와중에도 주구진의 안색을 살폈다. 눈앞이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하인은 하나도 쓸모가 없군. 우리 화원에 가서 놀아요."

실망한 듯이 내뱉은 주구진의 말을 듣는 순간, 무기는 자신도 알 수 없는 힘이 몸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질풍처럼 앞으로 나아가며 위벽을 향해 일장을 펼쳤다. 위벽은 껄껄 웃으며 무기의 일장을 맞받아 쳤다. 그러나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위벽의 몸이 비칠 뒤로 한 발자국 밀려났다.

무기의 이 일장은 왕년에 뗏목에서 부친 장취산으로부터 전수받은 무당장권 가운데 칠성수(七星手)란 초식이었다. 무당장권(武當掌拳)은 무당파의 입문 무공으로 권법의 초식으로 말하면 오묘한 점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무당파의 무공은 다른 문파의 무공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고 약한 힘으로 센 힘을 이기는 수법이었다. 자기의 센 힘으로 적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경력(勁力)을 되돌려 쳐서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었다. 상대가 한 근의 힘으로 쳐오면 되돌아가는 것도 한 근이고 백 근으로 쳐오면 되돌아 치는 반탄지

력도 백 근이었다.

이러한 수법은 옛날 각원대사가 읊은 구양진경 가운데 이유극강(以柔克剛)의 원리를 장삼봉이 무당권법에 도입한 것이었다. 따라서 송원교, 유연주 등의 고수는 상대의 강력한 힘에 자신의 강력한 힘을 얹어 공격할 수 있으므로 대단한 효과를 얻게 되었다. 무기는 무당의 무공을 거의 배우지 않다시피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승무공을 펼쳐냈던 것이다.

위벽은 심한 충격에 손과 팔이 마비되고 가슴의 기혈이 끓어올랐다. 그는 즉시 몸을 옆으로 비키며 주먹을 휘둘러 무기의 등을 쳤다. 무기는 손을 뒤로 돌리며 일조편(一條鞭)의 초식으로 응수했다. 위벽은 그의 장세가 기이한 것을 보자 급히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나 그의 어깨는 이미 무기의 세 손가락에 쓸려 대단한 통증을 느꼈다. 주구진과 무청영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벽은 산수 당한 꼴이 되었다.

위벽으로선 그를 좋아하는 여자들 앞에서 이처럼 창피를 당할 수는 없었다. 그는 무기가 나이도 어리고 신분도 미천하므로 싸워서 이긴다 해도 자랑스러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장난 삼아 무기를 데리고 놀 생각이었다. 그것으로 무청영을 기분좋게 해주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의 공력만을 사용했다. 그런데 두 차례나 창피를 당하자 그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 녀석이 죽기로 작정한 모양이구나!"

그는 소리치며 무기의 가슴을 향해 일권을 뻗어냈다. 이 초식을 장강삼첩랑(長江三疊浪)으로 세 갈래의 장력을 연달아 뿜어내는 무공이었다. 먼저 한 차례 힘이 나간 뒤 이어 두 번째 경력이 밀려나가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힘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나가는 초식이었다. 무학의 고수가 아니면 죽거나 중상을 입게 마련인 무서운 무공이었다.

무기는 상대의 초식이 사나운 것을 보자 덜컥 겁이 났으나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친에게서 배운 정란(井欄) 초식으로 맞받아쳤다. 이 일초는 극히 심오한 무공이었으므로 사실 무기가 그것을 제대로 알 턱이 없었다. 그러나 워낙 다급한 상황이었으므로 반사적으로 펼쳐냈다. 그런데 위벽의 강력한 일권이 무기의 몸에 닿는 순간 넓은 바다에 빠진 듯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위벽이 깜짝 놀라는 순간 그가 쳐낸 두 번째의 장력이 무서운 기세로 반탄되어 되돌아와 그의 오른팔을 쳤다. 뿌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팔뼈가 부러졌다. 다행히 위벽은 세 번째 경력을 발출하지 않았다. 이 경력까지 발출했다면 무기도 잘 모르는 정란 초식으로 인해 두 사람은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주구진과 무청영은 놀라 일제히 소리치며 위벽에게 달려가 그의 상처를 살폈다. 위벽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잠시 실수한 탓이야."

주구진과 무청영은 그가 상처를 입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둘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팔을 휘두르며 장무기에게 덮쳐갔다. 무기는 일초로 위벽의 팔을 부러뜨렸지만 그 자신도 넘어져 막 일어나려는 참이었다. 한데 채 일어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두 낭자의 공격을 받아야 했다. 무기는 결국 피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가슴과 어깨에 쌍장을 맞았다. 그 즉시 선혈을 토해냈다. 그의 마음은 분함과 슬픔으로 범벅돼 상처로부터 우러나오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 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체면을 지켜주려 했는데, 겨우 이겨 놓으니까 나를 치다니!'

위벽이 외쳤다.

"내게 맡겨라!"

두 낭자는 손을 멈추었다. 위벽은 시퍼런 얼굴로 무기를 향해 왼손바닥을 밀어쳤다. 무기는 잽싸게 옆으로 피했다.

주구진이 소리쳤다.

"오빠, 상처를 입은 몸으로 이런 꼬마와 다툴 필요가 있나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거만한 성품의 그녀가 남한테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인다는건 대단한 한 일이었다. 눈앞에서 위벽이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이렇게까지 수그러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위벽으로서는 그녀의 말이 더욱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진매, 저 꼬마는 무공이 아주 고강해. 진매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야. 다만 내가 승복할 수 없을 뿐이야."

그는 주구진을 옆으로 밀어내며 다시 무기에게 일권을 쳤다. 무기는 뒤로 물러나려 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무청영이 무기의 등을 향해 쌍장을 펼쳐 냈다. 그 순간 위벽의 주먹이 무기의 콧등을 쳤다. 금새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무청영은 주구진보다 심기가 훨씬 깊었다. 그녀는 은근히 사형을 도와 체면을 세워 주어 마음 속으로 감복케 하려 했던 것이다.

이를눈치챈 주구진은 내심 못마땅했다.

'네가 사형을 도우는데 나라고 오빠를 돕지 못하겠어!'

그녀는 즉시 출수하여 위벽과 함께 무기를 협공했다. 장무기는 삽시간에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는 다시 몇 모금의 선혈을 토해내며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나머지 죽음을 무릅쓰며 부친이 가르쳐 준 삼십 이 세(勢)의 무당장권을 펼쳐냈다. 그러나 공력이 부족한 탓에 주먹과 다리를 아무리 휘둘러도 위력이 없었다. 다만 상승무공인 덕분에 쓰러지지 않고 간신히 버텨 나갔다.

주구진이 호통을 쳤다.

"어디서 굴러온 놈이 감히상전한테 이토록 무례하게 구는 거냐!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순간 위벽이 왼손으로 무기의 왼쪽 어깨를 거칠게 쳤다. 위벽은

부러진 팔의 통증이 극렬한데다 이 꼬마와 더 이상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이 일장에 그를 죽일 작정이었다. 무기의 몸은 무청영의 장력에 밀려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사나운 경풍이 얼굴을 쳐왔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두 팔을 들어올려 막았다.

이때 갑자기 위엄있는 호통소리가 들렸다.

"멈춰라!"

그리고 그림자가 번뜩 하더니 누군가가 옆에서 날아들어와 위벽의 장력을 밀어냈다. 위벽은 급히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그가 몸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려 하자 남포를 입을 사나이는 재빨리 가서 위벽의 어깨를 부축했다.

주구진은 놀라 소리쳤다.

"아버지!"

무청영도 기겁을 했다.

위벽은 숨을 헐떡이다가 가까스로 말했다.

"외삼촌!"

그 사람은 바로 주구진의 아버지 주장령이었다. 위벽의 팔뼈가 부러진 것을 본 개 시중꾼이 주인에게 알려 그가 황급히 달려와 보니 셋이 합세하여 무기를 협공하고 있었다. 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소년이 무당파의 무공을 펼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위벽이 살수를 쓰자 무기를 구하려 뛰어든 것이었다.

주장령은 주구진과 위벽, 무청영을 쏘아보며 얼굴에 노기를 띠더니 냅다 딸의 뺨을 후려쳤다.

"주가의 자손이 이런 짓을 하다니! 내가 이 따위 딸을 낳았단 말인가! 저승에 가서 조상을 뵐 면목이 없구나!"

주구진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총애만 받고 자랐으므로 지금까지 엄한 꾸중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 앞에서 부친

에게 뺨을 얻어맞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주장령이 호통을 쳤다.

"그치지 못해! 어디서 우는 거냐!"

대들보의 먼지가 분분히 날려 떨어질 정도로 크게 소리쳤으므로 주구진은 덜컥 겁이 나서 즉시 울음을 그쳤다.

주장령이 말했다.

"우리 주가는 대를 이어 오면서 의를 목숨처럼 중시했다. 너의 고조부는 일등대사를 보좌해 대리국에서 재상을 지내셨고 나중에 양양성을 지키며 명성을 천하에 날리셨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 그런데 자손이 불초하여 내 대(代)에 와서 이런 아이를 갖게 되다니..... 그래, 세 사람이 한 소년을 협공해 생명을 빼앗아 어찌할 셈이냐? 부끄럽지도 않으냐?"

그가 딸을 질책하기는 했으나 위벽과 무청영의 귀에도 그 꾸중이 칼날처럼 찔러왔다.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무기는 통증 때문에 기절할 것만 같았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이를 악물고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주장령이 하는 말을 또렷이 들었으므로 마음속으로 깊이 탄복했다.

'사리가 분명한 것을 보니, 이 분은 정말로 의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주장령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노기충천하여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위벽 등 세 사람은 땅만 내려다 보며 감히 그를 마주 바라보지 못했다. 무기가 보니 주구진은 아버지에게 얻어맞은 뺨이 발갛게 부어 있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모습은 정말 가련할 정도였다.

무기가 말했다.

"어르신네, 이건 아가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기겁을 하고 놀랐다. 목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위벽에게 목덜

미를 세게 얻어 맞았기 때문이었다.

주장령이 말했다.

"내가 보니 이 소년은 제대로 무예를 배우지 못한 게 틀림없다. 의지 하나로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모습이 훌륭했다. 너희들 셋이 이처럼 무공을 모르는 사람을 공격한 것은 평소에 스승의 말을 한 귀절도 마음에 새기지 않은 탓이다!'

그의 이 날카로운 질책에 오히려 무기가 황송하고 민망할 정도였다.

주장령은 무기가 어떻게 하여 여기에 왔으며 어째서 하인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약을 가져오게 해 위벽의 상처를 보살펴 주었다. 주구진은 부친의 엄한 물음에 감히 속이지 못하고 무기가 원숭이를 품에 숨긴 것에서부터 개에 물린 일, 그리고 자신이 그를 구해 준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주장령은 미간을 찌푸린 채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다가 또 한번 호통을 쳤다.

"이 소년은 원숭이를 구하려는 마음을 지녔는데 너는 그를 하인으로 만들었구나. 차후에 이 이야기가 강호에 전해지면 이 경천일필(驚天一筆) 주장령이 몰인정한 사람이라고 모두 비웃겠구나. 네가 개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즐기라고 허락해 준 것인데 어찌 사람을 물게 내버려 두었느냐? 내 오늘 너를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면목으로 무림에서 행세를 하겠느냐?"

주구진은 부친이 크게 노하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아버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주장령이 여전히 화를 내자 위벽과 무청영도 함께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무기가 입을 뗐다.

"어르신네....."

주장령이 급히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소형제, 어찌 나를 보고 어르신네라 부르는가! 내 자네보다 나이를 조금 더 먹은 것밖에 없으니 구태여 대우를 하겠다면 선배라고 불러주면 족하네."

"예, 그러면 주 선배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번 일은 아가씨 때문이 아닙니다. 아가씨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자네는 어린 사람이 그토록 도량이 크구먼. 오늘은 새해 첫날이고 또 무소저는 손님이니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 일은 우리 무림인으로서는 정말 수치스런 일이기에 화를 낸 것일세. 소형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 모두들 일어나게."

위벽 등 세 사람은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하며 일어났다.

주장령은 개를 기르는 사육사에게 말했다.

"그 나쁜 개들을 모두 풀어놓아라."

개 사육사가 응답하고 개를 풀어놓았다. 주구진은 부친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버님....."

주장령이 차갑게 대답했다.

"너는 이 나쁜 개들을 길러서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저 개들에게 나를 물라고 해보아라!"

주구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주장령은 코웃음을 치고는 개들 사이로 뛰어들어 쌍장을 휘둘렀다. 일순간에 네 마리의 개가 두개골이 터져 죽어 넘어졌다. 아무도 감히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주장령을 쳐다볼 뿐이었다. 삽시간에 삼십여 마리의 개가 모두 격살되어 있었다. 위벽, 무청영, 무기 등은 놀라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보았다.

주장령은 장무기를 안아 자기의 방으로 데려가서 직접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조금 후에 부인과 주구진이 달려와 탕약을 달여

준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떨었다. 무기는 개에게 물려 피를 많이 흘린 뒤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상처를 크게 입었으므로, 며칠 동안 혼미한 상태로 누워 있어야 했다. 그는 깨어난 후 자신이 처방한 약을 먹으며 차츰 회복해 갔다. 주장령은 그가 훌륭하게 약처방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랍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처를 치료받는 이십여 일 동안 주구진은 자주 장무기의 침실로 찾아와 노래를 불러주고 재미있는 수수께끼도 하며 옛날 얘기도 해주었다. 마치 큰 누나가 동생의 병을 간호해 주는 것처럼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다. 장무기는 상처가 완쾌되어 침상에서 일어났는데도 주구진은 여전히 매일 반나절은 그와 같이 지냈다. 그녀가 부친에게 무공을 배울 때도 장무기에게 숨기려 하지 않고 항상 그더러 옆에서 참관하라 했다. 게다가 주장령은 두 번씩이나 그를 제자로 삼아 무공을 전수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장무기가 대답을 하지 않자 다시는 그 일을 들먹이지 않았다. 그래도 그를 친자식처럼 대해 주었다. 주가의 무공은 서법(書法)과 관계가 있었다. 주구진은 매일 글씨 쓰는걸 연습했고, 장무기에게도 자기의 말동무가 되어 함께 글공부를 하자고 했다. 장무기는 빙화도를 떠나 중원땅에 온 후부터 계속 유랑생활을 해왔다. 그로선 이처럼 안락하고 즐거운 생활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눈깜짝할 사이에 이 월 중순이 되었다. 이날 장무기와 주구진은 작은 서재에서 임첩상대(臨帖相對)를 하고 있었는데, 몸종 소봉이 들어와 아뢰었다.

"아가씨, 요숙부님께서 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주구진은 몹시 기뻐했다. 그녀는 붓을 던지며 소리쳤다.

"난 반 년도 넘게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오셨군."

그녀는 장무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무기 동생, 같이 가보지. 요이숙부께서 내가 부탁한 선물을 다 사 오셨는지 모르겠어."

둘은 손을 잡고 대청으로 갔다. 무기가 물었다.

"요이숙부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분이셔. 천리추풍(天里追風) 요청천(姚淸泉)이란 분이지. 지난 해 아버지의 부탁으로 중원에 예물을 갖고 가셨거든. 나는 항주의 유명한 연지와 분가루, 그리고 비단과 붓, 먹, 서예책도 사오라고 했는데 다 사오셨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주가장(朱家莊)이 서역 곤륜산에 있으므로좋은 물건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래서 중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물건을 부탁한다고 했다.

둘이 함께 대청앞에 이르자 오열하며 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대청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장령이 비쩍 마르고 키가 큰 중년 남자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그 사나이는 하얀 상복을 입고 허리에 새끼끈을 매고 있었다. 주구진이 가까이 다가갔다.

"요숙부님!"

주장령이 방성대곡하며 말했다.

"진아야! 우리들의 은인인 장어른께서..... 그만 돌아가셨다는 구나!"

주구진이 놀라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셨나요? 장공은 십 사 년 전에 실종됐었잖아요? 그분이 언제 돌아오셨었나요?"

요청천이 오열하며 말했다.

"우리들이 이렇게 외진 곳에 살아 소식을 듣지 못한 거야. 장공은 사 년 전에 부인과 함께 자결하셨다는 구나..... 무당산에 가기 전 협서성에서 그 소식을 듣고 무당산에 가서 송대협과 유이협을 만나 사정을 들었단다. 그분들을 뵐 면목이 있구나!"

장무기는 들을수록 내심 크게 놀랐다. 그들이 말하는 장공은 자기의 부친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주장령과 요청천이 애절하게 우는 걸 보자 주구진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다. 장무기는 참다못해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고 싶었으나 나름대로 망설였다.

'난 지금까지 신분을 감초고 있었는데, 설사 지금 솔직히 얘기해 준다 해도 주백부와 진누나는 믿어주지 않을 거다. 오히려 내가 은인의 자손이라는 것을 내세워 그들에게 뭔가 바라는 듯한 오해를 줄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날 우습게 볼 것이고....'

잠시 후 내당에서도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부인은 몸종의 부축을 받으며 대청으로 들어와서 울먹이며 요청천에게 물었다. 요청천은 비통한 나머지 의형수에게 인사하는 것도 잊은 채 즉시 장취산이 자결한 경위를 설명해 주었다. 비록 장무기는 울음을 억지로 참으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었으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대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를 눈여겨 보지 못했다.

주장령이 갑자기 일장을 후려쳐 앞에 놓여 있는 팔선탁을 부셔버리며 말했다.

"둘째 아우, 나에게 자세히 말해 주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무당산에 가서 은공 부부를 살해했단 말인가?"

"제가 소식을 들은 즉시 당연히 큰형님께 곧바로 보고를 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원수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좀 지체된 것입니다. 우선 무당산에 가서 은공을 죽게 한 자들이 소림파의 삼대신승 이하 많은 무림인이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이렇게 서둘러 돌아온 것입니다."

하며 소림, 공동, 곤륜, 아미 각파와 해사, 거경, 신권, 무산등 방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얘기해 주었다. 주장령은 처연하게 말했다.

"둘째 아우, 그 사람들은 모두 현 무림에서 명성이 널리 알려진

고수들이다. 우리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당해 낼 수는 없지만, 장오야에게 태산 같은 은혜를 입었으니 설사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부서진다 해도 그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기필코 복수를 해야 하네."

요청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형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장어른이 우리의 목숨을 구해 주신 덕분으로 그 동안 십 여 년을 살았으니, 장어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마땅한 일이지요. 제가 가장 섭섭하게 생각한 일은 장어른의 아드님을 뵙지 못한 일입니다. 그분을 뵈었으면 형님의 뜻도 전하고 이곳으로 모셔 와 평생 동안 모시면 좋을 텐데."

주부인은 장공자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요청천은 그가 중상을 입고 어딘가로 치료하려 떠났으며 올해 십여 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장삼봉 어른의 절세무공을 전수 받는다면 장래에 무당파의 장문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주장령 부부는 무릎을 꿇고 은인이 자손을 두었음을 하늘에 감사했다.

요청천이 말했다.

"형님이 장어른께 드리라고 주신 천 년 인삼, 천산의 설련 등 선물은 모두 무당산에 남겨 두었습니다. 나중에 장공자에게 드리라고 송대협에게 부탁해 놓았습니다."

"아주 잘했네, 잘했어."

그는 딸을 보고 말했다.

"우리 집안이 장어른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일을 장형제에게 이야기해 드려라."

주구진은 무기의 손을 잡고 부친의 서재로 데리고 가서 벽에 걸려 있는 한 폭의 큰 그림을 보여 주었다. 그림에는 <장공취산은덕도(張公翠山恩德圖)>라는 제호가 적혀 있었다.

장무기는 주장령의 서재에서 부친의 이름을 대하자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림엔 영준한 소년 무사가 왼손에 은

구를, 오른손에 철필을 들고 광야에서 다섯 명의 적과 싸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 소년 무사가 자기의 아버지인 모양인데 눈썹 주위만이 아버지를 닮았을 분 오히려 자기의 얼굴과 비슷했다. 땅에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바로 주장령과 요청천이었다. 이들 말고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떨어진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왼쪽 귀퉁이에는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는 주부인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어린 여자 아이가 안겨 있었다. 여자 아이의 입가에 검은 점이 있는 것을 보니 주구진인 모양이었다. 그림은 누렇게 변해 있어 그린 지가 십 년이 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주구진은 그림을 가리키며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당시 주구진은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주장령은 무서운 원수를 피하기 위해 가족을 데리고 서쪽으로 가는 도중에 끝내 원수들이 추격해 온 것이었다. 사제 두 명은 적에게 살해되고그와 요청천도 부상을 입고 쓰러진 상태에서 적이 독수를 가하려는 찰나, 마침 장취산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상황을 접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의협심을 앞세워 적을 격퇴하고 주장령 일가족의 목숨을 구해 준 것이다. 그것은 장취산이 빙화도로 가기 전의 일이었다.

주구진은 설명하고 나서 암담한 얼굴을 하며 말했다.

"우리는 중원과 외진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은공께서 실종되신 후 다시 중원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작년에서야 알게 된 것이야. 아버님께서는 중원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맹세를 스스로 하셨기에 하는 수 없이 요숙부님께 부탁해 귀중한 예물을 갖고 무당산으로 가게 한 것이지.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사동 한 명이 들어와 영당(靈堂)으로 가서 장은공에 배를 올리라고 했다. 주구진은 급해 자기의 방으로 돌아가 깨끗한 소복으로 갈아입고 장무기와 후당으로 갔다. 후당에는 이미 위패 두 개가 마련되었고 촛불이 밝혀져 있었다. 왼쪽

위패에는 <은공장대협위취산영위(恩公張大俠偉翠山英位)>라고 적혀 있었다. 다른 위패에는 <장부인은씨지영위(張夫人殷氏之英位)>라고 적혀 있었다. 주장령 부부와 요청천은 무릎을 굻고 몹시 서글피 울고 있었다. 장무기도 주구진을 따라 함께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소형제, 잘했네, 잘했어. 자네는 이분 장대협을 알지도 못하고 친척지간도 아니지만, 그분에게 절을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네."

장무기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바로 장은공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것이 더욱 난처해졌다.

갑자기 요청천의 소리가 들렸다.

"형님, 그 사야란 분은....."

그러자 주장령이 얼른 헛기침을 한 번 하며 그에게 눈짓을 하자 요청천은 금방 알아차린 듯 말했다.

"그 사의(謝儀)를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장령이 간단하게 말했다.

"자네가 알아서 하게."

장무기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분명히 사야(謝爺)라고 말했는데, 어찌 갑자기 말을 바꾸었을까? 사야.....? 사야라면 혹시 나의 의부를 말하는 게 아닐까?'

이날 밤, 그는 돌아가신 부모와 극북한도(極北寒島)에서 고생을 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의부 생각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 뒤척이기만 할 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가벼운 발걸음소리가 들리면서 여자 특유의 향기로운 체취가 사르르 풍겨오더니, 주구진이 세수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장무기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진 누나, 어찌..... 어찌 누나가 직접 나의.....?"

"하인과 몸종들이 모두 떠나갔어. 내가 동생의 시중을 좀 들기로서니 뭐가 그리도 놀랍다는 거지?"

장무기는 더욱 의아하여 물었다.

"무엇..... 무엇 때문에 모두 가버렸습니까?"

"나의 아버님께서 어젯밤에 그들을 모두 보낸 것이야. 모두에게 은자를 주면서 각자의 고향으로 가라고 했어. 여기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실 말씀이 계신가 봐."

장무기는 대충 세수를 끝냈다. 주구진은 그의 머리를 빗겨 주고나서 무기를 데리고 주장령의 서재로 갔다. 원래 이 큰 저택에서는 칠, 팔십 명의 하인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 명도 보이지 않아 몹시 썰렁하게 느껴졌다.

주장령은 두 사람이 들어오자 말을 꺼냈다.

"장형제, 난 자네의 의협심과 영웅기개에 반해 이 집에 오래 머물도록 하려 했는데, 갑자기 변고가 생겨 할 수 없이 자네와 이별을 해야 하네. 소형제는 절대 오해하지 마시게."

라고 말하며 쟁반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 쟁반에는 열 두개의 황금과 백은 그리고 호신용 단검이 한 자루 놓여 있었다.

"이건 우리 부부와 딸의 작은 뜻일세. 소형제는 이를 받아 두시게. 우리가 살아난다면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가 오열하며 작아졌다.

무기는 몸을 옆으로 비키며 말했다.

"주 아저씨,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인배는 아닙니다. 댁에 위난이 있는데 어찌 저만 피해 떠나겠습니까? 아저씨와 누님을 돕지는 못하다 해도 죽음을 같이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주장령이 몇 번이나 떠나라고 권했으나 무기는 듣지 않았다.

주장령이 한탄하며 말했다.

"아, 소년영웅은 위험을 모른다더니..... 그럼 자네에게 진상을 말해 주겠네. 다만 먼저 맹세를 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않는다고 말일세."

무기는 무릎을 꿇고 낭랑하게 말했다.

"천지신명께 맹세합니다. 주 아저씨가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누설한다면 제 몸은 난도질 당하게 될 것이며 날벼락을 맞을 것입니다."

주장령은 그를 부축해 일으킨 뒤 창 밖을 내다보더니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방을 살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무기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말하는 것은 가슴에만 새겨 두게.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잖은가?"

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장령이 다시 속삭였다.

"어제 요아우가 장은공이 돌아가신 소식을 갖고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을 데리고 왔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손인데 별호가 금모사왕이라네....."

순간, 장무기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한 차례 부르르 떨었다. 너무나 뜻밖이었다.

주장령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분 사대협은 장은공과 의형제지간이고 지금 천하 각 문파의 호걸들과 깊은 원한 관계가 있네. 장은공 부부가 자결하게 된 원인도 의형의 거처를 발설하지 않기 위함이었네. 사대협께서 뭣 때문에 중토에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장은공의 원수를 갚기 위해 다시 많은 사람들을 죽였네. 결국 그 자신도 중과부적으로 중상을 입고 말았지 요아우란 사람은 몹시 기지가 있어 그를 구해 여기까지 피신시켜 왔지만 그의 원수들이 잠시 후면 들어닥칠

것이네. 상대방은 인원수가 많고 세력이 막강하여 우린 절대 막아낼 수가 없다네. 나는 장은공의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버려도 무방하지만, 자네는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구태여 여기서 목숨을 버릴 필요가 있겠는가? 소형제, 내 말을 이것뿐이니 어서 빨리 떠나가게. 적이오게 되면 그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네."

장무기는 그의 말을 듣지 몹시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기뻐했다. 그는 의부가 여기에 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당장 의부를 만나고 싶은 심정이 다급해 물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하고 말을 내뱉기 무섭게 주장령은 오른손으로 그의 입을 막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말을 해서는 안 되네. 적들은 신통광대(神通光大)하여 한 마디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사대협의 목숨이 그만큼 더 위험해질 것일세. 아까 한 맹세를 벌써 잊었는가?"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믿고 모든 걸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전 더욱 떠날수가 없습니다."

주장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앞으로 우리는 공생공사하기로 하고 다른 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하세. 이제 때가 됐으니 서둘러야겠네."

그는 즉시 주구진과 장무기와 함께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대문을 나서자 주부인과 주구진, 요청천이 이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보따리를 몇 개씩 꿰어차고 멀리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무기는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큰아버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주장령이 황급히 부싯돌을 꺼내 불을 썰여 곳곳에 불을 질렀다. 순식간에 집 전체에 불이 붙었다. 미리 수백 칸 되는 방마다 기름을 부어 불이 잘 붙게 해놓았던 것이다.

무기는 활활 타들어가는 집과 나무들을 보며 마음 깊이 감격했다.

'주 아저씨가 심혈을 기울여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구나. 이건 모두 아버지와 큰아버지을 위해서가 아니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다.'

이날 밤 주장령 부부, 주구진 무기 네사람은 가까운 동굴에서 하룻밤을 잤다. 요청천과 주장령의 다섯 제자는 병기를 들고 동굴 밖에서 경계를 섰다. 저냑을 사흘 동안이나 타 들어갔다. 다행히 적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주장령은 처자와 제자, 오청천, 부기를 데리고 동굴을 떠났다. 그들은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갔다. 지하실엔 식량과 물 등 필요한 물품들이 고루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왠지 무척 더웠다.

주구진은 무기가 끊임없이 땀을 닦아내는 것을 보고 웃으며 물었다.

"동생, 여기가 왜 이렇게 더운지 알아맞춰 봐.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

무기는 무언가 타는 냄새를 맡으며 언뜻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아니, 우리는 바로 원래의 장원 밑에 와 있군요?"

주구진은 웃으며 말했다.

"동생은 정말 총명하군."

장무기는 주장령의 치밀한 계획에 더욱 감탄했다. 적이 대거 공격해 올 때 주장령의 집이 잿더미로 변한 걸 보게 되면 자연히 먼곳으로 추격해 갈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사손이 화장(火場)밑에 숨어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 것이다. 그는 반대편 한 곳에철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걸 보자 의부가 그 안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부를 만나 그동안 지내온 일들을 얘기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주장령이 그에게 절대 철문 안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한 걸 보면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그런 경거망동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 큰일을 그르치게 돼 자기가 죽게 되는 건 관계가 없지만, 의부와 주가 일가족의 생명마저 지장을 준다면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지하 석실에서 반나절을 지내자 후덥지근한 열기가 차츰 감소됐다. 작자 침낭을 펴서 취침하려는 찰나 갑자기 급히 달려오는 말굽소리가 한 차례 " "리서 들려오더니, 바로 머리 위에서 멎었다. 그러자 굵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말했다.

"주장령, 그 늙은 도적놈은 필시 사손을 보호한 채 도망갔을 것이다. 빨리 뒤쫓자!"

장무기 일행은 비록 지하에 있었지만 위에서 나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이는 지하로부터 철관(鐵管)이 지면으로 통해 있어 위에서 나는 소리가 철관을 통해 밑으로 쉽게 전달되기 때문이었다. 곧이어 말굽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점점 멀어져 갔다.

이날 밤머리 위를 지나간 추적자들은 선후로 모두 다섯패나 되었다. 군륜파도 있고, 공동파, 거경방, 그리고 나머지 두 패는 대화만 듣고서는 어떤 문파의 인물인지 알 수 없었다. 인원수가 작은 패는 칠, 팔 명 됐고, 많은 건 십여 명이 되었다. 병기가 부딪치는 소리며 준마의 울음소리 하며 한결같이 욕지거리를 해대며 떠들어대는 기세로 보아 몹시 살기등등해 졌다. 장무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나의 의부께서 두 눈이 실명되지 않고 중상을 입지 않았더라면, 너희들 같은 것쯤이야 염두에 두지도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나타난 인마들이 멀어져 가는 걸 기다렸다가 요청천은 나무마개롤 철관 구멍을 다시 막았다. 이는 지하 밀실에 있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혹시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염려스러워서

였다. 그래도 요청천은 여전히 음성을 낮추어서 말했다.
"사대협의 상처가 어떤지 좀 가봐야겠소."
주장령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자 요청천은 손을 내밀어 철문의 옆에 있는 장치를 움직이자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는 유등을 하나 들고 철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장무기느 더 이상 궁금함을 참지 못하여 일어나서 요청천의 등 뒤에서 철문 안을 살펴보았다. 몸집이 우람한 남자가 안쪽을 항해서 누워 있었다. 장무기는 의부의 뒷모습을 보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때 요청천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사대협님, 좀 괜찮으십니까? 물을 드릴까요?"
바로 이 순간이었다. 갑자기 경풍이 불면서 요청천의 수중에 있는 등불이 바람에 꺼져 버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요청천이 사손의 일장에 철문을 뚫고 밖으로 뛰어나가 땅에 무겁게 떨어졌다.
그러자 사손의 오침이 들려왔다.
"소림, 곤륜, 공동 세 파의 무리들아! 오너라, 나 금모사왕 사손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주장령은 중얼거렸다.
"큰일났군. 사대협이 정신 나갔군."
그는 급히 문쪽으로 걸어가 말했다.
"사대협, 우린 당신의 친구이지 적이 아닙니다."
사손은 냉소를 지음 차갑게 말했다.
"흥, 그런 말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는 큰걸음으로 철문을 나가 주장령의 가슴을 항해 다짜고짜 장풍을 뻗쳤다. 이 일장의 위력은 정말 날카로왔다. 실내의 유등(油燈)마저도 요란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주장령은 감히 막지를 못하고 몸을 피했다. 사손은 다시 왼손을뻗어 그의 얼굴을 향해 일권을 내리쳤다. 주장령은 어쩔 줄 몰라 팔로 막았으나 몹시 심

하게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다. 장무기도 이 돌연한 변화에 그만 멍청히 서 있기만 했다. 또다시 사손의 공격이 뻗쳐왔다. 그의 주먹과 장력은 비수와 같이 날카로왔다. 주장령은 대항하지 못하고 그저 피하기만 했다. 사손의 이장이 주장령을 맞추지 못하고 벽에 부딪치자 돌가루가 휘날렸다. 만약 그의 몸에 맞았다면 치명상이 될 것은 뻔했다.

사손의 장발을 어깨까지 치렁치렁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장세가 더 맹렬해져 갔다. 주부인과 주구진은 겁에 질려 구석에 숨어 있었다. 주장령은 다시 그의 장력이 뻗쳐오자 할수 없이 옆에 있는 탁자로 막았다. 그 즉시 퍽! 퍽!하고 사손의 주먹이 탁자를 가루로 만들었다.

장무기는 어쩔 줄 몰라 입을 딱 벌리고 멍청히 서서 생각했다. 눈앞에 있는 사손은 자기의 의부 금모사왕 사손이 아니었다. 자기의 의부 금모사왕은 눈이 멀었는데, 눈앞의 이 사람은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지 않은가! 이 순간 그가 또다시 일장을 뻗자 주장령은 벽에기대고 있어서 더 이상 몸을 피할 곳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뻗어 막지를 않고 외쳤다.

"사대협,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서 반격을 하지 못하겠소!"

그 거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의 가슴을 내리쳤다. 주장령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며 외쳤다.

"사대협, 이젠 나를 믿겠소?"

대한(大漢)이 외쳤다.

"개 같은 놈! 내 일권을 다시 받아라!"

그러면서 또 일권을 뻗었다.

주장령은 울컥울컥 선혈을 토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나의 은공(恩功)의 형입니다. 난 절대로 반격하지 않겠소."

대한은 광소를 터뜨리며 팔을 쳐들었다.

"그럼 더욱 좋지. 너를 때려 죽일 것이다."

하면서 오른손과 왼손을 모두 그의 가슴에 맞추었다. 주장령은 윽! 하고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쓰러졌다.

그 대한은 여전히 사정을 두지 않고 주먹을 뻗었다. 이때 장무기가 얼른 앞으로 나서 두 팔을 벌려 막았다. 대한의 경력은 정말 대단했다. 장무기도 그의 장력에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는 목숨을 내걸고 외쳤다.

"당신은 사손이 아니야! 당신은.....!"

대한은 노기띤 음성으로 말했다.

"조그만 녀석이 뭘 아느냐?"

그러면서 장무기를 향해 거세게 걷어찼다. 장무기도 재빨리 피하며 외쳤다.

"당신은 금모사왕으로 거장하고 우릴 속였군. 당신은 가짜야!"

주장령은 땅에 쓰러져 있었으나 장무기의 말을 듣자 억지로 기어 일어서며 대한을 가리켰다.

"네가 나를 속였구나. 너는.....!"

그러면서 갑자기 대한의 얼굴에 선혈을 내뿜었다. 동시에 몸이 앞으로 쓰러지며 손을 뻗듯이 그의 어른쪽 가슴의 신봉혈(神封穴)을 찍었다. 주장령은 중상을 입은 몸이라 대한의 적수가 되진 못했지만, 피를 토하고 쓰러지면서 그가 방심한 틈을 타 그의 비기인 일양지 수법으로 그의 대혈을 찌른 것이다. 주장령은 다시 그의 허리와 늑골을 향해 지풍을 뻗은 후 자기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 기절해 버렸다. 주구진과 장무기는 재빨리 뛰어가 그를 부축했다.

잠시 후, 주장령은 정신이 드는지 눈을 가늘게 뜨고 장무기에게 물었다.

"그 자는.....?"

장무기는 고개를 숙였다.

"주 아저씨, 이젠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은공은 바로 가부(家父)이시고 금모사왕은 나의 의부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의부를 잘못 알고 있겠어요."

주장령은 고개를 저으며 도무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장무기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의 의부께선 오래전에 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저의 의부께선 해외에서 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 자도 그걸 모르고 저의 의부인 척한 겁니다."

주구진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무기 동생, 네가 진짜 우리 대은공의 아들이라니 정말 기쁘구나."

주장령은 그래도 미심쩍은 표정이었다. 장무기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서 곤륜에 오게 된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요청천이 참지 못하고 나서서 무당산에서 있었던 일과 장취산 부부가 자살한 일 등을 물었다. 장무기는 서슴치않고 대답했다. 그제서야 이들은 장무기의 말을 믿었으나 주장령은 여전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만약 이 애의 말이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우리는 사대협에게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요청천은 비수를 꺼내 대한의 눈을 노리며 말했다.

"어이 친구! 금모사왕은 눈을 실명했다는데, 네가 그 사람으로 흉내내려면 좀 그럴듯하게 해야겠지. 이 소형제가 아니었더라면 너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두 형님의 목숨을 그냥 허무하게 잃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비수끝으로 대한의 눈을 찔렀다.

"네놈은 도대체 누구냐? 왜 금모사왕인 척했지?"

대한은 음험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용기가 있으면 나를 단칼에 죽여라! 개비수 호표(開碑手胡豹)가 너희들에게 입을 열 줄 아느냐?"

주장령이 엇! 하고 소리치더니 말했다.

"개비수 호표라고? 너는 공동파가 아니냐?"

호표는 눈을 부라리며 외쳤다.

"천하의 무림인이라면 주장령이 장취산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속담에 먼저 선수를 치는 자가 강자란 말도 모르느냐?"

요청천이 외쳤다.

"악독한 놈!"

그는 비수로 그의 가슴을 내리찍었다. 주장령이 잽싸게 왼 손을 내밀어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二弟), 잠깐!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사대협이라면 우리들은 만 번 죽어도 속죄할 길이 없을 걸세."

"아닙니다. 장형제가 이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님께서도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장령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장은공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선 안 된다."

장무기가 앞으로 나섰다.

"주 아저씨! 이 사람은 절대로 저의 의부가 아닙니다. 저의 의부께선 별호가 금모사왕인 것처럼 머리카락이 노랗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검지 않습니까?"

주장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장무기의 손을 잡았다.

"소형제! 나를 따라오게."

주장령은 통로를 통해 석실 밖으로 나와 언덕 뒤에 있는 절벽까지 갔다.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바위 위에 앉았다.

주장령이 입을 열었다.

"소형제! 만약 저 사람이 사대협이 아니라면 우린 물론 저자를 죽여야 하네. 하지만 그 전에 내 마음속의 의문을 완전히 풀어야 될 것 같군."

장무기는 수긍했다.

"무슨 실수를 저지를까 봐 그러시는군요. 물론 그러셔야죠. 그러나 저 사람은 절대로 저의 의부가 아니니 안심하십시요."

주장령이 탄식하듯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속임을 당했는지 아느냐? 내가 오늘 반격하지 않은 것은 한 번 실수하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이지. 내 자신이 죽더라도 너와 사대협은 절대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야. 사실 나는 너한테 사대협이 지금 어디 계신지 물어보고 싶은데....."

장무기는 감동하며 말했다.

"주 아저씨, 당신께선 저의 부친과 의부 때문에 백만가산을 다 버리시고 또 몸에 이런 중상까지 입으셨는데, 그래도 제가 아저씨를 못 믿겠습니까? 저의 의부에 대해서 묻지 않으셔도 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장무기는 부모님과 사손이 어떻게 빙화도까지 표류해 가서 십 년이란 세월을 지냈으며,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주장령은 세세속속 자세히 캐물었다. 장무기가 빙화도에서 무공을 어떻게 배웠고 양불회는 어떻게서쪽으로 왔으며, 곤륜삼성이 조난을 당한 사정 등을 일일이 물어보고 나서, 장무기의 대답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제서야 그를 믿고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외쳤다.

"은공! 개대해 주십시오. 주장령은 힘을 다해 무기 형제를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다만 내 무공이 미천해 사악한 무리들을 다 벌할 수 있을지..... 그러나 기필코 원수를 갚겠습니다. 은공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했다. 장무기는 슬프면서도 감격했다. 그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주장령은 희열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지금 난 모든 의혹이 풀렸다. 소림, 아미, 곤륜, 공동 어느 파나 세력이 강하지만, 이 늙은이는 목숨을 걸고 영존의 원수를 갚기로 결심했네. 그러나 눈앞의 일이 더 시급하니 복수는 나중 일일세. 이 넓은 천지에 어딜 가서 대난을 피하지? 이런 외진 곳에 있는 내 거처까지 놈들이 찾아 냈으니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

"사대협께선 몇 년을 혼자 빙화도에서 지내셨으니 얼마나 외로우실까. 사대협께 은공은수(恩公恩嫂)에게 그렇게 의리를 지키셨다니 한 번 만나 뵈었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구나."

장무기는 의부께서 외롭게 지내신다는 주장령의 말에 우울해 졌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라 말했다.

"주 아저씨! 우리 같이 빙화도로 가요. 섬에서 살 땐 정말 즐거웠었는데, 중토(中土)에 와서부터는 그저 피비린내 나는 살인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주장령은 장무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시무룩했다. 자기는 이미 오래 못사는 처지라 빙화도까지 갈 시간이 없을테니, 주장령 일행만 위험을 겪게 될 것이다. 오랜 항해에서 거센파도라도 만나면 물귀신이 되기 십상이었다.

이때 주장령은 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소형제, 자넨 남이 아니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솔직히 해

라. 빙화도에 가고 싶으냐?"

그의 말투는 매우 진지했다.

장무기는 사실 험악한 강호 인심에 질려 죽기 전에 의부를 만나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의부의 품속에서 죽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주장령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속이고 싶지는 않아 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주장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장무기를 데리고 석실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요청천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놈은 첩자가 틀림없어!"

요청천은 그제서야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비수를 들고 밀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개비수호표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렸고. 요청천이 밀실에서 나왔다. 그의 비수엔 선혈이 묻어 있었다. 그는 피를 신발바닥으로 닦았다.

주장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놈이 우리침실까지 잠입했으니 우리의 종적도 탄로날 모양이야. 이젠 여기서 지체할 수가 없네."

일행은 주장령을 선두로 석동에서 나와 약 이십 리 길을 걸었다. 산을 넘고 계곡을 끼고 돌아가자 커다란 나무 한 그루 밑에 작은 오두막집이 시야에 들어왔다. 어느덧 새벽이 가까왔다. 주장령은 서슴치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장무기도 따라 들어갔다. 집 안에는 낫이며, 괭이 같은 농기구가 있었고 취사 도구와 양식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보아하니 주장령이 근처에 피난할 곳을 많이 안배해 둔 것 같았다. 주장령은 중상을 입은 몸이라 침대에 눕히자 일어나지를 못했다. 주부인은 광목으로 된 장삼, 짚신, 머리띠 등을 꺼내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갈아입게 했다.

잠시 후, 그들은 부잣집의 부인과 아씨에서 농촌 부녀자로 변했다. 말씨나 행동은 다소 어색했으나 그래도 가까이 접근하지 않으면 식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며칠이 지나갔다. 주장령은 다행히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운남상약(雲南傷藥)이 있어 그걸 복용하고 나선 상처가 빨리 치유되어 갔다.
장무기가 한가로이 그들을 지켜보니, 요청천은 매일 소식을 정탐하러 나가고 주부인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행낭을 챙기고 있었다. 멀리 떠날 채비가 분명했다. 그렇다면, 주장령이 일단 원수를 피해 빙화도로 가려는 계획이리라. 장무기는 내심 무척 기뻤다.
이날 장무기는 침대에 누워, 만약 자기가 다행히 죽지 않고 빙화도에 도착하여 평생 이 선녀와 같이 아름다운 주구진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또 주 아저씨, 그리고 요이숙이 의부와 만나 서로 좋은 친구가 된다면, 몽고놈들의 잔악한 압박도 받지 않고 무림의 원수들이 기습해 올 걱정도 없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장무기는 자기가 몸에 한독을 입어 얼마 살지 못하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다. 이런 달콤한 생각을 하며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살며시 나무문이 열렸다. 그리고는 곧 그림자 하나가 방안으로 들어왔다. 장무기는 순간 은은한 향기를 맡고 있었다. 바로 그 향기는 주구진이 평상시 자주 옷에 뿌리는 소경화향(素경花香)이었다. 장무기는 갑자기 얼굴이 홍당무가 되며 얼른 일어날 수가 없었다.
주구진은 조용히 침대 가까이 와 낮은 소리로 물었다.
"무기 동생, 잠들었어?"
장무기는 대답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눈을 꼭 감고 잠이 든 척하고 있었다. 그러자 부드럽고 향기로운 손이 그의 얼굴 위에 살포시 날아와 앉았다. 장무기는 놀랍고 기쁘고 부끄럽고 겁이 나는 감정을 한꺼번에 느끼면서 오직 그녀가 빨리 이 방에서 나가주기만 바랐다. 그의 마음 속은 주구진을 존경할 뿐 장래에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야

밤에 왔으니, 어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다.

'혹시 진 누나가 무슨 급한 용무가 있어서 온 게 아닐까?'

바로 이때, 갑자기 흉구에 있는 담중혈(膽中穴)이 마비되면서 연이어 견정(肩貞), 신장(神臟), 곡지(曲池), 환조(環조) 등 혈도가 차례로 찍히고 말았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다. 주구진이 왜 심야에 찾아와 자기의 혈도를 찍은 것일까? 장무기는 후회가 되었다.

'진 누나는 내가 잠들어 있을 때 경각심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 틀림없다. 내일 그녀가 혈도를 풀어 주면서 나를 비웃을 것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녀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를 놀라게 해줬을 텐데.....'

이때 주구진은 살며시 창문을 열고 몸을 날려서 밖으로 나갔다.

장무기는 재빨리 생각했다.

'빨리 혈도를 풀어 그녀의 뒤를 따라가서 놀라게 해야겠다.'

그는 즉시 사손에게 배운 혈도 푸는 법을 썼다. 주가의 가전인 <일양지>무공은 과연 대단했다. 그는 반 시간이 넘어서야 찍힌 혈도를 풀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주구진의 공력이 부족한 탓도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혈해법(穴解法)이 제아무리 교묘해도 혈도를 풀지 못할 것이다. 재빨리 옷을 입고 창 밖으로 날아가 보니 사방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고 어디에도 주구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맥이 탁 풀렸다.

'진 누나는 아제 나를 쓸모 없다고 생각하겠지. 하기야 구태여 그녀를 이기려 할 필요는 없겠지. 평상시 내가 그녀에게 기쁨이 될 수 없을 바에야, 내가 그녀를 따라간다 해도 그녀는화를 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마음이 편해졌다. 문득 초봄의 밤바람에

실려 풍겨오는 들꽃 향기가 심신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그는 금방 잠이 올 것 같지도 않아, 작은 시냇물을 따라 걸어갔다. 산비탈에는 채 녹지 않은 눈이 히끗히끗 보였고 눈 녹은 물이 시냇물을 이루어 흐르고 있었다. 심호흡을 하며 걸음을 옮기려는데, 갑자기 좌측 숲 속에서 깔깔 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주구진의 웃음소리였다.

장무기는 흠칫 멈춰섰다.

"진 누나가 나를 본 것일까?"

이때 그녀가 낮은 소리로 호통을 쳤다.

"사촌오빠! 허튼 짓하며 따귀를 때릴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남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놀랍게도 바로 위벽이었다.

장무기는 가슴이 덜컥했다.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려 버릴 뻔했다. 반나절이나 꾼 아름다운 꿈들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진 누나는 나의 혈도를 찍은 것은 바로 심야에 사촌오빠와 만나는 걸 내가 알까 봐 한 짓이구나!'

하고 생각하자 갑자기 손이 저려오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나는 집도 절도 없는 가난뱅이고 학문이나 무공이나 인품, 용모, 어느 한가지도 위상공을 따를 수 없다. 더구나 그녀와 그는 사촌지간이나 두 사람은 너무도 잘 맞는 한 쌍이야.'

장무기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다. 이때 경미한 발자국소리가 났다. 장무기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앞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주구진과 위벽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정하게 소근거리며 손을 맞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왔다. 다음 순간 주구진의 겁먹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이 어떻게.....!"

나타난 사람은 바로 주장령이었다.

주장령은 딸이 야밤에 외조카와 밀회하는 걸 보자 몹시 화가 난 것 같았다. 주장령의 꾸중이 들려왔다.

"너희들은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주구진은 아무렇지도 않은 양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사실 사촌오빠와 오랫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어렵게 만났기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이예요."

"너는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게로구나. 만약 무기가 알게되면....."

주구진이 말을 가로챘다.

"제가 살짝 그의 혈도를 다섯 곳이나 찍어 버려서 지금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따가 가서 그의 혈도를 풀어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장무기는 흠칫 놀랐다.

'주 백부께서도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줄 눈치채셨구나. 나의 아버님에게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내가 상심하고 실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백부님, 비록 진 누나를 좋아하고는 있지만 절대로 다른 마음은 먹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너무도 날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군요.'

이때 주장령의 말소리가 들렸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만약 그에게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모든 공은 수포로 돌아간다."

주구진은 웃으며 말했다.

"소녀 명심하겠습니다."

"외숙부님, 진매와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부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주장령이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나도 가서 너의 사부님을 만나야겠다. 이번에 우리가 북해의 빙화도에 가는 일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고 한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말을 하면서 세 사람은 일제히 서쪽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장무기는 몹시 이상하다고 느꼈다. 위벽의 사부는 무열이고 무청영이 아버지인데, 주장령의 말투를 보면 주가 부녀와 위벽 모두 빙화도에 갈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왜 사전에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을까?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많아지면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의부에게 화를 끼칠지 모른다.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갑자기 주장령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만약 그에게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모든 공은 수포로 돌아간다."

라고 한 말이 생각났다. 무슨 빈틈이 있단 말인가?

<빈틈>이란 두 글자가 그의 뇌리에 맴돌았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바로 <장취산은덕도>란 그림에는 다른 사람들은 용모가 비슷한데, 그의 부친만은 턱이 뾰죽한 얼굴이 넓적하게 그려졌었다. 다만 부친의 미간은 비슷했다. 그래 그것은 자신의 미간이 아버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는 미간만 아버지를 닮았을 뿐 다른 곳은 닮지 않은 것이다.

주장령의 말에 의하면, 이 그림은 십여 년 전에 그가 친필로 그렸다고 했다. 설사 그의 그림 솜씨가 좋지 못하다 해도 어찌 대은공의 얼굴을 전혀 닮지 않게 그릴 수가 있겠는가! 그림에 있는 장취산은 장무기가 성장한 모습과 같았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한가지 있었다. 아버님이 사용했던 철필은 붓과 같이 뾰족했다. 그날 대륙에 돌아왔을 때 벙기포에서 판관필 한 자루를 사시면서, 무게와길이는 쓸 만한데 단지 철수 같은 것이 한 짝이어서 보기에 흉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아버님이 생활이 안정되면 다시 주조(鑄造)해 주신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림에 있는 아버님은 보통 판관필을 갖고 계셨고, 쇠를 주조하는 사람 손에는 철필을 한 자루 쥐고 있었다. 주장령 자신은 판관필을 사용하는 전문

가인데, 어찌 아버님께서 사용했던 판관필마저도 틀리게 그릴 수 가 있단 말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보이지 않는 공포의 그림자가 엄습해 왔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의문과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답은 너무나 가공스러운 것이라 깊이 생각하기조차 두려웠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난 지금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주 백부님이 날 그렇게 잘 대해 주시는데 오히려 의심을 하다니, 천벌을 받을 짓이지..... 어서 가서 잠을 청해야겠다. 내가 한밤중에 나온 것을 알면 그 땐 정말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지.....'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겁이 덜컥 났다. 예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공포감이었다. 그 자신도 왜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하는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넋을 잃고 있다가 자석에 이끌리듯 절로 주장령 부녀가 갔던 방향으로 걸음이 옮겨갔다. 숲 속에 희미한 달빛이 새어 나왔다. 외딴 집이었다. 장무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죄진 사람처럼 살금살금 그 불빛이 새어 나오는 곳으로 다가갔다. 소리나지 않게 집 뒤로 돌아간 그는 창문틈으로 집 안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주장령 부녀와 위벽이 창 쪽을 마주 본 채 앉아 있었고, 창을 등지고 앉아 있는 사람은 둘인데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그 중 한 소녀가 설령쌍매 중의 하나인 무청영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른 한 사람은 몸집이 우람한 남자였다. 주장령은 어떻게 객상으로 위장해 산동 일대에서 출해할 것인가에 대해 소상히 늘어놓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옆에서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장무기는 공연히 자책감을 느꼈다.

'하늘이 무너질까 봐 밤잠을 설친다더니, 내가 바로 그 짝이군.

저 무청영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은 십중팔구 무열일 것이다. 주백부는 그와 친분이 두터우니 함께 빙화도에 가지고 청한 건 인지상정이거늘 내가 공연히 의심을 하다니.....'

이때 무청영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버님,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그 작은 섬을 찾아내지 못하고 돌아올 길마저 잃으면 어떻게 하죠?"

장무기의 생각이 맞았다.

이번에는 무열이 입을 열었다.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넌 가지 않아도 된다. 세상 이치가 모두 마찬가지이듯이 고난을 겪지 않고 안락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무청영은 응석을 부리듯 쏘아붙였다.

"저는 그저 여쭤본 것뿐인데 당장 훈계를 할 게 뭐예요?"

무열은 껄껄 웃었다.

"이번 일은 주사위놀음과 다를 바 없다. 운이 좋으면 우린 빙화도에 상륙할 수 있을 것이다.사손의 무공이 제아무리 높다 해도, 외톨이인데다가 눈먼 봉사이니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 들은 장무기는 싸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오싹 몸을 움츠렸다.

무열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다.

"그 도룡도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호령천하를 하게 될 게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 나하고 너의 주 백부님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무림지존으로 군림하게 된단 말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령 바다에서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감수해야지."

위벽이 그의 말을 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금모사왕은 무공이 탁월하여 왕반산도에서 사자후로 수십명의 강호 고수들을 일제히 죽였다고 합니다. 제자의

의견으로선 일단 빙화도를 찾아 내면 그와 정면대결을 피하고 음식물에다 독을 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령 그가 앞 못 보는 장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양아들이 데려온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할 겁니다."

무열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구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거렸다.

"진아야....."

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렸다. 순간, 장무기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하며 자지러지게 놀랐다. 이 자는 바로 의부로 위장했던 개비수 호표였다. 주장령에게 중상을 입히고 요청천에 의해 단칼에 죽음을 당한 것 등등은 모두 속임수였다. 모든 것이 연극에 불과했던 것이다.

무열이 주구진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앞으로도 우린 철저하게 해야 한다. 사손을 없애고 도룡보도를 수중에 넣을 때까지 마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구진이 말했다.

"아버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 녀석을 시중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빙화도에 가서 사손을 죽일 때까지는 참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봐. 아무튼 도룡도를 얻은 뒤엔 내가 직접 그 녀석을 죽일 수 있게 해 주세요."

장무기는 그녀의 말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지며 기절할 것만 같았다. 주장령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교묘한 계략으로 그를 속여 금모사왕의 소재를 알아내는 건 사실 옳은 일이 아니다. 그 녀석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사손을 죽이고 도룡도를 얻은 뒤엔 그의 눈을 멀게 하여 빙화도에 남겨두는 게 좋겠다."

무열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주 형님의 어진 마음은 과연 협의도의 풍도를 잃지 않고 있군요."

주장령이 한숨을 쉬었다.

"이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네, 아우, 우리가 먼저 바다에 나가면 자네들 배는 멀리서 우리를 따르되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되네. 꼬마의 의심을 사면 안 되니까 말이야. 그러나 너무 멀리 있다가는 연락이 두절될 염려도 있지. 사공들을 잘 물색하게."

"알았습니다. 형님은 역시 주도면밀하십니다."

장무기는 머릿속이 혼란해졌다.

'내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저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음..... 내가 위벽과 두 여자에게 저항할 때 무당파 무공을 전개했는데 그 때 견식이 넓은 주장령이 나의 내력을 알아냈구나.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결을 하면서까지 의부의 소재를 말하지 않은 걸 알고 억지로 내 입을 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게 틀림없어. 그래서 가짜 그림을 그리고 저택을 불사르며 나를 감동케 한 수, 내가 스스로 빙화도에 가고 싶다고 말하게끔 유도한 거야. 저자의 간계는 정말 너무 악랄하구나.'

이때 주장령과 무열은 출해할 준비와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더 이상 들을 것 없이 물러나기로 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 발자국을 내디디고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다시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 그는 주장령과 무열의 무공이 강해 자칫 실수하여 낙엽이라도 밟게 되면 들킬 게 뻔하므로 조심하는 것이다. 삼십여 걸음을 조심스럽게 걷자 십여 장쯤 벗어났다. 무기는 그제야 빨리 걷기 시작했다.

그는 길로 가지 않고 숲 속으로 달려갔다. 그는 멈추지 않고 숨을 헐떡이며 계속 뛰었다. 밤새 달렸는지 하늘이 훤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주위를 살펴보니 그는 눈 덮인 숲 속에 있었다. 그는

주장령 등이 쫓아오지 않나 산 밑을 내려다보다 자신도 모르게 놀라 소리를 질렀다. 눈 위에 자신의 발자국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때는 이미 봄철이었으나 산중턱에 쌓인 눈은 아직 녹지 않고 있었다. 그는 황급히 도망하느라 산 위로 오르기만 했지 자기의 발자국이 눈 위에 남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이때 멀리서 이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절하고 무서운 울음소리였다. 무기는 벼랑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앞산 언덕에 여러 마리의 잿빛 이리가 머리를 들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굶주려 있는 모양이었으나 산과 산 사이에 엄청나게 깊은 협곡이 가로질러 있어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었다. 그는 뒤를 돌아다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아래 산언덕에 다섯 개의 검은 점이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주장령 일행임이 분명했다. 아직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렇게 빨리 달려온다면 한 시진도 갈리지 않아 추격해 올게 틀림없었다.

장무기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았다.

'이리들의 밥이 될망정 저들의 수중에 잡혀서는 안 된다.'

사모했던 주구진이 아름다운 얼굴 속에 사갈 같은 마음을 지닌 걸 생각하니, 한때나마 그녀를 연모했던 자기가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고 상심이 되어 무턱대고 밀림 속으로 달려갔다. 밀림에는 길풀들이 허리까지 나 있어서 눈이 쌓였다 해도 발자국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지친데다가 체내의 음독이 발작해 두 다리를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 풀이 무성한 곳에 기어들어가 날카로운 돌맹이 하나를 왼손에 쥐었다. 주장령이 자기를 발견하고 가까이 오면 스스로 돌로 태양혈을 치고 죽을 심산이었다.

그는 이 두 달 동안 주가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마음이 서글펐다.

'공동파, 화산파, 곤륜파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진 낭자마저 인면수심일 줄은 정말 몰랐다.

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게 해주신 말을 왜 잊고 있었단 말인가?'

모친이 죽을 때 그에게 들려 준 몇 마디가 새삼스레 또렷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

----- 애야, 이 다음에 여인을 조심해라. 여자는 예쁘면 예쁠수록 잘 속인단다. -----

그는 눈물이 괴어 눈 앞이 흐릿해졌다.

'이 말을 할 때 어머니는 비수가 가슴에 꽂혀 그렇게 아픈 중에도 고통을 참으며 내게 신신당부하신 것이다. 이 피어린 어머니의 말씀을 어찌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지 않았단 말인가! 혈도를 푸는 법을 몰랐다면 주장령의 음모를 지금까지도 모른 채 결국 그의 주도면밀한 계략에 빠져 그들을 데리고 빙화도에 가서 의부의 생명을 해쳤을 거야.'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정하자 금방 머리가 맑아졌다. 주장령 부녀의 음모는 처음부터 너무나 완벽했다. 주장령은 자기가 장취산의 아들이라는 걸 알자 개들을 죽이고 딸을 때리면서까지 자기의 신임을 얻은 것이다. 그 넓은 저택을 불사르는 게 아깝긴 했지만 무림지존인 도룡보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주장령이 일을 처리하는 신속함과 과단성을 실로 놀랍고 무서웠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섬에 있을 때, 의부께서는 칼을 안은 채 매일 멍하니 앉아 있곤 했다. 그런데도 십 년이 지나도록 그 도룡도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다. 의부는 비록 총명하긴 하지만 주장령의 간교한 기지와 계략을 따르지 못한다. 의부께서는 도룡도의 비밀을 생각해내지 못했지만, 그 보도가 주장령의 손아귀에 들어갈 때쯤이면 거의 생각해 낼 것이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온갖 상념에 빠져들고 있는데 발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주장령과 무열 두 사람이 먼저 수풀 사

이로 들어온 것이다.
무열이 말했다.
"그 꼬마가 이 숲에 숨어 있을 겁니다. 더는 도망....."
주장령이 그의 말을 막으며 이야기했다.
"진아가 아마 그에게 뭔가 잘못을 한 모양이야. 걱정이 되는구먼. 어린 나이에 이 눈 덮인 산에서 자칫 변이라도 당하면 은인께 면목이 없네."
그의 말은 무기를 걱정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 말을 듣자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이 나뭇 가지로 덤불숲을 헤치는 소리가 들렸다. 장무기는 몸을 웅크리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행히 수풀은 굉장히 넓어 일일이 다 헤치면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잠시 후에 위벽과 주구진, 무청영도 도착했다. 다섯 사람은 수풍을 거의 반나절이나 뒤졌으나 장무기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평펴짐한 바윗돌 위에 앉아 쉬었다. 그들이 있는 곳과 무기가 숨어 있는 곳은 겨우 삼 장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풀이 무성했으므로 그의 몸이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주장령이 잠시 생각하다가 돌연 큰 소리로 물었다.
"진아야, 넌 도대체 무기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가 말 한마디 없이 한밤중에 떠나가게 만들었느냐?"
주구진이 놀라 쳐다보자 주장령은 얼른 그녀를 향해 눈짓을해 보였다. 장무기는 풀숲에 숨어서도 그들이 하는 짓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주구진은 금방 눈치를 채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장난삼아 그의 혈도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이어 소리쳐 불렀다.
"무기! 무기! 어디에 있지? 내가 잘못했어!"

목소리에 교태가 어려 유혹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아무리 불러도 무기가 나타나지 않자 갑자기 울면서 소리쳤다.

"아이구..... 아버님! 제발 저를 때리지 마세요. 전 나쁜 뜻으로 무기 동생에게 장난을 친 건 아니예요."

주장령은 손을 들어 자신의 허벅지를 세차게 치며 입으로 호통을 쳤다. 주구진은 연신 비명소리를 지르며 정말로 부친에게 맞는 것처럼 흉내냈다. 무열, 위벽, 무청영은 옆에서 지켜보며 배시시 웃고 있었다.

무기는 두 부녀가 하는 연극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내가 보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갔을 거야.'

주씨 부녀는 무기가 필시 이 숲 속에 숨어 있으리라 믿고 하나는 호통을 치고 하나는 애걸을 하며 가증스럽게 능청을 부렸다. 장무기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으나 그 소리는 여전히 귓속으로 파고 들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뛰쳐나가 소리쳤다.

"지금 뭐하는 거냐? 그렇게 한다고 내가 속을 것 같으냐?"

그들 일행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여기에 있었군!"

장무기가 소리쳐 말했다.

"이젠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그는 수풀을 뚫고 미친듯이 달렸다. 주장령과 무열이 몸을 날려 그를 추격했다. 장무기는 죽기로 작정했으므로 주저하지 않고 만길 협곡을 향해 달려갔다. 주장령의 경공은 그보다 훨씬 빨랐으므로 그가 협곡에 닿기도 전에 거의 쫓아왔다. 그는 손을 뻗어 장무기의 등을 나꿔잡았다. 장무기가 멈칫하는 순간 주장령은 오른손으로 그의 허리를 꽉 잡았다. 무기의 한쪽 발은 이미 허공을 내딛고 있었다. 나머지 한쪽발마저 앞으로 내딛는 순간 그의 몸

이 돌덩어리처럼 앞으로 기울어졌다.

주장령은 그가 정말로 계곡으로 뛰어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무기를 잡고 있던 그도 덩달아 앞으로 같이 기울었다. 그는 질겁을 했다. 만약 그가 즉시 손을 놓고 반대쪽으로 몸을 날리면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손을놓으면 무림지존인 도룡보도는 영원히 그와 인연이 끊어지게 된다. 두 달 동안 고심해서 세운 계획과 초토가 된 대저택이 그가 손을 놓음으로 해서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그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떨어지는 속도는 더욱 가속되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가파른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 그 아래는 만장이나 되는 심연이었다. 무열과 주구진 등이 놀라 외치는 소리가 귓전에 들려왔다. 그러나 그 소리도 곧 들리지 않았다. 둘은 계곡에 꽉 들어찬 구름과 안개를 뚫고 곧바로 아래로 떨어져 내려갔다.

여지껏 살아 오면서 숱한 풍랑을 겪은 주장령은 위기에 처해도 여간해서는 당황하지 않았다. 칼날 같은 바람소리를 들으며 몸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벼랑가에 나뭇 가지가 군데군데 뻗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나뭇 가지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나 몇 자 차이로 잡을 수가 없었다. 몸이 계속 떨어져 내리며 가까스로 마지막 가지 하나를 잡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떨어지는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나뭇 가지가 버티지 못하고 뿌지직 부러지고 말았다. 그 덕분에 떨어지는 속도가 원만해졌고, 주장령은 이 틈을 타 두발을 앞으로 차서 절벽에 바싹 기대며 오룡교주(烏龍絞柱) 초식으로 그 소나무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는 무기를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장무기가 죽으려고 뛰어내릴까 봐 팔을 놓지 않았다.

장무기는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자 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흥!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난 당신을 데리고 의부를 찾으러 가진 않을 것이오. 그러니 그런 꿈은 버리는 게 좋을 것이오."

주장령은 나뭇가지에 올라앉으며 위를 쳐다보았다.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생각을 하니 주장령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웃으며 말했다.

"장형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한 마디도 못 알아 듣겠네. 쓸데없는 생각일랑 하지 말게."

무기가 대꾸했다.

"난 이미 당신의 속셈을 알아냈으니 이젠 소용이 없어요! 강제로 나를 빙화도로 데려간다 해도 내가 동서남북 아무 방향이나 엉터리로 가리키면 모두 바다에서 죽고 말 거요!"

주장령은 그 말을 듣고 보니 사실 그럴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싸울 때가 아니었다. 위로 올라가기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아래는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계곡이니 아래로 내려가는 길도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절벽을 따라 천천히 기어오르는 것이었다.

주장령이 무기를 향해 말했다.

"이봐, 쓸데없이 의심을 하지 마라. 난 너를 괴롭혀서 사대협을 찾을 생각은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수 만개의 화살에 맞아 묻힐 곳도 없이 죽을 것이다."

그가 이처럼 굳게 맹세하는 것은 헛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무기가 자결하려고 계곡으로 뛰어든 것을 보고 아무리 그를 괴롭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스스로 가자고 하기 전에는 안 될 일이었다. 무기는 그가 맹세하는 걸 보자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졌다.

주장령이 말했다.

"우리 여기서 천천히 기어 올라가자. 절대 뛰어내리면 안 된다.

알았냐?"

"당신이 괴롭히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필요가 있겠소?"

주장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도를 꺼내 나무껍질을 잘라 그 껍질을 가는 줄로 엮어 만들어 자기와 무기의 허리를 연결해서 동여맸다.

두 사람은 눈 덮인 절벽을 비스듬히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손과 발로 바위 틈을 짚으며 계속 위로 기어 올라갔다. 절벽은 상당히 가파른데다 얼음이 얼어 있어 미끄러웠다. 장무기는 두 번이나 미끄러졌으나 주장령이 잡아 주어 아래로 떨어지는 걸 면했다.

반나절을 기어 올라가자, 손과 발꿈치, 무릎 등이 날카로운 얼음 모서리에 찢겨 선혈이 낭자했다. 그들은 험한 절벽을 한 걸음 한 걸음 온 힘을 다해 기어갔다. 병풍처럼 생긴 큰 산맥을 돌아가자 주장령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찌푸렸다. 도대체 얼마나 높고 깊은 절벽인지 알 수가 없었다. 눈앞엔 구름바다가 망망하게 펼쳐져 있었고 더는 갈 길이 없었다. 그들은 절벽에 삐쭉 튀어나온 평평한 곳에 겨우 몸을 기댈 수 있었다. 둥그스름한 평지는 공중에 떠 있는 듯 걸려 있어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도, 아래로 내려 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죽는 길밖에 없는 셈이었다. 하얀 눈뿐 나무는 물론 짐승 한 마리도 없었다.

장무기는 오히려 재미있었다.

"이젠 당신도 끝장났어요. 이렇게 되었으니 도룡보도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장령이 화가 나서 소리쳤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뭉쳐 삼키고는 한동안 우기조식을 하며생각했다.

'지금은 피곤하기는 해도 아직 힘이 남아 있지만, 만약 하루를

더 굶었다간 이 곤경에서 벗어나기 어렵겠다.'

그는 일어나며 무기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더 갈 길이 없으니 우리 되돌아가서 출로를 찾아 보자."

무기가 대답했다.

"나는 여기가 좋은데, 무엇 때문에 돌아가겠소?"

주장령이 노해서 소리쳤다.

"여기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데 멍청히 앉아서 뭘 하겠단 말이냐?"

무기는 피식 웃었다.

"사람으로 구차하게 살 생각 마시고, 차라리 신선의 길을 수련하시는 게 어떻겠소?"

주장령은 크게 화가 났으나 함부로 대했다간 또 몸을 날려 죽으려 할까 봐 참았다.

"그럼 너는 여기서 쉬고 있어라. 내가 출로를 찾은 뒤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

"나의 생사존망에 어찌 그리 괘념하시오? 당신은 아직도 나를 데리고 빙화도에 갈 꿈을 꾸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주장령은 대답하지 않고 온 길로 되돌아갔다. 그는 아까의 큰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왼쪽으로 갈 길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산벽은 지세가 험했으나 혼자서는 꽤 빨리 움직일 수가 있었다. 그는 기고 걸으면서 반 시진을 더듬었으나 절벽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주장령은 벼랑에 기대어 한탄하다가 돌아왔다.

장무기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색을 살폈다. 길을 못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내 몸의 음독은 제거할 수가 없다. 이제 곧 수명이 다할 것이

다. 어디서 죽은들 나야 마찬가지지. 그런데 저 사람은 있는 복을 누리지 않고 무림지존이 된다는 망상 때문에 이 얼음 천지 속에서 굶어 죽게 되었으니 불쌍하구나.....'

주장령의 계략을 알았을 때는 몹시 증오했으나, 절벽에서 떨어진 뒤 계속 말로 비고고 나니 사기가 꺾여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를 보자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했다.

"당신은 살 만큼 살았고 모든 영화와 쾌락한 생활을 누리셨으니, 지금 죽어도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장령이 무기를 구해 준 것은 그를 끝까지 속여 감동시켜서 빙화도로 함께 가려는 속셈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살 길이 없고 이런 지경을 당한 것도 모두 장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었다. 그는 분노와 함께 눈을 부릅뜨고 무기를 노려보았다. 무기는 그 동안 자상하고 온후했던 사나이가 갑자기 야수처럼 변하는 걸 보자 뒷걸음질을 했다.

"도망갈 길이 있을 것 같으냐?"

그는 팔을 뻗어 무기를 잡으려 했다. 그에게 온갖 고통을 준 뒤 서서히 죽일 작정이었다. 드디어 본성이 드러난 것이다.

장무기는 미끄러지며 뒤로 스러졌다. 순간 왼쪽 산벽에 컴컴한 동굴이 보였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곳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바지 가랑이가 찢겨 나갔다. 주장령이 잡아당긴 것이다. 무기는 계속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돌연 쿵하며 머리가 돌과 부딪쳤다. 눈앞에 별이 왔다갔다 했다.

그는 주장령이 자기를 해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럴수록 허겁지겁 동굴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캄캄한 동굴로 들어가면 위험에 빠질지 상대의 손아귀에 잡히게 될지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주장령이 계속 뒤쫓아왔다. 다행히 그 구멍은 갈수록 좁아져

십여 장을 기어 들어가자 덩치가 큰 주장령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다. 장무기가 몇 장을 더 기어가 방향을 꺾자 밝은 빛이 보였다. 그는 너무나 기뻐 빨리 기어갔다.
뒤에서 주장령이 외쳤다.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이리 나와라!"
주장령은 내력을 운용하여 동굴 석벽에다 일장을 쳤다. 그러나 석벽이 견고하기 이를데 없어 그의 손바닥만 은은히 저려올 뿐이었다.
그는 단도를 꺼내 구멍을 파내려고 했다. 몇 번 파자 쨍그렁 하는 소리와 함께 단도가 부러졌다. 주장령은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쳐 있는 힘을 다해 앞으로 한 자 정도 나아갔다. 그러나 그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었다. 단단한 석벽이 그의 몸뚱이를 꽉 조인 것이다. 그는 질식할 것 같아 뒤로 물러나려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가없었다. 그는 혼비백산하여 젖먹던 힘까지 짜내 두 팔로 돌을 밀었다. 비로소 몸이 겨우 한 자 정도 뒤로 물러났다. 가슴에 극렬한 통증을 느끼는 사이에 늑골 하나가 부러졌다.

----- 제 3 권 3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3 권

제 4 장 장무기(張無忌)와 의문의 소녀

장무기는 좁은 굴 속에서 기다시피 해서 수장을 걸어오자 눈앞이 점점 밝아졌다. 조금은 더 가자 갑자기 눈이 부셨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눈을 떠 보니,

꽃덩굴이 우거진 취곡(翠谷)이었다. 파란 잎사이로 빨간 꽃이 엇갈려 서로 빛을 발하는 것이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그는 환호성을 터뜨리며 굴 속에서 기어나왔다. 깊은 굴속에 있었지만 그는 가볍게 껑충 뛰어 올라왔다. 그가 밟고 있는 곳은 연한 풀잎이었다. 그의 코 속으로 꽃향기가 다가왔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나뭇 가지에는 먹음직스런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어두컴컴한 굴 속을 빠져 나오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다. 그는 상처의 아픔마저도 잊은 채 앞으로 달려나갔다. 단숨에 약 이 리 길을 달려오자 눈앞에 큰 산봉우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이 취곡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한 번도 인적이 닿지 않았던 것 같았다. 사방엔 높은 산봉우리들이 구름을 찌르고 하늘로 치솟아 있었다. 이 험준한 산세 때문에 그 누구도 도저히 산을 넘어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장무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풀밭에는 산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그를 보고도 놀라거나 도망치지도 않았다. 나뭇 가지엔 원숭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하늘이 나를 박하게 대하진 않는구나. 내가 죽을 곳을 이런 선경(仙境)으로 택해 주다니....."
그는 서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동굴 저쪽에서 주장령의 목청이 들려왔다.
"소형제, 빨라 나오게! 굴 속에서 숨이 막히지도 않는가!"
장무기는 크게 웃으며 소리쳤다.
"여긴 참 좋은데요!"
그는 낮은 나뭇 가지 위에서 이름 모를 과일을 몇 개 땄다. 과일의 향기가 코를 찔렀다. 한 입을 깨물자 맛은 정말 기가 막혔다. 그는 과일 하나를 굴 속으로 던지며 외쳤다.
"받으세요! 맛이 기막힌 겁니다."

과일은 굴 속을 지나 절벽에 부딪치며 부서졌다. 주장령은 씨까지도 먹어치웠다. 씹을수록 배가 더 고파왔다. 그는 다시 외쳤다.

"소형제, 몇 알 더 던지시오!"

"당신은 굶어 죽어도 싸요! 먹고 싶으면 직접 이리로 오시요."

장무기가 이렇게 말하자 주장령이 다시 소리쳤다.

"내 몸집이 너무 커 굴 속으로 빠져나갈 수 없네!"

"몸을 두 쪽으로 가르면 되지 않소?"

그 말에 주장령은 자신의 음모가 탄로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무기가 자기를 굶어죽게 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가슴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 죽일 놈아! 이 굴 속의 과일이 너를 평생 먹여 살릴 것 같으냐? 나도 굶어 죽겠지만, 너도 곧 굶어 죽을 것이다."

장무기는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몇 알을 더 먹자 배가 불렀다.

반나절이 지나자 갑자기 짙은 연기가 굴 속을 지나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주장령이 밖에서 소나무 가지를 태워 연기를 내어 장무기를 굴 속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십 수백단의 나뭇 가지를 태워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와 거짓으로 기침소리를 냈다.

주장령이 외쳤다.

"소형제, 빨리 나와! 절대로 해치지 않겠다.!"

장무기는 일부러 소리를 질러 기절한 척하고 입구에서 다른 데로 걸어갔다. 서쪽으로 약 이 리(二里) 길을 걸어가자 절벽에서 폭포수가 힘차게 아래로 떨어졌다. 그것은 눈이 녹아 생긴 폭포였다. 햇빛이 비친 폭포는 거대한 용과 같았다. 정말 장관이었다.

폭포는 청철벽록(淸澈壁錄)의 깊은 연못에 떨어지고 있었다. 연

못에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따로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한참을 감상하고 난 후 고개를 숙였다. 손은 온통 흙먼지와 가시에 찔려 핏자국이 나 있었다. 그는 물가로 가 모자와 양말을 벗어 발을 씻었다.

얼마 뒤, 갑자기 파다닥하는 소리와 함께 한 자가 넘는 흰 물고기가 뛰어 올랐다. 장무기가 잽싸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그는 자세히 물 속을 들여다보니 십여 마리의 흰 대어가 노닐고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빙화도(氷火島)에서 고기잡는 법을 익혔었다. 그는 나뭇 가지를 꺾어 끝을 뾰쪽하게 깍은 후, 조용히 지켜보다가 물고기가 물 위로 떠 오르자 잽싸게 찔러 어김없이 물고기를 낚았다.

그는 환호성을 지르며 날카로운 나뭇 가지로 배를 갈라 창자를 씻어 낸 후, 마른 가지를 주워 모으고 품 속에서 화도화석화용(火刀火石火용)을 꺼내 불을 붙이고 물고기를 구었다. 그 향긋한 냄새는 정말 기막혔다. 다 익자 그는 순식간에 한 마리의 물고기를 해치웠다. 정말 평생 이런 맛은 처음 느껴 본 것 같았다.

다음날 정오 그는 다시 물가로 가 물고기를 잡아 구어 먹었다. 그는 앞으로 살아가려면 불씨를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했다. 빙화도에선 모든 도구를 자신이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별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풀을 모아 침대를 만들고 다른 필요한 도구를 만들었다.

저녁 때까지 일하고 난 그는 주장령이 굶어죽을까 염려되어 싱싱한 과일을 한 아름 따 굴 저편으로 던졌다. 그는 주장령이 생선을 먹고 나면 힘이 늘어나 굴 속으로 쳐들어 올까봐 구운 물고기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나흘째 되는 날, 그는 흙으로 가마솥을 만들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나무 위의 원숭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매

우 긴박한 듯했다. 그가 조심조심 달려가 보니, 절벽 밑에 한 원숭이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뒷다리를 큰 돌덩이에 눌려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절벽에서 실족하여 떨어진 것으로 생각했다. 원숭이를 일으키자 원숭이의 다리는 이미 부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재빨리 나뭇 가지를 두 개 꺾어 다리 양쪽에다 그것을 대고 꽁꽁 묶고 나서 약초를 상처에발라 줬다. 이 계곡에서 거기에 맞는 약초를 찾긴 힘들었지만 그의 접골 솜씨로서 부러진 다리는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원숭이는 뜻밖에도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이튿날 많은 과일을 따 그에게 가져왔다. 십여 일이 지나자, 과연 부러진 다리는 완치되었다.

계곡 속엔 오랫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는 그저 원숭이들과 놀며 지냈다. 만약 몸의 한독(寒毒)이 가끔씩 발작하지만 않는다면, 계곡 속의 생활은 정말 즐거웠다. 어느 땐 산양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잡아서 먹을 생각도 했으나, 산양들이 너무 유순하고 사랑스러워 정말 건드릴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과일과 물고기가 많아 먹을 것은 큰 걱정없었다. 며칠 뒤엔 꿩을 잡아 포식하기도 했다.

이런 생활도 어느덧 한 달이 흘러갔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단잠에 빠져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털이 숭숭한 큰 손이 자기의 얼굴을 가볍게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보니, 흰 고릴라 한 마리가 자기의 옆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품에는 자기와 매일같이 놀던 원숭이를 안고 있었다. 그 원숭이는 찍찍하고 계속 외쳐댔다. 손은 대백원(大白猿)의 흰 배를 가리키고 있었다.

장무기는 문득 썩는 냄새를 맡았다. 대백원의 배를 보니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다. 큰 종기가 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 알았어 이제 보니 내가 환자를 데리고 왔구나."

대백원은 왼손에 갖고 있던 주먹만한 복숭아를 공손하게 그에게 바쳤다. 장무기는 싱싱하고 큰 복숭아를 보자 마음속으로,

'어머님께서 옛날 얘기를 해주실 때, 곤륜산에서 어느 여선왕모(女仙王母)께서는 생일을 맞은 때마다 큰 복숭아를 차려놓고 군선들을 초청했다고 하셨는데, 서왕모란 사람은 진짜 인물인지 아닌지 몰라도 곤륜산에 큰 반도(蟠桃)가 난다는 것은 사실일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웃으며 반도를 받았다.

"이런 걸 안 가져와도 내 병을 고쳐 줄 텐데."

장무기는 가볍게 그의 배를 들쳐보자 그만 깜짝 놀랐다. 그 종기는 너무나 클 뿐만 아니라 너무나 딱딱한 것이었다. 그는 의서에서 이런 지독한 종기는 본 적이 없었다. 만약 이 딱딱한 것이 곪으면 정말 불치의 종기가 될 것 같았다. 고릴라의 진맥을 짚어보니 별로 심해 보이진 않았다. 그는 배의 털을 제치고 다시 보니 그 자라는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불쑥 튀어나왔으며 사방에 실로 꿰맨 자국이 있었다. 사람의 손을 거친 것이 틀림없었다. 고릴라가 아무리 영리하다 해도 어찌 실과 바늘을 쓸 줄 알겠는가! 그는 그 불쑥 튀어나온 것이 혈맥의 운행을 방해해서 살이 썩게 된 것이라 생각하고, 이 종기를 고치려면 뱃속에 있는 물건을 꺼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수술이라 하면 그는 호청우에게 배워 훌륭한 솜씨를 가지고 있지만, 여긴 예리한 칼도 없고 가위도 없지 않은가. 그리고 약도 없고 정말 난처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큰 돌을하나 주워 다른 큰 바위에다 던졌다. 깨진 돌조각에서 예리하게 깨진 것을 골라 천천히 대백원의 실로 꿰맨 곳을 잘랐다. 그 흰 원숭이는 나이가 들어 매우 영특하였다. 장무기가 자기의 병을 고쳐주려는

것을 알고 그 극렬한 통증을 꾹 참고 있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그의 실밥을 잘라내자 그의 뱃속에 유포(油布)로 된 작은 보따리가 보였다. 그는 괴이하다고 느끼면서도 보따리를 풀어 보지 않고 다시 백원의 배를 꿰매었다. 생선뼈를 바늘 삼아 나무껍질로 실을 삼아 억지고 꿰매었던 것이다. 상처에 약도 발랐다. 반나절이 지나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다. 백원은 매우 고통스러워 보였으나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 있었다.

장무기는 손을 씻고 유포의 핏자국을 닦아낸 후 풀어 보았다. 그 안에는 얇은 네 권의 경서가 있었다. 유포로 워낙 단단히 싸매어 있었기 때문에, 백원의 뱃속에 오래 들어 있었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겉장엔 꼬불꼬불한 글자 몇 자가 적혀 있었지만 그는 한 자도 알아보지 못했다. 안을 제쳐 보니 네 권이 모두 그런 괴상한 글씨였다. 그러나 행간마다 깨알만한 글자가 한문(漢文)으로 씌어져 있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니, 그것은 연기운공(練氣運功)이라는 비결이었다. 그는 천천히 읽어내려 가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세 줄의 글씨가 보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태사부님과 유이백께서 전수하시던 무당 구양공이었다. 그는 또 아무렇게나 다음 장을 넘겨 보니 다시 무당구양공의 문구가 보였다. 그러나 어느 곳은 태사부님과 유이백님께서 전수하시던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책을 덮고 조용히 생각했다.

'이건 도대체 무슨 경서이지? 어째서 무당구양공의 문구가 들어 있지? 그런데 또 왜 무당 본문에서 전수한 것과 틀리지? 태사부의 부인이신 각원대사께서 구양진경의 경문을 읽으실 때 태사부, 곽양 여협, 소림파 무색대사 세 분이 각기 일부를 기억하셔서 뒤에 무당, 아미, 소림 삼 파의 무공이 크게 진보하여 수 십 년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무림에 이름을 떨치지 않았는가!그 구양

진경은 능가경의 가운데마다 적혀있다고 하셨다. 이 꼬불꼬불한 문자는 필시 범문(梵文)으로 된 능가경일 거야. 그런데 어떻게 고릴라의 뱃속에 들어 있을까?

이 경서는 정말 그 구양진경이었다. 그러나 어째서 고릴라의 뱃속에 들어 있는지 그것은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구 십여 년전, 소상자와 윤극서가 소림사 장경각에서 이 경서를 훔친 후 각원대사에게 쫓겨 화산 꼭대기까지 왔었다. 그들은 더 이상 몸을 피할 수 없자 마침 옆에 어린 고릴라가 있는 것을 보고 의논 끝에 고릴라의 배를 갈라 거기에 숨긴 것이었다. 뒤에 각원, 장삼봉, 양과 셋이서 소상자와 윤극서를 아무리 뒤져도 경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구양진경의 종적은 근 백년 동안 무림의 일대 의혹이 된 것이다.

그 후 소상자와 윤극서는 고릴라를 데리고 멀리 서역까지가 누가 먼저 경서의 무공을 익히고 자기를 죽일까 하고 견제하며 누구도 고릴라 뱃속의 경서를 꺼내지 못했다. 뒤에 두 사람은 곤륜산 경신봉(警神峯)에 와 서로 암습하여 양패구상을 당한 것이다. 그 후 경서는 영원히 고릴라의 뱃속에 있게 된 것이다.

소상자의 무공은 원래 윤극서보다는 한 수 위였으나, 그가 화산에서 각원대사에게 일 권을 친 것이 그 반동의 진력으로 인해 중상을 입어 윤극서와의 싸움에서 먼저 죽게 된 것이었다. 윤극서는 죽기 직전에 곤륜삼성 하족도를 만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에게 소림사 각원대사에게 그 경서가 고릴라의 뱃속에 있다고 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기력을 잃고 숨이 넘어가면서 희미하게 한 말소리라 경재후중(經在후中)을 하족도는 금재유중(金在油中)으로 들었던 것이다. 하족도는 약속을 지키려고 중원에 와 금재유중이란 말을 각원대사에게 전했던 것이다. 각원은 그 말뜻을 알 수 없었고 그가 설명하기도 전에 일장의 거대한 풍파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로부터 무림에는 무당파 아미파라는

두 파가 더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원(猿)은 매우 다행스럽게도 곤륜산에서 선도(仙桃)를 따먹으면서 천지의 영기(靈氣)를 받아 구십 여년을 살면서 여전히 날으는 듯이 뛰어다니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의 몸에 털은 점점 흰 색으로 변해 한 마리의 백원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뱃속에 경서가 들어 있어서 위와 장을 꽉눌러 가끔씩 배에 통증이 오곤했다. 배에 종기도 어느 땐 괜찮다가 어느 땐 다시 생겨나곤 했다. 오늘 비로소 장무기를 만나 뱃속의 경서를 꺼내니 백원으로선 정말 구십 년 묵은 체증이 가시는 듯하며 심복대환(心腹大患)을 도려낸 것이다.

이 기구한 곡절을 장무기보다 수십 배 더 총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장무기는 한참 동안 멍청히 있다가 백원이 준 대반도(大蟠桃)를 한 입 물었다. 그러자 싱싱하고 달콤한 과즙이 서서히 목으로 흘러들어갔다. 계곡의 무명 과실들과는 또 다른 맛이 느껴졌다.

장무기는 반도를 다 먹고 나서 다시 생각을 이었다.

'태사부께서 전에 만약 내가 소림, 무당, 아미 삼파의 구양신공을 터득하면 혹시 몸 속의 음독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이 삼파의 구양공은 모두 구양진경에서 생겨난 것인데, 만약 이 경서가 진짜 구양진경이라면 삼파의 구양공을 나눠 배우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겠는가! 이 계곡에서 할일도 없으니 이 경서를 따라 연습이나 해야지. 설령 구양진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배워서 나쁘진 않겠지, 또한 아무 소용도 없고 배워서 해를 입는다 해도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그는 아무 생각도 없이 세 권을 양지 바른 곳을 골라 마른 풀로 덮고 나서 돌덩어리 세 개를 그 위에다 눌러놨다. 원숭이들이 그것을 갖고 장난치다가 찢어 버릴까 봐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는 한 권만 들고 먼저 몇 번 읽고 나서 다시 연구하며 차근차

근 터득해 나갔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만약 진짜 구양진경을 익히고 체내 음독을 제거한다 해도, 이 높은 산으로 막힌 계곡을 어떻게 빠져나가겠는가? 오늘 터득해도 좋고 내일도 좋다. 그것을 하나도 연마하지 못한다 해도 무료한 날을 보내긴 안성마춤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런 느긋한 마음을 먹자 정말 이상하리 만치 진전이 빨랐다. 그 짧은 넉 달 동안에 이미 한 권의 경서에 적힌 공부를 모두 깨우치고 거기에 따라 연마를 달성한 것이다.

한 권을 끝내고 계산해 보니, 호청우가 독이 퍼져 죽을 것이라는 날짜가 이미 지났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몸도 가벼웠고 전신에 진기가 유동하는 것을 느끼며 조금도 병색이 보이지 않았다. 전에는 시시각각으로 한독이 엄습해 오는 것으로 느꼈었는데, 지금은 한 달 넘어 가끔 한 번씩 가볍게 느꼈다. 얼마 후, 그는 이 권의 경문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다.

"호세구양(乎세九陽) 포일함원(包一含元). 이 책의 이름은 구양진경이니라."

그제서야 그는 태사부께서 잊지 못하시는 바로 구양진경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그 대백원은 자기의 병을 고쳐 준 은덕을 알고 가끔 대반도를 갖다 주었다. 그것도 원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었다. 제 이 권의 삼분의 일 정도를 터득하자, 체내의 음독은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매일 구양진경을 터득하는 일 외엔 그저 원숭이들과 장난치며 지냈다. 그가 딴 과일은 언제나 반은 주장령에게 나눠 주었다. 그는 아무 걱정도 없이 정말 자유자재였다. 그러나 주장령이 있는 곳은 좁은 평대(平坮) 뒤라 정말 하루가 일 년 같았다. 겨울이 되면 사방이 눈과 얼음에 덮여 한풍이 뼈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정말 그 고초는 형용할 수가 없었다.

장무기는 제 이 권을 끝내자 이미 그는 추위도 타지 않았다. 그

러나 배워 갈수록 더욱 어렵고 오묘해서 진전이 점점 느려졌다. 제 삼 권은 꼭 일 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마지막 권은 더더욱 어려워 삼 년이나 걸렸다.

그는 이 조용한 계곡에서 오 년을 지내 온 것이다. 그는 어린애에서 어느새 몸집이 우람한 청년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마지막 이 년은 원숭이들과 산벽을 타고 올라가 멀리를 내다보며 놀기도 했다. 지금의 그의 공력으로 산봉우리에 올라 계곡을 벗어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인심이 음험하고 악독한 것을 생각하자 그만 자기도 모르게 치를 떨었다. 그는 밖에 나가 걱정을 사서하며, 제 발로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이 아름다운 계곡에서 늙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는 네 권의 경서를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다시 한 번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어딘가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굴속 왼쪽 벽에 다섯 자나 되는 구멍을팠다. 그리고는 네 권의 경서와 호청우의 의경, 그리고 또 왕난고의 독경 모두를 백원 뱃속에서 꺼낸 유포에다 싸서 안에 넣고는 흙으로 덮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백원한테서 경서를 얻은 것은 정말 기막힌 인연이다. 훗날 백 년이고 천 년이고 누가 다시 우연히 이곳에 와 이 세 경서를 얻을지 모르겠군.'

그는 뾰쪽한 돌을 주워 벽에다 <장무기 매경서(張無忌埋經書)>라고 여섯 자를 새겼다.

그는 무공을 연마할 땐 내일 과제가 있어 무료함을 몰랐는데, 이날 모든 것을 끝내고 나자 허전함을 어쩔 수가 없었다. 거기다 신공을 터득하고 나자 담력도 커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만약 주장령이 나를 해치러 온다고 해도 이젠 두렵지 않으니, 심심한데 저 자와 말이나 건네 봐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들어올 때는 나이가 십 오 세로 몸이 왜소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십 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좁은 굴을 빠져 나갈 수 없었다. 그는 숨을 들여 마시고 축골공(縮骨功)을 운기하자 전신의 뼈가 한데로 모이며 뼈와 뼈 사이가 좁아져구멍이 좁다 해도 간단히 빠져 나갔다.

주장령은 돌벽에 기대어 단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무척이나 즐거운 꿈을 꾸고 있는지 표정이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들자 깜짝 놀라 깨어났다. 눈앞에 우람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었다. 주장령은 벌떡 일어나 정신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외쳤다.

"너..... 너는.....!"

장무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주 아저씨, 장무기예요."

그는 주장령이 반갑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는 찬찬히 쳐다 보고 나서 입을 열었다.

"네가 이렇게 컸구나. 흥, 왜 한 번도 나와서 나하고 말을 건네지 않았지? 내가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다니!"

"나를 골탕 먹일까 봐 그랬죠."

주장령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금나(檎拿)법을 시전하여 그의 어깨를 움켜쥐며 날카롭게 외쳤다.

"왜 오늘은 두렵지 않느냐?"

그러자 갑자기 장심이 뜨거워 자가도 모르게 팔을 움츠리며 손을 놨다. 가슴에 은은하게 통증이 왔다. 그는 겁에 질려 세 걸음 물러나며 멍청하게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너... 너 이게 무슨 무공이냐?"

장무기는 구양진경을 터득하고 난 후 처음으로 무공을 시험해

본 것이다. 이런 무서운 위력이 있다니,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주장령은 일류 고수였다. 그런데 그의 신공에 튕겨져 손을 안 놓을 수 없었다니 장무기는 주장령이 놀라면서도 이상한 눈초리를 하자 득의양양하며 웃으며 말했다.
"그 무공을 아직도 쓸 수 있소?"
주장령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물었다.
"그게 무슨 무공이냐?"
"구양신공이요."
주장령은 크게 놀라며 다시 물었다.
"어떻게 터득한 것이지?"
장무기는 그를 속이지 않고 모든 경위를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주장령은 그 말에 질투도 나고 화도 치밀었다. 그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난 이 절봉 위에서 오 년이란 세월을 고생했는데, 이놈은 여기서 그 오묘한 신공을 익히다니....."
그는 자기가 그를 해치려다가 그런 고생을 하게 된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무기가 오 년 동안이나 거르지 않고 과일을 따 줘서 살아 남을 수 있었다는 것도 고마와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장무기는 행운아이고 자기는 너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화를 꼭 참고 교활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구양진경을 나에게 좀 보여 줄 수 없나?"
장무기는 재빨리 생각을 굴렸다.
'당신한텐 보여 줘도 별 탈이 없을 거야. 그가 잠깐 동안에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있을려구.....'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미 굴 속에 다 묻어 버렸소. 내일 보여드리죠."
주장령이 말했다.

"넌 이미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저 굴을 빠져 나올 수 있었지?"

장무기가 말했다.

"저 굴은 그렇게 좁지만은 않소. 몸을 움츠리고 안으로 쑤셔서 나온 거요."

주장령이 물었다.

"나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같이 한 번 실험해 보죠. 안은 무척 넓은데, 여기 평대에서 지내시느라 보통 고생이 아니었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의 어깨와 가슴, 둔부의 뼈를 누르면 그도 그 굴 속을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장령이 웃으며 말했다.

"소형제, 자네는 정말 참 착하군. 군자란 지난 일은 따지지 않는 거야. 전에 내가 자네에게 못되게 한 것은 모두 용서해 주게."

그는 허리를 깊숙이 굽혀 읍을 올렸다.

장무기는 얼른 답례를 하며 말했다.

"주 아저씨,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일 여길 빠져나갈 방법이나 생각해 봅시다."

주장령은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여기를 빠져 나갈 수 있을까?"

"원숭이나 고릴라들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넌 여기를 벌써 빠져 나가지 않았지?"

장무기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엔 난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당할까 봐서요. 지금은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태사부, 사백, 사숙님들도 보고 싶구요."

주장령은 크게 웃으며 손뼉을 치더니,

"좋아, 좋아."

하고 외치며 뒤로 두 발짝을 물러섰다. 그러자 갑자기 휘청거리며 앗! 하고 소리치더니 허공을 딛고 절벽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낙극생비(樂極生悲). 기쁨이 넘치면 슬픔이 닥치는 법인가! 갑자기 이런 변고가 생기자 장무기는 크게 놀라 몸을 수그려 밑을 보며 외쳤다.

"주 아저씨, 괜찮습니까?"

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몇 장 안 되는 거리 같았다.

"다행히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군. 다치진 않았는지....."

이렇게 중얼거리며 절벽 밑을 살펴보니, 절벽에 마침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주장령의 몸이 그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장무기는 형세를 보아 자기의 공력으로 뛰어내려 주장령을 안고 절벽 위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긴숨을 들이 마시고 난 후 팔처럼 뻗은 나뭇가지를 조준하고 가볍게 뛰어내렸다.

그의 발끝이 나뭇 가지와 반 자도 안 되는 거리에 닿자 갑자기 나뭇 가지는 꺾어지고 말았다. 그러더니 장무기는 공중에서 조금도 힘을 빌릴 곳이 없었다. 그가 절정의 신공을 익혔다 해도 그는 필시 날으는 새는 아니지 않는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그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쳤다. 그것은 주장령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짓이었다. 그는 나뭇 가지를 꺾어 손에 쥐고 있다가 장무기가 내려 가지에 닿으려는 순간, 나뭇 가지를 떨어뜨린 것이다.

주장령이 통쾌하게 웃어 대며,

"오늘에서야 이놈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구나. 오 년 동안의 한을 이제서야 풀었구나. 전번에 이 동굴을 빠져 나가지 못한 것은, 너무 서둘러서 갈비뼈가 부러진 탓이다. 그놈은 나보다 더

몸집이 컸는데도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나라고 못 빠져 나갈려구. 내가 구양진경을 얻으면 신공을 연마해서 천하의 무적이 돼야지. 정말 기분좋구나. 하하하.....!"

그는 생각할수록 마음이 급해 재빨리 소나무 옆의 등나무 줄기를 잡고 절벽 위로 뛰어올라 동굴 속으로 들어 갔지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다.

'그 녀석은 나보다 더 큰데도 빠져 나갔는데, 왜 나는 못 빠져 나갈까?'

그는 장무기가 이미 구양신공 중에 축골법을 익힌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 번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좁은 굴 속으로 조금씩 기어나갔다. 그러나 곧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이상은 앞으로 기어갈 수 없었다.

그는 정신을 다시 차리고 안으로 긴 숨을 들이마시자 폐가 오그라들며 조금 더 앞으로 기어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폐에 더 이상 공기가 없어 점점 답답해오며 가슴이 북을 치듯이 두근두근거렸다. 그는 우선 밖으로 나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들어갈 땐 두 발을 울퉁불퉁한 벽에 의지하고 타고 들어갔지만, 나올 땐 힘을 빌릴 곳이 없었다. 들어갈 땐 두 팔을 머리 위로 치켜들어 어깨의 넓이를 줄였지만, 지금은 두 팔이 머리 위로 한 채 암석에 끼어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무공이 상승에 달하고 총명과 기지로 따져 일류의 고수라 할 수 있는 주장령도 이 좁은 굴 속에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되고 말았다.

장무기는 주장령의 간계에 속아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자기 자신이 무척 원망스러웠다.

'장무기야, 너야말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주장령이란 인간의 간교함을 알면서도 또 당하다니 죽어도 싸다. 싸!'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발버둥치며 체내의 진기를 유동시켜 힘껏 위로 솟아오르려고 애썼다. 그의 귓가에 바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순간, 그의 두 눈이 따끔했다. 땅 위의 흰 눈빛이 그의 눈에 비춰온 것이다.

그는 몇 장 아래에 눈더미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공중에서 재빨리 몸을 세 번 돌리며 그 눈더미쪽으로 향했다. 그의 몸은 비스듬히 반원을 그리며 왼쪽 발끝이 눈더미에 닿으면서 몸 전체가 이미 눈더미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장무기는 바로 이 순간, 오 년이나 수련한 구양신공의 위력을 발휘하려 했다. 그러나 만 장이나 넘는 절벽에서 떨어진 그 기세는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가! 그는 다리에 통증을 느꼈다. 두 다리뼈가 부러진 것이었다.

그는 중상을 입었으나 정신은 멀쩡했다. 마른 풀이 날리는 것이 보였다. 알고보니 눈더미는 농가에서 쌓아놓은 풀더미였다.

그는 두 팔에 함을 주고 천천히 풀더미에서 기어나와 눈속으로 굴러내려 부러진 다리를 살피고, 긴 호흡을 하고 나서 접골을 했다. 그는 걱정이 앞섰다.

'누워서 꼼짝하지 않아도 최소한 한 달은 지나야 걸을 수 있는데, 어떡하지? 여기서 굶어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이 풀더미는 농가에서 만든 것이다. 근처에 분명 인가가 있을 것이야.'

그는 소리쳐 구원을 청하려 했으나, 세상엔 악인들이너무 많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혼자 여기 누워 있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삼 일을 누워 있자 너무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부러진 뼈를 접골하고 나서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일그러진다면 평생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버티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굶주림을 못 참을 땐 눈을 집어 삼켰다. 그는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부터 절대로 조심해야 돼. 절대로 악인의 간계에 넘어가선 안 돼. 이번만 잘 견뎌내면 앞으로 큰일이 닥쳐도 죽음만큼은 면할 수 있을 거야.'

사흘째 밤, 그는 조용히 운공을 하니 가슴이 맑고 온몸이 편안해졌다.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고 하나 자신의 신공은 더 진전이 있는 것 같았다. 죽은 듯이 조용한 적막에서 갑자기 멀리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접근해왔다. 몇 마리의 맹견이 어떤 짐승을 쫓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장무기는 내심 놀라며 생각했다.

'혹시 주구진 누나가 기른 악견들이 아닐까? 그 맹견들은 주백이 이미 다 때려 죽였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또다시 길렀단 말인가?'

그가 살펴보니 어느 한 사람이 날으는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뒤엔 세 마리의 큰 개가 미친 듯이 짖어 대며 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이미 기진맥진하여 휘청거리며 몇 발짝 못 가 자꾸 스러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악견(惡犬)들에게 물릴까 두려워 온 힘을 다해 뛰고 있었다. 장무기는 자기도 수년 전 개떼들에게 쫓기던 생각이 떠올라 가슴의 피가 들끓어 올랐다.

그는 그 자를 돕고 싶었으나 마음만 앞설 뿐이었다. 갑자기 비명이 들리며 그 자는 쓰러지고 말았다. 개들은 그 자의 몸을 짓밟으며 막 물어뜯었다.

장무기는 화가 치밀어 외쳤다.

"미친 개들아, 이쪽으로 와라!"

그 세 마리의 개들은 사람소리가 들리자 날으는 듯이 달려와 코를 킁킁 대며, 미친 듯 몇 번 짖더니 마구 물었다. 장무기는 손가락을 뻗어 한 놈씩 코에다 튕기자 세 마리의 개는 즉시 쓰러지

며 당장 뻗어 버렸다.
 그는 손가락을 튕기자 세 마리의 큰 개가 즉사할 줄은 정말 뜻밖이었다. 그는 구양신공의 위력에 내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자의 신음소리가 무척 희미하게 들리자, 그는 물었다.
 "형씨, 개들한테 심하게 물렸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난..... 이미 끝장났소! 난... 난..."
 장무기가 말했다.
 "난 두 다리가 부러져 걸을 수가 없으니, 힘이 들더라도 이쪽으로 기어오세요. 상처를 좀 봅시다."
 "알았소."
 그 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장무기와 일 장쯤 되는 거리까지 오더니 윽! 하고 소리지르며 쓰러졌다. 그리곤 다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비록 가까왔지만 한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 못하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오지를 못하는 처지가 됐다. 장무기가 입을 열었다.
 "형씨, 어디를 다쳤소?"
 "가슴이요. 그리고 배를 개에게 물려 창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장무기가 크게 놀랐다. 창자가 튀어나왔다면 살기는 힘들었다. 그는 다시 물었다.
 "그 개들이 왜 당신을 쫓았습니까?"
 그 자가 대답했다.
 "밤에... 산돼지를... 농사를 망쳐 놓을까 봐 쫓으러 나왔다가 주가의 큰 소리가..... 어느 공자와 나무 밑에서 말하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볼려고..... 윽.....!"
 그는 비명을 지르더니 다시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말을 끝맺지는 못했지만, 장무기는 다 들은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것은 분명 주구진과 위벽이 밤에 몰래 만나다 농부에게 들키자 주구진이 개를 풀어 죽이려 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울화가 치밀었다. 불현듯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누군지 연신 휘파람을 불어댔다. 그는 바로 주구진이었다. 개떼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말발굽소리가 점점 가까와지며 두 필의 말이 달려오고 있었다. 말에는 두 남녀가 타고 있었다. 여자가 갑자기 소리쳐 말했다.

"아니, 어째 평서장군(平西將軍)들이 다 죽어 있지?"

그녀는 바로 주구진이었다. 그녀는 기르는 개들에게 여전히 장군 이름을 붙이고 있었다. 전과 다름이 없었다. 그녀와 같이 달려온 사람은 바로 위벽이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리며 말했다.

"여기 두 사람의 시체가 있는데?"

장무기는 속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만약 이쪽으로 와 나를 해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주구진은 농부의 창자가 튀어나오고 죽은 모습이 공포스럽고, 장무기는 옷이 떨어지고 남루하며 머리는 산발인데다 온 얼굴에 수염이 나 있고 꼼짝도 하지 않자, 개에게 물려서 죽어 있는 줄 알았다. 그녀는 위벽과 정담을 나누기 바빠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하기 싫었다.

"오빠, 가세요! 이 두 놈이 죽으면서 발버둥치느라 내 세 장군과 같이 죽은 모양이에요."

라고 말하며 말머리를 돌려 서쪽으로 향해 달려갔다. 위벽은 개 세 마리가 다 죽은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으나 주구진이 멀리 달려가자 자세히 살피지 않고 말에 올라 뒤따라 달려갔다.

장무기는 주구진의 교소(嬌笑)가 멀리서 들려 오는 것을 듣고 정말 화가 치밀었다. 오 년 전 그는 그녀를 하늘과 같이 받들었었다. 그저 그녀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자기는 칼끝이나 기

름솥이라도 뛰어 들어 갔었다. 그러나 오늘 밤 보니 왠지 모르게 그녀에 대한 매력이 모두 종적을 감추고 찾아볼 수 없었다.

장무기가 그녀를 향했던 열정은 뜨겁기도 빨랐지만 식기도 빠른 것이었다. 훗날 자기의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아연 실소를 할 그런 것이었다.

그는 너무나 굶주려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저 죽은 개 다리라도 뜯어서 먹고 싶었다. 그러나 주구진과 위벽이 다시 돌아오면 자기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것이고, 또 자기의 대장들을 뜯어먹은 것을 보면 자기를 죽일 것이 두려웠다. 다리가 부러졌으니 그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이튿날 아침, 독수리 한 마리가 시체와 죽은 개들을 발견하고 공중에서 몇 바퀴 돌더니 내려왔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시체와 죽은 개를 뜯지 않고 묘하게도 목을 무기의 얼굴을 덮치는 것이었다. 장무기는 손을 뻗어 독수리의 목을 잡아 간단히 비틀어 죽였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중얼거렸다.

"하늘에서 이런 아침 식사가 내려올 줄이야....."

그는 독수리의 털을 뽑아 버리고 다리를 찢어 씹기 시작했다. 날것이긴 했지만 삼 일을 굶었으니 꿀맛이었다.

독수리로 굶주린 배를 채운 장무기는 눈 위에 누워 조용히 상처가 낫기를 기다렸다. 그의 옆에는 세 마리의 죽은 개와 시체 한 구가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 겨울이라 시체가 썩지 않았다. 그는 고독한 생활을 오래 해 왔기 때문에 별로 고생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날 오후, 그는 내공을 한 번 운공해 보았다. 독수리 두 마리가 공중에서 회전하며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았다. 그러자 한 마리가 밑으로 쏜살같이 내려오더니, 그와 약 석 장되는 거리에서 갑자기 다시 위로 날으는 것이었다. 독수리의 몸집이 방향을 돌릴 때의 자세는 정말 아름답고도 오묘했다. 그는 갑자기 떠

오르는 것이 있었다.

"저렇게 갑자기 자세를 돌리는 것을 무공에다 사용할 수 있다면, 적이 감히 방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일격을 명중시키지 못하더라도, 가볍게 멀리 떨어질 수도 있으니 적이 반격하기도 어렵겠구나."

그가 연마한 구양진경은 순전히 내공과 무학의 경지에 속한 것이었다. 공방(攻防)의 초수(招數)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당년 각원대사가 이 신공을 익혔지만, 소상자와 하족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쩔 줄을 몰랐던 것이다. 조금도 방어할 줄 몰라서 장삼봉은 그 자리에서 양과에게 사초(四招)를 전수받고 윤극서와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장무기는 어려서부터 무공을 배워서 기초가 각원이나 장삼봉보다 뛰어났지만, 사손이 그에게 전수한 것은 순전히 권술의 결규이었다. 실용적인 일초일식의 법문이 아니었다.

장무기는 이제서야 의부(義父)의 고심을 알 수 있었다. 의부의 무공은 너무 넓고 깊어 만약 순서대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석하며 전수한다면, 이십 년이 걸려도 다 배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같이 있을 날이 얼마되지 않을 것을 알고, 그저 상승 무술의 요결만 꼭 기억하게 하고 나중에 자신이 터득하라고 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장무기가 배운 권술은 단지 부친이 뗏목위에서 전수해 준 삼십이세(三十二勢) 무당장권(武當掌拳)뿐이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지금부터 계속 구양진공을 연습하고 더 정진하는 것과 자기가 연마한 상승 내공을 어떻게 해서 사손이 가르쳐 준 무술에 융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나 나무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나 초수의 움직임, 심지어 풍운의 변화까지 모두 무공의 초수로 생각하고 연구하였다.

이때 하늘의 그 독수리는 내려오다말다 올라갔다 하여 별의 별 자태를 나타내, 장무기는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

때 멀리서 사람이 눈 위를 걸어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이 아기자기한 것이 여자인 듯 하였다.

그가 고개를 돌려보니 한 여자가 대바구니를 팔에 끼고 빠른 걸음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눈 위에 시체와 죽은 개들을 보자, 앗! 하고 놀라며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장무기가 자세히 살펴보니 실 칠팔 세 가량된 소녀였다. 차림새를 봐 농촌의 빈녀(貧女)였다. 얼굴이 까맣고 안면이 부어 올라 울퉁불퉁한 것이 매우 추한 모습이었다. 그래도 얼굴 모양은 꽤 예뻐 보였고 몸매도 매우 날씬했다.

그녀는 가까이 와 장무기가 쳐다보는 것으로 보고 약간 놀라면서 말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은 것 같소."

장무기가 말했다.

이상한 물음에 둘은 서로 잠시 생각하더니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소녀도 웃으며 말했다.

"죽지 않았다면 왜 여기 누워 꼼짝도 하지 않죠? 깜짝 놀라게."

장무기가 대답했다.

"난 산 위에서 떨어져 두 다리가 부러져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누어 있는 겁니다."

소녀가 다시 물었다.

"이 사람은 당신과 일행입니까? 왜 또 개 세 마리가 죽어 있죠?"

"이 개들은 정말 악랄한 놈들이요. 이 형씨를 물어 죽였소. 결국 자기들도 죽었지만."

소녀가 다시 물었다.

"여기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물론 고프지만 어찌 합니까? 하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에서 보리떡을 두 개 꺼내어 장무기에게 건네주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하고 대답하며 그것을 얼른 받았지만 먹지는 않았다.

소녀가 물었다.

"거기에 독이 들었을까 봐 그러세요? 왜 안 먹는 거죠?"

장무기는 오 년이란 세월 동안 주장령과 가끔 동굴 사이로 말을 몇 마디 나눈 것이 고작일 뿐, 누구와도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지금 비록 추악한 소녀였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자 매우 기분이 좋았다.

"아가씨가 준 것이라 아까워서 안 먹는 거요."

그의 말엔 어느 정도 희롱의 뜻이 들어 있었다. 그는 항상 성실하고 중후해서 절대로 말로 누구에게 까불리지 않았다. 그러나 소녀 앞이고 마음이 가벼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소녀는 이 말을 듣자 갑자기 노기를 보이며 코웃음을 쳤다. 장무기는 즉시 후회스러웠다. 그는 얼른 보리떡을 들어 입에 물었다. 너무 급하게 먹어 사래가 들어 기침을 쿨룩쿨룩 했다.

소녀는 다시 재미있어 하며 입을 열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이 사람을 사래가 들어 죽게 해주세요. 당신처럼 못생기고 추악한 사람은 필시 좋은 사람이 아닐 거야. 그래서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왜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하필 이런 당신의 다리를 부러뜨렸을까요?"

장무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오 년 동안 머리손질도 하지 않고 얼굴을 깨끗이 씻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추악해졌겠지. 그러나 너도 별로 예쁘진 않아. 우리 둘을 서로 반반이야. 누가 누굴 나무랄 수 없어.'

그는 자세를 똑바로 하고 말했다.

"난 이미 여기서 구 일 동안이나 누워있었소. 다행히 아가씨를 만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입을 삐쭉거리며 말했다.

"내가 물었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당신의 다리가 부러졌느냐고? 대답 안 하면 먹을 것을 다시 뺏어가겠어요."

장무기는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니 눈에 교활한 빛이 보여 내심 놀라며 생각했다.

'이 소녀의 눈빛이 왜 어머니를 닮았을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 소림사의 노화상을 속일 때 바로 이런 눈빛이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그만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나와 울고 말았다.

소녀는 픽하고 소리내더니 말했다.

"안 뺏으면 그만이지. 울기는 왜 울어요? 이제보니 아무 쓸모없는 바보였군요."

"당신의 보리떡이 탐나서가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일이 떠올라서였소."

소녀는 돌아서서 두 걸음쯤 걷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 고개를 돌려 물었다.

"무슨 생각이예요? 당신 같이 멍청한 사람도 생각할 게 있나요?"

장무기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어머니가 생각난 거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말이요."

"보리떡을 만들어 주셨나요?"

"그랬었긴 하지만 그것이 생각난 게 아니라, 당신이 웃을 때 꼭 우리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서였었소."

소녀는 화를 버럭 내며 말했다.

"미친 놈? 내가 그렇게 늙었단 말인가요?"

그러면서 마른 나뭇 가지를 주워 장무기의 몸을 두 번 후려쳤다. 장무기가 그녀 손의 나뭇가지를 뺏는 것은 무척 쉬운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도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 소녀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우셨었는지 몰라. 그러나처럼 이렇게 못 생긴 줄로만 알고 저 ㅌ게 화를 내는구나.'

장무기는 아무 반항 없이 두 대를 맞으면서 말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만 해도 무척 아름다우셨소."

소녀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내가 못 생겼다고 놀리는 거예요? 살기 싫은 모양이지? 다리를 잡아 당길까봐."

그리고 허리를 굽혀 그의 다리를 잡아당길 자세였다.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다리가 이제 다 완치되려고 하는데, 만일 이 소녀가 잡아 당기면 큰일이 아닌가? 그는 잽싸게 눈뭉치를 움켜 쥐었다. 만약 소녀가 자기의 다리를 잡아당기면 즉시 그녀의 매심혈을 내리쳐 기절시킬 생각이었다.

다행히도 그 소녀는 자기를 겁네 주려고 한 것뿐이었다.

"겁에 질린 모습 좀 봐. 왜 나를 놀리려고 하죠?"

"내가 만약 아가씨를 놀릴 생각이었다면, 이 다리가 다 낳고 난 후에 그랬을 거요. 다시 부러진다면 평생 절름발이가 될거요."

소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겠군요."

그러면서 그의 옆에 앉았다.

"당신 어머니가 미인이었다면, 왜 나하고 비교하죠?그럼 나도 아름답다는 말씀이예요?"

장무기가 대답했다.

"나도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저 아가씨가 우리 어머니를 닮은 것 같소. 아가씨는 우리 어머니보다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난 아가씨를 좋아하오."

소녀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장무기의 이마를 튕기며 웃었다.

"착한 아들, 그럼 나를 엄마라고 부르시지?"

그 말을 하고 난 소녀는 자기도 말이 좀 이상했다고 느꼈는지 입을 막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여전히 참지 못하고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장무기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자 빙화도에서 자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활발하게 지내셨던 기억이 나, 갑자기 이 추하게 생긴 소녀가 청아하고 풍치가 있어 보이며 전혀 추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도 그만 멍청히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소녀는 고개를 돌려 장무기의 멍청한 모습을 보자, 웃으며 말했다.

"왜 나를 좋아하는 거죠?"

장무기는 한참 멍청히 있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무르겠소. 그저 아가씨를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아가씨가 무조건 나한테 잘해 줄 것 같고, 나를 못학게 굴지 않을 것 같소."

"하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평생 사람을 해치는 걸 제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소녀는 이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나뭇 가지를 들더니 그의 부러진 다리를 두 번 때렸다. 그러면서 재빨리 일어나 뛰어가는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부러진 부위를 낮고 장무기는 그만 고통을 참지 못해 소리쳤다. 소녀는 깔깔 웃으며 고개를 돌려 입을 삐죽거리며 그를 놀렸다.

장무기는 그녀가 점점 멀어짐과 동시에 자기의 통증도 점점 참기 어렵게 아파오자 내심 생각을 굴렸다.

'여자들은 모두 사람을 해치는 여우들이야. 아름다운 여자들이 사람을 해치기를 좋아한다더니 못 생긴 것도 이렇게 골탕을 먹이

다니.....'

그는 이날 밤 몇번이고 그 소녀의 꿈을 꾸었다. 그리고 몇번이고 어머니의 꿈을 꾸었다. 여러차례 엇갈려 꿈에 나타나니 누가 어머니인지 소녀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는 꿈 속의 그 얼굴이 아름다왔던 것인지 추한 것인지도 분별할 수 없었다. 그저 자상하고도 교활한 눈초리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와 장난하던 것도 꿈꾸었다. 어머니는 자주 자기를 넘어뜨리고, 자기가 넘넝져 울면 다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해주었다.

그는 갑자기 깨어나 여지껏 한 번도 생각 못했던 의혹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남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했지? 의부의 눈도 어머니가 멀게 했고, 유사백께선 그녀의 손에 불구가 되셨고, 임안부 용문표국 사람들을 모두 몰살한 것도 어머니였으니, 어머니는 도대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이었는가?'

그는 반짝거리는 별들을 쳐다보며 탄식을 하며 입을 열었다.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 분은 나의 어머니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난 정말 그분을 무척 사랑해 드릴 텐데.'

그는 그 소녀가 왜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부러진 다리를 때렸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난 그녀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아퍼서 소리치는 것을 보고서 기뻐했지. 그렇다면, 그녀는 정말 사람 해치기를 좋아한단 말인가?'

그녀가 다시 오기를 기대했으나, 또 한편으론어떻게 자기를 골탕먹일까 하고 겁이 났다.

그는 옆에 반 샬 먹다남은 보리떡을 들자 그 소녀가 말하던 것이

생각났다.

<어머니가 아름답다면, 왜 나와 비교하시죠? 나도 아름다운가요?>

그는 그 말을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그래, 아름다워, 네가 보고싶구나."

그는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또 이틀을 보냈다. 그 소녀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삼 일째 되는 오후, 그 소녀는 바구니를 끼고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못 생긴 사람, 아직도 안 죽었나?"

장무기는 웃으며 대답했다.

"반은 굶어 죽었소. 나머지 반만 살아 있소."

소녀는 히히 웃으며 장무기의 옆에 앉더니, 갑자기 부러진 다리를 걷어찼다.

"이 반쪽은 죽은 쪽인가요. 산 쪽인가요?"

장무기는 외마디 비명을 외쳤다.

"아가씨는 왜 그리 양심이 없소?"

"무슨 양심? 왜 당신을 잘 대해 주지 않느냐 이 말인가요?"

"아가씨는 삼 일전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난 조금도 미워하지 않았소. 매일 아가씨 생각만 했소."

소녀의 얼굴이 빨개지며 화를 내려고 했다.

"누가 당신처럼 못생긴 남자에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나요? 나를 생각했다면 좋은 일이 아닐 거야. 아마 나를 추하고 악랄하다고 욕했을 거야."

장무기가 말했다.

"당신은 추하게 생기지 않았소. 그런데 왜 남의 골탕먹는 것을 보면 좋아합니까?"

소녀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난 골탕을 먹이는 것이 제일 재미있어요."

소녀는 장무기가 못마땅해 하는 모습과 아직도 반쯤 남아 있는 보리떡을 보며 말을 건넸다.

"왜 맛이 없나요. 아직도 남아 있으니."

장무기가 말했다.

"아가씨께서 준 것이라 아까워서 다 안 먹었소."

그가 삼 일 전에 이 말을 할 땐 조금은 희롱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한 심정이었다.

소녀는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수줍어했다.

"신선한 보리떡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바구니에서 먹을 것을 많이 꺼내왔다. 보리떡 외에도 닭고기, 그리고 구운 양고기까지 있었다.

장무기는 매우 기뻤다. 비린내나는 날독수리만 먹다가 향기가 코를 찌르는 맛있는 음식을 보자 뜨거운 것도 아랑곳없이 마구 먹어댔다.

소녀는 그가 정말 맛있게 먹는 것을 보자 웃으며 말했다.

"추남자, 당신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 내 기분도 좋은데요?"

장무기가 말했다.

"남이 즐거워하는 거슬 보고 당신도 즐거워하는 게 바로 진정한 즐거움이요."

소녀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흥, 지금은 기뻐서 당신을 해치지 않지만, 언젠가는 또 당신을 골탕먹이러 올 거예요."

장무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난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골탕만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골탕 먹을수록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요."

소녀는 냉소를 지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앞으로 두고봐요!"

장무기는 내심 미소를 지었다.

"내 다리만 다 나으면 멀리 떠나갈 것인데, 나를 골탕먹이고 해칠려고 해도 그 땐 나를 찾지 못할걸?"

"그럼 지금 다시 다리를 부러뜨려, 아주 평생 여길 못 떠나게 해 버릴까요?"

장무기는 그녀의 차가운 음성에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그녀의 말을 절대 거짓이 아니었다. 절대로 농담으로 하는 말 같지가 않았다.

소녀는 장무기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하며 말했다.

"당신같이 추남도 나한테 어울리나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그가 아직 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뺏어 멀리 던져 버리고, 장무기를 향해 침을 퉷하고 뱉었다.

장무기는 그저 그녀를 올려다 볼 뿐이었다. 순간 그는 그녀가 절대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절대 자기를 천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처참한 모습에서 말 못할 고통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몇 마디 위안의 말을 해주고 싶었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소녀는 장무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외쳤다.

"이 추남아,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장무기가 물었다.

"아가씨, 왜 그리 우울해 하는지 나한테 말하면 안 되겠소?"

소녀는 그가 부드럽게 말을 꺼내자 갑자기 그의 옆에 주저 앉더니, 얼굴을 감싸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장무기는 그녀가 어깨를 들썩거리며 흐느끼자,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해 낮은 소리로 물었다.

"누가 못살게 굴었나요?"

소녀는 얼마를 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못살게 한 사람은 없어요. 내 팔자가 원래 사나워서 그런거죠. 내 자신이 못난 것을 알면서도 어느 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마음

속에 두다니....."
 장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틀림없이 어느 젊은 남자죠? 아가씨한테 못되게 굴었죠?"
 "그래요. 그 사람은 아주 영준합니다. 그러나 아주 오만해요. 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해서 평생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사람은 끝까지 싫대요. 그것도 모자라 나를 욕하고 때리고 나를 돕기까지 했어요."
 장무기는 노기띤 음성으로 물었다.
 "그 자가 그렇게 야만스럽다면, 아가씨는 이제 그 자를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말아요."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는 나를 피해 멀리 떠났지만, 난 사방으로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장무기는 내심 생각했다.
 '남녀 간의 애정이란 인력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아가씨는 좀 못생기긴 했지만 마음만은 일편단심인 것 같다. 이 소녀의 성격이 괴팍한 것도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실망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이다. 그 남자는 과연 누굴까?'
 "아가씨, 그렇게 상심할 것 없소. 세상에 좋은 남자는 많죠. 하필이면 양심없는 악한을 그렇게 못 잊어 하시요?"
 소녀는 긴 한숨을 쉬고 나서 멍청히 먼 곳만 쳐다보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녀가 시종 그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다시 말을 건넸다.
 "그 남자는 그저 아가씨를 욕하고 때리기만 했지만, 내가 겪은 고통은 아가씨에 비하면 열 배는 넘을 거요."
 소녀는 의아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왜죠? 당신도 아름다운 여자에게 속은 적이 있어요?"

".....사실 원래는, 그녀가 나를 속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서 멍청하게 그녀의 아름다움에 홀려 그녀를 바라보곤 했소. 사실 난 그녀에게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몰래 독계(毒計)를 써서 나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소."

그러면서 그는 옷소매를 걷어 팔뚝의 상처 자국을 보여 주었다.

"이 이빨 자국이 모두 그녀가 기른 개들에게 물린 거요."

그녀는 상처 자국을 보자 갑자기 화를 내며 물었다.

"혹시 주구진, 그 천한 년의 짓이 아닌가요?"

장무기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시요?"

".....그 천한 년이 개를 키우는 것은 수백 리 안에 사는 사람은 모르는 이가 없지요."

장무기는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소. 주구진 낭자요. 그러나 지금은 상처가 다 나았으니 아프지도 않고, 다행히 죽지도 않았으니 이젠 그녀를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녀는 장무기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장무기의 얼굴이 담담하고 평화스러워 보이자 그녀는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왔죠?"

장무기는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중토(中土)에 오자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의부의 소식을 알기 위해 나를 핍박하고 기만하는 등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오늘부터 장무기란 사람은 이미 죽고 세상에 없다고 치자. 그리고 이 세상엔 누구도 금모사왕 사손의 소재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자. 이제부터 주장령보다 열 배가 더 악독한 사람을 만난다 해도, 이젠 더 이상 그 수에

말리지 않을 거야. 그리하여 나도 모르게 내 의부를 해치게 하는 일은 다시는 없게 할 테다.'

그는 소녀에게 말했다.

"이름은 아우(阿牛)라고 하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성은요?"

장무기는 마음 속으로 다시 생각했다.

'성이 장,은,사 모두 안돼. 장(張)과 은(殷) 두 글자 사이의 발음인 증(曾)으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무기는 얼른 대답했다.

"증(曾)가 올시다. 소녀의 성은 무엇이오?"

소녀는 당황해 하며 대답했다.

"난 성이 없어요. 내 친아버지는 나를 버렸을 뿐 아니라, 나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성을 따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러니 그 분의 성도 따를 수도 없잖아요. 내가 생김새가 못났으니, 나를 추(醜)낭자라고 부르세요."

장무기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당신이 당신의 어머니를 죽였다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소녀는 탄식을 하며 말을 이었다.

"이 사연을 말하자면 너무 길어요. 사실 나를 낳은 친어머니는 아버지의 정실이었어요. 그런데 애기를 낳지 못해 아버지는 다시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분은 나의 두 오빠를 낳았죠.자연히 아버지는 그 어머니만 사랑했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우리 어머니를 못살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후에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딸이 태어난 거죠. 그 둘째 부인과 두 오빠는 더욱더 우리 어머니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셨어요."

장무기가 말을 받았다.
"당신의 아버지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부인만 사랑하는 것에 화가 치밀어 제가 단칼에 둘째 엄마를 죽여 버리게 된 거예요."
장무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림에서는 싸움이나 살인은 보통 있는 일이지만, 이런 농촌 소녀까지도 살인을 하다니 정말 뜻밖이었다.
소녀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큰일을 저지르자 나를 데리고 즉시 도망을 쳤으나, 두 오빠가 쫓아와 나를 잡아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해 그만 자살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어머니를 죽인 것이 아니고 뭐예요. 아직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보면 죽이려고 해요."
장무기는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의 부모가 다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셨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던가! 이 소녀의 경우와 비교하면 난 정말 천 배 만 배나 행운아였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소녀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 부드러운 음성을 물었다.
"집을 나온 지 오래 됐소? 지금까지 혼자서 지내왔소?"
소녀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으니 동쪽이나 서쪽, 아무데나 가보는 거지요. 그저 우리 오빠를 만나지 않으면 돼요."
장무기는 갑자기 동병상린의 생각이 들었다.
"내 다리가 다 나으면 내가 아가씨와 같이 낭자가 잊지 못하는 남자를 찾아다니겠소. 그래서 도대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겠소."
 장무기가 이렇게 말하자 소녀가 말을 받았다.
 "만약, 그가 또 나를 욕하고 때리면 어떻게 하죠?"
 장무기는 앙연한 태도로 말했다.
 "흥! 가만 두지 않겠소."
 "만약 그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 한 마디도 건네지 않는다면은요?"
 장무기는 아연실색해져서 할 말이 없었다. 한참 멍청히 생각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힘 닿는 데까지 해보리다."
 소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추남자, 그 사람이 당신의 말을 순순히 들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생사를 알 수 없는데, 당신도 별수 없을 거예요. 하하하.....?"
 장무기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그만 얼굴이 붉어져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소녀는 그가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자 웃음을 멈추고 물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죠?"
 장무기는 자못 불쾌한 어조로 투덜거렸다.
 "나를 비웃는 것은 그만 하시오."
 소녀는 냉랭한 음성으로 말했다.
 "흥! 기껏해야 한 번 더 웃은 것뿐인데, 그까짓 웃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나요?"
 장무기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난 당신한테 호의를 베풀려고 한 것인데, 그렇게 비웃을 수 있단 말이오?"
 "다시 묻겠는데, 나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그랬죠?"
 "당신이 고독하고 갈 곳이 없는 것이 나와 처지가 같소. 나한테

는 부모형제 아무도 없소. 그 나쁜 남자가 만약 당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는 말을 하려고 했소. 서로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으니 말이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소."

소녀는 벌컥 화를 냈다.

"물론 어울리지 않아요. 그 악한은 당신보다 백 배나 더 미남이고, 백 배나 더 총명해요. 내가 여기서 당신과 쓸데없는 소리를 지껄이다니, 정말 재수가 없군."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음식을 아무렇게나 발로 걷어차더니, 얼굴을 가리면서 쏜살같이 뛰어 나갔다.

장무기는 무안을 당했지만 왠지 화가 나지 않았다.

"정말 불쌍한 아가씨로군. 마음이 아플거야. 그녀를 나무랄 수도 없지."

갑자기 소녀가 다시 뛰어오더니 이를 악물고 외쳤다.

"이 추남아, 내 말이 거슬리지? 나처럼 못 생긴 여자가 당신을 우습게 본다고.그렇지?"

장무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가씨의 얼굴은 별로 예쁘지 않지만, 그래서 첫눈에 반했소. 만약 아가씨가 추하게 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옛날과 같이....."

소녀는 깜짝 놀라며 다시 외쳤다.

"당신이 어떻게 내가 그 전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장무기가 대답했다.

"오늘 아가씨의 얼굴은 내가 처음봤을 때보다 더 무섭게 부어올랐습니다. 피부색도 더 까맣게 변했구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요?"

소녀는 더욱 더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요 며칠 거울을 볼 용기가 없었는데, 그럼 내가 더 보기 흉해

졌단 말인가요?"

장무기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사람이란 그저 마음만 착하면 되지. 용모가 무슨 상관 있소.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여자일수록 마음이 더 고약하고, 더 사람을 잘 속이니 항상 조심하라고 하셨소."

소녀는 그의 어머니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조급하게 물었다.

"처음 나를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추하게 변하지 않았었나요?"

장무기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그녀가 분명 상심할 것이라 생각하고 멍청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에 동정과 연민이 충만해 있었다.

소녀는 그의 얼굴 표정에서 미리 그가 대답할 말을 짐작한 듯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하더니,

"추남자, 당신이 미워! 밉단 말이에요!"

라고 소리치며 미친듯이 달려갔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장무기는 또 이틀을 누어 지냈다. 밤이 되자 늑대 한 마리가 냄새를 맡고 가까이 왔다. 장무기는 한 주먹에 늑대를 죽여 버렸다. 이 늑대는 먹을 것을 찾다 오히려 남의 먹이가 된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다리도 많이 완치되었다. 이제 약 십 여일만 지나면 일어나 걸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심 그 촌녀(村女)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 섭섭했고 이름을 알아두지 못한 것이 안타까왔다.

그리고 왜 점점 그녀가 추하게 변해 가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뒤척이다가 이내 잠이 들어 버렸다.

얼마나 밤이 깊었을까. 잠결에 멀리서 누군가 눈 위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즉시 일어나 앉아 발걸음이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어렴풋이 일곱 명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맨 앞의 사람은 바로 그 촌녀였다. 그런데 그녀 뒤의 여섯 명은 부채꼴 모양으로 서서 그녀가 행여나 도망갈까 봐 방비하는 태세인 것 같았다. 장무기는 흠칫 놀라며 내심 생각을 굴렸다.

'혹시 그 소녀가 자기 오빠들에게 잡힌 게 아닌가?'

그 소녀와 여섯 명이 이미 가까이 왔다. 순간 장무기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하마터면 외마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 여섯 명은 바로 무청영(武青瓔), 무열(武烈), 위벽, 하태충(何太忠), 반숙한 부부, 그리고 맨 오른쪽엔 중년 여자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바로 아미파의 정민군(丁敏君)이었다.

장무기는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다.

'이 소녀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아는 사이지? 그렇다면, 이 소녀는 무림인인가? 나의 원래 모습을 알아 보고 이들을 데리고 나를 붙잡으러 왔단 말인가! 내 의부의 행방을 알려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만 화가 치밀고 말았다.

그는 곰곰이 생각을 굴렸다.

'지금은 내가 다리를 다쳐서 꼼짝달싹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여섯 명은 모두 고강한 무공을 갖고 있고, 어쩌면 이 촌녀도 무공이 무서운 소녀일지도 모른다. 일단 그들에게 굴복하고 의부를 찾아 주겠다고 한 다음 다리가 완치된 후 일일이 복수를 해야지.'

만약 오 년 전이라면,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상대가 어떤 강압과 핍박을 해도 이를 악물고 버틸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들어 머리를 쓸 줄 알았고. 거기다 구양진경의 신공을 익혀 마음을 진정시킬 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촌녀가 자기를 팔 줄은 정말 천만의 뜻밖이었다. 그는 크게 분개하며 그만 마음이 슬퍼왔다. 그는 아예 누워 팔을

베개삼고 일곱 명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소녀는 그에게 가까이 걸어와 조용히 그를 쳐다보더니, 얼마 후 다시 되돌아갔다.

장무기는 그녀의 탄식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매우 낮은 소리였으나, 애상이 가득 차 있었다. 장무기는 내심 냉소를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무슨 악독한 계략을 꾸미길래, 갑자기 나를 가련하게 생각하는 거지?'

순간, 위벽이 수중의 장검을 쳐들더니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죽기 전에 꼭 만나보고 싶다는 얼굴이 저놈이냐? 행여나 잘 생긴 영준한 소년인 줄 알았더니, 이렇듯 몰골이 추악한 놈이었구나. 하하하! 정말 웃기는군. 이놈은 정말 너하곤 천생의 배필감이구나!"

촌녀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렇다. 죽기 전에 저 사람을 한 번 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한 마디 묻고 싶어서였다. 대답을 듣기 전에는 죽어도 눈을 감을 것 같지가 않았다."

장무기는 너무나 의아스러웠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바로 이때, 촌녀의 말이 들려왔다.

"한 마디 묻겠는데, 사실 대로 대답해 주세요."

장무기가 말했다.

"나에 관한 일이라면, 물론 내가 아는 대로 대답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모르겠소."

그는 이 촌녀가 의부의 소재를 물을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그렇게 대답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날 당신이 나한테 말하기를 내가 돌아갈 집도 없으니 나의 반려가 되고 싶다고 한 말이 진심이었냐는 것이에요."

장무기는 정말 뜻밖이었다. 그는 얼른 일어나 앉았다. 그녀의 눈빛에 애상이 가득해 보였다. 장무기가 말했다.

"진심이요."

촌녀가 다그쳤다.

"정말 내 이 추한 모습이 실지 않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평생 나와 지낼 수 있나요?"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평생이라니! 그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처절한 모습에 그만 안타까워 입을 열었다.

"추하고 아름다운 것에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소. 만약 당신이 나를 이상히 생각치 않고 평생 같이 대화하고 웃으며 지낸다면야 나야 물론 좋소. 그러나 나를 속이고 내 입에서....."

촌녀는 떨리는 음성으로 다시 다그쳤다.

"그럼 나를 아내로 맞아들인다 이거죠?"

장무기는 더욱 당황해 하며 한참 후에야 더듬더듬 말했다.

"난..... 한 번도 결혼할 생각을 한 적....."

하태충 등 여섯 명은 모두 크게 웃었다.

위벽이 웃으며 말했다.

"이런 못 생긴 촌놈도 너를 맞아 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해도 이 세상에 살아서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일찌감치 바위에 부딪쳐 죽는 게 나을 거다."

장무기가 여섯 명의 놀림과 위벽의 말을 듣고, 이 촌녀가 이 여섯 명과 한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소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소녀가 자기를 해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그는 마음에 따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장무기는 그런 비참한 그녀의 모습이 안스러워 갑자기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 자기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떠돌아다니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달림을 받아왔는가! 이 약한 소녀는 나이도 자기보다 어리고 신세도 자기보다 더 불행하다. 이 소녀를 상심시키고 굴욕을 당하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이 소녀가 그렇게 물을 때는 자기 자신을 꺾고 솔직한 태도였는데, 내 일생에서 부모, 의부, 태사부, 그리고 사백, 사숙 외엔 누가 나를 이렇게 관심있게 대해 주었던가! 서로 잘 대해 주고 목숨을 같이 의지하는 게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녀를 보니, 소녀는 몸을 떨며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장무기는 얼른 왼손을 뻗어 그녀의 오른손을 움켜잡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진심으로 당신을 신부로 맞아들이겠소! 다만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오!"

소녀는 그 말을 듣자, 금방 눈에서 밝은 빛을 내며 낮은 소리로 물었다.

"아우 오빠, 그 말이 사실입니까?"

"물론이오. 오늘부터 나도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보살필거요. 어느 누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요. 당신이 옛날의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편안하고 기쁘게 해 줄 것이오."

소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몸에 기대어 나머지 한쪽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기뻐요."

소녀는 눈을 감으며 다시 말했다.

"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한 자 한 자 모두 꼭 기억하게요. 나를 어떻게 대한다고 하셨죠?"

장무기는 그녀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자 자신도 기뻐하며 그녀의 두 손을 움켜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다.

"당신을 평생 즐겁게 해줄 것이오. 지금의 고통을 모두 잊어 버리고 누가 괴롭힌다면 내 목숨을 바쳐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오."

소녀는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였다.

"전에는 나를 욕하고 때리고 물어뜯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정말 기뻐요."

장무기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싸늘해졌다.

장무기를 자기의 정인으로 착각하고 환상에 젖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장무기의 갑작스런 태도에 직감적으로 깜짝 놀라 눈을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싸늘한 빛이 감돌았다. 실망과 분개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아우 오빠, 나같이 못 생긴 여자를 신부로 맞이한다니 정말 감격했어요. 그러나 벌써 몇 년 전에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됐어요. 그 때 그는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 이 꼴을 보면 더욱 나를 모른 척할 거예요."

무청영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너를 아내로 맞이 하겠다고 했고 정담도 나눴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그 촌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아우 오빠, 난 이제 곧 죽을 몸이에요. 내가 죽지 않는다 해도 절대로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씩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녀의 이 몇 마디는 부드럽고도 달콤했다. 장무기는 가슴에 찡해 오는 것을 느꼈다.

이때 반숙한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이제 너의 소원대로 이 사람과 만나게 해 주었으니, 너도 신용을 지켜 저 자의 정체를 밝혀라!"

촌녀가 대답했다.

"좋아요. 난 언젠가 이 사람 집에 숨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무열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무열은 안색이 확 변하며 소리쳤다.
"헛소리마라!"
위벽이 벌컥 화를 냈다.
"사실대로 말해라! 누구의 지시를 받고 내 누이 동생을 죽였는지!"
장무기는 정말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아니, 주구진 낭자가 죽었단 말인가요?"
위벽이 장무기를 노려보며 이를 갈더니 말했다.
"너도 주구진 낭자를 아느냐?"
장무기가 대답했다.
"설령쌍매(雪嶺雙妹)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청영이 입가에 엷은 웃음을 띠며 촌녀를 향해 큰 소리로 다그쳤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촌녀가 냉랭하게 대답했다.
"나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은 곤륜파의 하태충 부부와 아미파의 멸절사태입니다."
무열이 일성대갈했다.
"이간질을 시키지 마라! 그래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팍! 하고 촌녀를 향해 일장을 뻗었다. 그의 우렁찬 소리와 동시에 뻗은 일장은 위력이 상당했다. 순간, 촌녀는 기묘한 신법으로 그의 장풍을 잽싸게 피했다.
장무기는 마음이 착잡했다.
'이 소녀는 진정 무인이었구나. 그녀가 주구진 낭자를 죽인 것은 내가 그녀에게 속고, 또한 그녀가 키우는 개한테 물렸다는 말을 듣고 한 짓이 분명해. 그렇지만, 내가 언제 죽이라고 시켰던

가! 그녀의 용모가 추하고 집안의 변고가 있어 성격이 괴팍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주구진 낭자를 죽이다니.....!"

위벽과 무청영은 장검을 들고 좌우로 그녀를 협공했다. 그 촌녀는 몸을 이쪽저쪽으로 비틀어 빠져 다니면서 그들을 피했다. 무열의 웅후한 장력도 피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버들가지 같은 허리를 옆으로 돌리더니, 무청영의 옆으로 다가가 팍! 하고 그녀의 뺨을 나서 잽싸게 왼손으로 그녀의 장검을 빼앗았다.

무열과 위벽은 크게 당황하며 그녀를 도우려고 접근했다. 촌녀는 장검을 휘두르며 싹! 하는 소리와 이미 무청영의 얼굴에 핏자국을 그렸다. 무청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쓰러졌다. 사실 가벼운 상처였으나 용모를 아끼는 심정에 얼굴이 따끔하자 지레 겁을 먹은 것이다.

무열은 촌녀를 향해 장풍을 휘둘렀다. 촌녀는 몸을 피하며 요란한 금속성을 내며 위벽의 장검을 상대했다. 바로 이때 무열의 식지(食指)가 움직이며 그녀의 왼쪽 다리의 복토(伏兎), 풍시(風市) 양혈을 찔렀다. 촌녀는 가벼운 신음소리와 함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장무기의 몸에 쓰러졌다.그녀는 이제 더 이상 힘을쓸 수가 없었다.

무청영은 장검을 치켜들고 이를 갈며 소리쳤다.

"이 추녀야, 너를 속시원하게 죽일 것 같으냐? 네 두 팔과 두 다리를 잘라 늑대 밥이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며 촌녀의 오른팔을 향해 검을 내리치려고 했다. 순간 무열이 입을 열었다.

"잠깐만 기다려라! 누가 지시했는지 입을 열면 너를 속시원히 죽여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팔과 다리가 잘려서 눈위로 뒹구는 모습이 볼 만할 것이다!"

촌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할수 없지. 주구진 낭자가 어느 남자에게 시집 가려

고 하는데 어떤 아리따운 낭자께서도 그 남자에게 시집 가려했지. 바로 그 여자가 나에게 은 오백 냥을 주고 주구진 낭자를 죽이라고 부탁한 거야. 이 일은 내가 비밀을 지켜야 하는건데...."
그녀가 말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자, 무청영은 이미 화가 치밀어 안색이 변하며 검을 뻗쳐 촌녀의 가슴을 향해 찌르고 말았다. 그 촌녀는 이미 무청영과 위벽, 그리고 주구진 세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가 이렇게 무청영을 격노시킨 이유는 바로 속시원하게 자기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 갑자기 어느 무성무식(無聲無息)의 힘이 날아와 검과 부딪치며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장검은 십여 장이나 날아가 떨어졌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누구도 검이 어떻게 해서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는지 본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무청영 혼자서 내던져다 해도 절대로 그렇게 멀리 내던질 수가 없었다. 촌녀에게 강한 후원자가 나타난 것이 틀림없었다.
여섯 명은 모두 놀라 뒤로 물러서며 사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근처엔 바위나 나무들도 없어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 그 어떤 그림자도 보이지 않자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의혹에 차 있을뿐이었다.
무열이 낮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청아야, 왜 그러느냐?"
무청영은 황급히 말했다.
"어떤 무서운 아미가 내 검을 튕겨나가게 한 것 같아요."
무열은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라곤 보이지 않자, 촌녀를 향해 외쳤다.
"흥! 이 계집애가 한 짓이다!"
그러나 그는 마음 속으로 중얼거렸다.
'분명 나의 일양지(一陽指)를 맞았는데, 무슨 힘이 아직 남아 있지? 이 계집아이의 무공은 정말 알 수 없군.'

그는 앞으로 나서며 손을 쳐들어 촌녀의 어깨를 향해 내리쳤다. 경력이 매우 웅맹한 일 장이었다. 그는 촌녀의 어깨를 으스러뜨려 자기 딸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려고 한 행동이었다.

촌녀의 어깨가 으스러지려는 순간, 갑자기 촌녀의 손이 번쩍 들렸다. 쌍장이 부딪치자 무열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촌녀의 장력은 마치 광풍노도와 같아 실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

앗! 하는 비명과 함께 몸이 날리더니 퍽! 소리를 내며 멀리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무공은 대단해 땅에 떨어지는 즉시 뛰어 일어났다. 그러나 가슴에 뜨거운 피가 들끓으며 머리가 어지러워, 몸을 세우고 나자마자 제대로 호흡을 근절할 수 없어 휘청거리다가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위벽과 무청영은 크게 놀라 얼른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그러자 갑자기 하태충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냥 내버려 둬!"

그 말에 무청영이 고개를 돌리며 노기띤 음성으로 외쳤다.

"뭐라고? 사부님이 암습을 당하셨는데, 넌 오히려 즐거워하며 놀리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태충이 말했다.

"기혈이 솟구쳤을 땐 조용히 누워 있는 게 좋아요."

위벽은 그제서야 말뜻을 알아차리고 사부를 가볍게 내려놓았다.

하태충과 반숙한 부부는 영문을 알 수 없어 서로 쳐다만 볼 뿐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이 촌녀와 상대한 적이 있어 그녀의 초술이 절묘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무열에게 뻗은 일 장은 정말 천하에 보기 드문 내력이었다.

한편, 촌녀는 이들보다 더욱 큰 의혹에 쌓여 있었다. 자신은 분명 무열의 점혈에 당한 후 장무기의 가슴에 쓰러져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무청영이 찌르는 검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날아와 검을 튕겨내며 불덩이 같은 열기를

끊임없이 현종혈(懸鐘穴)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너무나 빠른 변화에 생각할 틈도 없었다. 곧이어 무열의 장풍이 내리쳐 엉겁결에 어깨 뼈가 으스러지지 않게 뻗은 것뿐인데, 웬일이지 서로 장풍이 부딪치자 무열이 그 일 장에 저렇게 밀려 나가 떨어진 것이다.

그녀는 어리벙벙해 하며 내심 생각을 굴렸다.

'그렇다면, 이 추한 남자가 무공이 상당한 대고수란 말인가?'

하태충은 더 이상 촌녀와 장력으로 맞설 용기가 없어 검을 뽑으며 말했다.

"내가 낭자의 검법의 가르침을 받아보지."

촌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에겐 검이 없는데요?"

위벽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좋아, 내가 빌려주지."

그러면서 장검을 들어 검 끝으로 촌녀의 가슴을 조준하고 힘껏 던졌다. 촌녀는 팔을 내둘러 그의 검을 낚아채고 웃으며 말했다.

"네 무공이 너무 미천해 아직 나를 찔러 죽이지 못하는군."

하태충은 일파의 장문인인지라 체면을 생각해서 얼른 입을 열었다.

"자, 공격해 봐라. 삼 초를 양보하고 나서 반격할 테니."

촌녀는 그의 중궁(中宮)을 향해 장검을 내찔렀다.

하태충은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후배가 무례하군."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검을 펼치자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두 검이 모두 부러지고 말았다. 하태충의 안색이 크게 변하며 몸이 번뜩이더니, 어느새 뒤로 반 장이나 물러섰다. 그것은 바로 무기의 구양신공이 그녀의 체내에 전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신공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두 검이 모두 부러진 것이

었다. 만약 운력을 하고 적을 대했더라면 부러진 것은 상대의 검뿐이고, 자신의 검은 아무 이상도 없었을 것이다.

반숙한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낮은 소리로 물었다.

"왜 그래요?"

하태충은 팔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의아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반숙한이 장검을 뽑아 정색을 하며 소리쳤다.

"내가 한 번 가르침을 받아 보겠다."

촌녀도 두 손을 벌려 보였다. 쓸 만한 검이 없다는 뜻이었다.

반숙한은 그녀의 오만한 태도에 대노하여 선배의 신분 같은 것은 아랑곳없이 검을 휘둘러 촌녀의 목을 향했다. 촌녀는 검을 들어 막았지만, 반숙한의 검법이 매우 날렵하여 벌써 방향을 바꾸어 촌녀의 왼쪽 어깨를 찌르려고 했다. 촌녀가 잽싸게 검을 뒤집어 방어하자 반숙한은 어느새 촌녀의 오른쪽 늑골을 찌르려고 했다. 이렇게 여덟 번을 바람처럼 연속으로 공격했지만, 시종촌녀의 검과 서로 부딪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검법의 장기를 발휘하며 상대가 내공을 시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곧 그녀는 위험에 빠지고 말았다. 본시 촌녀의 검법은 반숙한을 따를 수가 없었다. 거기다 또 부러진 검을 들고 있고,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공격을 모하고 수세에만 몰려 있었다. 또 다시 수 초가 지나자 반숙한의 검 끝이 닿으면서 찍! 하는 소리와 촌녀의 왼쪽 팔뚝에 칼자국이 나고 말았다. 곤륜파의 검법은 기회를 포착하면 상대가 잠시도 숨쉴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반숙한의 계속되는 공격에 촌녀는 앗!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를 찔리고 말았다. 이때 촌녀가 날카롭게 외쳤다.

"나를 돕지 않고 눈뜨고 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기만 할 것인가요?"

반숙한은 검으로 가슴을 막으며 뒤로 물러서며 사방을 살펴보았

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검을 조금씩 떨며 검 끝에서 한기를 뿜으며 다시 촌녀를 공격해 왔다.

촌녀가 재빨리 부러진 검을 휘둘러 상대의 삼검(三劍)을 막아내자, 상대의 검초는 점점 기괴해지는 것이었다. 자신도 번개와 같이 막아 내고 있었다. 정말 머리카락 하나 빠져 나갈 틈도 없을 정도였다.

반숙한이 외쳤다.

"계집애, 네 수법도 제법 빠르군."

촌녀도 즉시 욕설을 뱉었다.

"이 우라질 여편네야, 너도 별로 느리진 않구나."

그러나 반숙한은 일대 명가의 검술이 아닌가! 그의 수 십년의 수양은 입으로 말을 하면서 손놀림은 조금도 늦추지 않게 했다. 반면 촌녀는 십 칠팔세의 나이가 아닌가! 명사의 가르침을 받았다해도 반숙한과 같은 풍범(風範)을 어찌 배울수 있었겠는가! 반숙한에게 욕설을 하며 잠깐 정신을 판 틈에 그만 손목에 짜릿한 느낌이 들면서 부러진검이 손을 벗어나고 말았다. 촌녀가 앗! 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에 반숙한의 제 이 검이 그녀의 늑골을 공격해왔다.

이때 여태까지 옆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던 정민군은 이쪽의 우세를 보고 검을 뽑았다. 그리고 추창망월의 초식으로 촌녀의 등을 향해 공격해 왔다. 동시에 무청영도 몸을 날려 촌녀의 오른쪽 허리를 걷어찼다. 촌녀는 겁에 질려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바로 그 때, 온몸이 불 속에 빠진 것처럼 뜨거워졌다. 그녀는 손가락을 내밀어 반숙한의 장검에 대고 튕겼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등에 장풍을 맞고 허리를 걷어차이고 말았다. 그녀가 고통을 못이겨 아야! 앗! 하는 두 마디의 비명을 지름과 동시에 정민군과 무청영의 몸이 뒤로 나가 떨어지며 반숙한의 검이 두 동강이 난 것이다.

이것은 정세가 소녀에게 매우 위급해지자 장무기가 재빨리 전신의 진기를 촌녀의 체내에 주입시킨 것이다. 그는 이미 구양진경의 삼사성(三四成) 공력을 연마한 터라, 보통 위력이 아니었다. 그래서 반숙한의 장검이 부러지고 정민군의 두 손목과 무청영의 오른쪽 발목이 모두 부러진 것이었다.

하태충, 무열, 위벽 모두는 놀라 입을 딱 벌렸다. 반숙한은 부러진 검을 땅에 팽개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제 그만 가지고 하면서 남편을 향해 화가 난 눈으로 쳐다보았다. 남편에게 울화통을 발산하려는 듯하였다. 하태충과 반숙한은 벌써 멀리 달려가고 있었다. 곤륜파의 경공은 참으로 훌륭했다. 가히 무림의 일절(一絶)이라고 할 수 있었다.

위벽은 한 손으로 사부를 부축하고 한 손으로 사매를 부축하면서 천천히 떠났다. 세 사람은 촌녀가 추격해올까 몹시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하태충 부부와 같이 날으는 듯이 달아날 수도 없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씩 떼어놓으며 불안해 하고 있었다. 정민군은 손목이 부러졌지만, 다리는 멀쩡해 이를 악물며 혼자 떠났다.

촌녀는 득의양양해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이.....!"

순간 갑자기 숨이 탁 막히며 그만 기절해 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장무기가 여섯명이 모두 떠나가자 그녀의 발목에서 손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체내에 충만해 있던 구양진기가 빠져나가자, 전신이 허탈해지며 사지에 힘이 빠진 것이다. 장무기는 깜짝 놀라 재빨리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그녀의 눈썹 양 옆 끝 즉사공혈(竹絲空穴)에 대고 신공을 약간 운공했다. 그러자 촌녀는 서서히 깨어났다.

그녀는 눈을 뜨고 자기가 장무기의 품안에 안겨 있는 것을 알고는 수줍어 하며 재빨리 쳐다보더니, 갑자기 장무기의 왼쪽 귀를 잡아 당기며 외쳤다.

"이 추남아, 나를 속이다니! 그런 무서운 무공을 지니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말 한 마디 없었죠?"

장무기는 귀가 아파 소리쳤다.

"아야! 무슨 짓이오!"

촌녀가 크게 웃으며 다그쳤다.

"왜 나를 속였죠?"

"언제 당신을 속였단 말이오? 무공을 할 줄 모른다고 하지도 않았지만, 할 줄 안다고 하지도 않았잖소?"

"좋아요! 나를 도와준 정을 생각해 한 번만 용서해 주겠어요. 이젠 걸을 수 있나요?"

"아직은 걷지 못하오,"

그녀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착한 일을 했으니 좋은 업보가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걱정이 돼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나를 도울 수도 없었겠지만....."

여기까지 말한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나보다 재주가 좋은 줄 미리 알았다면, 내가 대신 주구진 낭자를 죽일 필요는 없었는데....."

장무기가 물었다.

"내가 그녀를 죽이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녀를죽였소?"

"뭐라구요! 그럼 아직도 낭자를 잊지 않고 있단 말인가요?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됐군요.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죽였으니....."

장무기는 당황해 하며 급히 말을 막았다.

"주구진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오. 그녀가 아무리 예쁘다 해도 나하곤 아무 상관이 없소."

촌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음! 그것 참 이상하군요. 그렇다면, 당신을 이렇게 골탕먹인 그녀를 대신 죽였는데도 좋지 않단 말인가요?"

장무기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를 골탕먹인 사람은 너무나 많아, 만약 일일이 다 죽인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없소. 어떤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도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었소. 주구진 낭자만 해도 그녀는 매우 불안해 하며 지냈소. 위벽이 자기와 결혼하지 않고 무낭자와 결혼할까 봐. 그러니 어떻게 즐겁게 지낼수가 있었겠소?"

촌녀는 노기띤 음성으로 쏘아 붙였다.

"나를 비꼬는 건가요?"

장무기는 어리둥절했다. 주구진 낭자의 얘기를 하면서 이 촌녀의 비위를 거슬리고 만 것이다. 그는 재빨리 말머리를 돌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불행이 있다는 거요.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 이 말이오."

촌녀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무공을 배운 것이 아니라면서, 뭐하러 무공을 배웠죠?"

장무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무공을 배우는 것은 나쁜 사람이 해치려고 할 때 방어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오."

그녀가 정감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훌륭하군요. 이제보니 당신은 정인군자였었군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촌녀가 고개를 치켜올리며 물었다.

"뭘 보는 거죠?"

장무기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속도 없이 마음만 좋으니 연약한 서생과 같다고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어머니

가 말씀하실 때 그 입 모양이 당신과 똑같아서 보는 거요."
 촌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나무랐다.
 "픽! 또 나를 놀리려고 그래요? 내가 당신 어머니를 닮았다면, 그럼 당신은 당신 아버님을 닮았겠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엔 웃음이 넘치고 있었다.
 장무기가 말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소. 내가 당신을 놀렸다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이라고!"
 촌녀가 눈을 살짝 흘기며 웃었다.
 "나를 놀렸다고 무슨 큰일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뭣하러 그건 맹세까지 하는 거죠?"
 바로 그 때, 갑자기 동북쪽에서 휘파람소리가 들려왔다. 휘파람소리는 맑고도 길게 들려왔는데, 여자의 소리였다. 그러자 또 누군가가 휘파람소리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바로 아직 멀리 떠나지 않았던 정민군이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다.

----- 제 3 권 4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3 권

제 5 장 아미파의 결의(決議)

 장무기와 촌녀가 동북방을 바라보니, 어스름하게 여명이 밝아오는 가운데 녹색 옷을 입은 사람 모습이 눈덮힌 벌판을 가로질러 바람처럼 질주해 오는 것이 보였다. 쌍방의 간격이 좁혀지자 녹색 경장 차림의 여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우선 정민군과 몇 마디 나누며 장무기와 천녀를 힐끗 쳐

다보더니 곧 가까이 다가왔다. 보복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옷자락을 표표히 날리며 접근해 오는 신법이 여간 날렵한 것이 아니었다.

장무기는 비로소 그녀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나이는 어림잡아 열 일곱, 청아하면서도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였다. 장무기는 다소 의아해 했다. 앞서 그녀가 전개한 신법과 웅후한 진력이 깃들인 장소(長嘯)로 미루어 필시 정민군보다 나이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추측이 빗나간 것이다.

그녀는 정민군에게 얘기를 들어 장무기에게 적의를 품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허리에 찬 검을 뽑아 들지 않은 체 빈손으로 다가왔다.

"주 사매, 조심해. 이 귀신 같은 계집은 사악한 무공을 쓴다."

정민군이경고를 한 마디 던지자 그녀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걸음을 멈추고 온화한 음성으로 물었다.

"두 분의 존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무슨 일로 저희 정 사저에게 부상을 입혀 하셨습니까?"

그녀가 다가올 때부터 장무기는 줄곧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목소리를 듣자 이내 짚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구나! 바로 그 여자야. 육칠 년 전 한수(漢水)에서 몽고군에게 쫓기던 상우춘 형님과 같이 배에 타고 있었던 뱃사공의 딸이 주지약이 틀림없다. 태사부님께서 무당산으로 데려가셨을 텐데, 어째서 아미파 제자가 되었을까?'

그 때 일을 생각하니 가슴 뭉클한 감회가 일었다. 아울러 태사부 장삼봉의 안부도 궁금해졌다. 그러나 장무기는 이내 생각을 돌렸다.

'장무기는 이미 죽고 없는 몸, 지금의 나는 한낱 촌부에 불과하다. 여기서 그리움이나 감상에 빠져 신분이 노출되는 날이면 결국 풍파가 꼬리를 물고 밀어닥칠 것이고, 큰아버지인 금모사왕에

게도 해가 미칠 것이다. 그러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부모님의 뜻이 헛되고 말리라.'

촌녀는 주지약을 쏘아보면서 차갑게 웃었다.

"당신의 사저는 쌍장으로 내등을 공격하다가 제풀에 손목이 부러졌는데, 나더러 책임지라는 말인가요? 직접 물어 보세요. 내가 손을 쓴 적이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주지약은 정민군을 돌아 보았다. 그게 사실인지 묻는 눈치였다. 정민군은 당황을 감추기 위해서 화를 발칵 냈다.

"너는 저 두 연놈을 잡아다가 사부님의 처분에 맡기기만 하면 돼!"

"제 생각에는 두 분이 언니께 의도적으로 실례를 범한 게 아니라면, 그냥 웃어넘기는 것이 좋겠군요."

"아니 뭐라고? 넌 지금 적을 돕겠단 말이냐?"

정민군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얼굴에 서리가 맺혔다. 장무기는 언젠가 호접곡 부근 숲 속에서 오늘과 똑같이 표독스러운 정민군을 본 적이 있었다. 팽화상을 공격할 때, 기효부가 팽화상의 역성을 들다가 정민군과 언쟁 끝에 대판 싸움을 벌였었다. 장무기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사저랍시고 정민군이 다시 사나운 심통을 부린다면, 기효부보다 어린 주지약은 도리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지약은 기효부와는 달리 그녀에게 순순히 복종했다.

"그럼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좋다. 우선 저 못 생기고 더러운 계집부터 무릎을 꿇리고 손목을 끊어 버려라!"

"알겠습니다. 언니도 저를 도와 주세요."

주지약은 촌녀에게로 돌아왔다.

"그럼 실례를 범하겠어요. 그대의 고명한 솜씨를 좀 배울까 하는데....."

"웬 잔소리가 그리도 그리도 많으냐? 어디 덤벼 봐라!"

촌녀는 냉소를 터뜨리며 몸을 솟구치더니 번개처럼 연거푸 삼장을 후려쳤다. 그러자 주지약은 몸을 비스듬히 해서 그 장력안으로 파고들었다. 왼손으로 금나수법을 써서 상대방의 팔을 움켜잡았다. 이는 수비를 위한 공격 수법이었다.

장무기의 내공력은 막강하나 무술의 초식은 아직 터득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지약과 천녀는 서로 신속한 타법을 구사했다. 주지약의 아미면장은 경쾌하고 신속한 반면에, 촌녀의 장법은 전혀 짐작도 못할 정도로 기괴망측하였다. 장무기는 내심 감탄했다. 아울러 어느 쪽도 다치거나 이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십여 초를 주고 받는 동안에 두 여자는 저마다 몇 차례씩 위기에 처했지만 절묘한 신법으로 역습을 가해 상대방의 공격을 무마시켰다.

"받아랏!"

갑자기 촌녀는 고함을 지르면서 왼손으로 주지약의 어깨를 후려쳤다. 순간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주지약은 손을 되돌려서 접근해 곧 촌녀의 옷자락을 찢어 버렸다.

두 여인은 약속한 듯이 몸을 튕기며 뒤로 물러섰다. 모두 얼굴이 불그스레 상기되었다.

'아, 대단한 금나수법이군!'

촌녀는 감탄을 하면서 다시 덮여들려는데 주지약이 갑자기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면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주..... 주 소저.....!"

장무기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 얼굴에는 걱정스런 빛이 감돌았다. 주지약은 그 긴 수염에 장발을 늘어뜨린 남자가 자기를 몹시 걱정해 주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사매, 어찌 된 거냐?"

정민군이 곁으로 다가가자 주지약은 왼손을 그녀의 어깨에 걸치면서 고개를 저었다. 정민군도 촌녀에게 혼줄이 난 터라 그녀의 예리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주지약을 윽박질러서 싸움을 걸게 한 것은 순전히 그녀의 질투심 때문이었다. 스승인 멸절사태는 항상 이 어린 사매를 칭찬했다. 남다르게 깨우침이 빨라 장차 아미파의 명성을 빛낼 사람도 그녀라고 자신있게 공언하곤 했다.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문의 계승자라 믿고 있던 정민군은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었다.

과연 주지약의 무공은 자기보다 훨씬 월등했다. 자기는 단 일초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손목이 꺽였는데, 그녀는 이십 초나 겨루고서야 패색을 보인 것이다. 정민군은 수치심과 질투심이 불길처럼 솟구쳐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자기 어깨에 걸쳐 있는 주지약의 팔에는 전혀 기력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녀가 중상을 입은 것을 알아챘다. 정민군은 다시 그 촌녀가 덤벼들까 봐 급히 발길을 재촉하면서 말했다.

"우선 이곳을 떠나자!"

정민군은 주지약을 부축하면서 동북방쪽으로 떠났다. 그 촌녀는 장무기의 얼굴 표정을 살펴보더니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흥! 그 몰골을 해 가지고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더니 혼비백산하였군!"

장무기는 주지약과 한수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지난 얘기를 들려 주어 보았자 이해할 리도 없으니 차라리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저 여자가 밉든 예쁘든 나와 무슨 관계가 있소? 난 저 아가씨가 혹시 다치지나 않았나 해서....."

"그게 정말인가요?"

"내가 그대를 속여 뭣하겠소? 그런데 아미파 제자 중에 저토록 젊은 낭자가 일류 고수에 못지 않는 무공을 지녔다니 정말 놀라

운 일이오."

"사실이예요. 정말 대단했어요."

장무기의 눈길은 주지약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 올 때는 날렵하던 걸음걸이가, 이제는 비틀거리며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한수 나룻배 안에서 투정을 부리는 자기에게 밥과 반찬을 떠 먹이던 깜찍한 소녀, 작별을 하면서 눈물을 닦아 주고 손수건을 주던 그 소녀가 바로 저 처녀였다. 제발 상처가 깊지 않기를 그는 진심으로 바랬다.

"걱정할 것 없어요. 그녀는 조금도 부상을 입지 않았어요. 내가 대단하다고 말한 건 그녀의 무공이 아니라, 저토록 어린 나이에 마음 씀씀이가 깊고 넓다는 것이예요."

"그녀가 다치지 않았다고?"

"틀림없어요. 내 일 장이 그녀의 어깨를 후려치는 찰라, 그녀의 어깨에서 내공력이 솟아나와 내 손을 튕겨 버렸어요. 그녀는 이미구양공을 수련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탄지력에 의해 충격을 받은 것뿐이예요."

장무기의 암울하던 얼굴이 단번에 활짝 펴졌다.

'주 소저가 멸절사태의 눈에 들어서 아미파의 진파비학(鎭派秘學)인 아미구양공을 전수받았구나!'

이때 촌녀가 갑자기 손등을 뒤집더니 난데없이 그의 뺨을 철썩 후려쳤다. 너머나 갑작스런 일이라, 장무기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얼굴 한쪽이 단번에 벌겋게 부어올랐다.

"이게 무슨 짓이오?"

"그 처녀의 미색에 넋이 다 빠져, 그녀가 부상일 입지 않았다니까 그렇게도 좋은가요?"

촌녀는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장무기도 오기가 뻗쳤다.

"내가 좋아했다고 해서 안 될 건 또 뭐요?"

그러자 촌녀는 다시 일 장을 후려쳤다. 이번에는 장무기가 고개

를 살짝 속여서 피해 버렸다. 춘녀는 화를 벌컥 내며 소리를 질렀다.

"내게 아내가 되어 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한 지 반나절도 안 됐는데 벌써 딴 마음을 품고 남의 낭자를 넘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어거지요! 아까는 내가 그대의 짝이 될 수 없다고 했지 않았소? 게다가 그대는 이미 마음 속으로 정해놓은 남자가 있다며 나한테 시집올 수 없다고 했잖소?"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아 나에게 약속을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평생 동안 날 사랑하고 돌보아 주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한 약속은 물론 절대로 지킬 것이오!"

"그렇다면, 당신은 어째서 그녀의 미모에 넋을 빼앗겨 날 약을 올리는 거죠?"

"난 넋이 빠진 적이 없소!"

"난 절대로 당신이 그녀를 좋아하도록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로 안 돼요!"

"내 언제 그녀를 좋아한다고 했소? 그런데 어찌 당신은 그녀를 꺼리고 마음에 두는지 알 수가 없소. 그리고 그대는 오매불망 그 남자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잊어 버리지 못하겠소?"

"난 그 사람을 먼저 알았어요. 만약에 당신을 먼저 알았다면 일생을 두고 당신을 섬겼을 거에요. 절대로 다른 남자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이걸 종일이종(從一二終) 즉, 일부종사라 하지요. 만약에 두 마음을 품는다면 하늘도 용납하지 않을 거에요!"

장무기는 춘녀의 푸념을 듣자 마음이 착잡했다. "내가 주 소저를 안 것은 당신보다 훨씬 먼저였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말은 안 나오고 엉뚱한 말이 나왔다.

"만약에 그대가 나 한 사람만 좋아한다면, 나 역시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그러나 당신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나도

다른 여자를 생각할 수 밖에 없소!"

그러자 촌녀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몇 차례 입을 열려고 망설이더니 갑자기 눈에 눈물이 핑그르 돌며 고개를 돌려 버렸다. 그리고는 장무기가 안 보는 틈을 타서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장무기가안스러운 생각이 들어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공연한 말다툼을 그만 하는 게 어떻소? 며칠만 더 지나면 내 다리가 완쾌될 것이오. 그 때 함께 천하 명산 대천을 두루 유람이나 다니는 게 어떠하겠소?"

그러자 촌녀는 고개를 바로 돌렸다. 얼굴에는 여전히 수심이 가득한 채 입을 열었다.

"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듣고 화내지 말아요."

"무슨 일이오? 내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소."

그래도 촌녀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입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화를 낼지도 모르잖아요?"

"알겠소. 마음 속으로도 화를 내지 않겠소!"

장무기에게 거듭 다짐을 받고서 이번에는 반대로 촌녀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실..... 내가 중원에서 머나먼 이곳 서역까지 만리 길을 달려온 것을 그분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얼마 전에는 그분의 종적을 들었었는데, 여기와서는 그분의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했어요. 당신의 다리가 완쾌되면 날 도와서 그분을 찾아 주세요. 그분을 만나보고 나서 당신하고 같이 유람을 다니겠어요. 어때요?"

"흥!"

장무기는 불쾌한 기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콧방귀를 터뜨렸다.

"방금 화내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건 화를 내는 게 아닌가요?"

그러자 장무기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좋소. 내 그 사람을 찾도록 도와 주겠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예요."

촌녀는 몹시 기뻐했다.멀리 지평선에 눈길을 던진 채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그 사람을 찾고 나면 이토록 오매불망 찾아다녔다고 말해 줘야지. 그래야만 날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 분이 뭐라고 말하든 그대로 따를 거고, 그분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거야....."

"도대체 당신의 그 사람은 어디가 좋아서 그토록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오?"

그러자 촌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분이 어떻게 좋은지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우리가 과연 그분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날 만나면 또 때리고 욕을 할까요?"

장무기는 그녀의 멍청스런 표정을 보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달래 주었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오. 그는 절대로 당신을 때리거나 욕을 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촌녀는 앵두같은 입술을 깨물면서 곧 쏟아질 듯한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

"그래요. 그분은 날 사랑하고 아껴 주었어요. 다신 날 때리거나 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장무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에 이 세상 어디엔가 이 낭자처럼 내게 마음을 주고 애틋하게 연모를 바치는 여인이 있다면, 이제껏 겪은 것보다 더 무서운 고통과 난관이 닥쳐오더라도 행복할 것 같다.'

그는 눈 덮힌 들판에 찍힌 주지약과 정민군의 발자국을 따라보

면서 다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에 정민군의 발자국이 내 것이라면, 지금쯤 나는 주소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고 있겠지.....'

갑자기 촌녀가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장무기는 무지개빛 환상 속에서 깨어났다.

"무슨 일이오?"

"그 아미파 소녀는 나하고 사생 결단을 내기 싫어서 부상을 가장하고 돌아갔지만, 그 정민군은 말끝마다 우리를 잡아다 그녀의 사부에게 데려간다고 한 걸 보면 멸절사태는 필시 부근 어디엔가 있어요. 그 늙은 비구니는 호승심(好勝心)이 강해 정민군의 얘기를 듣고 안 올리가 있겠어요?"

장무기는 기효부를 일장에 쳐죽인 그 잔혹스러운 광경을 생각하자 가슴이 철렁했다.

"그 늙은 비구니의 무공이 워낙 뛰어나서 우리는 도저히 그의 상대도 안 돼요."

"당신은 그녀를 본 적이 있어요?"

"아미파의 장문인인데 절세 무공을 지닌 게 당연하지 않겠소. 난 걸을 수가 없으니 당신이나 달아나시오."

"흥, 내 어찌 당신을 버리고 혼자 달아나서 살 수 있겠어요? 내 양심이 그렇게 나쁜 줄 알았나요?"

그 촌녀는 화를 내면서 그에게 한바탕 면박을 주더니 이맛살을 약간 찌푸리고 잠시 궁리를 했다. 그런 다음 장작더미에서 굵직한 장작을 골라 내고는 다시 부드러운 나뭇 가지를 모아서 껍질을 벗겨 밧줄로 꼬은 다음에 그것으로 썰매를 만들었다. 썰매의 이음새를 단단히 묶어 놓더니 장무기를 덥석 안아서 썰매 위에 눕히고 다리를 뻗게 한 다음, 썰매를 끌고 서북방 쪽으로 달려갔다.

장무기는 그녀의 뒷모습이 마치 새벽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처럼

아름다웠다. 그녀는 썰매를 끌고 바람처럼 눈 덮힌 들판을 가로 질려 갔다.

그녀는 쉬지 않고 삼, 사십리를 치달렸다. 장무기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입을 열었다.

"이봐요,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러자 촌녀는 눈을 흘기며 말했다.

"이봐요가 뭐예요? 난 이름도 없나요?"

"당신이 말을 안 해주니 내가 알 도리가 있소? 추주랑이라고 가르쳐 줬지만 난 그대가 아름다운 것 같소."

그 촌녀는 픽하고 웃음을 터뜨리더니 치닫던 걸음을 멈춰 버렸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입을 열었다.

"좋아요. 당신한테 말해 주지 못할 것도 없죠. 내 이름은 주아요."

"주아, 주아..... 진주 보배의 주(珠)자겠군?"

"진주의 주 자가 아니라 독거미의 주(蛛)예요."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세상에, 어디 그 주자를 이름에다 쓰는 사람이 있겠소?"

"내 이름이 바로 그 주(蛛)자이니 당신이 부르기에 꺼림직하면 부르지 않아도 좋아요."

"당신 아버님께서 지어 주신 거요."

"흥! 만약에 아버님이 지어 주셨다면 나는 사용하지도 않을 거예요. 엄마는 나한테 천주만독수(千蛛萬毒手)를 수련하게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쓰라고 했던 거죠."

장무기는 <천주만독수>란 다섯 글자를 듣자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주야가 다시 말했다.

"난 어릴때부터 수련을 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만약에 내가 천주만독수만 터득하면 멸절사태, 그 늙은 비구니도 겁날 것 없어요. 거미를 한번 볼래요."

주아는 품속에서 금빛이 찬란한 금합(金盒)을 한 개 꺼내 뚜껑을 열자 엄지손가락만한 거미 두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거미의 등판에는 얼룩 무늬가 선명하게 찍혀 번들번들 빛이 났다.

'거미의 몸뚱이에 얼룩무늬가 선명하면 극독(劇毒)을 지니고 있다. 사람이 물리기만 하면 치료하기가 극히 어렵다.'

"당신은 내 이 보물덩어리 거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잠깐만 기다려요."

주아는 말을 마치자 마자 몸을 날려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 본 다음 다시 땅으로 내려와 말했다.

"우린 갈 길이 바쁘니 거미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죠."

썰매를 끌고 다시 칠, 팔 리쯤 달려가자 산 아래 계곡으로 접어들었다. 주아는 장무기를 썰매에서 안아 내리더니, 썰매에 바윗돌 몇 개를 얹어서 다시 끌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절벽 끝까지 달려가더니 갑자기 발을 멈추고 바윗돌이 담긴 썰매를 절벽 아래로 밀었다. 우르르, 꽝! 하며 소리는 한참 동안 끊이지 않았다. 장무기가 왔던 길을 뒤돌아보니, 눈 덮힌 지면에는 두 줄기 썰매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그제서야 그녀의 의도를 깨달았다. 만약에 멸절사태가 따라 온다면 틀림없이 썰매자국만 따라올 것이다. 여기까지 와서는 굴러 떨어진 썰매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썰매와 함께 우리도 떨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주아는 세심한 여자였다.

주아가 쪼그리고 앉아서 말했다.

"내 등에 업혀요."

"날 업고 가려면 너무 힘들 텐데....."

"힘이 드는지 안 드는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주아는 눈을 흘겼다. 장무기는 더 이상 말을 못 붙이고 그녀의 등에 업혔다. 그리고 살며시 그녀의 목덜미를 끌어안았다.

"내가 숨막혀 죽을까 봐 그래요? 그렇게 살며시 끌어안으니 간

지러워 죽겠어요."

그러자 장무기는 조금 더 세게 힘주어 그녀의 목덜미를 감싸안았다. 돌연 주아는 몸을 솟구쳐 그를 업은 채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 나무 숲은 곧바로 서쪽 방향으로 펼쳐져 있었다. 주아는 껑충껑충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 올라갔다. 그녀는 체격이 큰 장무기를 업고서도 날렵한 보법(步法)으로 칠, 팔십 그루를 건너뛰어도 전혀 힘든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숲 가까이 보이는 산기슭 아래 이르러 비로소 뛰어내리더니 그를 살며시 땅에다 내려놓았다.

"여기에다 외양간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외양간.....? 외양간을 지어 뭘 하려고?"

주아는 어리둥절한 장무기를 바라보면서 깔깔 웃었다.

"송아지 집을 만드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아우(阿牛), 즉 송아지란 뜻이 아닌가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소. 사, 오 일만 지나면 부러진 뼈도 완전히 굳어질 거요. 사실 지금 억지로 걷자면 걸어갈 수도 있소."

"흥! 억지로 걷는다구요? 이미 추팔괴가 되었는데, 다시 절름발이 송아지가 되면 참 볼 만하겠군요!"

주야는 말을 하면서 나뭇 가지를 하나 꺾어서 바위 옆에 쌓인 눈을 쓸어 버렸다. 그런 다음 그녀는 커다란 바위 틈에 지붕을 엮어 얹었다. 이윽고 바위 틈에는 하늘이 가려지고 방이 한 칸 마련되었다. 주아는 다시 눈을 큼직한 덩어리로 몇 개 만들어서 출입구만 남겨 두고 모두 막아 버렸다. 그제서야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땀을 닦았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난 먹을 걸 찾아 올 테니."

"난 별로 시장하지 않소. 당신 너무 힘들지 않소? 좀 쉬었다가 가시구료."

"내 걱정을 해 주시면 진심으로 하세요! 공연히 입에 발린 말로 만 하지 말고....."

주아는 잽싼 걸음으로 숲 속으로 들어갔다.

장무기는 바위 벽에 기대앉아서 주아의 가냘픈 몸매며 부드럽고도 교태어린 음성을 생각하지 한결같이 절세미녀의 품범(風範)이었다. 한가지 흠이라면 추하게 생긴 그 얼굴 하나뿐이었다. 그는 임종할 무렵의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다.

"예쁜 여자일수록 더욱 잘 속이니, 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주아는 얼굴이 아름답지는 않으나 얼마나 날 위해 주는가? 일생을 함께 지내고 싶다.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남자가 차지하고 있으니, 나는 그 틈에 도저히 끼어들 수 없다.'

그가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주아는 어느새 설계(雪鷄) 두 마를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불을 지피고 그것을 구웠다. 장무기는 설계 한 마리를 게걸스럽게 먹어 치웠다. 주아는 그가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 우스운지, 입가에 빙긋 웃음이 감돌더니 제 몫으로 남긴 닭다리 두 개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장무기는 미안하여 사양했다. 그러자 주아는 발칵 화를 냈다.

"먹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요. 공연히 위하는 척 위선을 떠는 사람은 내 단칼에 새 구멍을 뚫어 버리고 말 거예요!"

그 말에 장무기는 잠자코 닭다리를 먹어 치웠다. 그는 기름 투성이가 된 입술을 쓱쓱 문질렀다. 주아가 고개를 돌려서 한참 동안 장무기의 얼굴을 쳐다보자, 장무기는 여간 멋적지가 않았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소?"

"당신 몇 살이나 됐죠?"

"스물 하나."

"아하! 나보다 겨우 세 살 위네요? 그런데 웬 수염을 그렇게 길게 길렀죠?"

"몇 년 동안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살았소. 만날 사람도 없는데

수염을 깎을 필요가 있었겠소?"
 주아는 허리띠에 찬 비수를 꺼내서 그의 얼굴을 누르며 천천히 수염을 깎아 주었다. 칼날이 예리해서 장무기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매끈하고 따사로운 손끝이 양쪽 뺨을 더듬어가자 그의 심장은 마구 뛰었다. 그 비수가 그의목덜미까지 내려오자 주아는 웃으면서 엄포를 놓았다.
 "내가 조금만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자 장무기도 웃으며 말했다.
 "낭자의 옥 같은 손에 죽는다면, 귀신이 되어도 즐거울 것이오."
 "그럼 즐거운 귀신이 되어 봐요!"
 주아는 칼날을 뒤집더니 칼등으로 그의 목덜미를 쓰윽 그었다. 장무기는 깜짝 놀랐다. 피할 틈도 없이 칼등이 목을 스치고 지나가자, 체내에 잠재한 구양신공(九陽神功)이 반탄력을 발했다. 순간, 주아의 손에서 비수가 튕겨 날았다. 그제야 장무기는 그녀가 칼등으로 장난을 했음을 깨달았다. 주아는 손목이 시큰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더니 금새 활짝 웃었다.
 "즐거운가요!"
 장무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아는 말끔하게 다듬어진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더니, 갑자기 장탄식을 했다.
 "웬 한숨이오?"
 주아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의 머리칼을 다듬기 시작했다. 머리를 게 다듬어서 위로 틀어올린 다음 나뭇 가지를 깎아서 비녀 대신 꽂아 주었다. 비록 옷은 더럽기 짝이 없고 또 너무나 작았지만 타고난 모습은 변함이 없이 훌륭했다. 추팔괴가 다시 준수한 청년으로 둔갑한 것이다. 주아는 다시금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의 본래 모습이 이럴 줄 정말 몰랐어요."

장무기는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자신의 추악한 용모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본바탕은 외모에 나타나는 게 아니오.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사물 중에 독을 품은 것이 얼마나 많소. 깃털이 화려한 공작새도 그 쓸개에는 맹독이 들어있고, 선학(仙鶴)의 붉은 벼슬에도 무서운 맹독을 품었소. 뱀이나 전갈 따위의 곤충도 색깔이 화려할수록 그 독성도 강렬할 것이오. 당신이 품고 다니는 독거미는 얼마나 아름답소? 사람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천하일색인 미녀라도 심성이 선량치 못하다면 무엇에다 쓰겠소?"

"그럼 심성이 착한 사람은 어디다 쓰는지 말해 줄래요?"

주아는 웃으며 되물었다. 장무기는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잠시 생각하더니 그제서야 말했다.

"마음이 선량하면 남을 해치지 않소!"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은 또 뭐가 좋은 거죠?"

"당신이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일마다 떳떳할 거고."

"난 남을 해치지 않으면 속이 시원치 않는걸요. 곁에 있는 사람의 말도 못하게 참혹한 꼴을 당하면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더군요."

그러자 장무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말은 억지소리요."

"내가 남을 해치지 않겠다면, 이 천주만독수를 수련해서 무엇에 쓰겠어요? 내 자신이 받는 고통은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걸요. 그런데 장난삼아 겪는 줄 아세요?"

주아는 말을 끝내자 다리를 틀고 앉아서 체내의 내공을 일주천(一周天) 시키더니, 품에서 금합(金盒)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양손의 손가락을 두 개씩 펴서 합 안에 집어넣었다.

합 안에 있는 얼룩거미 두 마리가 슬슬 기어오더니 그녀의 손가

락을 하나씩 물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모금 들여마시고 양팔을 살며시 떨면서 내력으로 거미의 독과 대항했다. 얼룩거미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피를 빨았다. 그녀 역시 혈맥(血脈)을 운전(運轉)하여 얼룩거미의 독액을 피에 섞어서 끌어냈다.

주아의 얼굴에는 엄숙한 기색이 감돌았다. 동시에 이마 한 가운데의 양쪽 태양혈 위에 은은하게 검은 기운이 둘러싸는 순간, 이를 악물고 혼신의 힘을 다 쏟아 고통을 참았다. 얼마쯤 지나자 그녀의 콧잔등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 무공을 반시간쯤 수련하자, 거미 두 마리는 배가 불룩해져서 마치 둥근 공처럼 되더니, 그제야 합 안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주아는 다시 운공을 했다. 얼마 후 얼굴의 흑기(黑氣)가 점점 흐려지면서 혈색이 다시 감돌기 시작하자, 숨을 한 모금 토해냈다. 그 냄새를 맡은 장무기는 달콤한 향기를 느끼면서 즉시 현기증이 일어났다. 그녀가 뱉어낸 숨결 속에도 맹독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주아는 눈을 뜨면서 살짝 미소를 지었다.

"얼마나 수련해야 극치에 도달하는 거요?"

"그 얼룩거미의 몸뚱이가 얼룩빛에서 검정으로, 다시 검정에서 흰색으로 변해야만 독이 없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 때 가서는 거의 몸에 있던 독액이 모두 다 손가락으로 온 것이예요. 최소한 백 마리는 거쳐야 기본이 완성되죠. 진짜 고수가 되려면 일, 이천마리도 많은 건 아니예요."

장무기는 그녀의 말을 듣자 머리칼이 곤두섰다.

"그 많은 얼룩거미를 어디서 구하오?"

"본인들이 직접 기르면 이놈들이 새끼를 치거든요. 그래도 모자라면 산지로 가서 잡기도 하지요."

"천하에 무공이 얼마나 많소? 그런데 하필이면 이 독공(毒功)을 수련하는 것이오? 이 거미독은 극렬하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되면

아무래도 좋지 못할 것 같소."

"천하의 무공이 많기는 하지만 어느 무공이 이 천주만독수보다 월등하겠어요? 당신도 내공이 대단하다고 거만 떨지 말아요. 내가 이 무공만 연성(鍊成)되면 아마 내 손가락 하나도 당해내지 못할 거예요."

주아는 말을 하면서 내공을 손가락에 응집시키고는, 곁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찍어 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공력은 아직 미숙하여 겨우 반 치 남짓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자 장무기가 또 물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이 무공을 수련하라고 했소? 그분은 연성했나요?"

갑자기 주아의 눈이 사납고 독살스럽게 번쩍이더니 원한에 사무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천주만독수는 얼룩거미 이 십마리 이상 수련하면 체내에 쌓인 독질이 얼굴 모습을 변하게 만들고, 천 마리를 수련한 경지에 이르면 더욱 흉악스럽게 변해요. 우리 엄마는 하필이면 일백 마리까지 수련하던 도중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자, 자기의 얼굴이 추악하게 되면 아빠가 싫어할까 봐 일생 동안 수련한 공력을 모조리허물어 버렸어요. 결국은 닭 잡을 힘도 없는 평범한 여자가 되고 말았어요. 엄마는 비록 아름다움을 되찾았지만, 둘째 엄마와 나의 두 오빠들에게 모진 학대와 멸시를 당했어요. 그러나 이미 공력을 잃은 상태라서 당하기만 하다가 끝내 목숨마저 잃은 거예요. 흥! 얼굴만 예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아주 곱고 아름다운 미녀였지만, 나이가 많고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는 다시 첩을 얻게 되었고....."

장무기는 그녀의 얼굴을 다시 훑어보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보니, 당신도 그 무공을 익히느라고....."

"그래요, 나는 무공을 연마하기 위해서 얼굴이 이 모양이 된 거

예요. 흥! 그 매정한 사람이 날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내가 천주만독수를 연성한 후에 그를 찾아 갈 거예요. 만약에 그 남자 곁에 딴 여자가 있다면....."

"당신은 그 남자하고 혼인한 사이도 아니고, 백년해로하기로 약속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솔직하게 말하세요. 당신 생각은 나 혼자 짝사랑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짝사랑하면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날 박정하게 대한다면, 내 이 <천주만독수>의 맛을 보여 주고 말 거예요."

장무기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그녀하고 변설(辨說)하지 않았다.

주아의 성격은 매우 괴팍했다. 좋기 시작하면 한없이 좋다가도, 흉포하기 시작하면 막무가네였다. 장무기는 문득 태사부와 태사백, 둘째 사백들이 늘 말하던 것이 생각났다. 그것은 무림에 있는 정(正)과 사(邪)의 분별이었다. 그 말씀대로 보자면, 그녀가 수련하는 <천주만독수>는 극히 악독한 사파(邪派)의 무공이다. 그녀의 어머니도 역시 요사(妖邪)의 제일일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은근히 그녀에 대해 경계심과 두려움이 우러났다.

주아는 그의 생각을 눈치채지 못하고 방 안을 들락날락하면서 온통 들꽃으로 장식했다. 장무기는 그녀가 하는 짓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다.

"주아, 내 다리가 다 나으면 좋은 약초를 캐어다가 당신 얼굴의 독종(毒腫)을 치료해 주겠소."

주아는 그 말을 듣더니 대뜸 안색이 변하면서 두려운 빛을 띠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겨우 오늘의 수준에 이르렀는데, 당신은 나의 천주만독공을 흐트려 놓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서 연구하면 공력도 흐트러 지지 않고 당신 얼굴의 독종만 치료할 수 있을 것이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 엄마가 왜 몰랐겠어요. 천하의 접곡의선 호청우 한 사람만이 그런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는 벌써 여러 해 전에 죽었어요."

"당신도 호청우를 알고 있소?"

"뭐라고요?! 무엇이 이상하다는 거죠? 접곡의선의 이름은 강호에 널리 퍼져 있어서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주아는 장무기에게 눈을 한 번 흘기고 나서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설사 아직 살아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죽는 것을 보아도 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자 장무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주아는 접곡의선이 그의 의술을 모두 내게 전수해 준 것을 모르고 있다. 훗날 내가 치료법을 알아내서 그녀 얼굴의 독종을 치료해 준 후에 그녀를 한 번 놀라게 해줄 것이다.'

어느덧 밤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석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한밤중이 되자 장무기는 꿈결에 갑자기 훌쩍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주아가 울고 있었다. 그는 그녀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면서 달랬다.

"주아, 상심할 것 없소."

그 위로의 말에 감동되었는지, 주아는 그의 어깨에 엎드려서 목을 놓아 통곡했다.

"주아, 무슨 일이오?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러오?"

"엄마는 죽었어요! 내가 외톨이가 되니깐 아무도 날 반겨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이 어울려 주지 않아요!"

장무기는 옷자락을 끌어올려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면서 다정

하게 말했다.

"난 당신을 좋아해요. 난 당신을 잘 대해 줄 수 있소."

"당신은 필요없어요. 내 마음 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을 뿐이예요. 그 사람은 날 거들떠보지도 않고, 때리고 욕설을 하고, 게다가 물기까지 했어요."

"그런 무정한 남자는 잊어 버려요.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아 평생 동안 잘 대해 주겠소."

장무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주아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안 돼요, 안 돼! 난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어요. 또다시 내게 그 사람을 잊어 버리라고 하면 난 영원히 당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겠어요!"

장무기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다행히 어둠 속이라서 주아가 그의 시뻘건 얼굴과 난감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다.

"아우 오빠! 나 때문에 화가 났지요?"

"아니오, 나 혼자 화가 났을 뿐이오. 당신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한 것 같소."

"아니예요!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한 번만 더 해주겠어요?"

"당신이 그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내 어찌 다시 말하겠소!"

장무기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러자 주아는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꼭 잡고는 부드럽게 달랬다.

"아우 오빠, 화내지 말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정말로 날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난 당신 눈을 찔러 장님으로 만들어 죽이고 말 거예요."

"당신 뭐라 했소?"

"당신이 장님이 되어야 내 흉칙한 모양을 볼 수 없고, 또 아미

파의 주 낭자를 찾아갈 수 없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래도 그녀를 잊지 못한다면 난 당신을 죽이고, 또 아미파의 주 낭자도 죽인 다음에 자결하겠어요."

그녀는 이처럼 괴상한 말을 하면서도 음성은 뜻밖에 자연스러웠다.

장무기는 그녀의 악독한 말을 듣자 심장이 덜컥 멎어 버리는 듯했다. 바로 이때, 갑자기 멀리서 늙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미파의 주 낭자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냐?"

주아는 펄쩍 뛸 듯이 놀라며 소리를 낮추어서 말했다.

"멸절사태예요."

"틀림없다! 바로 멸절사태다!"

그녀는 소근거리며 말했는데도 밖에 있는 그 사람은 분명하게 들은 모양이었다. 첫 번째 음성은 먼 거리에서 들렸지만 두 번째 소리는 이미 오두막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주아는 일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리자 이미 장무기를 안고 달아나지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저 숨을 죽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오너라! 평생 그 속에서 숨어 있을 작정이냐?"

바깥에서 냉랭한 외침이 들리자, 주아는 장무기의 손을 잡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때 오두막집에서 이 장 거리 밖에는 백발이 성성한 늙은 비구니가 서 있었다. 바로 아미파의 장문인 멸절사태였다. 그녀 뒤에는 수십 명이 세 줄로 나뉘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 안에는 태반이 비구니고 나머지는 남자와 여자였다.

정민군과 주지약도 그 안에 있었다. 남자들은 제일 뒤쪽에서 있었다. 멸절사태는 남제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아미파의 상승무공(上乘無功)은 전수받을 수 없었고, 지위도 여제자보다 낮았다. 멸절사태는 싸늘하게 주아를 아래 위로 살피더니 한동안 말을 하

지 않았다.
 장무기도 가슴을 조이며 주아의 등 뒤에 숨어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주아를 조금이라도 공격하려는 기미가 있으면, 자기는 분명 상대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력을 다해 상대와 맞싸울 것이라고.
 멸절사태는 흥하고 콧소리를 내면서 뒤돌아 정민군에게 물었다.
 "바로 이 계집아이냐?"
 "네!"
 정민군은 공손히 대답했다.
 순간 갑자기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주아는 탁 하는 소리를 내면서 몸이 이미 삼장 밖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두 손목의 뼈가 모두 부러져 눈밭에 쓰러져 기절해 버린 것이다. 장무기는 회색 그림자가 번뜩인 것만 봤을 뿐인데, 멸절사태는 이미 주아의 앞에 와서 손목을 부러뜨리고 팽개친 것이었다.
 그는 실로 번개와 같이 공격하고 제자리에 돌아간 것이다. 우뚝 서 있는 자세는 한 그루의 큰 고목과도 같았다.
 장무기는 그의 출수를 하나하나 모두 자세히 보았지만, 실로 불가사의하게 동작이 빨랐다. 그는 그 무서운 수법에 놀라 자기가 하려고 한 행동에 대해 용기를 잃고 말았다.
 멸절사태는 가슴을 싸늘하게 하는 눈초리로 장무기를 노려 보고 있었다.
 "이리 나오지 못하겠느냐?"
 주지약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사부님, 이 사람은 두 다리가 부러져 걷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썰매를 두 개 만들어 모두 끌고 가자!"
 제자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십여 명의 남자 제자들이 부산을 떨고 나더니 썰매 두 개를 만들어 냈다. 두 여제자가 주아를 끌어안고 두 남자 제자는 장무기를 부축하여 각기 썰매에 눕혔다. 그

들은 썰매를 끌고 멸절사태의 뒤를 따랐다.

장무기는 정신을 차리고 주아의 동정을 살폈다. 그녀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알 수가 없었다. 몇 리 길을 달려오자 그제서야 주아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장무기는 큰 소리로 물었다.

"주아, 상처가 어느 정도요? 내상은 입지 않았소?"

"두 손목뼈가 부러졌어요. 가슴과 배는 다치지 않은 것 같아요."

"내장을 안 다쳤다니 다행이요. 왼손 팔꿈치로 오른쪽 어깨 밑에 삼촌오분(三寸五分) 밑을 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손 팔꿈치로 왼쪽 어깨 밑의 삼촌오분 되는 부위를 치시요. 그럼 고통이 좀 덜할 겁니다."

주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멸절사태가 그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장무기를 노려보았기 때문이다.

"이 녀석은 그래도 의술에 대해 꽤 정통한데 네 이름이 뭐냐?"

"소인의 성은 증(曾)가고 이름은 아우(兒牛)입니다."

"사부가 누구냐?"

"제 사부님은 어느 작은 촌마을에 이름없는 의사입니다. 말씀드려도 모를 겁니다."

멸절사태도 흥! 하고 콧방귀를 날리고는 더 이상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날이 밝아서야 걸음을 멈추고는 쉬면서 간단히 요기를 채웠다.

주지약은 차디찬 빵 몇개를 갖고 주아와 장무기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녀는 빵을 장무기에게 건네주면서 그에게 눈짓을 보내고 고개를 돌렸다. 장무기는 고마운 마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한수주중(漢水舟中)에서 저에게 밥을 먹여 준 은덕, 정말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말에 주지약은 깜짝 놀랐다. 다시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한참을 쳐다본 그녀는 갑자기 아! 하고 소리치더니, 놀라고도 반가운 기색을 하며 말했다.

"당신은.....! 당신은.....!"

장무기는 그녀가 드디어 자기를 알아 보았구나 하고 생각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주지약이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몸 속의 한독은이제 다 나았습니까?"

장무기도 역시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미 다 고쳤습니다."

주지약의 얼굴에 홍조가 떠오르며 일행 쪽으로 걸어갔다.

"지금 저 여자와 무슨 말을 했죠?"

주아가 갑자기 물어 왔다. 주아는 장무기의 뒤편에 누워 있으면서 주지약의 표정을 모두 보고 있었던 것이다.

장무기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주아는 노기띤 음성으로 말했다.

"앞에 두고 거짓말을 하다니!"

그들은 세 시간 남짓 쉬고 나서 다시 길을 재촉했다. 그들은 서쪽을 향해 급하게 삼 일을 또 달려갔다. 필시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쉴 때나 걸을 때나 필요없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두 벙어리처럼 묵묵히 길만 재촉하였다.

장무기도 이때 다리가 다 나아 언제든지 자기가 걷고 싶으면 걸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았다. 어느 땐 일부러 신음소리까지 냈다. 멸절사태나 그 제자들이 자기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하려고 한 것이다. 기회만 오며 주아를 데리

고 도망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이 달리고 있는 곳은 망망한 평야라 도망쳐 봤자 멀리가지 못하고 즉시 그들에게 붙잡힐 것이 뻔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장무기가 주아의 손목뼈를 접골해 주자, 멸절사태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노려 보았으나 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다.

낮에 쉬거나 밤에 잠을 잘 때나 장무기는 항상 주지약을 쳐다보곤 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자기의 근처에 오지를 않았다.

다시 이틀이 지났다. 이날 그들은 오후가 되자 큰 사막에까지 이르렀다. 눈은 이미 다 녹아 그들의 썰매는 모래 위를 달리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자 갑자기 서쪽에서 말굽소리가 들려왔다.

멸절사태가 손짓을 하자 제자들은 즉시 엎드려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이 검으로 장무기와 주아의 등을 노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미파에서 적을 습격하려고 할 때, 장무기가 소리쳐 적에게 알리기라도 하면 즉시 목숨을 앗아 버리려는 것이 분명하다.

말발굽소리는 급하게 들려왔으나 한참을 지나서야 가까이 접근해 왔다. 말에 탄 사람이 갑자기 모래 위의 발자국을 보자 말을 세우고 자세히 살펴 보았다.

이때 기다렸던 아미파는 정현이 신호를 하자 수십 명의 제자들이 뛰쳐나와 그들을 포위했다. 네 필의 말안장에 앉은 자들은 모두 백포를 입고 있었고, 그들의 가슴엔 붉은 불꽃이 새겨져 있었다.

"마교의 무리구나!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정현이 소리를 쳤다.

네 사람은 갑작스레 포위를 당하자 병기를 뽑아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동북쪽으로 뚫고 나가려 했다. 아미파는 그들보다 훨씬 많았지만 이다제승(而多制勝)의 비겁한 짓은 하지 않았다. 정현의 손짓에 네 명의 남녀 제자가 그들을 막고 나섰다.

그 네 명의 마교인은 칼등이 굽어진 관도(寬刀)를 휘두르며 사납게 포위망을 뚫고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장문인을 따라 멀리 서역까지 온 제자들은 모두 멸절사태가 고르고 고른 정예들이 아닌가! 단 삼 회합(三會合)도 지나지 않아 세 명의 마교인은 칼에 찔려 모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머지 한 명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도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와 상대하는 아미파 남제자의 어깨를 찔러 쓰러뜨리고, 구멍이 뚫리자 쏜살같이 달아나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십여장을 달아났으나, 아미파에서 서열로 세째가는 정허사태의 보법은 정말 날렵했다. 그는 어느새 그 자의 뒤까지 쫓아가 불진을 뻗어 그 자의 왼쪽다리를 잡으며 외쳤다.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그 자가 고개를 돌려 방어 자세를 취하자, 갑자기 불진의 방향이 바뀌면서 싹! 하는 소리와 동시에 그 자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그는 일 초에 급소를 맞은 것이다. 불진수엔 웅후한 내력이 들어 있었다. 그는 즉시 말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그 자는 무척 억셌다. 중상을 입고도 적과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두 팔을 벌려 잽싸게 정허를 덮쳤다. 정허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불진으로 다시 그 자의 가슴을 명중시켰다.

바로 이때, 그 자의 말안장 앞에 걸려 있던 세장에서 세 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개를 펼치며 날았다.

"무슨 수작이냐?"

하고 정현이 소리치며 옷소매를 털자 세 개의 철연자(철蓮子)가 각기 세 마리의 비둘기를 향해 날아가자 두 마리의 비둘기가 즉시 떨어졌다. 그러나 한 개는 백포교인이 던진 암기를 맞아 방향을 잃었다. 나머지 흰 비둘기 한 마리는 구름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었다. 아미 제자들은 서로 다투어 암기를 발사했으나 맞추지

못하고 흰 비둘기는 동북쪽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다. 정현이 손짓을 하자 남자 제자들이 네 명의 백포객(白袍客)을 그녀의 앞에 끌어와 세웠다.

멸절사태는 그저 당당한 자세로 시종 구경만 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내심 생각했다.

'멸절사태가 직접 주아에게 공격을 한 것을 보면, 주아를 무척 높이 본 것이다. 아마 정민군의 팔이 부러진 탓도 있겠지. 그러나 이 늙은 여승이 저 흰 비둘기를 맞추는 것은 조금도 힘들지 않을 텐데. 어째서 꼼짝도 하지 않고 제자들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까? 마교의 네 명을 상대하는 것에 멸절사태 자신이 다시 나서는 것은 체면이 허락하지 않은 모양이지?'

여제자 한 명이 땅에 떨어진 비둘기 두 마리를 부위 비둘기다리에 매달린 죽통(竹筒)에서 도르르 말린 쪽지를 꺼내어 정현에게 바쳤다.

정현이 종이를 풀어 보며 말했다.

"사부님, 마교에서 이미 우리가 광명정을 위공한다는 것을 알고 천응교에 연락을 하는 쪽지입니다."

그녀는 또 하나의 쪽지를 보며 다시 말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한 마리를 놓쳤군요."

멸절사태가 냉랭한 음성으로 말했다.

"아니다. 군마들이 모두 모였으니 일격에 섬멸하는 것이 더욱 통쾌할 거야. 우리가 귀찮게 사방으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을 테니."

"네, 그렇습니다."

장무기는 천응교에 연락을 하는 것이라는 말에 내심 놀랐다.

'천응교주는 바로 내 외할아버지인데, 그분도 오실지 모르겠군. 흥, 이 늙은 여승아.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만 내 외할아버지의 적수가 되지는 못할 걸!'

그는 기회를 노려 주아를 데리고 도망칠 생각이었지만, 좋은 구경거리가 있을 것 같아 달아날 생각을 고쳐 먹었다.

정현이 네 명의 백포인을 향해 외쳤다.

"또 어떤 사람들을 불러들였느냐? 어떻게 육대파가 공격한다는 소식을 알았지?"

백포인들은 앙천참소(仰天慘笑)를 하더니 갑자기 일시에 땅에 쓰러지며꼼짝도 하지 않았다. 모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두 남제자가 살펴보니, 그들의 얼굴엔 괴이한 웃음이 지어져 있고 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다.

"앗! 네 명 모두 죽었습니다!"

정현이 노기 띤 음성을 말했다.

"이 요인들이 독을 삼키고 자진했구나. 무슨 독약인데 이렇게 빨리 발작을 했지?"

정허가 입을 열었다.

"몸 수색을 해봐라!"

"옛!"

네 명의 제자가 각기 시체의 주머니를 뒤졌다.

주지약이 갑자기 외쳤다.

"여러 사형들, 조심 하세요! 어쩌면 주머니에 독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네 명은깜짝 놀라 병기를 꺼내 시체의 옷주머니를 찢었다. 과연 주머니가 꿈틀거리더니 시체마다 주머니에 작은 독사 두 마리씩이 숨겨져 있었다. 주머니를 뒤졌다간 즉시 독사에 물렸을 것이다. 그들은 깜짝 놀라 마교 교도들의 악독함에 치를 떨었다.

멸절사태가 냉랭하게 말했다.

"우린 중토에서 서쪽으로 떠난 날부터 오늘 처음 마교도들과 부딪쳤는데, 이 네 명은 무명 소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악랄한데 그들의 주인들은 어떠 하겠느냐? 정허야, 네 나이도 이

젠 젊지 않은데, 일처리를 하는 게 어찌 그 모양이냐? 지약보다도 섬세하지 못하고!"

정현은 얼굴이 빨개지며 허리 굽혀 그의 꾸지람을 들었다.

장무기도 정현의 육대문파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무당파도 안에 끼었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이경이 되자 갑자기 땡그랑땡그랑 하는 낙타소리가 들려오더니, 낙타 한 마리가 멀리서 달려오고 있었다. 잠이 들어 있었으나 그 소리에 모두 깨어났다. 그런데, 땡그랑소리는 서남쪽에서 들려왔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시 동북쪽에서 들려와 귀신에 홀린 듯했다. 아무리 빠른 낙타라 할지라도 갑자기 동쪽, 서쪽 북쪽,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사방에 낙타가 있어 차례로 방울을 울리는 소리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방울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점점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러자 갑자기 동쪽에서 방울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꼭 그 낙타가 새와 같이 날아간 듯했다. 아미파 사람들은 한 번도 사막에 온 적이 없어 괴이한 방울소리에 모두 겁에 질려 있었다.

멸절사태가 큰 소리로 말했다.

"어느 곳의 고인(高人)이신지 몸을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귀신 같은 행동을 하다니, 체통이 서지 않는군요!"

그의 말소리는 멀리까지 퍼져 나갔다. 그러자 낙타의 방울소리는 다시 울리지 않았다. 멸절사태가 두려워 감히 그런것을 더 이상 할 용기가 없는 듯했다. 이튿 날까지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밤이 되자 방울소리는 다시 울렸다. 여전히 동쪽이나 서쪽 멀리인 듯 했지만, 멸절사태가 다시 질책을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가볍고도 힘차게 울렸다. 어느 땐 낙타가 갑자기 성을 내고 달려 온 듯하다가는 갑자기 또 조용히 사라지고, 또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모두 머리가 띵할 정도였다.

장무기는 주아와 서로 마주 보며 웃음을 나누었다. 낙타의 방울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울리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마교의 고수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아미파에서 속수무책 정신을 못 차리게 되다니 웃음이 나왔다.

멸절사태가 손을 휘두르자 제자들은 모두 잠을 청하고, 더 이상 종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종소리는 별짓을 다하며 울리더니, 아미파 제자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자 그들도 이내 조용해지고 말았다. 멸절사태의 처변불경(處變不驚)의 방법이 효력을 본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모두 옷과 담요를 정리하고 나서 길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두 남제자가 약속이나 한듯이 놀라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바로 옆에 한 사람이 누워 드르릉거리며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저분한 담요 한 장을 감싸고 있었다. 몸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엉덩이를 높이 쳐들고 코를 요란스럽게 골고 있는 것이었다.

아미파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젯밤 차례로 보초를 서 왔는데, 언제 사람이 들어왔단 말인가! 멸절사태의 신공은 또 어떠한가! 풀잎 움직이는 소리마저도 그의 귀를 빠져나갈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늘어난 것을 이제서야 알다니, 모두들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두 제자가 검을 들고 그 자의 옆으로 가 외쳤다.

"넌 누구냐! 무슨 잔재주를 부리는 거냐?"

그 자는 여전히 코를 골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 중 한 명이 검으로 담요를 재쳐 보자, 안에는 청색 줄무늬에 백색장포를 입은 남자가 모래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다.

정허는 이 자가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상당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당신은 뉘시요?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소?"

그 자는 벼락을 치는 듯이 코를 더 심하게 골면서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다.

정허는 이 자의 무례함에 울화가 치밀어 불진을 휘둘러 높이 치켜들고는, 그 자의 엉덩이를 향해 내리쳤다. 그러자 갑자기 휙! 하는 소리와 동시에 어느새 정허의 불진이 꼿꼿이 하늘로 향해 날으는 것이었다. 십여 장 높이로 날았다. 모두들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다.

멸절사태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정허야, 조심해라!"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자는 이미 수장 밖을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두 팔엔 정허가 안겨 있는 것이었다. 정현과 또 한 명의 장여제자(長女弟子) 소몽청(笑夢淸)이 병기를 들고 진기를 모아 뒤를 쫓았다. 그러나 그 남자의 신법이 얼마나 빠른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러자 멸절사태가 휘파람소리를 내며 의천보검을 들고 뒤를 쫓았다.

아미파 제자들은 정허가 그 자에게 잡힌 것을 보고 죽은 듯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아미 장문의 신수(身手)는 과연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그는 순식간에 정현과 소몽청을 제치고 청광이 번뜩이는 검을 뽑아 그 자의 등을 찔렀다. 그러나 그 자의 빠른 신법에 그를 찌르지 못했다. 그 남자는 정허를 안고 있었으나 그의 속도는 조금도 멸절사태에게 뒤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무공을 자랑하려고 하는지 멀리 도망가지 않고 여럿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멸절사태도 계속 그 자를 찔렀으나, 한번도 그를 명중시키지는 못했다. 이때 팍! 소리와 동시에 정허의 불진이 땅에 떨어졌다. 뒤쫓아간 정현과 소몽청은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며 수십 장 거리나 되는 곳에서 두 고수의 추격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사막이었으나 두 사람이 달려도 조금도 먼지가 날리지 않았다. 아미파 제자들은 정허가 그 자에게 잡힌 것에 놀라 꼼짝하지도

않고 있었지만, 그 자를 앞에서 막고 싶었으나 사부의 위명(威名)을 생각해서 누구도 감히 돕지는 못했다. 여럿이 한 명을 상대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것은 큰 웃음거리가 아닌가! 그들은 마음을 졸이며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저 사부님이 한 발만 더 빨리 가서 그 자의 등을 찌르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잠깐 사이에 그들은 벌써 세 바퀴나 돌았다. 그러나 멸절사태가 한 발만 더 앞서면 그 자를 찌를 수 있는데, 시종 그 한 발짝이 차이가 났다. 그 자가 물론 먼저 뛰었다. 하지만 그 자는 한 사람을 안고 있어 무개가 백여 근이나 도 무겁지 않은가! 두 사람의 경공이 막상막하라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멸절사태는 그 자에게 이미 한 수 지고 있었다. 네 바퀴 째 돌려고 했을 때, 그 자는 갑자기 몸을 돌려 정허를 멸절사태를 향해 내팽개쳤다. 멸절사태는 광풍이 자기 앞으로 몰아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자의 힘은 정말 당당했다. 멸절사태는 어쩔 수 없이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멈춰서 가볍게 정허를 받았다.

"하하하! 육대문파에서 광명정을 위공한다지만,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걸!"

그러면서 북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었다. 처음에 멸절사태와 대결을 벌일 땐 먼지가 날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황사가 사방으로 휘날리며 바람을 타고 북쪽으로 날렸다. 그 위맹한 성세는 꼭 수십 장 길이나 되는 큰 황용과도 같아, 즉시 그의 그림자를 막아 버리는 것이었다.

이미 제자들이 사부 옆으로 달려가 보니, 멸절사태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허의 얼굴은 누런 초와 같았고, 그의 목에는 두 개의 이빨자국이 나 있었으며, 피로 물든 채 숨이 끊겨 있었다. 바로 그 자에게 물려 죽은 것이었다. 여제자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멸절사태가 크게 외쳤다.

"뭘 우느냐! 매장하지 않고!"

모두는 울음을 그치고 바로 그 자리에 구덩이를 파자 정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부님, 이 요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꼭 기억했다가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멸절사태는 냉랭한 음성으로 말한다.

"사람의 피를 빨아 먹는 잔인한 행동으로 봐 마교 사왕(四王) 중 나인 청익복왕(靑翌福王)이 틀림없어. 그의 경공이 천하무쌍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어왔지만, 과연 명불허전(名不虛傳)이군. 나보다도 훨씬 뛰어나."

장무기는 멸절사태에게 통한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가 큰 변을 당하고 나서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여전히 침착하게 적을 칭찬하자, 역시 일파의 장문다운 풍범이라고 생각하며 내심 그에게 탄복했다.

정민군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 자가 사부님과 맞상대하지 못하고 그저 도망만 쳤는데, 어찌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짝! 갑자기 멸절사태는 정민군의 뺨을 때리며 노기띤 음성으로 말했다.

"이 사부가 그를 따라잡지 못하고 정허를 구해 내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자에게 진 것이다! 승부란 척 보면 아는 것이야. 그래, 영웅이란 칭호는 자기가 자기에게 부르는 것인 줄 아느냐?"

정민군은 한쪽 얼굴이 금방 붉게 부어오르며 허리 굽혀 대답했다.

"제자가 잘못했습니다. 사부님의 교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심 투덜거렸다.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고 공연히 나한테 분풀이를 하다니! 재수

가 없군.'

"사부님, 청익복왕이라는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멸절사태는 손을 저으며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혼자 앞으로 걸어갔다. 제자들은 대사저가 무안을 당한 것을 보고 감히 누구도 더 이상 묻지를 못했다. 일행은 아무 말도 없이 밤이 될 때까지 걸어와 불을 피우고 모래 언덕에서 잠을 청했다.

멸절사태는 불꽃을 바라보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자세도 꼭 석상(石像)과 같았다. 제자들은 사부님이 잠을 자지 않자 누구도 잠에 들지 못했다. 그렇게 멍하니 한 시간 정도 앉아있던 멸절사태는 갑자기 쌍장을 뻗었다. 순간 맹렬한 경풍이 덮치며 활활 타오르던 불이 모두 꺼지고 말았다. 차가운 달빛이 머리에 비치고 있었다.

장무기도 마음 속으로 연민의 정이 우러났다.

'위세가 당당한 아미파가 과연 서역에까지 와서 일패도지(一敗塗地)를 당하고 모두 섬멸당할 것이란 말인가! 주 낭자는 내가 꼭 구해 내야해. 그렇지만 마교 인물들이 이렇게 무서운 인물들인데, 내가 무슨 재주로 그녀를 구출하지?'

갑자기 멸절사태의 외침이 들려왔다.

"요화(妖火)를 끌고 이 마화(魔火)를 멸망시키리라!"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다시 제자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마교에서는 불을 성(聖)으로 알고 불을 신을 섬기듯 모시고 있지. 그런데 마교의 삼십 삼대(三十三代) 교주 양정천(陽頂天)이 죽은 후론 교주가 없는데, 좌우(左右) 광명사자(光明使者) 사대호교법왕 오산인(五散人), 그리고 금, 목, 화, 수, 토 오기장기사 모두 교주의 자를 탐내고 자기네들끼리 살상을 했다. 그 때부터 마교는 쇠퇴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육대문파가 흥하기 시작했지. 그건 바로 요사수(妖邪守)가 멸망할 때가 온 징조야. 그러나 마교 안에서 내분이 일지 않는한 그 요사한 무리들을 멸

망시키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야."

장무기는 어려서부터 마교란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의 부모들은 마교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가 물어 볼 때마다 부모님들은 좋아하지 않았었다. 의부님께 물어봐도 멍청히 입 다물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화를 내곤 했다. 그래서 그는 마교가 도대체 뭔지 알지를 못했다. 태사부 장삼봉과 같이 살면서도 태사부께서도 마교를 매우 미워하며 절대로 마교와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훈계를 했었다. 그러나 나중에 장무기가 만난 호청우, 왕난고, 상우춘, 서달, 주원장은 모두 호기있는 대장부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마교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의를 지키며 악해를 저지르지도 않았다. 다만 그들의 행동이 괴상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른 것뿐이었다.

지금 멸절사태가 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듣고 있었다.

"마교의 역대 교주들은 모두 성화령을 대를 물려 신물(信物)로 삼았지. 그런데 삼십 일 대 교주의 수중에 들어오자 하늘이 노하여서인지 성화령을 그만 잃어 버린 거야. 그러니 삼십 이대 , 삼십 삼 대 교주들은 권력은 있지만 성화령이 없으니 교주 노릇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양정천이 갑자기 죽은 것도 사실 독살당한 것인지 누구에게 암살을 당한 것인지 모르지만,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거야. 그런데, 마교에는 교주 자리에 오를 자격이 있는 쟁쟁한 실력자들이 많았지. 그들은 서로 암투를 벌여 그만 내분이 터진 거야. 그 때까지도 교주를 추대하지 못한 거지. 우리가 오늘 만난자도 바로 교주 자리를 노리던 자이지. 바로 사대호교법왕 중의 하나인 청익복왕 위일소(偉一笑)란 자야."

아미파 제자들은 누구도 청익복왕 위일소란 이름을 들어 보지 못했으나, 누구도 묻지를 않았다.

멸절사태는 다시 말을 이어 나갔다.

"이 사람은 절대로 중원에 발을 들여 놓지 않거니와 그의 행동은 또 귀신과 같아, 그 자의 무공은 매우 고강하지만 중원에선 조금도 이름을 날리지 못한 거야. 그러나 백미응왕(白眉應王) 은천정이나 금모사왕 사손은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거다."

장무기는 내심 뜨끔했으나 주아는 가볍게 놀라고 있었다.

"백미응왕, 자삼용왕, 금모사왕 청익복왕 등 네 사람이 바로 마교 사왕이지. 청익복왕의 서열이 맨 나중이지만 그의 실력은 오늘 너희들이 직접 봤으니 알 거야. 그러니 그 자삼, 백미, 금모 그 자들은 보지 못했어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금모사왕은 크게 상심하고 그만 미치광이가 되어 이십여 년 전 갑자기 나타나 무고한 인명을 마구 살상하더니 끝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무림의 일대 수수께끼가 되어 버렸다. 은천정은 교주에 오르지 못하자 그만 울화가 치밀어 따로 천응교를 창건하여 교주의 자리에 오른 거야. 그러나 내가 알기론 은천정이 마교를 배반하고 광명정과 갈라섰지만, 광명정이 위험에 닥칠 때면 여전히 천응교에 도움을 청했지."

잠시 후 다시 멸절사태가 말했다.

"우리 육대문파에서 이번에 광명정을 공격하는 일은 꼭 성공을 거두어야 해. 요사들이 모두 합심을 한다 해도 절대로 두려울 것이 없어. 그러나 쌍방이 부딪치면 많은 사상자가 생길 것이니, 모두 미리 죽을 각오를 하고 요행을 바라거나 겁을 먹지 말아라. 절대로 아미파의 위명을 시추시켜서는 안된다."

제자들이 모두 일어나 허리를 굽혀 대답했다.

"그리고 무공의 강약은 천부적인 자질과 기회로 인하여 얻어지는 법! 절대로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허는 비록 조금도 힘써 보지도 못하고 기습에 말려 흡혈귀에게 당했지만, 누구도 그를 비웃진 않을 것이야. 우리가 평소 무공을 익혀온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약자를 돕고 요사를 소멸시키려고 한것이

아니더냐? 오늘 제일 먼저 정허가 죽었지만 두 번째는 어쩌면 이 사부가 될지도 몰라. 소림, 무당, 아미, 곤륜, 공동, 화산 육대파에서, 이번 마교를 소멸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아미파에선 길흉화복(吉凶禍福) 그 따위는 잊어버린 지 벌써 오래다."

다시 멸절사태가 말했다.

"속담에 문 밖으로 천 개의 광이 나간 집안은 꼭 흥할 것이란 말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보다 먼저 죽는 법이요. 손자가 생기면 할아버지는 죽는 것이 이치가 아니냐? 자손들만 남아 있으면 그 집에 천 명, 백 명이 죽는다 해도 여전히 흥할 수 있을 것이며, 제일 두려운 것은 너희들이 모두 죽고 늙은 중인 나 혼자만 외롭게 살아 남는 것이야."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해도 애석할 것은 없다. 백 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 아미파란 것이 있었느냐? 그러니 우리 모두 훌륭하게 전사하여 아미파가 전부 멸망한다 해도 무슨 애석함이 있겠느냐?"

아미파 제자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피가 용솟음치는 듯 했다. 그들은 병기를 뽑아 들고 큰소리로 외쳤다.

"제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요마사도와 싸울 것입니다."

멸절사태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훌륭하구나! 이제 그만 쉬어라."

장무기는 내심 느끼는 것이 있었다.

'아미파 제자들 대부분이 연약한 여자들인데도 목숨을 내 던지고 영풍호기(英風豪氣)를 나타내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미파가 육대문파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우연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무공으로 이길 수 있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니 옛날 정가가 진나라를 치러 가던 기개와도 같구나!'

멸절사태는 다시 말했다.

"청익복왕이 왔다면 백미응왕과 금모사왕도 필시 올 것이고, 자심용왕과 오산인, 그리고 오기장기사도 물론 올 것이다. 우리는 원래 육대파의 힘을 모아 먼저 광명정의 좌사 양소를 물리치고 나서 나머지 요사들을 소탕하려고 한 것인데, 화산파의 신기선생(神璣先生) 선우(鮮于) 장문께서 이번 일을 잘못 예상하고 완전히 판단 착오를 일으킬 줄이야!"

정현이 물었다.

"그 자심용왕은 또 어떤 악독한 마두입니까?"

멸절사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자심용왕의 악적(惡跡)은 별로 없어서 나도 그저 그의 이름을 소문에 들은 것뿐이야. 듣자 하니 그 사람은 교주가 되지 못하자 마교와 내왕을 끊고 해외로 떠났다는 것 같더군. 이번에 그가 참전하지 못한다면 정말 천만다행이야.마교 사왕 중에서 그 자가 우두머리 격이지. 두말할 필요없이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뻔하지 않느냐? 마교엔 광명사자 양소 외에 또 한 명이 있지. 역대 마교가 전해 오면서 필시 좌우 광명사자가 있을 것이야. 그들의 지위는 사대법왕보다 위에 있지. 그러나 무림에서 아무도 그 자를 몰라. 소림 공지대사와 무당의 송원교, 송대협 같은분들도 대단한 박문광견(博聞廣見) 지사들이지만 그 두 분도 모르고 있지. 우리가 양소와 전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야. 무공으로 승부가 판가름날 것이니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 그 광명우사가 숨어서 암기를 쓴다면 정말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지."

아미파 제자들은 모골이 송연해져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곤 했다. 갑자기 광명우사나 자심용왕이 몰래 뒤에 와서 기습을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차가운 달빛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모두 창백해져 있었다.

멸절사태가 다시 말했다.

"양소가 너희 고홍자(孤鴻子) 사백을 죽였고, 다시 기효부를 죽

였고, 위일소는 정허를 죽였으니, 아미파와 마교의 이 원한은 어느 한 쪽이 쓰러지지 않고서는 풀지를 못할 것이다. 본파는 곽조사(郭祖師)께서 창파하신 이후로 장문직은 여자가 맡는 것은 관례로 해왔었다. 남자에게만 그런 자격이 없을 뿐아니라 시집갔던 여자도 절대로 장문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오늘 분파에 이런 존망(存亡)의 위기가 닥쳐 왔는데, 어떻게 그런 관례만 지켜 가겠느냐! 이번 싸움에서 누구든 큰 공을 세우는 자라면 그가 남자든 결혼한 여자든 모두 그럴 자격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사부께서 뒷일을 걱정하시고 문파를 이어나갈 후계자까지 말씀하자, 이번 싸움에서 중원으로 살아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두들 불길한 예감마저 가졌다.

하! 하! 하!.....!

멸절사태의 긴 웃음 소리가 멀리 퍼져 나가자, 제자들은 모두 서로 마주 보고 놀라며 마음속으로 섬 쓺하는 느낌이 들었다.

멸절사태는 옷소매를 흔들며 외쳤다.

"이제 모두 자거라!"

정현은 평소와 같이 제자들을 골라 보초를 서게 했다.

멸절사태가 말했다.

"보초를 세울 필요없다!"

정현은 어리둥절했으나, 이내 뜻을 알아차렸다. 만약 청익복왕 같은 고수가 기습해 온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발각하겠는가. 보초를 세워 봤자 헛수고가 아닌가!

그날 밤 아미파의 방비는 겉으로는 허술한 것 같았으나 속으로는 긴밀해, 뜻밖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 제 3 권 5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3 권

제 6 장 육대문파와 마교(魔敎)의 혈전(血戰)

이튿날도 행군은 계속되었다. 서쪽으로 백 리를 벗어나자 어느덧 정오가 되었다. 엄동설한인데도 해가 중천에서 내리쬐자 후덥지근한 느낌을 주었다. 이때 서북방에서 병기가 부딪치는 금속성이 어렴풋이 들려왔다. 간간이 고함소리와 기합소리도 섞여 있었다. 정현사태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제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속력을 내어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질주해 갔다.

얼마 후, 한창 어우려져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몇몇 사람의 모습이 시야에 잡혔다. 흰 도포를 입은 도인 셋이 무기를 휘두르며 한 중년 사나이를 협공하고 있었다. 세 도인의 소매자락에 모두 붉은 불길이 수놓아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마교의 인물임이 분명했다. 중년 사나이는 민첩한 신법을 바탕으로 하여 눈부신 검광을 뿌리며 제법 여유있게 세 도인의 협공을 막아내고 있었다.

장무기는 다리의 상처가 이미 완쾌되었지만, 여전히 걷지를 못하는 척하고 썰매에 앉아 있었다. 그것은 아미파에서 자기한테 신경쓰지 않는 틈을 노려 주아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앞에 아미파의 제자 한 명이 앞으로 가로막고 있어, 장무기는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돌려 한창 벌어지고 있는 혈투를 보고 있었다. 중년 남자의 칼놀림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중년 남자가 갑자기 잽싸게 몸을 돌리며 소리를 외치자 동시에 팍! 하는 소리와 그의 검은 이미 마교인의 흉부를 관통시킨 것이다. 너무나 순식간의 일이었다. 아미파 제자들은 모두 갈채를 보냈다.

장무기는 자신도 모르게 앗! 하고 경악의 소리가 튀어나왔다. 이 순수추주(順手推舟)의 초식은 무당검법의 절수가 아니던가! 이 중년 남자는 무당육협 은이정이었던 것이다.

아미파 제자들은 모두 멀리서 관전만 하면서 그 누구도 그들과 대적하려고 나서지를 않았다. 두 마교도는 동료 중 한 명이 이미 쓰러지고 거기다 상대에게는 후원자까지 오게 되자 내심 겁을 먹고 휙! 하고 휘파람소리를 내더니 각기 남북 방향으로 갈라져 도망치는 것이었다. 은이정은 날으는 듯 남쪽으로 달아나는 놈을 쫓았다. 그는 어느새 마교도의 뒤를 바짝 달라붙게 됐다. 그의 신법은 정말 번개와 같았다. 달아나던 마교도는 그가 바싹 달라붙자, 몸을 돌려 미친듯이 칼을 휘둘렀다. 죽을 각오를 무릅쓰고 덤벼드는 듯 싶었다.

아미파 제자들은 은이정이 달아난 두 마교인을 모두 처치하진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대 방향으로 달아난 마교인의 무공도 무시 못하거니와 도망치는 그 자의 신법도 점점 빨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은이정이 앞의 적을 해치우고 나서 다시 그 자를 쫓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아미파와 마교는 서로 앙숙지간이었지만 아미제자들은 정현사태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감히 누구도 달아나는 마교인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미파의 여제자들은 모두 기효부와는 절친한 사이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마교의 양소가 애당초 기효부에게 간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이 무당육협은 이미 아미파의 사위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은이정을 돕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 사실 정현사태도 그를 도와 달아나는 놈을 잡고 싶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무당육협하면 무림에서 누구나 다 존경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가 무림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보아 그의 허락도 없이 돕는다는 것은 그

에게 무례를 저지르는 것일지도 몰랐다. 정현사태는 내심 저 마교인을 달아나게 하더라도 무당육협에게 무례를 저지르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무 명령도 하지 않았다.

바로 이때 갑자기 눈앞에 청광이 번뜩이더니, 달아나던 마교인이 갑자기 몸을 비틀거리며 앞으로 몇 발짝 더 달아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그 자의 십여 장 앞에 은이정의 장검이 모래에 꽂히는 것이었다. 은이정은 자기앞의 마교인과 싸우면서 어느새 반대쪽으로 달아나는 마교인을 향해 검을 날렸던 것이다. 그런데 그걸 보던 아미파 제자들이 다시 은이정을 쳐다봤을 때는 나머지 마교인마저 쓰러져 있었다. 누구도 그가 무슨 수법으로 그 자를 해치웠는지 보지를 못했다. 아미파 제자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갈채를 보냈다. 멸절사태마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의 탄식은 아마 무당파엔 저렇게 훌륭한 제자가 있는데, 아미파엔 그럴 만한 자 하나 없다는 탄식인 것 같았다. 또한 효부(曉芙) 그녀가 너무 박복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저런 훌륭한 사람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마교의 음도들에게 당하다니, 애석함에 탄식하는지도 몰랐다. 멸절사태는 기효부가 절대로 자신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양소에게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무기는 입에서 육사숙이라는 외침이 튀어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사백, 사숙 중에서도 육사숙은 자기 부친과 제일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가! 육사숙과 떨어진 지 구 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동안 육사숙의 얼굴도 많이 창로해 보였다. 기효부의 일로 많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장무기는 육사숙을 불러 인사를 드리려고 했으나 이내 거두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켰다가 뒤에 무슨 후환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었다. 주지약만큼은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있었으나, 아직 누구한테도 말을 한 것 같진 않았다.

은이정은 멸절사태를 향해 허리를 굽혀 공손히 절을 하며 말을 했다.

"저희 대사형님께서 사제들, 그리고 제 삼 대 제자들까지 해서 모두 설흔 두 명을 인솔하시고 일선협(一線協)으로 떠나셨습니다. 후배는 대사형님의 명령을 받고 귀파를 영접하러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멸절사태가 다시 말했다.

"고맙습니다. 무당파가 먼저 도착했군요. 그런데 그 요인들과 무슨 접전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교의 목, 화(木,火) 양기와 세 번이나 부딪쳐 그놈들 몇몇을 죽이긴 했으나, 저의 칠사제 막성곡이 그만 조금 다쳤습니다."

멸절사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무당오협들의 실력으로 마교의 장기사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칠협 막성곡이 다쳤다면, 과연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잔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귀파에선 광명정에 있는 적의 확실한 세력을 알고 있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천응교와 모든 지파가 광명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삼용왕, 청익복왕도 거기에 왔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멸절사태는 그 말에 크게 놀라는 듯했다.

"자삼용왕까지도?"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긴가를 나누면서 앞으로 걸어갔으나, 뒤에 따라가던 제자들은 누구도 감히 앞으로 가 들으려고 하지 못했다.

한참 후, 은이정이 손을 들어 화산파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떠나려고 인사를 하자 정현사태가 말을 건넸다.

"은육협님, 정신없이 뛰어다니시느라 배도 고프실 텐데, 우리와 음식을 좀 드시고 떠나시지요?"

"그러시다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미파 제자들은 모두 행낭에서 먹을것을 꺼내고 모래 위에다 솥을 거는 등 부산을 떨었다. 아미파 제자들은 사실 식사나 모든 면에서 매우 검소했다. 그러나 기효부를 생각해서인지 은이정을 대접하는 것에 매우 친절했다.

아무 말 없이 구경만 하고 있던 주아가 갑자기 말했다.

"은육협님, 어느 한 사람의 소식을 좀 알려고 하는데, 물어 봐도 괜찮겠습니까?"

은이정은 국그릇을 안은 채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무엇을 알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아는 것이라면 알려드리겠소."

무척 자상하고도 겸손한 태도였다.

"저는 사실 아미파 제자가 아니고 이들에게 붙들려 온 사람이예요."

사실 은이정은 그녀를 아미파 제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 당황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즉시 매우 솔직한 아가씨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마교에 속하는 아가씨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쪽입니다."

은이정은 아미파를 존중하는 뜻에서 그녀에게 자세히 묻지 않고 정현사태에게 눈짓을 했다.

"은육협에게 무엇을 알려고 하는 거지?"

"저는 그저 은육협님의 사형이신 장취산 장오협께서도 일선협에 가셨는지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물음에 은이정과 장무기 모두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은이정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가씨께선 무슨 이유로 우리 사형의 소식을 알려고 합니까?"

주아는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저는 사실 그분의 자제분이신 장무기 공자님께서도 거기에 가셨는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무기는 정말 크게 놀랐다. 주아가 이미 자기의 신분을 알고 지금 그것을 폭로하려고 하는 줄만 알았다.
은이정은 다그쳤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오? 장취산 사형님께서는 이미 십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가씨께선 그것도 모르고 있었소?"
그 말에 주아는 몸을 일으키며 탄식을 했다.
"그럼 그 자제분은 이미 고아가 된 지 오래 됐겠군요?"
"아가씨, 내 조카 장무기를 잘 아시오?"
"오 년 전 접곡의선(蝶谷醫仙) 호청우(胡青牛)의 집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통 소식을 알 수가 없군요."
"나도 가사(家師)님의 분부를 받고 접곡에 수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땐 이미 의선 호청우 부부가 살해된 뒤라 무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잇! 하고 탄식을 하며 말했다.
"그렇게 될 줄이야!"
그 말에 주아는 궁금해 급하게 물었다.
"왜 그러세요?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있나요?"
"낭자께선 어째서 내 조카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무기와는 은인 관계요, 아니면 원수지간이요?"
주아는 한참 동안 먼곳만 바라보더니,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저는 사실 그와 영사도(靈蛇島)로 가려고 했어요."
은이정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다시 물었다.
"영사도? 그렇다면 금화파파(金花婆婆)와 은엽선생(銀葉先生)은 아가씨와 무슨 사이요?"

주아는 그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같이 가는 것은 고사하고 나를 때리고 욕하고, 그것도 모자라 내 손마저 깨물어 피가 줄줄 흐르게까지 했어요."

그녀는 자기의 손을 어루만지며 다시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난 아직 그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오로지 그를 영사도로 데리고 가서 파파께 그가 당한 현명신장(玄冥神掌)의 음독을 제거해 주게 하려고 한 것인데, 내 호의를 모르고 자기를 해치려는 줄 알고 오해를 하다니.....!"

장무기의 심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착잡했다. 이제서야 장무기는 접곡에서 자기를 붙잡았던 아리 아가씨가 바로 눈앞의 주아였었던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주아가 매일 잊지 못하던 그 정인이 바로 자기였다니!

장무기는 고개를 비스듬히 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얼굴이 부어서 옛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형,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옛날의 그 모습과 여전했다.

옆에 있던 멸절사태가 냉랭한 소리로 입을 열었다.

"금화파파 그 사람은 마교와 앙숙지간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금화파파도 사실 정파 인물이라고는 할 수 없지.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사정으로는 더 이상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돼. 그러니 이 애를 잠시 붙잡아 두기만 하자."

은이정이 입을 열었다.

"음 그랬었군요. 아가씨가 무기에게 그런 고마운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군요. 무기는 너무 복이 없는 녀석이야. 며칠 전 연환장(蓮環莊)의 장수 무열을 만났었는데, 무기가 이미 오년 전에 만장(萬丈)이나 되는 깊은 계곡 위에서 그만 실족을 하고 떨어져 죽었다는 거야. 시체를 찾아 내지도 못했다더군. 나와 무기의 부

친은 친형제나 다름없이 지냈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지, 그의 하나뿐인 핏줄마저도 남겨 주지않다니."

주아는 그 말에 그만 기절하고 쓰러져 버렸다. 주지약이 잽싸게 그녀를 부축하여 가슴을 주물러 주자 주아는 천천히 깨어났다.

은이정, 주아 모두가 자기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본 장무기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러면서 주지약을 쳐다보니, 주지약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주지약은 주아가 왜 장무기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다. 장무기는 몇 년 동안 얼굴이나 체구 등 변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자기가 먼저 한수(漢水)의 배 안에서의 일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주지약도 사실 그를 알아 보지 못했었을 것이다.

주아는 분개하여 이를 갈며 물었다.

"은육협님, 장무기를 죽인 자가 도대체 어떤 자입니까?"

"무열에 의하면 누가 살해한 것이 아니라, 무기 자신이 실수하여 계곡 밑으로 떨어졌다더군. 무열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는데, 무열의 의형제 주장령도 그 때 같이 떨어져 죽었다네."

그 말을 들은 주아는 긴 탄식을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 아가씨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주아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갑자기 모래 위에 엎어져 눈물을 쏟으며 방성대곡을 하는 것이었다.

은이정은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아가씨,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무기가 계곡에 떨어져 죽지 않았다 해도 이미 온몸에 독이 퍼져 살아 있지는 못했을거요. 오히려 오랫 동안 고통을 받지 않고 죽은 것이 더 다행이 아니요?"

멸절사태는 갑자기 말했다.

"장무기, 그런 잡놈은 일찍 죽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야. 그렇지

않고 살았다면 분명 세상에 해를 끼칠 화근이 됐을 것이야."

그 말에 주아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이 늙은 중대가리가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아미 제자들은 주아가 감히 사존을 모욕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 몇 명은 벌써 병기를 그녀의 가슴과 등에 갖다대고 있었다. 주아는 조금도 겁은 내는 기색도 없이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이 늙은 여자 중대가리야. 장무기의 부친은 이 은육협님의 사형이시다. 그 분의 협기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말을 하다니!"

멸절사태는 그저 냉소를 지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현사태가 입을 열었다.

"말 조심하지 못하겠느냐! 장무기의 부친께선 물론 명문정파의 제자이시지만, 그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느냐? 마교의 요녀가 난 자식이 잡놈이 아니구 뭣이냐?"

"그의 어머니가 누군데 마교의 요녀라니?"

그 물음에 아미파 제자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주지약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은이정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장무기는 얼굴이 빨개지며 눈물이 글썽글썽해졌다. 그는 자기의 신분을 꼭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벌떡 일어나 어머님을 위해 변명을 했었을 것이다.

아미파 제자들 중 정현사태는 매우 중후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그는 주아를 보며 입을 열었다.

"장오협의 부인이며 장무기의 어머니는 바로 천응교 교주 은천정의 딸이야. 이름은 은소소라고 하지."

"아!"

하고 주아는 탄식을 하며 안색이 크게 변하였다.

"장오협께서 바로 그 요녀와 결혼했기 때문에 패가망신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가 무당산에서 자살을 하게 된 거지.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가씨는 어째서 그걸 모르고 있었지?"

"저는 멀리 영사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중원 무림의 일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 사부님께 무례를 저질렀으니, 어서사죄해라!"

정현이 큰 소리로 말했다.

주아는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물었다.

"그럼 은소소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때 장오협과 같이 자살을 했네."

정허가 대답해 주었다.

그 말에 주아는 몸을 부르르 떨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의 어머니마저도 자살을 했습니까?"

그 물음에 정현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왜 은소소와 아는 사이냐?"

바로 그 때, 동쪽 하늘에 파란 불꽃이 높이 치솟았다.

"앗! 내 조카 청서(靑書)가 포위당했군."

은이정은 멸절사태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아미파 제자들에게 읍을 하고 불꽃이 보이는 곳을 향해 달려갔다. 정현이 그의 뒤를 따라가며 팔을 흔들자 아미파 제자들도 모두 뒤따라 갔다. 그들이 가까이 달려가 보니 또 세 사람이 한 사람을 협공하고 있는 것이었다. 세 사람은 모두 밀짚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차림새는 모두 하인 같았다. 그들은 단칼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하인 차림새였지만 그 악랄한 수법만큼은 절대 일류 고수 못지않은 듯 싶었다. 은이정에게 당한 세 도인보다는 무공이 훨씬 앞질러 있었다. 세 사람은 한 청년서생(靑年書生)을 포위하고 그의 주위를 맴돌며 공격을 하고 있었다. 그 서생은 이미 열세에 처해 있었지만, 그의 장검은 여전히 예리한 공격을 막으며 조금도 빈틈을 주지 않고 있었다. 싸우고 있는 그들 뒤에는 황포(黃袍)를 입

은 남자 여섯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황포에는 모두 빨간 불꽃이 수놓아 있었다. 물론 그들은 마교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멀리 서서 구경하며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있었다.

은이정과 아미파 제자들이 달려오자 여섯 명 중에서 키가 제일 작고 몸집이 뚱뚱한 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은가 형제들, 이제 다 틀렸어. 빨리 줄행랑이나 치게. 우리가 뒤를 막아 줄 테니!"

"후토기(厚土旗), 너희들이 더 느리지 않느냐? 안가야, 너나 먼저 도망가거라!"

밀짚모자를 쓴 한 명이 대꾸를 했다.

정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

"이놈들, 죽음이 바로 앞에 닥쳐온 것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말싸움을 하다니!"

"사저님, 이 자들은 누굽니까?"

하고 주지약이 물었다.

"밀짚모자를 쓴 자들은 바로 은천정의 하인들이야. 바로 은무복(殷無複), 은무록(殷無綠), 은무수(殷無壽)라고 하는 세 사람이야."

"하인들의 무공이 이렇게 놀랍다니!"

주지약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자들은 원래 흑도(黑道)에서 유명했던 대도(大盜)들이라 보통 사람들이 이니었지. 그리고 황포를 입은 자들은 바로 후토기 밑의 요인들이야. 저 키가 제일 작고 몸집이 작은 자가 아마 장기사 안원(顔垣)인 모양이군. 사부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교 오기장기사(五旗掌旗使)와 천응교 교주는 마교의 교주 자리를 탐내느라 불목을 하고 있다 하셨는데....."

어느새 서생은 이미 위험에 처해 있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서생의 옷 소매자락이 은무수의 칼에 찢겨져 나갔다.

은이정은 잽싸게 장검을 뽑아 은무록을 공격했다. 쨍그랑! 하고 두 사람의 병기가 부딪쳤다. 그러나 은이정의 내공은 얼마나 심후한가! 쨍그랑소리와 동시에 은무록의 칼이 활처럼 휘어져 버린 것이다. 깜짝 놀란 은무록이 잽싸게 뒤로 세 발짝이나 물러났다. 바로 그 때 주아가 뛰쳐나가 오른손 중지(中指)로 은무록의 목덜미를 찌르고 잽싸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은무록의 무공도 실은 보통이 아니었다. 그러나 은이정과 서로 내공을 부딪치고 나서 그 충격에 뒤로 물러나 휘청거리고 있는 이때, 갑자기 주아의 일지공(一指功)을 받자 그만 심한 고통을 못이겨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은무복, 은무수 두 사람은 크게 당황해하며 청년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잽싸게 은무록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그러나 은무록은 여전히 몸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비틀거리며 입에서 거품을 토했다.심한 중상을 입은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은 주아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경악의 눈빛을 보였다.

"아니, 세째 아가씨였군."

"흥!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미파 제자들은 두 사람이 주아를 절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싸움은 커녕 은무록을 팔에 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달아나는 것이었다. 이 뜻밖의 장면에 모두는 입을 딱 벌리고 그저 의아해 할 뿐이었다.

이때 황포를 입은 그 땅딸보가 갑자기 손을 쳐들자, 그의 손엔 큰 황색 깃발이 펄럭였다. 그러자 나머지 다섯 명도 일제히 황색 깃발을 꺼내 휘둘렀다. 여섯 명이긴 하지만 그들이 휘두르는 깃발에서 펄럭이는 바람소리와 그들의 위세는 당당했다. 그들은 천천히 복쪽 방향으로 퇴각을 했다.

아미파 일행은 그들의 이상한 기진(旗陣)에 어안이 벙벙했다. 그러자 남자 제자 두 명이 용기를 내어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은이정이 재빨리 움직여 어느새 두 사람의 앞을 가로 막았다. 그들은 갑자기 은이정의 가로막음에 밀려 뒤로 물러서며 얼굴을 붉힌 채 정현사태를 쳐다보았다.

"두 사제는 즉시 돌아오거라! 은육협께서 호의로 그러시는 것이야. 후토기를 쫓아선 안 돼."

은이정은 미안해 하며 사정을 설명했다.

"며칠 전, 저와 막칠제(莫七弟)가 열화기를 뒤쫓다 크게 당했습니다. 막칠제는 눈썹과 머리카락을 반이나 태웠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옷소매를 걷어 올려 보였다. 그의 팔뚝은 온통 시뻘겋게 데어 있었다. 두 남자 제자들은 그것을 보자 질겁을 했다.

이때 멸절사태는 싸늘한 눈초리로 주아를 노려보며 물었다.

"네가 조금 전에 은무록을 암습한 지공이 바로 천주만독수(天蛛萬毒手)렸다!"

"아직 완전히 연마하지는 못했는걸요."

"그래, 완전히 연마했었다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그런데 왜 그자를 해치려고 했지?"

"흥, 오히려 당장에 죽이지 못한 게 유감이에요."

"어째서?"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사사로운 일이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주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멸절사태의 몸이 꿈틀한 듯 싶더니 어느새 정현의 검을 빼앗아 휘둘렀다. 주아는 잽싸게 뒤로 피하긴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과 같았다. 멸절사태는 주아의 오른손 중지를 자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주아는 부러진 손목이 다 낫지 않았고, 거기다 천주만독수를 아직 다 익히지 못해 은무록을 공격할 때 손가락에 강철로 만든 골무를 끼었던 것이다. 멸절사태가 의천검을 휘두른 것이 아니고 보통 무쇠검이었기 때문에 주아의 손가락이 잘려나

갈 리가 없었던 것이다.

멸절사태는 검을 정현에게 던져 주며 코웃음을 쳤다.

"흥, 이번에 너무 운이 좋았다. 다음에 또 이런 사악한 무공을 쓸 땐 네 손은 남아 있지 않을 거야."

그런 악독하고 잔인한 무공은 무가의 금기인 터라 은이정도 천주만독수라는 말에 이맛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녀가 자기를 도우려고 한 것인 것 같았고, 또한 죽은 자기 조카에 대한 연모의 정이 있어 멸절사태가 다시 그녀에게 출수(出手)를 할까 봐 걱정이 되었다.

"멸절 사숙님, 이 어린 것이 무공을 잘못 배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좋은 스승을 만나 정통 무공을 배우도록 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음! 혹시 아마파에서....."

은이정은 아미파에서 제자로 거둬들인다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조금 전에 이 철없는 주아가 멸절사태를 향해, 늙은 중대가리라고 욕설을 했기 때문에, 은이정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다시 서생을 부르더니 말을 이었다.

"청서야, 어서 사태님과 여러 사백, 사숙에게 인사드려라."

서생은 성큼 다가와 멸절사태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나서 정현에게 절을 하자 모두는 사양을 하며 같은 예로 답례했다.

장삼봉의 나이가 이미 백 세가 넘지 않았는가. 나이로 따지면 장삼봉은 멸절사태보다 몇 대 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은이정이 멸절사태의 제자 기효부와 약혼을 한 적이 있어 멸절사태보다 항렬이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장삼봉과 아미파 조사 곽양과 같은 항렬이라고 할 땐, 오히려 은이정이 멸절사태의 사숙뻘이 될 수 있었다. 다행히 무당과 아마파는 서로 문호가 달라 배분을 따지지 않고 나에 따라 적당히 칭호해 온 것이다. 그러니, 정현과 여

러 제자들이 서생의 칭호에 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미파 제자들은 조금 전에 서생이 세 사람에게 협공당하는 것을 보았다. 열세에 몰렸으면서도 초식이 정기하고 법도가 어긋남이 없으며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보고 정말 명문 정파의 자재다운 풍범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가까이서 대하고 보니 인물 또한 준수하고 영준한 소년이었다. 어딘가 모르게 대장부다운 풍모가 풍기고 누구라도 그에게 제압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이 애는 저의 대사형님의 외아들입니다. 이름은 청서(靑書)라고 합니다."

소개를 하고 나자 정현이 감탄을 하듯이 말했다.

"근래에 옥면맹상(玉面孟嘗)의 협명이 강호에 자자하더니,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큰 행운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소근거리며 그를 칭찬하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주아는 곁에 있는 장무기에게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은 오빠보다 더잘 생겼는데요.....!"

"물론. 그걸 말이라고 하오?"

"질투가 나세요?"

"내가 무슨 질투를 한단 말이요?"

"저 사람이 아무래도 오빠가 좋아하는 주 소저를 마음에 둔 모양인데, 질투나지 않으세요?"

장무기가 송청서를 슬쩍 쳐다보니, 과연 그는 주아 말대로 주지약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장무기는 관심이 없는 듯이 다시 눈길을 돌렸다. 장무기는 접곡에서 자기를 완력으로 영사도로 끌고가려고 한 아리가 바로 주아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주아는 완력으로 자기를 끌고가려고 해 끝내 그녀의 손을 물어 뜯었지만, 그녀는 아직까지도 자기를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알게 된 장무기는 크게 감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서야, 우린 이제 그만 떠나자."

"네, 사숙님. 그런데 공동파가 오늘 정오까지 이 부근에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니 혹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게 아닐까요?"

"무척 걱정이 되는구나."

"사숙님, 차라리 아미파와 같이 서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괜찮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멸절사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전부터 장삼봉 진인은 이미 속무에서 손을 떼고 실은 송원교가 장문직을 맡아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아마 제 삼대 장문은 이 송소협이 이을 것이 분명해. 그래서 은이정이 사숙이면서도 조카의 말에 순순히 응하는군. 정말 훌륭한 집안이야.'

일행이 서쪽으로 약 십 사오 리 길을 가자 눈앞에 모래언덕이 보였다. 정현사태는 송청서가 빠른 걸음으로 모래언덕으로 뛰어올라가자 얼른 제자 두 명을 송청서의 뒤를 따르게 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미파가 무당파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모래언덕 위로 올라간 세 사람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언덕 아래 서쪽에 칠, 팔 구의 시체가 널려 있었던 것이다. 일행이 세 사람의 외침을 듣고 달려올라가 보니, 시체들의 몰골이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한결같이 골이 깨져 터져 나오지 않으면 갈비뼈가 으스러져 가슴이 움푹 패여 있었다. 검이나 칼에 당한 것이 아니라 육중한 목곤(木棍)에 당한 것이 한눈에도 분명했다. 견문이 넓은 은이정이 그들의 차림새를 보곤 신분을 알아냈다.

"강서성(江西省)의 파양방(播陽幇)이 전멸했군요. 시체를 보니, 마교의 거목기에 당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멸절사태는 기분이 언짢은 듯 눈살을 찌푸렸다.

"파양방도 여기에 오다니, 귀파에서 초청한 겁니까?"

"아닙니다. 파양방의 유방주는 공동파의 기명제자(汽名弟子)입니다. 그래서 육대문파에서 광명정을 토벌하러 나선다는 말을 듣고 사문을 위해 자진해서 온 것일 겁니다."

무림의 명문정파에서는 사실 다른 방회(幇會)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멸절사태는 그들과 어울리기 싫어서였다.

아미파 일행은 파양방 시체들을 묻고 모래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일행이 막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서쪽 맨 끝에 있는 무덤에서 팍!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가운데가 갈라지며 무덤 속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며 남자 제자 한 명을 낚아채고 쏜살같이 달아나는 것이었다. 이 광경에 아미파 제자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였고 여제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멸절사태, 은이정, 송청서, 정현사태 네 사람은 모래를 박차고 그의 뒤를 쫓아나섰다. 아미파 제자들은 한참 뒤에서야 그 자가 바로 청익복왕 위일소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청익복왕 위일소는 파양방의 옷을 입고 시체 속에 섞여 호흡을 멈추고 있다가, 아미파 제자들이 시체를 모두 매장하고 잠깐 방심을 하는 사이에 모래 무덤을 박차고 나온 것이었다.

장무기, 은이정, 송청서, 정현 네 사람은 처음엔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렸으나 점점 경공의 강과 약이 나타나 반 바퀴를 돌아올 땐 두 패로 갈라지게 됐다. 몰론 멸절사태와 은이정이 앞장서게 됐고, 송청서와 정현사태가 뒤를 따라가게 됐다.

청익복왕의 경공술을 과히 천하무쌍이라 할 수 있었다. 그는 무거운 남자의 몸뚱아리를 안고 뛰었지만 멸절사태 일행은 그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 위일소는 멀리 달아나지 않고 원을 그리며 뛰고 있었다. 두 번째 원을 그리고 아미파 제자들에게 가까

이 접근했을 때, 송청서가 갑자기 추적에서 이탈하고 멈춰서며 외쳤다.

"조영주(趙靈珠) 사숙은 패금의(貝錦儀) 사숙과 같이 팔괘(八卦) 중의 이위 방향에 가 서시요! 그리고 정민군 사숙과 이명하 사숙 두 분께선 진위를 차단하십시오!"

송청서가 소리를 외치자 삽시간에 아미파 제자 삼십여 명은 팔괘진을 쳤다. 아미파 제자들은 잠시 지휘자를 잃고 있다가 송청서의 위엄 있는 명령을 듣자 자신도 모르게 귀신에 홀린 듯이 그의 명령에 순순히 응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위일소느 더 이상 원을 그리며 달릴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날카로운 웃음을 웃어 젖히더니 안고 있던 남자를 공중으로 내팽기치고 쏜살같이 달아났다. 멸절사태가 잽사게 공중에서 떨어지는 제자를 받자, 멀리서 청익복왕 위일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아미파에 그런 인재가 있다니, 멸절사태도 알아줘야겠군."

그의 감탄은 몰론 송청서를 두고 한 것이다.

멸절사태는 안고 있던 제자를 본 순간, 그만 얼굴이 험해졌다. 아직도 목덜미에서는 선혈이 뿜어졌고 이빨자국 두 개가 또렷이 나 있었다. 숨은 이미 끊겨 있었다. 무도는 그를 둘러싸며 침울한 표정들을 지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은이정이 입을 열었다.

"소문에 청익복왕은 한 번 무공을 시전하고 난 후엔 꼭 산 사람의 뜨거운 피를 빨아 먹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과연 소문대로군. 이 사제께서 희생당하다니 정말 애석하군."

멸절사태는 부끄러움과 분통을 느꼈다. 자신이 장문직을 이어받은 후 이렇게 큰 좌절을 당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연거푸 두 제자가 피를 빨리며 죽어 갔는데도 아직 상대의 얼굴조차 자

세히 보지를 못했다니! 그는 한참 동안 멍청하게 허공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 송청서에게 물었다.

"송소협은 어떻게 내 제자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소?"

"조금 전에 정현사숙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 한 번만 듣고서도 모두 기억하고 있다니, 우리 아미파엔 언제 이런 인재가 나타날까!"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야영을 했다. 송청사가 갑자기 멸절사태에게 걸어가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다.

"선배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후배가 한 가지 청할 일이 있습니다."

"법도에 어긋난 것이라면 아예 부탁하지 말게나."

"네, 죄송합니다."

송청서는 다시 공손히 인사드리고 조용히 은이정 옆으로 돌아왔다. 아미파 제자들은 송청서가 사부님에게 청을 드렸다가 단 한마디에 거절당하자 모두들 무슨 부탁을 드렸었는지 몹시 궁금했다.

정민군이 참지 못하고 궁금중을 풀기 위해 송청서의 곁으로 갔다.

"송소형, 우리 사부님께 무슨 부탁을 드렸었습니까?"

"저의 부친께서 검법을 전수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당대의 검법에 있어서 일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분문의 사조(師祖)님이고, 그 다음이 바로 아미파의 멸절사태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당과 아미 양파의 검법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본문의 수휘오현(手揮五弦) 초식은 검끝에 경력이 너무 들어가 아미파의 경라소선(經羅小扇)보다는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배는 사태님에게 이번 기회에 한 번 보여 주셨으면....."

그러면서 그는 장검을 뽑아 자기가 아는 대로 경라소선의 초식

을 흉내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민군은 송청서의 흉내가 우습다는듯이 그의 손에서 장검을 받아들고 한바탕 시연해 보였다.

그러자 송청서는 탄복했다.

"저의 부친께서 항상 자신은 운이 없어 귀파 존사(尊師)님의 검술을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을 무척 애석해 하셨는데, 오늘 밤 후배는 정사숙의 경라소선을 보고 안목을 넓혔으니 정말 큰 영광입니다. 조금 전에 후배가 품고 있던 검술의 의혹을 풀기 위해 멸절사태님께 몇 수 가르침을 받을까 하고 청을 드렸었던 것인데, 생각해 보니 후배는 귀파의 제자가 아닌데 처음부터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한 제가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멸절사태는 멀찌감치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말을 모두 듣고 있었다. 멸절사태는 무당파의 대제자이자 앞으로 장문인에 오를 송원교가 자기를 검술에 있어서 제 이 인(第二人)자라고 칭찬한 말에 매우 기분이 좋았다. 장삼봉 하면 당대 무술의 태산북두(泰山北斗)이며 모든 무림의 존경을 받는 자라, 멸절사태는 감히 고금에 보기 드문 무학의 대종사를 능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런데 무당의 대제자가 검술에 있어서 장삼봉 외엔 자기를 꼽다니, 그녀는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조금 전에 정민군이 시연한 경라소선은 경력이 삼사성(三四成)의 경지밖에 이르지 못해 속으로 중얼거렸다.

'천하에 명성을 떨치는 아미 검법이 고작 그 정도더냐?'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정민군 앞으로 걸어가 아무 말 없이 정민군의 장검을 빼앗아 들고는, 자세를 가다듬고 서서히 검을 뻗으며 휘둘렀다. 좌에서 우로, 다시 우에서 좌로 그는 연거푸 아홉 번을 휘둘려 댔다. 그의 동작은 기이할 만큼 빨랐지만, 그러나 한 동작 한 동작을 모두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정말 훌륭하고 오묘한 검법이로구나!"

은이정이 탄성을 질렀다.

송청서는 숨을 죽이고 정신을 집중시켜 멸절사태의 검법을 유심히 살펴보며 내심 정말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가 멸절사태에게 잘 보일 셈으로 슬쩍 아미파의 검법을 치켜세운 것인데, 멸절사태가 직접 시전(施展)해 보인 것이 천만 뜻밖이었다.

송청서는 진정 그의 가르침을 바랬다. 그녀는 송청서가 묻는 대로 서슴치 않고 자세히 설명해 주며 초식을 직접 시전해 보였다. 자신의 문하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보다도 더 열성적이었다. 송청서의 무학이 높고 총명한 터라 그가 묻는 질문은 모두 신법이나 검법에 있어서 모두 요점뿐이었다. 아미파 제자들은 양쪽으로 나눠 둘러앉아, 사부님이 펼치는 하나같이 정교하고 오묘한 검법을 구경하고 있었다. 사실 어떤 제자는 십여 년 간을 따라다녔지만 스승의 신기(神技)를 보긴 이번이 처음이었다.

장무기와 주아는 아미파 제자들이 둘러앉은 울타리 밖에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미파의 검법을 훔쳐 보고 싶지 않았다. 주아는 갑자기 장무기에게 엉뚱한 말을 건넸다.

"오빠, 내가 만약 청익복왕과 같은 무공을 익힌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그 따위 사악한 무공을 배워서 뭐 할려구? 은육협의 말을 못 들었소? 청익복왕은 무공을 한 차례 쓰고 날 때마다 산 사람의 피를 빨아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사람이오? 귀신이지."

"그의 무공이 높아 아미파 제자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의 무공이 보잘것 없었다면 벌써 저 늙은 여승에게 잡혀 죽었을 거예요. 다만 피를 빨려 죽지 않을 뿐이지 죽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명문정파나 사파(邪派)나 사람 죽이긴 마찬가지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장무기는 잠시 대꾸할 말을 잊었다. 순간 갑자기 아미파 제자들 울타리 속에서 청광(靑光)이 번뜩이며 장검 한 자루가 어둠에 싸인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다. 그것은 송청서와 멸절사태가 서로 대련을 하면서 송청서의 검이 멸절사태의 흑소영호(黑沼靈狐)의 초식에 걸려 공중으로 튕겨져나간 것이었다.

흑소영호 초식은 아미파 조사(祖師), 곽양(郭襄)이 왕년에 신조대협 양과와 같이 흑소에 가서 영호를 잡던 때를 기념하기 위해 창안해 낸 검법이었다. 모두들 공중으로 튕겨져나간 검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동북방 십여 리 떨어진 곳에서 황색 불꽃이 치솟아 오르는 것이었다.

"아, 공동파에 위험이 닥쳤군! 빨리 도우러 갑시다!"

은이정이 외쳤다.

이것은 육대문파에서 이번 서역까지 와 마교를 섬멸하는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 여섯 갈래의 방향으로 나뉘어 오면서, 서로의 연락 방법을 취하기 위하여 각파에 따라 여섯 가지 불꽃을 정했던 것이다. 그 중 황색 불꽃은 공동파의 신호였다. 모두 불꽃의 방향으로 달려갔다. 가까이 접근할수록 비명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가까이 접근한 모두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차마 눈뜨고 볼수없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차라리 도살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칼날이 번뜩이며 모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악전 고투를 벌이고 있었다.

----- 제 3 권 6 장 끝 -----

의천도룡기(倚天屠龍記) 제 3 권 끝